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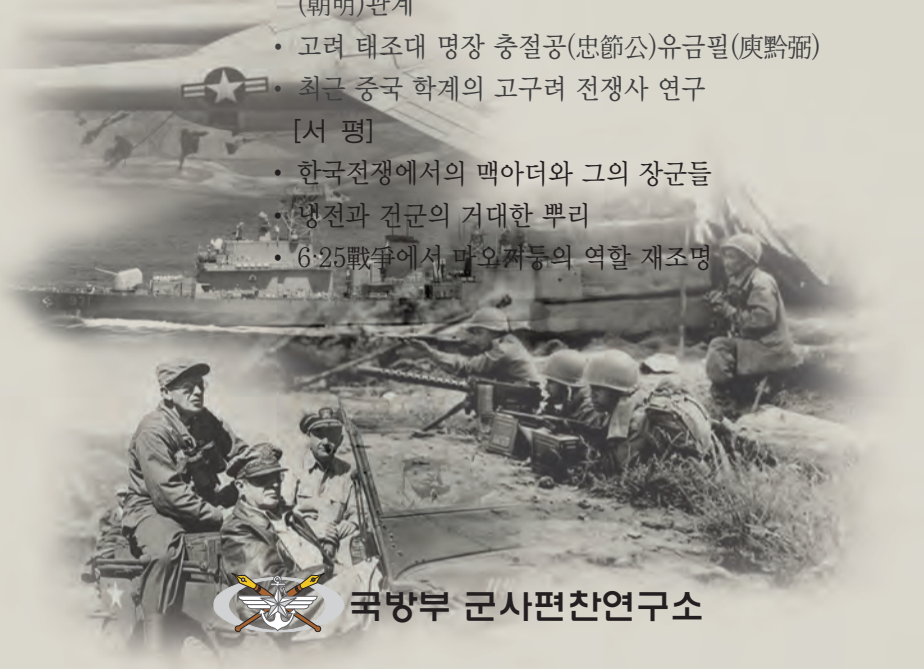
Military History

2017. 3. 제102호

-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군인과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사례
-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미 공군 다이너소어(Dyna-Soar)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
-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 청일전쟁 전황(戰況)과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정책
- 홍무연간(洪武年間) 명(明)의 요동경략(遼東經略)과 조·명(朝明)관계
-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忠節公)유금필(庾黔弼)
-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서 평]

-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 냉전과 건군의 거대한 뿌리
- 6·25戰爭에서 마오쩌둥의 역할 재조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02號
2017.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7. 3. 제102호

1	▶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군인과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사례	최지은
37	▶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미 공군 다이너소어(Dyna-Soar)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연구	신경은 엄정식
63	▶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	김상범
115	▶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김선호
151	▶ 청일전쟁 전황(戰況)과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정책	석화정
187	▶ 홍무연간(洪武年間) 명(明)의 요동경략(遼東經略)과 조·명(朝明)관계	김경록
227	▶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신성재

Military History

軍史

Contents | 2017. 3. 제102호

259 ▶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정동민

[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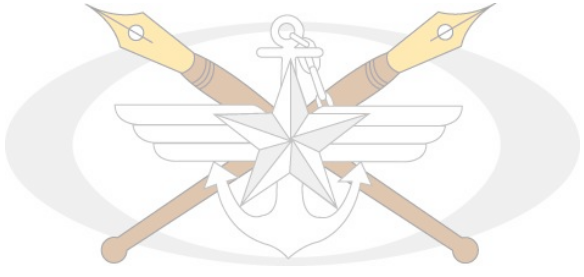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295 ▶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Harold E. Raugh, Jr.

299 ▶ 냉전과 건군의 거대한 뿌리 김선호

313 ▶ 6·25戰爭에서 마오쩌둥의 역할 재조명 최윤철

부 록

1. 연구소 동정 …… 333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 335
3. 신간 도서 소개 …… 337
4. 『軍史』誌 投稿案內 …… 340
5. 연구윤리예규 …… 3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군인과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사례

최지은*

1. 총력전과 여성노동력 활용
2.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 군인 (1914년 7월~1917년 4월)
3.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4.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글은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을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여성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였는가를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쟁의 성격이 변하면서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 수행노력(war effort)에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 진입한 것은 노동 분야에 한정되지 않았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고, 1914년부터 여성 다수가 개별적으로 군문에 들어섰다. 러시아 여성의 군사참여는 2월 혁명 이후 더욱 발전하면서 1917년 5월 말에 세계 최초의 여성전투부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편성되기에 이른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이 특이한 전투부대는 남성병사의 사기를 북돋는 임무를 맡았으나 무단이탈과 불복종으로 붕괴되고 있던 러시아 군대의 형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이 여성부대는 임무 실패와 정체성 모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해체되었으나, 이후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기회를 러시아 사회에 제공하였다.

국내 학계에는 여성의 군사 참여와 특히 러시아 여성 군인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1] 이 연구들은 러시아 여성 군인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적, 사회적, 사상적 흐름에서 여성 군인이라는 현상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기, 즉 최초의 총력전을 치른 시기의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 제2차 세계대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학계의 경향과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일 것이다. 물론,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규모를 볼 때 이들이 러시아 군대나 러시아 여성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결사대대는 최초의 여성전투 부대로 총력전 시대 여성의 군사 참여를 최초로 현실화한 사례이자 이후 여성과 정부 당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이시연, 「나폴레옹전재 시대 러시아의 '여성' 기병장교 두로바」, 『역사학보』, 204호(2009년), 269~313쪽; 류한수, 「제2차 세계대전기 여군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 연구」, 『서양사연구』, 제35편(2006년 12월), 131~159쪽; 이종훈, 「스탈린주의의 근대성과 '밤의 마녀들':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의 에토스와 여성 야간 폭격연대 부대원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7호(2010년), 309~338쪽. 또한, 러시아 여성 이외에 여성 군사 참여를 다룬 연구로는 이창신, 「남북 전쟁의 여성사적 접근: 남부 지방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제8호(1998년), 163~186쪽; 안상준, 「중세 유럽 사회에서 여성의 전쟁 참여: 여성의 십자군 원정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제18호(2006년 9월), 33~63쪽을 보라.

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먼저 총력전 시대에 여성이 노동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 상황과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개괄한 후, 러시아 여성의 군사참여 사례를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집단적 군사참여의 사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를 다룬 장에서는 부대 편성배경과 작동방식 그리고 실전경험을 논함으로써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러시아의 전제정과 임시정부 모두 여성을 동원(mobilization)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일러둔다.

1. 총력전과 여성노동력 활용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본격적인 총력전(Totaler Krieg; total war) 시대가 시작되었다. 19세기의 전쟁이 제한된 장소에서 비교적 단기간 한 군대와 다른 군대가 맞붙어 군사력을 겨루는 전쟁이었다면, 20세기의 전쟁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떠나 한 국민국가와 다른 국민국가가 총동원되어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발전을 거듭한 과학기술이 프랑스혁명으로 탄생한 여러 사상과 결합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변했다.[2)]

먼저 물적 측면을 보자면, 무기의 개량으로 전투는 대량 살육전 형태를 보였다. 특히 기관총과 가시 철사의 도움으로 방자(防者)는 '돌

2) Michael Howard, "Total War: Some Concluding Reflections",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7*(eds.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and Bernd Grein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376~79.

격 앞으로'라는 구호에 따라 밀고 들어오는 적군을 효율적으로 몰살할 수 있었다. 무기의 화력뿐 아니라 사거리도 높아져 전장이 확대되었고, 이전 전쟁과 비교해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었다. 공간 제약의 해소는 동원에도 해당되었는데, 이제 정부는 더 먼 곳에서 병력과 군수물자를 끌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 깊숙한 곳을 연결해주는 물줄기와 같았던 철도망과 전신이 이를 현실화했다. 만약 철도가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을 전방에 보내지 않았다면 전쟁의 대량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3] 군대 병력 자체도 대량화 되었는데, 국민국가가 발전하면서 직업군인이 아닌 국민 그 자신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유럽에 징병제가 도입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쟁 자체의 규모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는 군대는 "국민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신민"이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시민으로서 병사들은 군복무를 통해 그리고 후방에 남은 민간인들은 전시 산업복무를 통해 시민적 의무를 이행했다.[4]

그러나 1914년 8월에 전선으로 향하는 유럽 각국의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전국 정부들도 이 전쟁이 대전쟁(Great War)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16세기부터 18세기 내내 전쟁을 거듭하며 근대국가로 나아가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정치적 이유에서 유럽 대륙 내 무력충돌을 줄였던 시기가 바로 19세기였다. 비록 어느 근대국가도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드는(Wars make nations, nations make wars)" 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군사적 폭력은 유럽 대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Martin van Creveld, "Technology and War I: to 1945", *The Oxford History of Modern War*(ed., Charles Townshe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215~217.

4) Roger Chickering, Stig Föster, "Are We There Yet?: World War II and the Theory of Total Wa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7*(eds.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and Bernd Grein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4.

외부로 향했고 그 결과 유럽인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한 세기를 보낼 수 있었다.[5] 19세기 동안 유럽대륙에서는 단 세 번의 전쟁만 일어났는데, 유럽 대륙 중심에서 발생한 프로이센-오스트리아전쟁(1866년)과 프로이센-프랑스전쟁(1870년~1871년)은 비교적 빨리 종전되었으며, 러시아와 오스만튀르크 연합군이 격돌한 크림전쟁(1853년~1856년)은 유럽 외곽에서 치러졌다.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이 이 세 전쟁에 적용되었음에도 전쟁 기간과 전장 위치 때문에 당대인은 전쟁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6] 둘째, 미국 내전(1861년~1865년)에서 대규모로 군대가 동원되고 산업 생산 및 보급품 수송이 전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어느 한 쪽이 참패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나 유럽인들은 이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를 단순히 미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치부했다.[7] 미국에 시찰을 간 유럽인 관찰자는 미국 군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북부나 남부 어느 한 편에 동조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파견된 직업군인들은 대개 포병장교나 공병장교였기에 더 일반적인 문제, 가령 징집과 통신 및 보급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다.[8]

따라서 1914년에 "8월의 포성"이 울렸을 때 각 교전국 정부들은 결전(decisive battle)으로 승패를 단시간 내에 결정지으리라고 생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p.70~76.

6) 크림전쟁에서 장전을 쉽게 하고 안정된 탄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개량된 신형탄환인 미니에 탄환이 사용되었다. 또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엎드려 쏴'를 가능하게 한 드라이저총(needle gun), 즉 후장식 소총으로 전쟁의 우위를 점했으며,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는 지멘스-마르틴 방식으로 개량된 소형 후장식 강선포로 집중 포화를 퍼부으며 두 달 만에 파리를 제압했다.

7) 당대 유럽인들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는 프로이센의 전쟁 방식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본받고자 했으나, 교착상태를 보인 크림전쟁과 미국내전의 의미는 등한시했다. William H. McNeil(신미원 역),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년, 338쪽.

8) Jay Luvaas, *The Military Legacy of the Civil War: The European Inheritance*(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88), pp.12~13.

했다. 또한 단기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독일의 슐리펜 계획처럼 작전은 존재했을지언정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계획은 어느 교전국에도 없었다. 어느 나라도 대량 징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군수 산업과 전체 산업 생산에 가져오는 부담을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1914년 가을부터 전쟁은 전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후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2의 전선이 되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적 측면에서 후방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화기의 사거리가 높아지면서 후방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만큼 민간인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교전국 정부는 적군의 후방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측면은 총력전의 성격 그 자체에 있었다. 개별 전투에서 적군을 압도하더라도 적국의 전쟁 수행 기구(war machine)를 파괴하지 못하면 전쟁은 계속될 터였다. 전쟁 수행 기구를 작동시키는 후방은 전방의 군인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핵심 기지와 같았다. 경제 분야에 동원되어 간접 전투를 수행하는 후방의 민간인은 산업 '전사'였다. 전방에서 적군을 살상하는 문제만큼 후방의 경제를 군수 생산에 맞추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원을 배분하느냐에 20세기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었다.[9]

따라서 경제 체계 자체가 전쟁에 맞추어 개조되어야 했다. 각 국 정부는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에 1차적으로 자원을 투입했으며, 경제인구가 대규모로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나갔다. 자연스럽게 전선으로 떠난 남성의 자리를 여성이 채우게 되었는데, 교전국 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성 노동력 증가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시 여성 노동력 증가에 관해 특히 주목 할 사안은 이전에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산업분야에 여성이 고용되기 시작했다는

9) John Horne, "Labor and Labor Movements in World War I", *The Great War and the Twentieth Century*(eds., Jay Winter, Geoffrey Parker, and Mary R. Habeck) (New Haven: Yale University, 2000), pp.193~1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점이다. 여성노동자는 피혁산업과 화학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금속산업에도 대거 투입되었다. 여성 노동력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으나 어느 교전국도 늘어난 전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여성과 유소년 고용을 허가해 달라는 기업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10] 전쟁 이전에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서유럽 국가 보다 높았던 러시아에서도 전쟁 동안 여성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1913년과 1917년 사이에 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전체 여성 노동자는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특히 1913년과 1917년을 비교할 때 금속산업은 2.7%에서 20.3%로 목재산업은 1.1%에서 20.7%로 여성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11] 물론 페트로그라드의 사례를 러시아 주요 대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요 산업지대가 유럽러시아 지역에 분포되어있다는 점과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사적으로 동원된 남성 병력의 83%가 유럽러시아인 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러시아 주요 산업도시에서 전시 여성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12]

---

10) 여성 노동력 활용에 반대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 농민을 제외한 다른 계급 여성의 고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프랑스인이 대부분이 모성보호를 이유로 여성의 군수산업 투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됭 전투를 위해 후방에 남아있던 남성이 추가로 징집되자 여성 노동 투입은 불가피했다. 예를 들어, 1914년과 1918년 사이에 영국에서 금속산업 종사 여성노동자는 2.49배 증가했으며,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3.19배 증가했다 Margaret H. Darrow, *French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Oxford: Berg, 2000), p.170, 177; Gail Braybon, *Women Workers in the First World War*(London: Routledge, 1989), pp.45~46; 신행선,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 여성의 전쟁 동원과 역할, 1914-1918」, 『서양사론』 제101호, 한국서양사학회, 2009, 102~107쪽.

11) З. В. Степанов, *рабочие Петрограда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октябрьского вооруженного восстания* (Москва, 1965), стр. 34~35.

12) 1914년에 러시아 제국 전체 인구의 72%가 유럽러시아에 거주했다. Stanislas Kohn, "The Vital Statistics of European Russia during the World War", *The Cost of the War to Russia*(New York: Howard Fertig, 1973), p.13.

여성 노동력의 양적 상승이 반드시 질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성 노동자의 위상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혹자는 전시에 여성 노동력 수요가 증대했기 때문에 이들의 명목임금도 전쟁 이전에 비해 상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수산업에서 일하던 여성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영국과 프랑스의 여성 노동자를 연구한 수잔 그레이즐(Susan R. Grayzel)은 군수공장의 여성 노동자가 다른 여성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13] 반면에 혁명기 전후의 러시아 노동자를 연구한 영국 역사가 스티브 스미스(Steve A. Smith)에 따르면, 페트로그라드의 군수 산업 여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 여성 노동자에 비해 같은 노동 조건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1916년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105루블 이었고, 군수산업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40루블을 받았다. 한편, 직물 산업에 종사하던 반(半)숙련 여성노동자는 한 달에 49.3루블을 받았다. 문제는 이 여성 노동자가 받던 49.3루블이 1914년 7월에 받던 임금의 90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14] 군수산업에 투입된 여성노동자 다수가 신참이 아닌 이직한 노동자였다는 사실과 군수산업에 신체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수산업 여성노동자가 단순히 이 산업에서 일했다고 해서 높은 임금을 보장받지는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약 군수 산업 직종 여성 노동자가 다른 산업의 미숙련 분야 여성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군수산업의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명목 임금보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13) Susan R. Grayzel,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Essex: Pearson, 2002), p.29.
14) Steve A. Smith, *Red Petrograd: Revolution in the Factories, 1917-18*(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3), p.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물가상승은 모든 교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나 러시아에서는 특히 심각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14년과 1915년에는 천천히 그리고 1916년에는 급격히 하락했다. 실질임금 하락은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치명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보통 비숙련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14년에 페트로그라드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50%정도였으며, 여성 노동력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전쟁을 겪으면서 더 커졌다. 1914년에 1.96루블 차이가 나던 것이 1917년 초에 2.34루블로 더 벌어졌다. 금속공장이나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1914년과 1915년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더라도 1916년에 치솟는 생필품 가격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1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여성 노동력 증가가 반드시 여성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의미하지 않았다. 인구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러시아에서 여성 대부분의 삶이 전쟁 동안 더욱 팍팍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여성은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속공장과 화학공장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었다. 직무도 다양해져서, 여성은 전화 교환수, 짐마차꾼, 전차 차장, 트럭 운전사, 우편 집배원, 정비공이 될 수 있었다.[16] 변화는 농촌에서도 일어났다. 1916년에 전체 소작농장 노동력의 72%가 여성이었고, 지주토지 노동력의 58%가 여성이었다.[17] 사실, 전쟁 이전에도 여성 농민의 노동량은 결코 남성 농민에게 뒤지지 않았으며 노동 강도도 비슷했다. 모두가 빈곤한 삶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5) *Ibid.*, pp.47~48.
16) Richard Stites,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281.
17) John L. H. Keep, *The Russian Revolution: A Study in Mass Mobilization*(New York: W.W. Norton & Company), p.32.

을 사는 러시아 농촌에서 여성을 배려한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상 여성농민들은 가사일 뿐만 아니라 곡물 수확과 쟁기질 같이 들판에서 하는 일도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쟁기질 할 곳을 지정하거나 전체 농업 계획을 짜고 경영하는 일은 배타적인 남성의 영역이었다. 이제 전쟁으로 인력이 줄어들자 농촌에서 여성 농민은 남성 농민에게 권위를 부여하던 작업까지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18] 가계를 꾸리고 한 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여성 농민의 모습은 전쟁 이후 생소하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이렇듯 도시와 농촌에서 러시아 노동계급 여성들은 새로운 작업을 맡으면서 부지불식간 전쟁 수행 기구를 돌리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전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이 총력전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주장은 1917년 2월에 혁명이 일어난 뒤에 여성의 전시 노동이 여성 참정권 확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19]

요컨대 총력전의 특성 때문에 러시아 여성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 여성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한 사례는 후방전선에 한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 Alfred G.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Women's Lives, Russia's Women: Accommodation, Resistance, Transformation*(eds, Barbara E. Clements, Barbara A. Engel and Christine D. Worobec)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217.

19) Ann Taylor Allen,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 1914-1918", *Women in Twentieth Century Europe*(NY: Palgrave Macmillan, 2008), p.20.

2.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개별 여성 군인(1914년 7월~1917년 4월)

러시아에서 어떤 직무로든 전방에서 복무하는 여성의 모습은 생경하지 않았다. 혁명 이전에 자비의성모동정회 간호사(сестры милосердия)로 불리던 러시아 여성 종군간호사[20]들은 1914년 이후 양적, 질적 변화를 경험했다. 전쟁 초기부터 각 교전국은 부족한 의무 인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 간호사를 대량으로 모집했고, 러시아의 경우 전(全)러시아젬스트보연맹의 주도로 적십자에 소속되어 전방에서 복무할 간호사를 모집했다.[21] 간호사 복무 지원자는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어야 했다. 일단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성들은 지역 적십자에서 의료 훈련을 받은 후 전방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상류계급과 노동계급을 망라해 다양한 여성들이 전시 간호사 복무를 지원했고 1916년 즈음에 러시아의 간호병력은 25,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22] 전선에서 행하는 의무 복무는 때때로 전투 복무만큼 위험했는데, 이는 간호사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업무만 주어질 수 없던 현실 탓이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는 전선으로부터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동식 야전 병원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간호사들은 위생병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들것 운반부 역할도 맡았고 심지어 무인지대(No Man's Land)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는 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 Joshua A. Sanborn, *Drafting the Nation: Military Conscription and the Formation of a Modern Polity in Tsarist and Soviet Russia, 1905-1925*(Chicago, diss. 1988), pp.402~403.

21) Peter Gatrell, *Russia's First World War: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London: Pearson, 2005), p.41.

22) Christine E. Hallett and Alison S. Fell "Introduction: New Perspectives on First World War Nursing", *First World War Nursing: New Perspetives*(eds., Alison S. Fell and Christine E. Hallett) (NY: Routledge, 2013), p.2.

에도 투입되었다.[23] 따라서 간호사로 복무하던 여성들이 전투원으로 직무를 바꿨던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았다. 개별 여성군인으로 언론에 등장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 간호사로 전선에 온 뒤에 전투원이 되었다. 미국인 여성 저널리스트로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여성군인들을 직접 취재한 레타 도어(Rheta Childe Dorr)에 따르면, 적십자 간호사로 복무하던 한 여성은 "러시아를 위해 여성에게는 남성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것 이상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전투원이 되기도 하였다.[24]

20세기 초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교전국에서 여성의 전투원 복무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금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장을 해서 정체를 속이고 전선에서 복무했던 여성이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종종 발견되고는 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전투원으로 복무했던 여성이 많았고, 당대인들이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동부전선에서 간호사로 복무했던 영국여성 플로렌스 팜버러(Florence Farmborough)는 "여성군인과 소년군인은 러시아 군대에서 특이한 광경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성 군인 몇몇과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25] 팜버러처럼 이미 당대 정기 간행물과 관찰자들이 종종 여성군인의 행적을 전하고는 했는데, 여성군인이라는 소재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에 이들을 다룬 글은 대체로 사회, 정치적 논의보다는 여성 군인의 용맹함이나 신변잡기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군인과 관련해 논쟁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 예를 들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 Laurie S.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Russia's Women Soldiers in World War I and the Revolution*(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26.

24) Rheta Childe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7), p.56

25) Florence Farmborough, *With the Armies of the Tsar: A Nurse at the Russian Front in War and Revolution, 1914-1918*(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0), p.300; Grayzel, *Women and the First World War*, p.137.

여성군인에게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나 또는 여성군인이 적군에게 받을 학대 같은 쟁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26] 그럼에도 정기간행물은 회고록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여성 통보(женсий вестник)』와 『여성의 주장(женское дело)』 및 『여성과 전쟁(женщина и вой на)』 등 여성 및 페미니즘 계열 잡지가 여성군인에 관한 기사를 다수 실었다는 사실은 당시 개별 여성군인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는 않았음을 암시한다.[27] 한편, 이들 언론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역사가들은 이를 통해 개별 여성군인에 관한 대략적인 수치를 이끌어냈다. 역사가 앤 앨리엇 그리즈(Ann Eliot Griese)와 리차드 스타이츠(Richard Stites)의 계산에 따르면 1914년부터 1917년 5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군 복무를 했던 여성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개 남장을 하고 남성 친지의 입영 통지서 또는 의학 진단서를 갖고 입대했기 때문에 언론에 등장한 여성군인들은 주로 부상을 당한 뒤 성정체성이 발각되었던 여성들이었다. 만약 자신의 원래 성정체성이 숨긴 채 전장에서 사망한 여성군인을 고려한다면 개별 여성군인의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28]

그러나 때때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입대를 했던 경우도 존재한다. 비록 러시아 제국군은 여성의 입대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26)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기 페트로그라드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전쟁(Вой на)』의 여성군인 특집호, "Женщины герои на вой не" «Вой на» no. 24 (Петрог рад: 1915)를 보라.

27) 여성 정기간행물은 정치 성향에 따라 여성군인에 관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급진적 페미니즘 저널인 젠스키 베스트닉은 여성군인에 찬성했지만, 상류계급 여성을 위한 저널인 젠스코예 젤로는 여성군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p.220.

28) Ann Eliot Griese and Richard Stites, "Russia: Revolution and War", *Female Soldiers: Combatants or Noncombatant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ed. Nancy Loring Goldman) (Westport: Greenwood, 1982), p.67.

문에 여성은 정식으로 입대할 수 없었고 남장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원칙적으로 제대해야 했음에도 전선의 혼란과 인명 부족 심화로 여성 군인의 복무는 해당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졌다.[29] 게다가 상류계급의 구성원은 자신의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입대하기도 하였다. 예브게니야 샤홉스카야(Евгения М. Шаховская) 백작부인은 비행사 자격증을 소지했던 여성으로 군대에서 현역 비행사로 복무했으며, 하르코프(Харьков)에 살던 한 부유한 여성은 자기가 타던 승용차를 군대에 기부한 뒤에 입대해 정찰대에 배속되었다.[30] 한편,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집단인 카자키(казаки)들은 자신의 부대에 남장을 하지 않은 여성을 받아들이고는 했다. 카자키의 상무적 문화가 남녀 모두가 용감함과 승마술과 전투기술을 익히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 원정에 나선 카자키 남성을 대신해 여성들이 공사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카자키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보다 자유로웠고 공적 영역에 참여할 사회적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카자키 전통으로 인해 카자키 부대는 대체로 여성군인을 쉽게 받아들였고, 카자키 출신 여성들 역시 남성 부대에 수월하게 동화되었다.[31] 몇몇 유명한 카자키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자면, 간호사로 복무하다 예카테리노슬라프(Екатеринослав)에서 자원병으로 입대해 복무했던 쿠반 카자키의 일원, 엘레나 초바(Елена Чоба)는 장검과 단검을 능숙히 다루는 늠름한 기수였다. 또 다른 여성 마르가리타 코콥초바(Маргарита Р. Коковцова)는 자신의 말을 데리고 입대한 카자키의 일원이었다. 승마술이 매우 뛰어났던 코콥초바는 기마 정찰대에서 복무했고 적진을 오가며 소규모 접전을 벌였다.[32] 또 다른 유명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 Maria Botchkereva(as set down by Issac Don Levine), *Yashka: My Life as Peasant, Exile and Soldier*(London: Frederick A. Stokes Company, 1919), p.74.
30) Meyer, "The Impact of World War I on Russian", pp.219~220.
31) Shane O'Rourke, "Women in a Warrior Society: Don Cossack Women, 1860-1914", *Women in Russia and Ukraine*(ed., Rosalind Mars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46~50.

사례는 쿠반 카자키 출신의 마리나 유를로바(Марина Юрлова)이다. 유를로바는 14살에 캅카즈에 있던 한 카자키 연대에 입대했다. 유를로바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입대했지만 이내 전쟁의 참혹함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를로바는 동료 병사들에게 충실했으며 전투에 용맹하게 임한 덕분에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을 두 차례 수여했다.[33]

개별 여성군인으로 가장 이름을 날린 여성은 시베리아 농민 출신의 마리야 보치카료바(Мария Л. Бочкарёва)였다. 보치카료바는 보통의 농민 여성처럼 과중한 노동과 남성 가족의 학대로 비참하게 살던 여성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치카료바는 "전쟁이라는 부글부글 끓는 솥에 그 불길로 세례를 받고 그 용암으로 타버리기를 갈망했"고 입대를 결심했다.[34] 보치카료바는 자신이 살던 마을 근처에 주둔하던 톰스크 제25예비대대를 찾아갔지만, 지휘관은 여성입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이 지휘관은 여성이 입대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황제에게 입대허가를 청원하는 전보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황제는 보치카료바의 입대를 허가하는 답장을 보냈고 이로써 보치카료바는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황제로부터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는 주장은 보치카료바의 회고록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치카료바를 밀착 취재한 레타 도어는 보치카료바의 입대 과정에 관해 간단히 "시베리아 연대의 남성들은 보치카료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했지만, 보치카료바는 입대할 방법을 찾았고 허가를 얻었다"라고 전했다.[35]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보치카료바가 자신의 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 "женщины-герой на вой не" «вой на» №. 24 (Петроград: 1915), стр. 3, 6.
33) Marina Yurlova, *Cossack Girl*(Somerville: Heliograph, Inc., 2010), p.11, 66, 67, 101.
34) Botchkereva, *Yashka*, p.65.
35)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54.

고록에서 극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 황제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구를 지어냈을 가능성이며 둘째, 만약 보치카료바가 황제에게 허가를 받았음에도 도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터뷰 당시 보치카료바가 놓인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즉, 황제는 2월 혁명 이후 억압하는 전제정의 표상이 되었고 보치카료바는 임시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허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보치카료바의 행적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동기로 입대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치카료바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애국심"을 거듭 입대동기로 지목했다. 그러나 보치카료바가 입대 당시 느꼈다고 주장하는 "애국심"에 관해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해야 한다. 먼저, 20세기에 러시아 농민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러시아인이 아닌 자기 지역 주민으로 규정했다.[36] 수도에서 일어난 지식인 계급의 전쟁 지지 시위는 전체 러시아인의 정서를 대표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의 군사사가 조슈아 샌본(Joshua Sanborn)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징집 거부 시위가 때때로 일어났으며 어떤 시위는 대규모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37] 농민병사 대부분은 체념에 가까운 감정으로 입대를 받아들였고 전쟁을 수행하는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맹의 여성농민인 보치카료바가 근대적 애국심으로 입대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전쟁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도 전제정의 중앙권력이 효율적으로 행사되는 지역은 수도와 도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파간다는 농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38] 실제로 보치카료바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6) 대표적으로 Aleksei A. Brusilov, *A Soldier's Notebook, 1914-1918*(London: 1930), p.37, 39; Victor M. Chernov, *The Great Russian Revolution*(Yale University Press, 1936), pp.155~156을 보라.

37) Sanborn, *Drafting the Nation*, p.78.

취재한 도어와 또 다른 전쟁 특파원 베시 비티(Bessie Beatty)는 그녀의 입대 동기로 애국심이 아닌 개인적 동기를 지목했다. 이들은 보치카료바를 직접 취재했음에도 보치카료바 자신이 회고록에 쓴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했다.[3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치카료바의 "애국심"은 차르에게 바치는 정교적(orthodox) 충성과 공동체에 느끼는 원초적 애정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40] 물론 영국의 역사가 후베르투스 얀(Hubertus F. Jahn)이 지적했듯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애국심은 원초적 단계에서 근대적 단계로 바뀔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반드시 단선적이거나 뚜렷하지는 않다.[41] 그럼에도 보치카료바가 입대 전에 느낀 "애국심"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고 혁명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경험을 한 뒤 이 회고록을 쓸 당시에 느낀 애국심으로 발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분명한 사실은 입대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보치카료바가 입대 자체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황제의 입대 허락은 보치카료바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보치카료바가 남성 부대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증서 노릇을 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보치카료바 자신도 군대에 동화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위험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동료들과 장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 "바바(бабa)"[42]의 입대를 비웃던 동료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인지대에 들어가 부상병을 구출해 나오는 보치카료바의 모습에 감탄했다.[43]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 Keep, *The Russian Revolution*, pp.13~14.
39) Bessie Beatty, *The Red Heard of Russia*(New York: The Century Co., 1918), p.92;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p.51~52.
40) Allan Wildman, *The Old Army and the Soldiers' Revolt: March-April 1917, vol. 1*, of *The End of the Russian Imperial Arm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37.
41) Hubertus F. Jahn, *Patriotic Culture in Russia during World War I*(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4.
42) 바바(б а б а)는 무식한 아낙네를 일컫는 구어체로 여성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보치카료바의 계급은 남성 부대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러시아 병사들은 힘든 노동을 하는 여성의 모습에 익숙했다. 오히려 보치카료바의 입대에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대개 상류계급 출신의 고위장교들이었고 이들은 전선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44] 혁명 이전의 러시아에서 계급이 젠더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대체로 노동계급은 남녀가 모두 고된 노동을 했고 상류계급은 남녀가 모두 유산계급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45] 따라서 남성 병사들은 같은 계급 출신인 여성 병사보다 다른 계급 출신인 장교들에게 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46]

더 나아가 이러한 러시아의 사회적 맥락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전선에서 비전투원 또는 전투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당장에 여성 군인들 스스로도 군복무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레타 도어에 따르면, "여성 군인들은 전투가 그들이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아닐뿐더러 가장 불쾌한 일도 아니며 […] 전투가 비록 조금 더 위험하기는 해도 수확기의 들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다고 말했다."[47] 이러한 사실은 개별 여성군인 뿐만 아니라 1917년 5월 이후 편성되었던 여러 여성 전투부대와 내전 동안 백군과 적군(赤軍)에 가담하여 싸웠던 여성군인들 대부분이 노동계급 출신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48] 물론 여성군인의 용맹함은 오로지 계급 배경에서만 비롯되지는 않았다. 여성군인들은 자신이 전투원이 될 자격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 Botchkareva, *Yashka.*, pp.65~66, 71~82, 99~100.
44) *Ibid.*, pp.85~86.
45) Elizabeth A.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evolutionary Russia*(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16.
46) Wildman, *The Old Army and the Soldiers' Revolt,* pp.34~35.
47) Dorr, *Inside the Russian Revolution*, p.78.
48) Griese and Stites, *Female Soldiers,* p.67.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자주 어려운 임무를 자처했고 선두로 돌격하기도 했다. 남장을 한 여성군인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탄로 나지 않도록 더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며 부상으로 인한 의학 진단을 피하고자 더 신중하게 전투에 나섰을 것이다. 더욱이 여성군인은 거의 모두가 자원병이었기 때문에 남성 동료보다 더 열정적이었으며 잘 훈련 받았고 자기희생적이었다.[49]

이러한 개인적 노력과 계급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여성군인들이 무공을 인정받았다. 보치카료바 역시 제4급, 3급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과 제2급 황금훈장을 비롯해 여러 개의 무공 훈장을 수여했으며, 상등병으로 진급해 소대를 맡기도 했다.[50] 혁명 이전에 보치카료바는 하급 부사관으로까지 진급했으며 용맹한 여성군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보치카료바는 1917년 초까지 사교계 여성들의 이야깃거리나 '애국심'을 알리는 언론의 소재가 되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치렀다. 그러나 2월 혁명 이후 보치카료바는 '개별 여성 군인' 이상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보치카료바가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편성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했으며 그 자신이 대대의 지휘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러시아 여성의 군사적 참여: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는 2월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많은 사회적 실험 중 하나였다.[51] 총력전에 혁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사

49)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33.
50) Botchkareva, *Yashka.*, p.98, 102, 126.
51) 혁명 이전, 즉 제정 러시아에서 여성 군인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이는 단순히 양 체제의 여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었다. 총력전 시대가 열리기 전에 교전국은 남성 병력만으로 몇 차례 결전을 벌여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었고,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을 동원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건이 결합되어 러시아 사회는 격변에 휩싸였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틈새를 통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 여성의 군사 운동은 다른 교전국에서도 존재했으나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진 곳은 러시아였다.[52] 더욱이 오직 러시아에서만 여성의 전투원복무가 공식적으로 가능했고 여성전투부대가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 배경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부대 편성배경을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혁명 직후 러시아 여성조직 및 개별여성들은 여성의 군사적 참여에 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전투부대라는 쟁점을 공론화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전투부대는 혁명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시민적 애국심 발휘 및 조국 수호와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러시아여성협의회는 1917년 5월 26일에 열리는 대회를 위해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군사적) 활용에 대한 공적 논의 자체는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제국군은 여성 입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군인이 될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52)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교전국에서 여성의 군사적 참여는 보조병과에 국한되었다. 의무병과를 제외하고 여성들은 보통 통신, 수송, 야전취사 등을 담당했는데 이들을 활용한 목적은 여성이 전선의 자질구레한 일을 맡음으로써 남성이 더 효율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보조병과에서 복무한 여성은 영국은 90,000명, 독일은 17,000명, 미국은 12,185명이었다. 이러한 공식 참여 외에 여성들의 자체적 군사 운동도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존재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스스로와 조국을 방어할 권리로 여성 군사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미국여성방어연맹(American Women's League for Self-Defence)을 비롯한 여러 여성 조직들은 회원을 대상으로 소총 사용법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Melissa K. Stockdale, "My Death for the Motherland Is Happiness: Women, Patriotism, and Soldiering in Russia's Great War, 1914-1917",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9, (2004. 2), p.83; Kimberly Jensen, *Mobilizing Minerva: American Women in the First World War*(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p.39~44.

"우리[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조국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에 조국을 돕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발휘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 시민의 의무가 러시아 여성에게 [...] 자원병으로 군인의 대오에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라고 쓰인 호소문을 배포했다. 또 다른 여성조직인 여성군사분견대조직위원회 역시 비슷한 논조를 드러냈다. 이 조직은 전쟁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군대의 사기를 일깨우고 "러시아의 방어자"가 되게끔 여성을 전선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53] 여성조직이 보기에, 지난 3년간 여성들이 보여준 전쟁수행 노력과 더불어 여성의 군사참여가 보편선거권을 여성에게 쥐어줄 것만 같았다. 1917년 3월 19일에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40,000명이 벌인 참정권 요구 시위를 여성 기마대가 호위하는 모습은 여성 시민권과 여성 군사운동이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54] 보치카료바가 여성군인의 모범사례로 여성전투부대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대 편성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여성조직과 개별여성들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공적인 장소에서 빈번히 언급했기 때문에 대중은 여성부대라는 쟁점에 익숙해졌고 부대가 편성되었을 때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둘째, 혁명 이후 전제정을 대체한 임시정부는 총력전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도 권력도 갖지 못했다. 이중권력 체제에서 명목상의 권력만 갖고 있던 임시정부는 소비에트의 동의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임시정부는 혁명 이후 전방과 후방에서 무질서가 만연하게 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전쟁을 끝낼 경우 병사들이 무력을 이용해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새로운 러시아를 재건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3)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p.68~69.

54) Olga Shnyrova, "Feminism and Suffrage in Russia: Women, War and Revolution, 1914-1917", *The Women's Movement in Wartime: International Perspective, 1914-19*(eds., Alison S. Fell, Ingrid Sharp) (NY: Palgrave Macmillan, 2007), p.131.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연합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낼 수 없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전제정이 다른 열강과 맺은 전쟁 협정을 포함하는 기존의 전쟁 목표와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전제정이 1916년 11월에 샹티(Chantilly) 회담에서 연합국에게 약속한 공세를 수행하기로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예정대로 봄에 공격을 시작하기를 원했으나 미하일 알렉세에프(Михаил В. Алексеев) 총사령관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우여곡절 끝에 6월로 공세 일정이 잡혔다.[55] 이는 분명 현실적인 결정이었으나 동시에 근본적 한계를 지닌 결정이기도 하였다.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병사들 대다수가 이미 전의를 상실한지 오래이며 혁명 직후 군대는 말 그대로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3월1일에 발표한 명령 제1호(Приказ №. 1)가 전선 부대에 자체 적용되면서 부대 내 무단이탈과 불복종이 만연했다. 여전히 부대에 남아있던 병사들 대부분도 새로운 정부가 강화협정을 맺을 때 까지만 전선을 지키겠다고 생각했고 공세에 참여할 마음은 없었다. 임시정부의 전쟁 정책이 후방의 대중에게 알려져 4월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공세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전쟁부 장관에 임명된 알렉산드르 케렌스키(Александр Ф. Ке́ренский)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공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56] 따라서 임시정부는 6월 공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상이군인 부대와 여성부대가 논의되었다.

6월 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는 1916년의 브루실로프 공세를 모범으로 삼았다. 1916년에 남서부 전선 총사령관인 알렉세이 브루실로프(Алексей А. Брусилов) 장군은 공세를 감행하면서 새로운

55) Alexander Kerensky, *Russia and History's Turning Point*(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65), pp.253~258.
56) *Ibid.*, p.2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형태의 전술, 즉 돌격전술을 펼쳤다. 침투전술(infiltration tactics; Hutier tactics)이라고도 불리는 돌격전술은 프랑스 군대에서 처음 사용된 전술로 소수 정예 보병으로 강습대(Sturm ß trupp; storm troops)를 구성하여 적진의 약한 부분을 단시간에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다. 처음에 이 전술은 방대한 전장을 가진 동부전선에서 사용되었다. 참호전과 기동전이 뒤섞여 나타난 동부전선에서 기병전투와 총검을 이용한 백병전이 중요한 공격 방식이었고[57] 장교들은 방대한 전장에 적용해볼 전술을 비교적 유연하게 선택하고 시도할 수 있었다.[58]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돌격전술이었고, 러시아 제국군은 보병중대에 배속된 포병부대와 보병·소총연대에 배속된 척탄소대로 강습대를 구성했다.[59]

그런데 이 돌격전술 및 강습대 개념이 1917년 러시아에서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독일은 특수부대인 강습대(Sturm ß trupp)와 다른 부대에 선봉에 서서 돌격하는 부대, 즉 돌격대(Sto ß trupp; shock troops; assault troops)를 구별한 반면에 러시아는 이 두 개념(штурмовые части, ударные части)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60] 따라서 6월공세의 핵심 전략이 될 "돌격"(ударничество)전술은 강습대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후방의 자원병으로 구성된 돌격대가 수행할 터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이후 행보를 살펴보건대 1917년 봄부터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편성된 돌격대와 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7) Igor' V. Narskii, "The Frontline Experience of Russian Soldiers in 1914-16", *Russian Studies in History*, Vol. 51, (2013, Spring), pp.34~36.
58) Timothy C. Dowling, *The Brusilov Offensiv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xvi.
59) Svetlana A. Solntseva, "The Russian Army's Shock Formations in 1917", *Russian Studies in History*, Vol. 51, (2013, Spring), p.50.
60) 따라서 러시아의 돌격대(ударные части)는 강습대, 선봉부대인 돌격대, 혁명대대, 결사대대를 모두 일컫는다.(ударные батальоны, батальоны смерти, дружны смерти, части смерти, революционные батальоны, штурмовые батальоны, ударники)

대는 특수부대라기보다 선봉부대에 가까웠으며, 돌격대라는 이름은 일종의 명예 칭호 노릇을 했다.[61]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개념은 돌격대라는 명칭을 단 모든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돌격대 개념은 2월혁명 이후 비(非)군인출신 관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그 이유는 돌격전술이 혁명정신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처한 군사적 약점을 해결해줄 방안처럼 보였다는 데에 있다.[62]

그러나 전선의 병사들은 돌격대 편성에 반대했다. 공세에 나설 의지도 없는 병사들 중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을 자원자도 별로 없었다. 러시아 작가인 빅토르 쉬클롭스키(Виктор Б. Шкловский)가 남서부전선에 코미사르로 파견되었을 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선의 병사들은 높은 급료와 특권을 받는 혁명대대가 군대의 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부대를 감찰하러 온 경찰부대 같다고 말했다.[63]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돌격전술에 성공하더라도 그에 뒤따른 대규모 공격이 없다면 전체 작전은 실패할 터였다. 그러나 규율과 사기 그리고 군수품도 심각하게 부족했던 1917년의 러시아 군대가 6월 공세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임시정부는 자신이 처한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군대에게 모범을 보여줄 부대로서 돌격대를 편성하고자 했다.[64] 임시정부가 강습대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1) О. А. Владимирович, "Организация, тактика и подготовка штурмовых частей в Перв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1915－1917 гг.)",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 8, (2010), стр. 3-6.

62) 예를 들어 1917년 4월 29일 통상은행위원회의 회원 중 한명인 쿠다세프(Сергей В. Кудашев)에 따르면, 돌격대 원칙은 나폴레옹전쟁 당시 프랑스군이 적용했던 원칙이며, 혁명으로 러시아가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러시아 군대가 활기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전선의 모든 부대에 특별 돌격대를 편성해야 했다. 쿠다셰프는 또한 돌격전술이 위험한 만큼 돌격대원에게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ntseva, "The Russian Army's Shock Formations in 1917", p.52.

63) Viktor Shklovsky, *A Sentimental Journey: Memoirs, 1917-1922*(trans. Richard Sheld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p.30.

64) 군관계자 중에서 돌격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실로프 장군

아닌 돌격대를 활용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케렌스키를 포함해 임시정부 각료들이 돌격대를 언급할 때 주로 정신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정신적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지점에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 돌격대로 쓰일 수 있었던 여지가 존재했다.

혁명대대 편성이 공식화 되면서 다양한 집단이 지원했고 이 중에 상이군인, 비(非)러시아계 민족, 전쟁포로 그리고 여성도 있었다.[65] 혁명대대는 전방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투부대로 분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투 그 자체보다 사기를 북돋는 역할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여성의 눈은 매섭고 마음은 따뜻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성이 전선에 파견되면 "아픈" 러시아 군대는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66] 보치카료바 역시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 편성 과정에서 남녀의 전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가 두마 의장 미하일 로쟌코(Михаил В. Родзянко)가 보치카료바 처럼 훌륭한 여성군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결사대 편성이 힘들다고 말하자 보치카료바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남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5월 21일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열린 여성대대 입대홍보 연설에서 "충성심과 순수한 영혼과 큰 뜻을 가진 여성이 이 중대한 시점에 남성들이 자신의 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은 돌격대의 열렬한 주창자였다. 브루실로프는 부대원의 정치성과 비전문성을 근거로 혁명대대에 반대했던 총사령관 미하일 알렉세프(Михаил В. Алексеев)를 대신해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뒤에 광범위하게 혁명대대를 편성했다. 브루실로프에 따르면 혁명대대의 1차 목표는 "군대에 혁명정신과 공격정신을 불러 일으키며 […] 혁명대대의 선례로 동요하고 있는 병사들을 감복시키는 것"이었다. "Report of General Brusilov on the Organization of Shock Battalions," *The Russian Provisional Government 1917: Documents, Vol. 2*(eds., Robert P. Browder, Alexander F. Kerensk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p.932; Dowling, *The Brusilov Offensive*, xvii-xviii; Allan Wildman, *The End of the Russian Imperial Army, Vol. 2*(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79.

65)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65.

66)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p.4.

무를 깨닫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67] 남성에게 수치심을 주어 그들이 본래의 젠더 의무, 즉 조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만든다는 발상은 영국의 '흰 깃털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상황 덕분에 다른 교전국의 여성과 달리 러시아 여성은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케렌스키는 여성부대 편성을 5월 31일에 승인했고, 이 사안을 페트로그라드 군관구 최고사령부와 육군 작전참모 주요부서의 동원분과(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ГУГШ)에서 다루도록 명령했다. 페트로그라드 군관구 최고사령관인 표트르 폴롭초프(Пётр А. Половцов)장군은 볼린스키 연대의 하급장교 25명을 포함해 병영, 군복, 군장비, 무기를 여성대대에 지급하기로 했다.[68] 신병 등록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여성대대 자원할 수 있는 여성은 18세 이상으로 건강하고 임신하지 않아야 했다. 일단 의학검진을 받고 자원병이 된 여성은 보치카료바의 엄한 규율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 조건에 따라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에 입대한 여성은 약 2,000명이었고, 이들의 사회배경은 매우 다양했다. 귀족 가문의 타튜예바 여공(女公)과 흑해함대에서 사령관 니콜라이 스크리들로프(Николай Скрыдлов) 제독의 딸인 막달레나 스크리들로바(Магдалена Скрыдлова)도 여성대대에 입대했다.[69] 학생과 지식인계급 출신 여성도 다수 입대했으며 심지어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가도 군문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지원병 대다수는 공장노동자, 하녀, 농민 등 노동계급 출신이었다.[70] 여러 사회 계급 출신의 여성이 한 데 뒤섞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7) Botchkareva, *Yashka*, p.154, 159.
68) *Ibid.*, p.162.
69) *Ibid.*, p.199.
70) 여성대대원의 입대 동기는 제1 러시아 여성대대의 성격과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이해하는 데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성대대에 끝까지 남은 대원 대다수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애국심' 같은 정신적 요소보다 물질적

있다는 사실이 대대에 민주적 성격을 부여했다. 여성대원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한 병영을 사용하고 같은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유명한 부자 가문 출신 소녀와 숙녀는 자기 요리사 또는 하녀와 한 대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71]

그러나 다양한 출신 성분 때문에 부대 자체가 민주적 성격을 띠었던 것과 상반되게 부대 운용 자체는 혁명 이전의 비민주적 방식을 따랐다. 이는 명령1호가 러시아 군대를 망쳐놓았다고 굳게 믿었던 보치카료바가 러시아 제국군 훈련 방식을 고수한 데에서 비롯하였다. 여성 대원은 오전 5시에 기상한 뒤 아침 예배와 식사를 하고 8시에 집합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군사 훈련을 받았다. 11시에 점심 식사 겸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군사훈련을 시작해 오후 9시까지 훈련이 계속되었다. 군사 훈련의 내용은 육체 훈련, 행군, 백병전 연습, 소총 훈련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치카료바 자신이 군사 훈련의 모든 측면을 감독했다. 보치카료바는 혹독한 군사 훈련을 통해 여성대원을 '완전한 군인'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치카료바가 보기에 여성은 '더 약한 성별'이기 때문에 군인이 되려면 대원 개개인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야 했다. 보치카료바는 자원병들에게 하대하는 호칭인 "-틔(ты)"를 사용했으며 규율 위반자에게 체형(體刑)을 가했다. 부대 내 병사 위원회 설치도 금지되었다.[72]

보치카료바의 이러한 부대운영방식은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 먼저 보치카료바는 부적절한 인자에게 강제 제대를 명령했다. 부대 편성 둘째 날에만 교관에게 새롱거리던 여성 50명이 군복을 벗었다. 어떤 자원병들은 혹독한 군사훈련과 지휘관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

요소가 입대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설명은 최지은, 『제1차 세계대전기 러시아 여성결사대대: 근대국가와 여성의 군사적 활용』(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32쪽을 보라.

71) Борис Солонечич, *женщина с винтовкой : 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Буэнос-Ай рес, 1955), стр. 54.

72) Botchkareva, *Yashka*., p.161, 164, 16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진해서 부대를 떠났다. 게다가 지식인 계급 또는 학생 출신 자원병들은 보치카료바가 민주적 군사 관행을 거부한 데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폴롭초프와 케렌스키 역시 부대 내에 대의기구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었고, 병사위원회 설치를 명령했지만 이 고집 센 고참 여성군인을 막을 수 없었다.[73]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남아있던 부대원의 절반 정도가 여성대대를 떠났고, 결국 300명 정도가 끝까지 보치카료바에게 충성을 바쳤다. 여성 결사대원으로 후일 회고록을 남긴 니나 크릴로바에 따르면, 남은 자원병 대부분이 "보치카료바와 비슷한 얼굴과 체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 출신임을 의심할 수 없"었다.[74] 보치카료바는 더 많은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보다 더 훌륭한 병사로 이루어진 부대가 낫다고 생각한 탓에 분열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6월 공세를 위해 남은 자원병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훈련 시켰다.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훌륭히 전투를 치르면서 보치카료바의 방식이 나름대로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성대대는 제10군 시베리아 제1군단 132보병사단의 제525보병연대에 배속되어 벨라루스 동북쪽에 있는 몰로데치노(Молодечно)로 7월 초에 파견되었다. 시베리아 제1군단은 독일군에 맞서 7월 6일에 공세를 개시했다. 제132보병사단의 임무는 제1사단이 공세에 나서는 동안 노보스파스키 숲(Новоспасский лес)의 진지를 강화하고 수비하는 것이었다.[75] 7월 9일 새벽에 공격명령을 받은 남성병사들이 머뭇거리자 여성군인들은 남성병사를 고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호 밖으로 전진했다. 제525연대 지휘관이 상부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여성대대원은 "전투에서 영웅답게 행동했다. 독일군의 공격을 받자 알아서 반격을 서둘렀다."[76]

---

73) *Ibid.*, p.165, 169-76.
74) Солонечич, *женщина с винтовкой*, стр. 54.
75)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p.107~109.
76) *Ibid.*, p.111에서 재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그러나 여성부대의 임무가 전투보다는 프로파간다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는 실전에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전방과 후방에서 전쟁여론이 악화되던 시기에 여성결사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돌격대를 통해 러시아 군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성부대에게 더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여성을 전선으로 보낸다는 과격한 발상이 여성부대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전선으로 파병되기 전에 케렌스키의 부탁으로 친 정부시위에 참여했었다는 사실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낳았다. 사회주의 계열 남성들이 대체로 여성부대에 반대했고 특히 볼셰비키는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편성되었던 당일부터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다. 볼셰비키가 오직 정치적 이유에서 여성부대에 반대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점은 볼셰비키가 젠더질서를 이용해 여성부대를 효과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볼셰비키 활동가는 지역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 우리는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타락한 군국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본성에 따라 그리고 모성을 부여 받은 존재로서 반드시 인류의 생산자라는 파괴의 반대자가 되어야 합니다.[77]

이렇게 볼셰비키를 비롯한 반(反)임시정부 세력의 정치적 공격과 별개로 군당국도 여성부대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10월혁명 이전부터 여성부대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었다.

더 나아가 제1 러시아 여성결사대대가 맡은 프로파간다라는 임무는 부대의 존립문제만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여성대대 자체의 모순된 정체성을 암시했다. 여성부대는 돌격대로서 다른 혁명부대와 똑

77) *Ibid.*, p.173에서 재인용.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같이 전투훈련을 받고 전선에 투입되어 적군을 살상하는 전투부대였다. 그럼에도 '남성의 젠더 의무를 일깨운다'는 프로파간다가 여성돌격대와 다른 돌격대를 구분하는 특징이었다. 그 결과, 여성대대는 전투부대이면서 동시에 비(非)전투부대였고 이 모순된 정체성은 부대 규율에서 잘 드러났다. 여성대대가 전투부대일 때 여성대원은 '여성'이 아닌 '군인'이었으나, 여성대대가 비전투부대일 때 '군인'이라는 직업정체성보다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이 더 강조되었다. 예컨대, 페트로그라드 여성 군사분견대 조직 위원회가 제 1러시아 여성결사대대를 위해 제시한 규율의 제 7항은 "쾌활, 행복, 친절, 환대, 성실, 청결"을 여성군인에게 요구했으며,[78] 여성군인은 여성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을 요구 받는 한편 여성성을 제거할 것을 끊임없이 명령 받았다.[79] 이러한 모순이 드러내는 바는 분명했다. 일단 남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여성은 원래의 자신의 젠더 역할로 돌아갈 터였다. 여성 전투부대의 존재는 젠더 질서를 파괴했지만 얄궂게도 그 존재 자체가 젠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임시방편용 군사적 활용 수단이었던 여성결사대대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했든 실패했든 결과적으로 해산될 운명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결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 여성 노동자를 연구한 역사가 위테 다니엘(Ute Daniel)에 따르면, 총력전이나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할 때 아직 정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proto-political) 일상의 생각

78) Laurie S. Stoff, *They Fought for the Motherland*, p.78.
79) Beatty, *The Red Heard of Russia*, p.103.

및 행동과 "진정한" 정치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삶이 위협받는 시기에 사람들이 행하는 대화와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추상적 의미를 지니기보다 그 자체로 정치적 쟁점이 된다.[80] 더욱이 모든 국민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총력전 시대에 개인 또는 집단이 내놓는 일상의 쟁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위력을 지녔고, 이는 특히 혁명을 경험한 러시아에서 그러했다.

러시아에서 정치화된 일상을 경험한 여러 집단 중 하나가 '여성'이었다. 전쟁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러시아 여성은 노동 부문에서 양적 · 질적 변화를 겪었다. 노동계급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군수공장과 화학공장에 진출한 것은 아닐지라도 당대 지식인 계급 여성 몇몇이 그 의미를 파악했듯이, 러시아 여성의 전시 노동참여는 여성 참정권의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였다.[81]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후방에서의 노동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군인이 되는 더 직접적인 전쟁 참여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다른 교전국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남장을 하고 입대한 여성부터 남편과 남자형제를 따라 전선으로 간 여성 그리고 간호사 복무를 하다 전투원으로 직무를 바꾼 여성까지 여러 여성군인의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게다가 2월 혁명 이후에는 혁명에 뒤이은 여러 정치 · 군사적 상황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인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여성 결사대대는 1917년 봄부터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편성된 돌격대 중 하나였지만 오직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전투 그 자체보다 프로파간다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한 부대였다. 즉, 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0) Ute Daniel, *The War from Within: German Women in the First World War*(Washington D.C.: Berg, 1996), p.11.

81) Olga Shnyrova, "Feminism and Suffrage in Russia: Women, War and Revolution, 1914-1917", *The Women's Movement in Wartime: International Perspective, 1914-19*(eds., Alison S. Fell, Ingrid Sharp) (NY: Palgrave Macmillan, 2007), p.131.

자답게 제대로 싸우지 않는 전선의 남성 병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의 주요 임무였다.

이러한 여성부대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모순된 정체성을 낳았다. 제1 러시아 여성 결사대대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부대이면서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비전투부대였다. 여성 결사대대를 이끈 유명한 고참 여성군인 마리야 보치카료바는 보통의 여성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대다수 결사대대원들도 남성병사가 원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랐다.[82] 따라서 실전에서 소기의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주요 임무를 달성하지 못한 여성대대는 이후 부대의 해체 위기에 맞서 자신의 존립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전투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 잊히지 않았다. 여성 결사대대가 해산된 이후에 일부 여성군인은 백군과 적군(赤軍)에 가담해 군사 활동을 계속하기도 했다. 기존 질서의 복구를 꾀했던 백군보다 혁명세력인 적군에 여성군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적군이 여성을 군사적으로 더 자주 동원했고, 적군 전체 병력의 2%에 달하는 50,000~70,000명의 여성이 적군에서 복무한 것으로 추정된다.[83]

러시아 내전 동안 볼셰비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성의 군사적 활용을 논하였고, 심지어 여성의 군사적 참여를 의무화할 것인가를 두고 격론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여성의 적극적 군사참여를 지지하던 인물 중 한 명은 노동자 · 농민군사교육기관(Всевобуч; всеобщее военное обучение)의 의장인 니콜라이 포드보이스키(Николай И. Подвой ский)였다. 그는 여성에게 관리, 군사 보급, 위생, 통신, 총기 사용법을 가르쳐 여성이 '프롤레타리아 모국'방어에 참여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84] 내전이 끝나면서 여성의 군사적 동원에

82) Botchkareva, *Yashka*, pp.192~195.
83) П. М. Чирков, *Решение женского вопроса в СССР: 1917-1937 гг.* (М.: 1978), С. 1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련된 여러 방안이 현실화 되지 않았으나, 여성이 군사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은 이후 소련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총력전의 완성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 여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 부문에 참여하였고, 소련 당국 또한 여성을 대규모로 군사 분야에 동원하였다.[85]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정부가 전투병과에 동원한 여성군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기 여성결사대원들과 달리 정체성 갈등을 겪지 않은 채 전투임무에만 충실할 터였다.

[원고투고일: 2016.11.28,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총력전, 제1차 세계대전, 여성군인, 러시아 여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4) Wood, *The Baba and the Comrade*, pp.52~56.
85) 류한수, 「제2차 세계대전기 여성군인의 역할과 위상: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비교 연구」, 141~144쪽.

<ABSTRACT>

Russian Women Partaking in the Military field during World War I: Individual Women Soldiers and the First Women's Battalion of Death

Choe, Ji-Eun

This article focuses on Russian women soldiers during World War I in terms of total war and the Russian February Revolution. The War took on a new aspect in 1914 as a result of two paradigm shifts: the emergence of the modern stat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ll the belligerent suffered setbacks stemming from this new conflict. For Russia, one of hardships was the deficiency of workers, many of whom had been drafted into the army. Inevitably, an increasing number of Russian women were employed in various sectors of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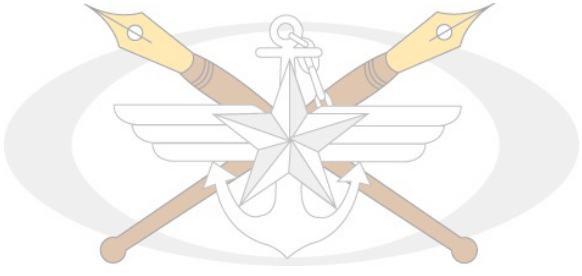
The expanding role of Russian women was not limited to industry,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women in the military had already increased under the conditions of total war, but the military activity of Russian women entered a new phase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Though the first all-female combat unit was established under the propaganda slogans of liberation and equality, it is more appropriate to locate its origins in the situation fac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ussian army. The First Russian Women's Battalion of Death was one of several measures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ok to carry out the June Offensive, which it hoped would reverse its military and political losses.

The world saw the first female combat unit on May of 1917. In addition to its combat role, the battalion had the propagandistic mission of shaming male soldiers who were refusing to perform their duty. Though women soldiers seemed like a cost-effective way to wage war, all the battalion's efforts were in vain when it confronted with reluctant mass soldiers. The military leadership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ast doubt on the value of all-female combat units. Thus, the women's battalion was dest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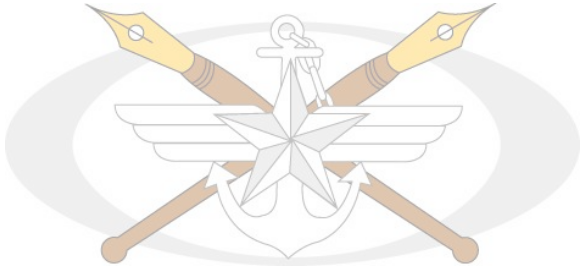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o be disband even before Red October whether it would have proved women could be useful in combat.

Key words : total war, World War I, women soldiers, Russian wome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미 공군 다이너소어(Dyna-Soar) 프로젝트 승인에 관한 연구

신경은*, 엄정식**

1. 서론
2.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 : '우주의 평화적 이용'
3. 공군 조직 문화를 반영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탄생
4. 공군의 국방부 설득과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승인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가. 문제제기

1957년 출범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2기 행정부는

* 제1저자 :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부교수(군사학과장)

우주를 비롯한 모든 영역의 군비경쟁을 중시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우주정책으로 추진했다. 1957년 1월 12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비망록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

> 우주 탐험이 인류에게 내린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에도 군비 통제 규범이 적용되어한다. 우주를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국은 인공위성, 미사일 등의 시험을 국제 사회의 감시 하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유화적 의도만 반영한 결과는 아니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에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부었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로 인해 악화된 국가 재정을 회복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다. 때문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소련과의 우주 군비경쟁을 원치 않았다. 더구나 우주 기술은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반해 성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우주 기술 개발에 미온적이었다.[2)] 이런 맥락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란 우주 폭격 무기의 개발이나 달의 군사기지화 등 공격적인 군사적 이용은 금지하되 정찰, 기상, 통신 위성 등 방어적인 군사적 이용은 허용하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안보적 ·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우주에 공격적인 무기체계를

---

1) *U.S. Policy on Outer Space*, Secret, Report, June 20, 1958, Military Uses of Space, MS00503,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s(이하 DNSA), p.14.
2) 스즈키 가즈토 저(이용빈 역), 『우주개발과 국제정치 경쟁과 협력의 이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p.48~49.
3) 1960년 9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주에도 군비통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며, 우주 공간은 인류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이용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U.S. Department of State, 1960, "Address by President Dwight Eisenhower to the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22, 1960." http://www.state.gov/p/io/potusunga/207330.htm (검색일: 2016. 6. 26).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8년 2월 핵폭격, 인공위성 요격 등 공격 임무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다이너소어(Dyna-Soar)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다이너소어는 로켓 추진력을 이용하여 우주공간에 이를 수 있고, 조종사가 원하는 지점에 착륙할 수 있는 유인 우주 비행체였다. 그렇다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승인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승인은 우주 공간에서 공격용 무기체계 경쟁을 초래할 수 있었고, 국방비 감축에도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정책 결정은 단일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정부 내 조직문화와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과 상충했던 미 공군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승인될 수 있었던 원인을 미국의 비밀해제된 1차 자료로서 실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우주를 작전 영역으로 보는 공군 조직문화와 이를 토대로 추진된 공군 내부의 장기적인 준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공군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론, 공군 지도부의 효과적인 설득이 영향을 미쳐 승인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자신의 조직 문화를 담은 프로젝트를 관철시킴으로써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려는 미 공군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에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공군본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기존 연구의 검토

미국의 우주정책은 다양한 국가이익으로 설명된다. 핸드버그(Handberg)는 미국이 국가안보, 과학탐사, 상업개발,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우주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한 반면 반디크(Van Dyke)는 국가위신을 강조한다.[4]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안보 동기를 우주정책의 출발점으로 다루어왔다. 특히 헤이즈(Hays et al.)는 미국의 국

가안보와 우주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대외적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한다.[5] 스즈키는 미국의 우주정책을 하드파워 확보, 소프트파워 확보, 사회 인프라 확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정책은 미사일 개발이나 정찰위성 활용과 같은 하드파워의 확보 뿐 아니라, 유인 우주 비행으로 국가위신을 향상시킨 소프트파워의 확보였다고 본다.[6] 덧붙여 우주 공간을 이용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 인프라 확보도 우주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한다.[7] 그러나 우주정책의 다양한 국가이익이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의 결정으로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 조직과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임무, 조직 이익, 문화,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캐릭(Kalic)은 우주정책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 중 대통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8] 우주정책은 첨단 과학 기술과 전문 인력,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진다. 캐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존슨 행정부에 이르는 우주정책을 분석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Roger Handberg, "Rationales of the Space Program," Eligar Sadeh (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pp.27~42; Vernon Van Dyke, *Pride and Power: The Rationale of the Space Progra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4).

5) Peter L. Hays, James M. Smith, Alan R. Van Tassel, and Guy M. Walsh, *Spacepower for a New Millennium: Space and U.S. National Security* (New York: McGraw-Hill, 2000); *The Threshold of Space: The Air Force in the National Space Program, 1945-1959*, Secret, Report, September 1960, Military Uses of Space, MS00314, DNSA, pp.12-17.

6) 스즈키 가즈토 저(이용빈(역)), *op. cit.*, pp.47~88.

7) *Ibid.*

8) Sean N. Kalic, *US Presidents and the Militarization of Space, 1946-1967*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2), pp.1~6.

된다고 보았고, 공격용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안보를 추진했다.[9] 캐릭의 연구는 행위자로서 대통령이 가지는 중요성과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존슨 행정부에 이르는 시기 우주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상충하는 공군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정책결정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큰 틀에서 대통령이 우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더라도 정책결정의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다. 국방부와 군, 의회와 과학기술부처 등 우주정책은 다양한 조직이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존슨-프리즈(Johnson-Freese)는 의회가 우주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맥커디(McCurdy)는 조직과 우주 프로그램의 연관성을 분석했다.[10] 이러한 관점에서 사데(Eligar Sadeh)도 우주정책을 대통령, 의회, 우주조직, 민간기업 등 많은 행위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로 본다.[11]

특히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의 우주 정책은 초기 단계로서 정부가 주도했고, 군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하고자 1958년 민간우주기구인 미국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을 창설하고 많은 프로젝트와 예산을 배정했지만, 여전히 전문 인력과 장비, 기술 등에서 공군의 실질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 Sean N. Kalic, *op. cit.*, pp.1~6.

10) Joan Johnson-Freese, "Congress and Space Policy," Eligar Sadeh (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pp.79~104; Howard E. McCurdy, "Bureaucracy and the Space Program," Eligar Sadeh (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pp.105~128.

11) Eligar Sadeh, "Space Politics and Polic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ligar Sadeh (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pp.13~18.

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은 공군의 역할 속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스파이어스(Spires)와 피블스(Peebles)의 연구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력 건설과 공군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는데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간략한 기원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12]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대해 역사적으로 기술한 호우친(Houchin)의 연구도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기원에서 종결까지 역사를 기술했지만 공군의 입장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우주정책과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다루진 않는다.[13]

이처럼 기존 연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주정책을 설명하면서도 우주정책과 상충되는 내용이 승인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우주정책의 비밀성과 자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본 연구는 비밀해제 된 1차 자료에 기반하여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정책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 분석틀 및 연구 자료

미국의 우주정책은 냉전 초기부터 소련과 경쟁 속에서 국가안보와 위신 등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되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통해 정찰위성의 활용을 정당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우주공간에서 소련과 군비경쟁을 억제하고자 했다. 더욱이 우주공간의 공격용 무기 개발은 소련과 군비경쟁을 촉진하여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했던 정찰위성의 안전과 정당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정책의

12) Spires, *op. cit.*, p.50; Curtis Peebles, *High Frontier The U.S. Air Force and the Military Space Program* (Washington D.C., Airforce Historical Studies Office, 1997), pp.1~73.

13) Roy F. Houchin, *U.S. Hypersonic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ise and Fall of Dyna-Soar, 1944-1963* (New York: Routledge, 2006).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승인된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추진한 공군 조직과 관료의 영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 조직들은 모두 우주 정책이 국가 이익에 기여해야한다고 인식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가이익에 기여하느냐의 관점은 조직마다 다를 수 있다. 조직은 공식, 비공식적 절차와 공유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자체적인 논리에 따라 우주정책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14]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 공군이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설정한 국가 우주 정책과 상충되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추진한 원인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조직이 제시하는 모든 대안이 행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며,[15] 다양한 대안은 정부 내 조직들간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화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부(국방부)와 공군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공군이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당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은 국방부가 대변하고 있었고, 특히 국가 우주 프로젝트의 승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방부 내 고등연구계획국(ARPA: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이 예산 배정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16] 50만불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우주 프로젝트는 고등연구계획국의 승인을 받아야 국가 우주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을 정도로 고등연구계획국의 권한은 막강했다.[17] 본 연구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제안한 공군과 국방부(고등연구계획국)의 입장 차이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국방부(고등연구계획국)를 설득했던 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 Allison, Zelikow, 김태현(역), *op. cit.*, pp.196~202.
15) *Ibid.*, p.363.
16) Spires, *op. cit.*, pp.57~60.
17)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40.

리에 주목한다. 또한 핵심 행위자뿐 아니라 의회, 여론 등 외부 행위자 역시 정책결정의 환경을 구성하고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18]

연구방법은 역사적 접근으로서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 우주정책 관련 1차 자료에 기반한 문서연구방법(documentary research)이다. 주요 1차 자료는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국가안보문서 데이터베이스(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s)의 "U.S. Military Uses of Space, 1945-1991" 문서군과 비밀해제 문서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DRS: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이다. 이들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 확보한 NSC 회의록, 대통령 결정문서, 역사자료, 비망록, 보고서 등 다양한 정책결정 문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공군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공군시스템사령부가 펴낸 역사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한다.

2.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 : '우주의 평화적 이용'

냉전 초기 소련 봉쇄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했던 트루먼 행정부와 달리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방비의 증가가 국가안보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경제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국내경제가 흔들릴 경우, 공산주의의 심리적 위협에 취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으로 폭증한 국방비를 감축하여 재정 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

18) Allison, Zelikow, 김태현(역), *op. cit.*, p.3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하고, 감축한 국방비를 의료, 복지 등 다른 분야에 투자했다.[19]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방비의 감축과 효과적인 소련 봉쇄를 양립하기 위해 상호확증파괴에 기초한 대량보복전략이라는 새로운 봉쇄의 전략, 일명 뉴룩(New Look) 전략을 수립했다. 대량보복전략은 소련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의 의존도를 높이는 대신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여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었다.[20]

이처럼 국방비 감축을 선호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반면 성과는 분명치 않은 우주 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다.[21]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관심을 보였던 우주 기술 분야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정찰위성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미국은 전략폭격기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폭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미사일 개발을 우주프로그램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22]

대륙간탄도미사일 다음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중시한 우주 프로그램은 정찰 위성 프로그램이었다. 1949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기습 공격 예방에 필요한 정찰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23] 이를 위해 1956년부터 미국은 U-2기를 운용하여 소련을 정찰했으나 U-2기는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이 높았고, 정찰 과정에서 소련의 영공을 침범한다는 국제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24] 반면, 당시 우주 비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은 마련되지 않았으며[25] 반위성체계(ASAT: Anti-Satellite)처럼 우주공간의 위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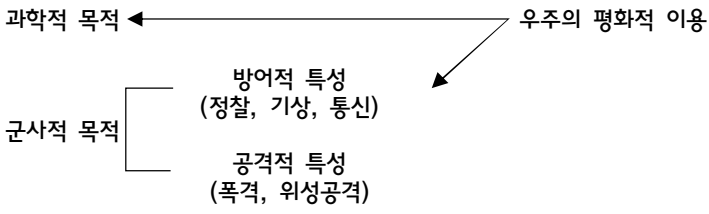
19) John L.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30~131.
20) *Ibid.*, pp.144~149.
21)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11.
22) Spires, *op. cit.*, p.30.
23) *U.S. Policy on Outer Space*, *op. cit.*, p.8.
24) Kalic, *op. cit.*, p.50.

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26] 따라서 정찰위성을 활용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정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정찰위성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정찰위성 활용을 정당화하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27]

우주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해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국제사회에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우주정책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었다. 미국은 우주에 공격용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표방함으로써 우주 군비 경쟁을 막고 정찰위성의 안전을 도모했다.[28]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29] 공격적인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우주 폭격 무기의 개발이나 달의 군사기지화 등은 금지하되, 방어적인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정찰, 기상, 통신 위성 등 과학발전과 군비통제 준수를 위한 활동은 허용했다.[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5) *Preliminary Observations on the Organiz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Outer Space*, Secret, Memorandum, February 21, 1958, Military Uses of Space, MS00500, DNSA, pp.1~2.
26) 반위성체계(혹은 공격위성)은 적대국의 위성 파괴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은 1959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세인트(SAINT) 프로젝트가 시초이다. Steven R. Petersen, *Space Control And the Role of Antisatellite Weapons*,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1), pp.4~5.
27) *U.S. Policy on Outer Space*, *op. cit.*, p.21.
28) Spires, *op. cit.*, p.55.
29) R. Cargill. Hall, *The Origins of US Space Policy: Eisenhower, Open Skies, and Freedom of Space*, (WASHINGTON DC: RAND Corporation, 1992), pp.26~27.
30) Kalic, *op. cit.*, pp.57~59.



〈그림 1〉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공약

출처: Kalic, op. cit., pp.57~59.

1957년 2기 아이젠하워 행정부도 우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자 했다. 1957년 1월 12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제연합에 우주를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 영역에도 군비 통제 규범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8년 2월 소련의 정치가 불가닌(Bulganin, Nikolay Aleksandrovich)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간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든 무기 체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31]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개발이 인류를 위한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임을 강조하여 미국 위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주 공간에서 위성의 자유로운 운용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했다.[32]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보인 '차분한 반응'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1954년 이후 미국은 소련의 위성발사 시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 가능성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1954년 12월 국방장관 윌슨(Charles E. Wilson)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위성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33] 이처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소련의 위성 발사를 국가안보의 큰 위협으로 인식하진 않았다. 오히

31) *U.S. Policy on Outer Space*, *op. cit.*, p.11.
32) Spires, *op. cit.*, p.50.
33)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12.

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가 '우주 비행의 자유'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주장했다.[34] 1957년 10월 8일 국방부 부장관 콸스(Donald Quarles)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가 위성의 자유로운 우주 비행에 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이젠하워는 1957년 10월 9일 기자 회견을 통해 소련의 위성 발사는 우려할 일은 아니며, 미국은 소련과의 불필요한 우주 경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지구관측년(IGY: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에 맞추어 발사하기로 계획된 민간위성 뱅가드(Vanguard)의 일정을 앞당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35] 이와 같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소련의 위성 발사에 차분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우주공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타국 위성이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제여론 조성에 노력했다.

3. 공군 조직 문화를 반영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탄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우주를 작전 영역으로 주도하려는 공군의 조직 문화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주에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정찰 위성의 안전과 정당성을 중시했다. 반면, 공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우주 공간에서 소련에 대한 우위를 추진했으며 공격용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중시했다. 공군 지도부는 행정부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이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반위성체계와

34) Gaddis, *op. cit.*, p.185.
35) Spires, *op. cit.*, p.52.

같이 공격적인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36] 행정부와 공군이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던 이유는 정부 내 조직의 임무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다. 공군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식했듯이 우주 공간을 단순한 과학 탐사의 영역이 아닌 갈등적인 군사 작전의 영역으로 인식했다. 우주 공간에 대한 공군의 초기 인식은 1940년대 말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참모차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공군은 전략무기를 다루는 군으로서 공군이 위성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며[37], 우주비행은 공군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라고 밝혔다.[38] 크레이그(Howard A. Craig) 공군 중장도 "공군이 인공위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랜드연구소(RAND)와 공군물자사령부(Air Force Material Command)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를 작전영역으로 보는 공군의 조직문화는 1950년대 초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기원이 되었다. 공군은 1950년대 초반 공격적인 우주 무기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군은 X 시리즈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 과학자들의 로켓 이론을 시험(X-15 프로젝트)하여 25마일 고도에서 2000마일 속도로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1955년 5월 공군은 일반작전요구(GOR: General Operational Requirement) 92호를 통해 X-15의 차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 이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기원이 되는 보미(Bomber Missile)/로보(Rocket Bomber), 브라스벨(Brass Bell), 하이워즈(Hywards)라는 3가지 자체적인 연구들이었다. 보미/로보는 폭격 임무에 관한 프로젝트였고, 브라스벨은 고고도 정찰 시스템 프로젝트였다.[39] 하이워즈는 발사 시에는 로켓으로 추진력을 얻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6) *Ibid.*, p.51.
37)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0.
38) Spires, *op. cit.*, p.54.
39) 보미 프로젝트의 명칭은 후에 로보 프로젝트로 변경되었다(Spires, *op. cit.*, p.74).

고, 착륙 시에는 날개를 이용하여 활공하는 비행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공군의 조직 문화는 1950년대 후반 더욱 확고해졌다. 행정부는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나 공군은 스푸트니크 발사가 야기하는 군사적 위협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항공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국가가 지상, 해상을 포함한 전 지구를 통제할 수 있으며, 소련에 이러한 우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은 국가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역동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40] 1957년 11월 29일 화이트(Thomas D. White) 공군참모총장도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공군력이 지상과 해상에서의 작전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우주력을 장악하는 국가가 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와 우주는 분리할 수 없는 작전 영역이다."라고 언급했다. 화이트 공군참모총장의 언급은 우주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육해군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군의 입지를 강조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우주를 과학탐사의 영역이 아닌 공군의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조직 문화를 담고 있었다. 공군참모총장 이외에도 매킨타이어(Malcolm A. MacIntyre) 공군성 부장관, 퍼트(Donald Putt) 중장, 쉬리버(Bernard A. Schriever) 공군탄도미사일국 사령관 등 공군 지도부는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우주가 공군의 작전 영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41]

우주를 대기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조직문화는 공군의 교범에도 나타나있다. 1959년 12월 공군은 '항공우주(aerospace)' 개념을 교범(Air Force Manual 1-2)에 공식 수록했다. 공군 교범에 실린 항공우주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40)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8.
41) Spires, *op. cit.*, p.54.

> 항공우주는 지표면과 분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공군은 항공우주력의 근간이 되는 공중 시스템, 탄도 미사일 시스템, 우주 비행체 시스템 등 작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군력과 우주력은 동일한 것이며, 하나의 군이 담당해야 한다. 우주 비행체는 전쟁을 억지하고, 억지에 실패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표면 위에 배치되는 비행체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42]

이러한 공군의 조직문화는 다이너소어의 임무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우주를 작전 영역으로 본 공군은 정찰 위성과 같이 방어용 무기체계 개발에만 머물 수 없었다. 공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핵폭격, 위성요격 등 다양한 공격 임무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공군 내부적으로 1950년대 초반부터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비행체인 보미/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제한으로 인해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브라스벨 고고도 정찰 임무 프로젝트, 하이워즈 초음속 비행체 개발 프로젝트와 보미/로보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시작된 것이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였다.[43] 공군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국가 차원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공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왔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유인 우주 비행체 선호한 공군의 조직 문화

공군의 조직 문화는 다이너소어의 임무 특성뿐만 아니라 다이너소어의 구체적인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군은 인간에게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통제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믿었고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42)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2.
43) Houchin, 2006, *op. cit.*, pp.47~76.
44)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4.

우주 비행체도 완벽한 임무 통제를 위해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45] 랜드 연구원 등 공군 내 일부 시각에서는 유인 우주 비행체보다 무인 우주 비행체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화이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지도부는 유인기가 무인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군 지도부는 다이너소어가 조종사의 통제에 따라 수일간 우주를 비행하며, 폭격 임무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련도 무인 비행체보다 유인 비행체인 다이너소어를 격추시키는데 정치적 부담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다.[46]

다이너소어가 조종사에 의해 통제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나 캡슐 형태가 아닌 항공기와 같이 날개를 가진 형태로 설계되어야 했다. 공군은 다이너소어 설계팀에 델타 형태의 날개를 가진 비행체로 다이너소어를 설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다이너소어는 조종사가 지구의 귀환 시점과 지점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 방법과 사용되는 역학에너지는 달랐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착륙하는 과정은 기존 항공기의 착륙 과정과 거의 동일했다. 공군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공군이 주도하는 유인 우주 작전을 상정했으며[47] 다이너소어를 조종사의 비행 임무를 지구 궤도로 확장시킴으로써 공군을 항공우주군으로 발전시키는 매개체로 인식했다.[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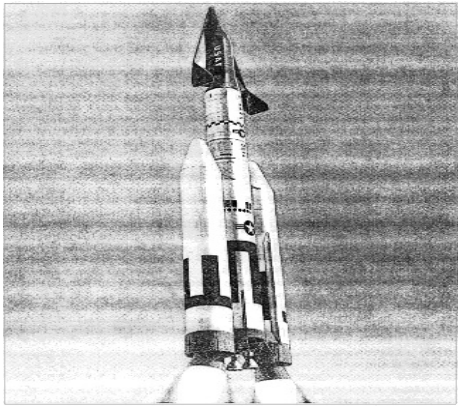
---

45)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2.

46) Houchin, 2006, *op. cit.*, pp.88~89.

47) 공군의 유인 우주 작전에 대한 열망은 유인궤도 실험실(Manned Orbital Laboratory), 우주왕복선(Space Shuttle)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미완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향후 우주 왕복선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Spires, *op. cit.*, p.73.

48)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 43; *"(Aircraft) Dyna-Soar recommendation to push orbital test target date to mid-1963,"* Confidential, Report, unattributed, Dyna-Soar,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이하 DDRS).



〈그림 2〉 다이너소어

출처: Peebles, op. cit., p.16.

4. 공군의 국방부 설득과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승인

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대한 국방부와 공군의 입장 차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 육·해·공군은 우주 영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각 군 자체적으로 노력해왔다.[49] 1958년 1월 육군의 익스플로러(Explorer) Ⅰ호가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했으며 이전부터 해군도 뱅가드 개발을 통해 우주 영역과 해군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우주 공간의 군사적 기회에 대해 각 군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다.[50] 이처럼 초기부터 우주 프로젝트에 각

49) Spires, *op. cit.*, p.51. 우주 영역을 둘러싼 육·해·공군간의 경쟁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다이너소어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을 추진체로 육군의 새턴(Saturn) 부스터가 추천되었으나 공군은 타군의 부스터를 활용함으로써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될까 우려되어 이에 끝까지 반대하였다. Spires, *op. cit.*, p.75.

군간 불필요한 중첩이 제기되자 1958년 2월 국방부는 각 군의 우주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관리할 고등연구계획국을 창설했다.[51] 공군은 그 동안 공군의 예산으로 준비해온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공식적인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승인받고자 했다.[52]

공군의 지도부는 우주 공간에서도 군사적 우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또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유인 우주 비행체로 추진해왔던 공군 지도부는 미국의 국가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소련보다 앞서 유인 우주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53] 이처럼 공군 지도부는 국가안보와 국가위신이라는 측면에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군 지도부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에서 공군의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고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하겠다는 조직적인 비전도 가지고 있었다.[54]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방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표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책 내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자 했다. 국방부는 공군이 우주 공간으로 군사 작전 영역을 확대하는데 반대했으며, 공격 임무가 포함된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호의적이지 않았다. 맥엘로이(Neil H. McElroy) 국방장관은 '항공우주'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공군이 이러한 개념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우주 영역 내 주도권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0) Lambeth, Benjamin. *Mastering the Ultimate High Ground: Next Steps in the Military Uses of Space*(Santamonica : RAND Corporation, 2003), p.15.
51)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p.17~18.
52) Spires, *op. cit.*, p.57.
53) *"(Aircraft) Dyna-Soar recommendation to push orbital test target date to mid-1963,"* Confidential, Report, unattributed, Dyna-Soar, DDRS.
54) *"(Intelligence annex on the Soviet space program, its objectives, launch vehicles, and a forecast analysis of Soviet goals),"* NASA/DOD Staff Report, June 3, 1961, Dyna Soar, DDRS;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43.

비판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불안한 여론이 조성되자 공군 지도자들은 이를 공격적인 우주 프로젝트를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직후, 르메이(Curtis E. LeMay) 공군참모차장 등은 콸스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군사 정찰 위성 프로그램과 위성의 잠재적인 공격 작전을 설명하였다. 이에 콸스 부장관은 정찰 위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즉각 지지를 표했으나, 공군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위성을 공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관료들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일단 공군 지도부는 우주 프로그램에 정찰 위성 이외에 공격용 무기체계를 포함시킬 수 없었다.[55]

나. 국방부 설득을 위한 공군의 노력

공군 지도부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위해 공격적인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국방부를 설득해야만 했다.[56] 우선 공군 지도부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중시하는 국방비 지출 문제를 고려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 것을 요구하는 여론과 의회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국방비 증가에 반대해왔다.[57] 국방부는 스푸트니크 발사 당시 10.2%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을 1959년에는 10%, 1960년에는 9.3%로 줄였다.[58] 공군 지도부는 국방비 지출에 민감한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강조하였다. 1957년 4월 30일 공군은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보미/로보 프로젝트, 브라스벨 프

55)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4; Spires, *op. cit.*, p.55.
56) Geiger, Clarence J., *History of the X-20A Dyna-Soar. Volume I*, (Historical Division Information Office Aeronautical System Division Air Force System Command, 1963), p.32.
57) Gaddis, *op. cit.*, pp.131~132.
58) *Ibid.*, p.184.

로젝트, 하이워즈 프로젝트를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로 통합했다.[59] 이러한 통합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중복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캡슐 형태의 유인 비행체와 달리 여러 차례 반복 비행이 가능했고, 착륙 과정에서 기존의 지상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었다.[60]

공군 지도자가 수행한 두 번째 노력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서 공격 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경계를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공군 지도부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1단계 지구 대기권내 초음속 시험비행체 개발(하이워즈 프로젝트), 2단계 유인 정찰 하드웨어 제작(브라스벨 프로젝트), 3단계 우주 핵폭격, 위성 요격 무기체계 생산(보미/로보 프로젝트)로 나누어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추진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프로젝트 1단계는 다이너소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초음속 비행 및 착륙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프로젝트의 예비 개발 성격을 강조했다. 물론 시험비행체 개발이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군 지도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다. 공군은 다이너소어 개발 지시 문서에서 1단계 시험비행체 개발이 최종적으로 우주 비행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61] 그러나 공격적인 무기 체계를 경계하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부에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지닌 1단계 예비 개발의 성격을 강조했다.

당시 행정부의 우주정책에 비판적인 의회와 국민 여론도 공군 지도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국방부 관료들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소련의 위성 발사 가능성을 몰랐던 의회와 국민, 언론은 불안감을 보였다.[62] 실제로 스푸트니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16; Spires, *op. cit.*, pp.40~41.
60) *"(Aircraft) Dyna-Soar recommendation to push orbital test target date to mid-1963,", op. cit.,* p.43.
61) Houchin, 2006, *op. cit.*, p.80.

발사 의미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발표를 국민들은 불안감의 표시로 이해하기도 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후보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소극적인 우주 정책을 비판했으며[63] 잭슨(Henry Jackson) 상원의원도 스푸트니크호 발사가 자유세계의 리더인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존슨(Lyndon B. Johnson) 상원의원은 스푸트니크 발사를 일본의 진주만 습격에 비유했고 언론은 소련에 비해 미국의 지위가 쇠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64] 의회와 국민, 언론은 행정부가 위성 발사가 미칠 정치적, 심리적 영향을 잘못 평가하여 미국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압박했다.[65]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군 지도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용 우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1958년 1월 24일 국방부에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국가 우주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로 취임한 존슨(Roy Johnson) 고등연구계획국장도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에 대한 공군의 예비 개발 성격과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존슨 국장은 다른 국방부 관료들보다 공군의 유인 우주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었고[66] 공군의 정찰 위성 프로그램과 함께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도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1958년 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 국민들은 1957년 10월 8일에서 1957년 10월 15일 사이에 국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기 위한 수많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17; Spires, *op. cit.*, p.50.

63) Roy F. Houchin, "Air Force-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Rivalry: The Pressure of Political Affairs on the Dyna-Soar(X-20) Program, 1957-1963," *Journal of the British Interplanetary Society*, Vol. 50 (1997), p.164.

64) David Callahan and Fred I. Greenstein, *op. cit.*, pp.25~26.

65) Spires, *op. cit.*, p.30; Paul B. Stares, *The Militarization of Space, U.S. Policy 1945-1984*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38.

66) *The Threshold of Space, op. cit.,* p.23.

존슨 국장은 공군에 군사 임무를 포함한 유인 우주 프로젝트를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장기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공군은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국가 우주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었다.[67]

5. 결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추진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미소 우주경쟁의 시대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승인 원인을 공군 조직 문화와 다양한 행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했으며, 냉전 초기 미국의 우주정책 중 비밀로 다뤄졌던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승인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밀 해제된 1차 자료와 공군 우주 사령부가 펴낸 역사자료를 활용했다.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군은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우주 영역을 단순한 과학 탐사의 영역이 아닌 '작전의 영역'으로 인식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우주 영역에서 반드시 소련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야하며, 공격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군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주 개발에 관심이 없던

67) *Reconnaissance Satellites and Manned Space Exploration,* Classification Unknown, Memorandum, February 28, 1958, Military Uses of Space, MS00614, DNSA, p.2.

1950년대 초반부터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원형이 되는 보미/로보 프로젝트, 브라스벨 프로젝트, 하이워즈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를 선호하는 공군의 공유된 문화도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유인 우주 비행체로 개발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공군은 스푸트니크 발사로 국가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가 요구될 때, 자체적인 3개의 프로젝트를 통합한 다이너소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승인받는 것이었다.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주요 정책결정 행위자인 국방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 우주 정책의 틀 내에서 우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자 했고, 공군은 조직의 비전과 이익을 포함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공군의 첫 번째 노력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이너소어는 캡슐 형태의 유인 비행체와 달리 여러 차례 반복 사용이 가능했고, 착륙 과정에서 기존의 지상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었다. 또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는 3개의 프로젝트가 통합된 것이므로 중첩된 임무를 통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공군의 두 번째 노력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지닌 예비 개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공군은 다이너소어 프로젝트 추진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1단계가 지닌 예비 개발의 성격을 강조했다. 1단계는 대기권 내에서 초음속 비행 기술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아이젠하워 행정부 내에서 추진되었던 X-15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야기된 의회, 여론, 언론의 불안과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대한 요구도 공군 지도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다이너소어 프로젝트가 승인된 원인은 우주를 작전 영역으로 보는 공군 조직문화와 이를 토대로 추진된 공군 내부의 장기적인 준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공군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론, 공군 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도부의 효과적인 설득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자신의 조직 문화를 담은 프로젝트를 관철시킴으로써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려는 미 공군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원고투고일: 2017.1.7, 심사수정일: 2017.2.18,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다이너소어 프로젝트, 우주정책, 아이젠하워 행정부, 조직문화, 미 공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Study for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Dyna-Soar Project approved b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hat pursued the peaceful use policy of Space

Shin, Kyeong-Eun, Um, Jung-Si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 for approving the Dyna-Soar Project of the U.S. Air Force dur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based on declassified archival sources. The Aggressive nature of the Dyna-Soar Project could not consist with a peaceful keynote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s space policy. The main goals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were to deter an arms race with the Soviet Union and to relieve a pressure on a national defence budget. All those aims could be achieved by emphasizing a peaceful use of outer space that guaranteed a safety and a legitimacy of using the US reconnaissance satellites in outer space. However, the Dyna-Soar Project of the US Air Force aimed to develop offensive space technologies and, accordingly, to secure increased defence budget.

This study argues that the US Air Force had an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ing an outer space as an area for military operations, that, by the reason, the US Air Force had already developed a preceding research of the Dyna-Soar Project, that the US Air Force used an approach to relieve anxiety about offensive nature of the project by dividing it into several stages, that they highlighted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ject by connecting it to other three different space missions, and that, aside through aforementioned steps, the US Air Force could have an official approval to the project by taking advantage of pervasive anxiety of the Congress, a public, and a mass media over a success of the Sputnik by the Soviet Union.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ey words : The Dyna-Soar Project, Space Polic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Culture, the United States Air Forc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기 북한의 민주선전실에 관한 연구*

- 운영구조와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

김상범**

1. 머리말
2. 역사 제도적 배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기 북한 패퇴 후 체제유지를 위해 선전선동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민주선전실 운영 및 지도체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

* 이 글은 김상범, 「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12-153쪽을 전면 수정·보충한 것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북한은 1950년 9월 미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북중 국경까지 패퇴를 거듭하였다.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북한 대부분 지역의 점령, 이어진 중요 농업 및 산업 시설 파괴, 대량 인명 피해와 농업 포기 및 농업생산물과 농업기구들을 헐값에 팔고 지역을 이탈하는 행위[1], 남한으로의 피난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당시 전체인구 약 80%가 농업에 종사했던 신생 사회주의 국가 북한[2]에게는 체제 기반의 붕괴 및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후퇴 시기 인민들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관료들의 규율 해이 현상도 심각했다. 패퇴하는 과정에서 당증을 찢거나 소각·매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심지어는 유엔군에 투항하면서 당증을 내주거나 인민군대 내 도피자까지 발생하였다.[3] 후퇴 직후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인 당원등록과 당 역량 배치사업 과정에서 전체 당원 수 60여만 명 중 심사대상 당원이 45여만 명, 이 가운데 책벌의 대상이 30여만 명이었다.[4] 패퇴 시기 체제의 정치, 경제적 기반 파괴 및 당과 정부 내 규율 해이 현상은 북한으로서는 분명한 '위기'였다.

동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38선 이북 지역을 회복한 뒤 북한은 빠른 시간 내 붕괴된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고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였을까? 정책은 인민들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정책은 인민들이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신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3년 춘기파종 준비 진행에 대한 내각결정 집행정형과 그와 관련한 당단체들의 사업강화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27차 회의 결정서, 1953년 2월 24일)」,『1953년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66쪽.
2) 김일성, 「당조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99쪽.
3)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김석형 구술 자료집 -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오!』, 서울: 선인, 2001, 332-338쪽.
4) 방인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146-147쪽.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동요와 이탈을 방지해야 했다. 동시에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목표를 그들과 공유하며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인민들에 의한 동의'의 과정이 필요했다.

북한은 후퇴 후 재 수복한 지역에 대해 당에서 458명에 달하는 선전선동원들을 각 도에 파견[5]하여 '리'의 선전망을 개편, 확립하는 차원에서 민주선전실을 정비하는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6] 또한 김일성은 1951년 1월 "당의 우수한 력량을 농촌에로!"라는 구호를 통해 중앙당의 능력 있는 많은 간부들을 농촌으로 파견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1만 5천개의 민주선전실을 설치 및 복구[7]하도록 긴급 지시하였다.

김일성은 민주선전실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였으며, 이곳에 부여된 임무도 재설정하였다. 선전선동과 정치교양사업 강화를 통한 인한 체제 기반 복원과 사회 전체를 전쟁을 위해 일심 단결된 투사로 만들려는 김일성의 의지는 먼저 이북지역 재수복 이후 민주선전실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 참전으로 전쟁 상황 역전과 자체의 선전선동사업 강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서 철저한 자기 중심의 새로운 체제 기초를 쌓고 싶어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현재까지 북한연구 학계에서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전쟁을 '과정'과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결과'와 '전투'로 이해[8]함으로써 전쟁수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강연 선전사업 강화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4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1일)」, 『1947.7-1951.12 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집』, 316쪽.

6) "군중정치선동사업 강화하여 인민을 전선강화에 조직 동원 - 평북 정주군당단체," 『로동신문』, 1951년 1월 19일. 그러나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한 날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다.

7) 김진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직진행된 농업협동화준비사업이 전후 농업협동화운동 발전에서 가지는 력사적의의」, 『력사과학』,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6쪽.

8)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서울: 돌베개, 2000, 48쪽.

행의 정당성을 만을 부각시킨 채, 국가와 군대,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등 전시체제 국가의 지배방식과 사회구조, 행위자들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간과한 측면이 강했다.

둘째, 자료 부족은 민주선전실의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연출시켰다. 특히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해서 노획되어 국내에 존재하는 로동신문은 적지 않은 부분이 판독 불량 상태이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로동신문을 공수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민주선전실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셋째, 민주선전실이 현재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시기를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가 부족했다. 이들은 민주선전실을 선전선동 관련 '기억의 정치공간'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 사업 방법 및 사례, 특히 당, 정부 그리고 인민들 간의'상호작용'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9]

넷째, 일부 북한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10]으로 인해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97-139쪽; 김종수, 「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169-210쪽; 김영희, 「한국전쟁기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선전선동사업」,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6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150-172쪽; 탁민정, 「북한 국가 건설기 농촌 민주선전실의 조직과 활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정명훈, 「전시의 극장, 선동과 공감의 매개체: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공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159-195쪽.

10) 김일성조차 당시 일부 민주선전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

연구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연구 성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 초기 민주선전실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를 연구대상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한국전쟁 전과 후 민주선전실의 조직, 운영, 활동 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전쟁기 인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며,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를 전쟁승리를 위한 교육과 동원에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문헌은 로동신문이다. 북한 문헌은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소급 해석하는 소위 '역사의 현재화'작업으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재해석되고, 재 가공된 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동신문은 당대를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며 현재성과 사실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이다.[11] 여타 문헌들은 민주선전실 관련 결정 및 규정 등 행정적인 내용들만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로동신문은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 지도 체계, 활동과 인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역사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전실 운영정형을 보면 민주선전실을 꾸려 놓은데 그치고 그것을 잘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저 회의나 하고 강연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민주선전실에 농민들이 흥미있게 볼 만한 책도 얼마 없습니다. 민주선전실에서 회의나 하고 강연만 하여서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지 않습니다. 민주선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이도록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위한 중요한 담보」, 『김일성저작집』, 제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27쪽.

11) 고유환,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24-26쪽.

2. 역사 제도적 배경

가.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의미

선전선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인민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형태이다. 사회주의에서 선전(propaganda)은 기존 관념에 새로운 관념을 결합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사상, 관점, 정책 등을 대중들에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설해 줌으로써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 선동(agitation)은 선전을 통해 형성된 관념을 인간의 행위와 연관시킨다는 뜻으로 대중의 정서,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노선, 목적 등을 잘 수행하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책 관철을 위해 행동을 유도하는 정치 사상사업의 한 형식이다.[12]

선전은 선동에 비해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론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므로 주로 간부나 당원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13] 선동은 선전을 통해 밝혀진 특정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교양 및 호소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해석,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4] 사회주의에서의 선전과 선동은 당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교육하고, 당이 대중들을 사회주의로 교양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임으로써 당과 인민이 하나의 이념과 목표 아래 정치, 경제적으로 단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전과 선동은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당의 노선 및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15] 사회주의에서는 선전과 선동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 편집부 엮음, 『선전선동론』, 서울: 지양사, 1989, 20-21쪽.
13) 조선로동당출판사 저,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0-21쪽.
14) 위의 책, 20-21쪽.
15) Wolfgang Deckers,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in Mao Zedong:

결합한 아지프로(agitprop)[16]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당의 정치 노선 관철을 위해 선전선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전선동은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요, 국민들은 당과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정치의식 및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유해 가는 상호작용인 것이다. 이것은 선전선동이 당과 인민이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이요,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며, 당과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공동 결과물이었다.[17]

나. 민주선전실의 기원 : 한국전쟁 이전 조직 및 활동

민주선전실은 김일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내 첫 선거였던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끝난 직후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명 후 존속을 지시한데서 시작되었다.[18] 김일성은 당시 공장 및 기업소들에는 노동자들의 교양을 담당하는 노동자구락부가 있으므로, 낙후된 농촌지역 인민들의 교양을 위해 민주선전실을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인민들의 정치사상

Origins and Development of a Revolutionary Strategy," (Ph.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6), p.276.

16) James S. Olson,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Propaganda*(Westport and London: Greenwood Press, 2004), p.5.

17) 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Politics and Propaganda: Weapons of Mass Seductio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p.4.

18) 최창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화적건설시기 민주선전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력사과학』, 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6쪽.

및 사회문화적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높은 노인 인구비율과 문맹률로 인해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척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제가 남긴 물질적, 제도적, 사상적, 문화적 유산을 청산의 성공 여부가 새로이 수립될 국가의 정통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9] 김일성은 민주선전실을 통해 해방 후 낙후된 북한 농촌 지역의 정치적 계몽, 경제적 여건의 향상을 위한 대중동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초기 민주선전실은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과 애국주의 위주의 '인민계몽사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8일 결정 제107호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속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20] 동월 11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협소한 선동사업 형식으로부터 근로대중속에서 광범한 선전사업 형식으로 넘어갈'데 대한 결정과 '선거선전사업에서 동원되었던 선전원들을 튼튼히 조직하여 재교양시키며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확보'할 것에 대한 '당박사' 허가이의 지적[21]에 따라 각급 당 단체들은 민주선전실 확보사업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당 선전선동부는 농촌의 경우 민주선전실을 가능한 한 20여 호 이상 되는 모든 부락과 1개 리에 2곳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22] 민주선전실은 대체로 일제강점기 농촌 지주 소유의 큰 건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 김재웅,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1945-1950)」,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90쪽.
20) 최창명, 위의 글, 6쪽.
21)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1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선전원수책, No.9, 1948.12, 선전선동부.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 문서.
22) 위의 글, 30쪽.

기존의 선거선전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직접 자금과 자재를 동원해 새로이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947년 6월부터 한 해 동안에 산간 오지마을까지 포함, 전국적으로 4,546개의 민주선전실이 새로 꾸려졌으며, 1948년 4월 당시 7,780개[23], 1948년 말에 이르러서는 16,662개로 폭증하였다.[24]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 정권 수립기 여타 사회주의 신생국가들보다 선전선동을 통한 계몽사업에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투입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5]

초기 북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26]은 각 도·시·군·면·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설치 및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27] 당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무급직이었으며, 대체로 토지개혁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할 받은 열성농민들 중 지역 인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즉,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지역 명예직이었다. '당원'은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그 외 각 활동 책임자들이

---

23)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김일성저작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73쪽.

24) 최창명, 위의 글, 7쪽.

25) Charles K.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166.

26)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 운영, 사업체계를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찾기 어렵다. 력사과학, 북한관계 사료집, 로동신문, 선전원 등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에서도 운영 지침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북한이 패퇴 후 재 수복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이 복구, 재단장 되면서 로동신문에서는 구체적인 민주선전실장의 임명 및 사업 절차, 인적 구성 및 활동, 당과 정부의 지도체계, 민주선전실장 교육 관련 세미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선전실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 인민들 또한 면밀히 이해하고 협조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7)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07호」, 『북한관계 사료집(1945-1947)』, 제5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되기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었다. 또한 1개의 민주선전실에 배치된 5~7명의 선전원들[28]도 모두 무급이었다.

인민계몽사업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장식도 중요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 벽보, 선전원 체계도, 영농계획표, 문명퇴치 정형표 등 선전선동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선전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선전실장을 비롯해 선전원 책임자, 벽보 책임자, 예술소조 책임자들을 포함한 3-9명의 열성 농민들로 구성되었다.[29] 당 문화선전성은 이들 책임자들이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30]

각급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등의 선전원, 문화인들이 협조하여 민주선전실 내 독보회, 좌담회, 벽보사업, 도서 열람, 써클 활동 등 정치교양과 선전사업을 담당했다. 독보회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하되, 책임자가 신문기사 중 국내외 정세, 중앙정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의 시책 등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 선택하여 10-15분 동안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10분간의 집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31] 좌담회는 일주일에 1회 이상 농업기술전습 경험 및 모범 노동자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8) ① 민주선전실 책임자 1명, ② 독보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③ 표어, 만화, 벽신문, 속보판, 그래프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원 1명, 문화, 예술, 체육 등이 동호회를 담당하는 선전원 1명, ④ 도서 활용과 학습을 지도하는 선전원 1명.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 『선전원수책』,9호, 선전선동부, 1948, 30쪽.

29) 최창명, 위의 글, 7쪽.

30)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57쪽.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Item #177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NARA, RG 242, SA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그러나 문화선전성의 이러한 권고는 한국전쟁기 북한의 패퇴 후 재수복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31) 위의 글, 62쪽.

의 증산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32] 1947년 말-1948년 초에 4,370회, 1948년 초-1949년 상반기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15,416회가 개최되었다.[33]

이러한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 형식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졌던 것은 소련의 정치사상과 선진문화 관련 부분이었다. 1945년 11월 북한에 설립된 소비에트 대외문화교류총협회의 지부인 조쏘문화협회와 농촌 지역 말단 행정구역까지 설치된 조쏘반을 주축으로 민주선전실 내 소련 관련 교육 내용을 채울 수 있었다.[34]

그러나 초기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써클 활동 관련 연예오락사업이었다.[35] 이것은 초기 운영에 있어서 나이대가 다른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 모이게 하여, 민주선전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가장 효율적이며, 쉬운 선전선동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민주선전실은 무지하고 아무생각 없는 젊은 여성들이 노래나 부르러 다니는 곳'이며, 민주선전실을 자주 출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게으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다.[36]

설상가상으로 북한 농촌지역 당과 인민위원회 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들의 부족으로 인한 선전선동과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지도체계 문제는 일부 민주선전실들을 아예 이용하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2) 앞의 글, 63쪽.
33) 최창명, 위의 글, 9쪽.
34) 한국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과 조쏘문화협회는 별개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시기 민주선전실장은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전 조쏘문화협회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태우, 「1948-49년 북한 농촌의 선전선동사업: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 『역사와 현실』, 제60호, 한국역사연구회, 2006, 127-136쪽을 참고.
35) 문화선전성 문화국 군중문화부,「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 『선전원』, 11호, 문화선전성, 1949, 70쪽.
36)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 - 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정치사업 전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않거나, 동네 사랑방으로 이용되거나, 조이삭, 강냉이나 말리거나, 심지어는 혼백을 모시는 사당으로 활용되게 방치해 두었던 사례[37]로 나타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 이전 시기는 농촌지역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만한 능력 있는 인재 부족의 현실로 인해 북한이 당시 인민계몽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전선동사업에 정치성을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권 수립 초기 이어진 선거, 예를 들어 1947년 2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이어진 각급 단위 인민위원회 선거,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선거, 1949년 3월 30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치성이 강한 선전선동 사업은 대부분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업적을 소개하는 선거 홍보와 투표 격려에 집중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당시 북한에게는 선거와 투표라는 정치행위 그 자체가 국가의 조직력과 선전선동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결국 정권의 정치적 통제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38] 다시 말해, 한국전쟁 이전 북한은 선전선동사업을 위한 민주선전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거를 통해 선전선동의 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운영과 사업방식은 전쟁 중 북한이 패퇴와 재수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며 인민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7)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군중선동사업 강화를 위하여」,『선전원수책』, 9호, 선전선동부, 1948, 26-27, 32쪽.

38) 북한 정권 수립기 북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한 선거체제의 특수성과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박수현,「북한 국가건설기 선거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북한학연구』 제4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8, 143-146쪽.

3.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

가. 유급 민주선전실장제 실시 : 중앙 당의 직접 지도 및 관리

북한은 재 수복 직후인 1951년 1월 14일 공화국 수상 김일성 명의의 내각 결정 제190호'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도당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편으로 도주한 민족반역자들의 물산을 등록하여 이를 처분할 데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체제 이탈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이어 1월 21일 당 중앙 정치위원회 제73차 회의에서 무상 치료와 세금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하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대책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 전재민과 농민들의 무상 치료와 세금 면제,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는 춘경기 및 제초기에 농민들의 국가동원을 금지시켰다.[39]

같은 날 열린 제74차 회의에서는'인민들 속에서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40], 농촌지역 경제 기반 복원과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통해 전쟁 수행을 위한 선전선동과 정치교양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압도적인 미 공군력으로 인해 국가기반 도시와 산업시설이 대규모로 파괴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농촌지역은 전쟁 수행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북한은 1951년 3월 12일 내각 결정 제224호를 채택하여 농촌 지역 주민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내각은 산간벽지와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조국해방전쟁과 관련하여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대책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73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월 21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21-24쪽.

4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279쪽.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표기는 원문을 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 각 리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민주선전실을 복구 및 정비, 민주선전실이 없던 지역은 새로 신설하고, 그에 우선적으로 문화선전상·내각 간부국장 및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농촌 지역에 유능한 5,000명의 유급민주선전실장을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내각은 민주선전실 운영 경비와 그 외 서적·비품 등의 배치와 관련 재정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하였다.[41]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기 대중 정치사상 및 문화 교양사업 분야에서의 결정적인 혁신이었다.[42] 선전선동망을 개편하여 기존 비당원,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주로 오락 및 선거활동을 주로 해오던 민주선전실을 체계적인 교육과 동원을 통한 전쟁 승리 및 체제 유지를 위해 당원 및 중앙 당 인사를 파견하고 지도·감독하는 중앙당 직접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이 조치는 농촌 지역 통치 체제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였으며,[43] 전쟁기 민주선전실 운영과 사업체계 관련 가장 큰 변화이기도 했다.

1951년 8월 30일에는 내각 결정 321호로써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44] 이것은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새로운 운영구조와 지도체계의 변화, 민주선전실장의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농촌 리 단위 전시 선전선동사업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1) 「인민속에서 대중적 정치사업 제고를 위한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224호」,『북한관계 사료집(1951-1952)』, 제24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34쪽.
42) 장종렵,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78쪽.
43)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471쪽.
44)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규정 승인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1년 9월 7일.
45) 김종수,「북한 주민의 사상교양: 사상교양공간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15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181쪽.

전쟁 이전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당원 자격도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비록 전쟁 이전 시기 북한은 민주선전실장에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이외 다른 임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농민에게 정치사상 및 문화교육사업을 담당하는 민주선전실장의 임무까지 맡긴다는 것은 농업도 사업도 모두 안 되는 말 그대로 무리한 발상이었다.

전쟁기에는 유급직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철저한 당성을 지닌 당원으로 구성되었다.[46] 전쟁이 소강상태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북한은 남한으로 파견되었던 스파이들 중에서 당성과 사상성이 좋은 이들을 민주선전실장으로 부임시키기도 하였다.[47] 민주선전실장은 고급중학교 이상의 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실력을 소유한 자 또는 해방 후 각종 정치학교를 졸업한 자들 중에서 인민들의 신망과 권위가 있는 자들로 임명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의 급료 및 강습비 기타 운영 관련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인민학교 1급 교원과 동일한 국가적 우대를 받았으며, 당시 군당 위원장이나 당 간부보다 많은 12원을 받았다.[48] 이는 전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사회적 지위와 책무를 상징적 보여주며, 민주선전실의 운영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급 민주선전실장 각 도별 배정 현황을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평야지대로 농업 수확량이 많은 평남과 황해도 지역에 각각 850명을 파견함으로써 산간지대인 자강도와 함북도와는 두 배 이상 혹은 두 배 가까운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것은 전쟁기 이 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제26권, 275쪽.
47)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 (상)』, 서울: 현장문학사, 1990), 191-220쪽. "안주군 평률리 민주선전실장" 편 참고.
48) 위의 책, 203쪽.

역의 인적, 물적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에 대한 복구를 통한 지역 질서의 정립이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 3-1〉 유급 민주선전실장 각 도별 배정 현황

지 역	배정 수
평남도	**850**
평북도	**800**
자강도	400
함남도	800
함북도	500
황해도	**850**
강원도	800
합계	**5,000**

출처 : 「인민속에서 대중적 정치사업 제고를 위한 유급 민주선전실장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서 선거선전실을 민주선전실로 존치시킴에 관한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224호」, 『북한관계 사료집(1951-1952)』, 제24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34쪽.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민주선전실은 1950년대 하반기에 3,794개에서 1951년 2/4분기에는 12,833개[49], 1952년 8월 현재 15,000여 개[50]로 늘어났다. 1948년 말에 16,662개[51]에 달했던 민주선전실이

4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290쪽.

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84쪽.

51) 한국전쟁 개전 전까지의 정확한 민주선전실의 수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각 농촌 지역에 민주선전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수는 1948년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북반부 인민들의 건설투쟁: 함남도 내 각 공장 기업소에서 기본건설 공사 활발, 북반부 농민들 구락부와 민주선전실을 대대적으로 건설)," 『로동신문』, 1950년 3월 29일; "민주선전실 신설: 평양 연초의 기념□설," 『투사신문』, 1950년 6월 13일 참고. '□' 표시는 판독 불가로 인한 본 연구자의 임의적인 표기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하반기에 3,794개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지역을 점령했던 두 달 동안 선전선동 기반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당과 정부의 정책으로 1952년 8월에서야 민주선전실의 수가 1948년 수준까지 증가하게 된다.

한국전쟁 전 민주선전실 설치 초기와 비슷한 숫자와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 많은 민주선전실의 보수, 재설치하였다는 사실은 당이 선전선동의 조직, 임무,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전쟁 이전과는 달리 깊게 관여하고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으며, 선전선동사업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국가적 중요 사업이었음을 의미한다. 체제, 최고지도자, 인민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행동이 선전선동사업이요 북한에게 한국전쟁은 군인들에 의한 전투가 아니라 인민들에 의한 전투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또한 당과 정부, 인민들 간의 정치적 관계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당과 정부의 지도·감독 이원화

전쟁기 민주선전실은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문화선전성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다.[52] 전쟁 이전 시기 각 급 인민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전쟁기에는 각 도당 위원회가 민주선전실장의 선발 배치와 설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담당했으며,[53] 이를 바탕으로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민주선전실장을 임명하였다.[54]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

52) 김일성, 「농촌에서 당정치교양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결론(1952년 6월 28일)」, 『김일성저작집』, 제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303쪽.

53)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 평남도당부 선전선동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54)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

장의 선발과 교육은 각급 당 선전선동부가, 행정적 지시와 감독사업은 각급 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가 담당하는 이원체계로 구성되었다. 전쟁기 당 사업에서 유능한 간부를 등용하고 배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선전실 사업의 강화를 위한 운영 및 지도체계 변화는 계속됐다. 먼저 도 인민위원회 내에 농촌 지역 민주선전실 실무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 문화선전부 내 과장 1명, 지도원 2명으로 구성되는 민주선전실 지도과를 신설하고 군 인민위원회에도 민주선전실 지도원 1명을 두어 유능한 민주선전실장의 배치와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55] 이어 1951년 12월 24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를 열어 당 선전선동 및 군중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목적으로 도 당위원회에 이를 전임하는 선전부위원장제를 신설하였다. 전임 부위원장은 현존한 부위원장들 중에서 배치하였으며, 1952년 1월 중으로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다.[56]

연이어 북한은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를 열어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결정[57]하고 이를 근거로 각 도당은 능력 없는 민주선전실장을 새 인물로 교체할 수 있는 자체 권한도 부여받았다. 북한은 유급 민주선전실장제 신설, 도 인민위원회 내 민주선전지도과 신설, 도 당 선전부위원장제 신설 및 민주선전실장 교체 권한 부여 등 민주선전실에 대한 당과 정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5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선전실 지도과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을 찾기는 어렵다.

5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에 선전부위원장제 설치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24일)」,『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6쪽.

5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7쪽.

의 지도·감독의 이원화 및 자체 조직 내 민주선전실의 운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조치들은 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교육과 동원을 목적으로 민주선전실 사업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민주선전실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북한은 1952년 8월 3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에서 '농촌에서의 당 정치교양사업 및 군중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통해 유급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의 선전실을 담당케 하였으며, 민주선전실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민주선전실에 1명의 무급 부선전실장을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58] 이 조치는 전쟁기 능력있는 간부들의 부족 현상과 여전히 많은 민주선전실이 사업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연관이 있지만,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를 열어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결정에 따라 유급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민주선전실들이 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의 결과였다.

예를 들어, 1950년도 함남도 함주군 선덕면은 가장 낙후돼 도 내 각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14명의 유급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후로 일체 사업은 현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시책들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59] 이러한 성과들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에게 더 많은 책무를 부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90쪽.

5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8쪽.

북한은 1952년 12월 22일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기존 행정구역제도인 '도-시·군-면-리'를 '도-시·군-리-동' 체제로 변경, '면'을 폐지하고 행정 말단 단위인 '동'을 신설, 군이 직접 행정 말단단위 '리' 직접 지도·관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민주선전실의 구조와 운영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당의 사상을 담당하는 '리당 부위원장' 직을 겸임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60] 리당위원장도 상근제로 변경되었다.[61] 이어 1개 리를 담당하던 유급 민주선전실장들에게 2개 리의 민주선전실을 맡아서 사업하도록 지시하였다.[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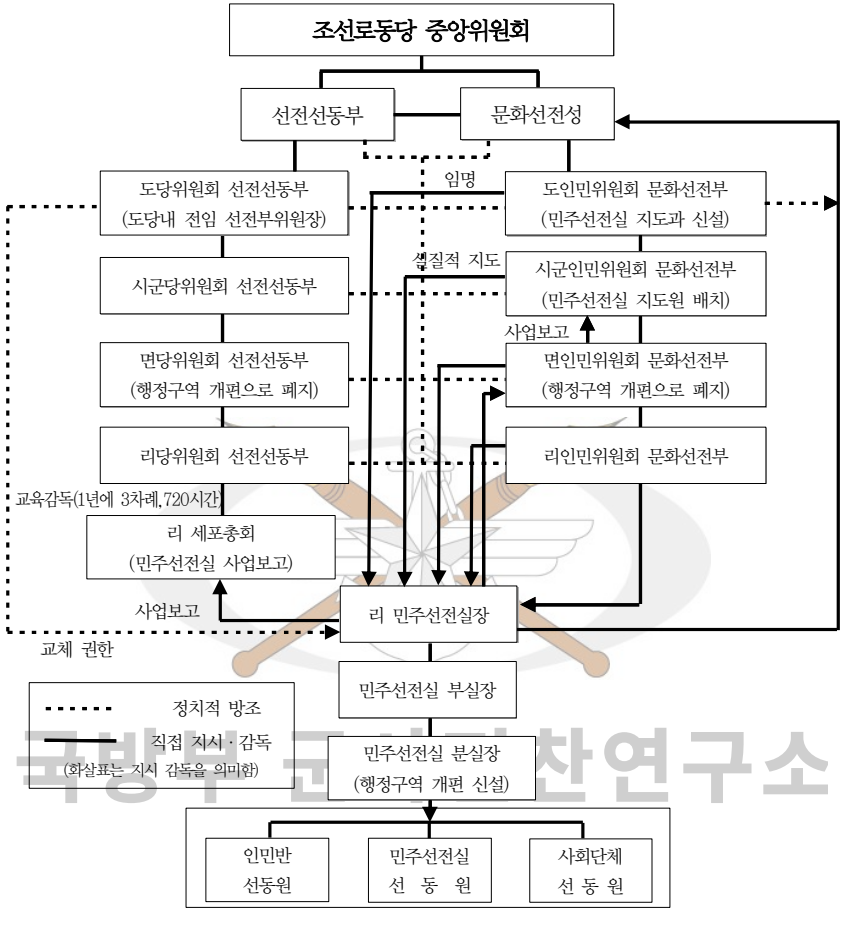
또한 행정구역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설치되고 분실장이 임명되면서 민주선전실은 민주선전실장-민주선전실 부실장-민주선전실 분실 분실장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행정계통적으로 문화선전성 관할 하에 있는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을 중앙당의 직할 통제 하에 두는 것을 의미했으며, 리당부위원장인 민주선전실장은 농촌의 리, 동까지 당의 노선과 정책이 직접 하달되어 실행되는 시스템 구축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주선전실장에게 리, 동 단위에 당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요구했다. 1949년 '민주선전실 운영을 위한 지도서'와 1951년 8월 '농촌 리 민주선전실에 관한 내각 결정 제321호'에서는 민주선전실장에게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조치였다. 민주선전실장은 리당부위원장, 리당 위원, 리 인민위원회 위원, 노동당 학습강사,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 및 유적유물보존위원회 리 위원장도 맡아야

60)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61) 서동만, 앞의 책, 472쪽.
62)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 지도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11월 1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 3-2〉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운영구조 및 지도체계



출처: 김상범,「한국전쟁기 조선로동당 정치조직사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30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에 선전부위원장제 설치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8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24일)」,『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6쪽;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을 종합해 저자가 직접 작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했다.[63] 한국전쟁기 농촌지역 민주선전실장은 당, 정부,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선과 정책 모두에 관여 및 실행함으로써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이음새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선전실 내 인적 구성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 이전 시기에는 1개의 민주선전실에 당원, 비당원으로 구성된 5-7명의 선전선동원들이 배치되었다. 민주선전실 운영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선전선동원 책임자 1인이 존재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은 민주선전실장 1명, 선전선동원 최대 7명, 운영위원회 최대 8명 등 최대 총 16명 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전쟁 시기는 일반적으로 민주선전실장이 마을의 인민반수, 선전대상, 마을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선전선동사업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었다. 산악지형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 간의 거리가 멀었고, 이 경우 민주선전실장의 지도 아래 더 많은 분실과 선동원들이 배치될 수도 있었다.[64] 북한이 민주선전실 관련 당과 내각의 결정으로 선전선동사업에 더 많은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이전 시기보다 민주선전실 사업에 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예를 들어, 평남 강서군 학송리의 경우 1개의 민주선전실은 실장 1명, 부실장 1명, 분실장 3명 그리고 30명의 선전선동원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65] 이것은 전쟁 이전 시기보다 민주선전실

63) 김진계 구술 · 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위의 책, 204쪽.
64)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65) "민주선전실 분실장의 사업 경험 - 평남도 강서군 학송리 민주선전실 소룡동 분실 분실장 박인애," 『로동신문』, 1953년 4월 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성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북 안주군 평률리의 경우 민주선전실장 1명과 20여 명 정도의 선전선동원 등 최소 21명으로 구성되었다.[66]

중요한 것은 전쟁기 민주선전실을 구성하는 인원들은 모두 지역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당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67] 다시 말해, 전쟁기 민주선전실을 구성하는 인원은 전쟁 이전시기 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모두 당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과 최고지도자, 인민을 위한 일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의미했다.

민주선전실장의 막중한 책무와 비록 당원이지만 정치 및 실무 수준이 서로 다른 다양한 구성원이 다 함께 전쟁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성과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 계획들을 토대로 정기적인 사업 총화와 비판은 민주선전실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며 민주선전실장과 구성원, 그리고 사업 대상인 인민들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민주선전실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내외의 정치·경제 경제와 당과 국가로부터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낼 수 있는 관련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민주선전실장은 농촌 지역의 군중정치문화사업이 민주선전실을 중심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초급당(세포)위원장 및 각 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 내 각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 계획서에는 강연, 보고, 좌담회, 직관물 선전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6)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0-201쪽. 당시 민주선전실에는 1명의 부실장과 최소 1명 이상의 분실장이 존재했다. 아쉽게도 이 문헌에는 민주선전실 부실장과 분실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 연구자는 총 21명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부실장과 분실장까지 포함한다면 평률리 민주선전실 구성인원은 최소 23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평률리는 평률, 명학, 봉덕 등 세 개의 자연부락에 300호 남짓 되는 집들이 흩어져 1,200명 정도의 농민이 살고 있었다.

67) 위의 책, 201쪽.

업, 선전 자료 작성, 써클 연습 및 공연, 전람회, 선동원들을 위한 세미나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집행 방법, 집행 기관 및 주체, 협업 구조 등이 포함되었다.[68] 또한 이 계획서에는 계획 수립 후 집행에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은 계획의 수립,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해 월 1회 당과 인민위원회의 리급 간부들과 선동원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화를 거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음 사업을 계획, 토의함으로써 '계획 완수'를 민주선전실 사업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사진 3-1〉 민주선전실의 외부 모습 – 평남 강서군 청산리 민주선전실

출처: "추억의 민주선전실,"『로동신문』, 2000년 2월 8일; 김성보·기광서·이신철 지음,『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서울: 웅진닷컴, 2004, 165쪽.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사업체계면에서의 변화는 민주선전실의 위치, 내외 장식 부분에서도 일어났다. 먼저 전쟁 이전

68)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시기 민주선전실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상 큰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전쟁기에는 전시를 고려하여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방공호 및 대피시설을 굴설할 수 있거나 굴설되어 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유리한 곳 중 '리' 내 가장 적합한 곳을 이용하였다.[69] 민주선전실이 지상 건물일 경우 철저한 위장막은 필수장비였다.[70]

전쟁 이전과 전쟁기 양 시기를 통틀어 민주선전실의 내외부 장식은 그 자체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흥미 느낄 수 있는 설비와 장식이 필요했다. 선전선동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민주선전실 내에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 강연회, 보고회, 각종 강습회 및 기타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방이 있었으며, 도서실, 오락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그 방에는 농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기판, 바둑판, 라디오, 악기, 축음기 등 여러 가지 문화오락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외부에는 농민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쉽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실지 농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벽보판, 표어, 당면과업 도표 등 직관물 선전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장식은 남북한은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민주선전실을 통해 명확히 재인식하게 만들었다. 전쟁 이전 시기 민주선전실에는 사회주의 모국으로서의 소련의 지위와 역할, 최고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담아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나란히 장식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이북지역을 다시 재 수복하게 되자 스탈린과 모택동, 김일성의 사진이 나란히 걸리게 되었으며,[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9)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령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70) "과동 준비 활발 - 민주선전실장 최성룡 동무가 사업하는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10월 21일.

질서 정연하고 존엄하게 내걸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72] 당시 북한 내 각 급 당위원회 사무실에도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는 걸리고 모택동의 초상화는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73]을 볼 때 정치적으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것은 중국의 전쟁지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북한은 민주선전실장에게 중국의 국공내전, 인민경제 복구건설의 성과, 국제적 지위 및 항미원조운동에 대한 자료를 하달하고, 선전선동 자료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74] 이것은 정권 초기와 전쟁수행 중이라는 체제 위기의 상황에서 중국과 모택동의 역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택동을 스탈린의 지위와 명성에 버금가는 인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전쟁 경험과 승리 방법을 소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에게 친 중국성향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초상화 이외에도 북한을 지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장과 국기들 또한 함께 장식되었다. 장식들은 소련, 중국, 북한을 하나의 단합체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1)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72)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73) 김진계 구술 · 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192쪽.
74) 문화선전성, 「강사, 민주선전실장, 선동원에게 주는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립출판사 인쇄공장, 1951년 6월)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53 중화인민공화국(강사, 민주선전실, 선동원에게 주는 자료), 문화선전성 1951.5. NARA, RG 242, SA 201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발행연도가 1951년 5월로 표기되어 있으나, 원문 뒤표지에는 1951년 6월로 표기되어 있다. 북한은 1만 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동신문 기사에는 조쏘반과 같은 조중반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으로 동요와 이탈을 방지하고 당과 인민의 결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소련과 중국, 북한체제,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쟁 과정과 후 중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사진 3-2〉 민주선전실의 내부 모습 – 평북 안주군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출처: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로동신문』, 1951년 8월 12일.

대내외 장식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민주선전실장이 조쏘문화협회 리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민주선전실 내 조쏘친선실이 설치 및 운영[75]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쏘반에서는 소련의 전쟁 승리 경험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소련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특히 콜호즈 농민들이 고난을 극복하며 전쟁 승리에 이바지한 경험을 집중 교육시키며 전쟁의 승리와 이를 위한 교육과 동원정책에 대한 정당

75)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령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당과 정부의 목표에 대한 공유와 함께 그것을 다 함께 어떻게 완수해 갈 것인가에 대한 소통의 과정이었다.

모택동의 사진 이외 전쟁 상황과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전쟁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김일성의 교시, 각 지역 출신 전쟁영웅들, 부락 모범 농민들의 사진과 표창장, 각 지역농민들의 사업성적 표시판과 대비하여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농민들을 알리고 비판하는 게시판[76]도 등장했다. 이렇듯 전쟁기 민주선전실의 대내외 장식은 농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선전선동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자연스럽게 민주선전실에 모여들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열정을 슬며시 내 비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다.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선발과 교육 강화

1) 민주선전실장

민주선전실장의 임무는 농민들에게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 선전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 수행을 위해 교육과 동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견고한 후방없이 승리할 수 있는 군대는 없다”는 스탈린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강력한 후방으로서의 농촌지역은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무대였다. 그러나 우수한 사업성과를 내는 민주선전실도 있었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쟁 상황에서 민주선전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이론 및 실무수준이 높은 유능한 간부들을 민주선전실장으로 배치하는 것, 민주선전실 사업을 지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6)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감독하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의 능력, 그리고 민주선전실장을 포함한 구성인원들의 정치 이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 모두가 중요했다.[77]

민주선전실장은 당으로부터 배치 결정이 나면 먼저 지역 군당위원회 사무실 당원 등록과장에서 당 이동증을 제시하고 부임인사를 한 후, 리당위원장과 리인민위원장을 차례로 찾아가 자신이 실장으로 배치되었다고 인사를 했다.[78] 이후 리인민위원회로부터에서 민주선전실 사업 관련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리당위원장을 찾아가 사업 내용 및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79]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간부들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은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대와 환경을 제공하였다. 민주선전실장 배치 후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해서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 간부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이 중요했다.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는 민주선전실장들에 대한 정치 및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간부들로 하여금 장, 단기 강습회, 정기적으로 매월 1-2회씩 진행되는 세미나와 경험교환회, 개별적 지도 등을 진행했다. 이들 강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주로 소련의 농촌 및 구락부들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교육함으로써 강의가 진행되는 곳에 모범 사례들을 실제 모습들로 재현하여 소개하였다.[80]

세미나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 문제들과 현행 정치 시사 문제, 그리고 「민주선전실장들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하는가?」, 「분실장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7)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78)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193-195쪽.
79) 위의 책, 196-197쪽.
80)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 -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에 대한 지도 사업」, 「문화 사업과 농촌 민주선전실」등 민주선전실 실무사업 방법상의 문제들이 집중 교육되었으며 우수 사례 및 경험들이 교환, 공유되었다.[81]

이어 군당위원회는 리의 군중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검열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선전실장의 실무 강습을 지도했다.[82]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이러한 정치와 실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민주선전실 내 선전선동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군당위원회 간부들은 1951년 12월 5일 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 결정에 따라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민주선전실에 「로동신문」, 「민주조선」, 「농민신문」, 각 도 일보 등을 위시한 각종 신문과 선동원들을 위한 「선동원수첩」, 문화써클원들을 위한「대중문예」 및 「인민가요」, 직관물 선전을 위한 각종 화보와 정치 포스터 또는 사진들 그리고 정치 문학 및 과학서적들을 배포, 지원했다.[83] 또한 각 민주선전실에 1952년도에 1년 치 사용 용지와 등화용 카바이트 100톤을 배급하였다.[84]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의 역량 제고와 민주선전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강습회는 1952년 8월 3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에서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를 결정, 8-9월 말까지 각 민주선전실장 30일 강습회를 조직, 진행할 것을 지시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1) 위의 신문, 1953년 7월 23일.
82)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83)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8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1949.7-1951.12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328-329쪽.

것에 따른 것이었다.[85] 강습회는 각 도당 및 인민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시기는 변동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황해도, 평남도는 9월에, 평북도는 12월에 강습회를 진행했다.

당 선전선동부의 정치적 지도에 의하여 도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는 1년에 3차례의 민주선전실장 강습회를 실시하였다.[86] 강습회는 민주선전실 사업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가 함께 체제 선전선동사업 전반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강습회는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수준미달의 민주선전실장의 교체 및 임명, 해당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강습회 강사들은 정치이론 및 실무 수준이 높은 도당위원회 및 도인민위원회 책임간부들로 구성되었다. 강습회에 참가한 민주선전실장들은 1차례 실시에 한 달 동안 240시간씩, 총 3차례에 걸쳐 720시간을 교육받아야만 했다.[87] 1952년 9월에 있은 황해도 제1회 리 민주선전실장 강습회에는 도 내 429명,[88] 평북도 강습회에는 350명의 민주선전실장이 참가했다.[89]

강습회에서는 '해방 후 조선인민의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김일성의 연설문, 국내외 주요 이슈들, 법령, 내각결정 및 지시 등 당과 정부의 주요 노선과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심화학습이 이뤄졌다.[90] 강습회에 참가한 민주선전실장들을 자체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에서의 당정치 교양사업 및 군중 문화사업 정형과 그의 개선방침에 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28차 회의 결정서, 1952년 8월 3일)」, 『1947.8-1953.7 당 중앙정치위원회 결정집』, 91쪽.
86)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87) "평북도에서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88)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89)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 평남도에서, 황해도에서," 『로동신문』, 1952년 9월 25일.
90) 위의 신문, 1952년 9월 25일.

으로 '학생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규율 있는 생활을 하는 한편, 우수한 민주선전실의 사업 경험들을 토론, 교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켰다.[91]

또한 강습회에서는 민주선전실에 운영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도당 선전선동부 및 도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의 책임간부들이 지역 민주선전실 사업을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앙 당의 직접 감사를 의미했다. 그러므로 강습회에서는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도당, 도인민위원회 간부들까지 강습회 준비와 교육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으며, 이들 간부들이 담당 지역 민주선전실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었다.

강습회 기간 내 민주선전실 운영에 대한 감사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예를 들어, 황해도 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 일군들은 무능한 실장을 교체하며 결원을 보충하는 데 대한 사업 계획만 수립한 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92] 당에서 강습회 강사들을 정치, 실무적으로 수준이 높은 도당위원회 혹은 도 인민위원회 부장급 인사들로 구성할 것을 지시했지만 과장급으로 구성한 점, 강습 장소, 숙소, 식당 등 강습회 진행을 위한 준비에 소홀한 점, 유급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2개의 민주선전실 사업을 담당케 했지만 단순한 숫자적 통합으로 인식해 4개의 민주선전실 사업의 위임케 한 점[93] 등이 지적되었다.

민주선전실의 이러한 사업행태에 대해서 도당 및 도인민위원회 책임간부들은 중앙 당으로부터 강력한 질책과 비판을 받고 시정을 요구받았다.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이 인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당과 정부의 정책 관철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91) "평북도에서 민주선전실장 강습회,"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92) "민주선전실장 강습의 질을 일층 높이라! - 황해도 농촌 민주선전실장 1개월 강습 정형," 『로동신문』, 1952년 10월 28일.
93) "민주선전실에 대한 구체적 지도의 강화," 『로동신문』, 1952년 11월 1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민주선전실 사업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인해 개선·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농촌 사회에 녹아들어 인민들과 어떻게 사업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몰두'를 하게 만들었다.

2) 부, 분실장과 선동원들

민주선전실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부실장, 분실장, 선동원 등 구성인원들의 정치 이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도 중요했다. 민주선전실 내 부실장, 선동원, 그리고 인민반 선동원에 대한 선발과 교육은 민주선전실장이 담당했으며,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해 이들의 정치교육 및 당적 지도는 지역 당 위원회에서 담당했다.

농촌지역 정치사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민주선전실장은 무엇보다도 농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 중 능력있는 선동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했다.[94] 민주선전실장은 지역 인민들의 정치의식, 문화수준, 그리고 군무자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 감정을 잘 이해하고 교양할 수 있는 열성 당원들을 중에서 부실장, 선동원, 인민반 선동원, 노력반 선동원, 벽보사업 등 각종 사업 담당자로 선발·배치하였다.[95] 그러나 주로 열성 당원들 중 정치지식수준이 비교적 높고 우수한 인원을 민주선전실 선동원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각 인민반 선동원으로 배치하였다.[96]

94)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197쪽.
95)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 - 선동원의 선발배치와 그 수준제고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96)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선동원들의 성비와 나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랐다. 평북 박천군 송산리의 경우 선동원들은 19-35세 사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97] 평남 안주군 평률리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대거 남성의 입대에도 불구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으며, 대게 30-40대 장년들로 이뤄졌다. 문화적인 이유로 나이 어린 청년들의 교육을 나이든 농민들이 잘 받아들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한 배치가 이뤄졌다.[98] 전쟁 상황과 농촌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식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민주선전실장은 부실장, 분실장 및 선동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매월 계획성 잇고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다. 민주선전실장은 수립한 계획에 의거, 부실장, 분실장 그리고 선동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들에게 국내외 정치 정세와 전선 소식 및 정치 문제들과 부여된 과업들을 해석주면서 사업을 지도했다. 세미나는 주로 「쏘련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 등 이들의 정치 이론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99]

민주선전실장은 선동원과 함께 민주선전실과 인민반 좌담회 등을 직접 주최하였으며, 선동원은 세미나와 좌담회에서의 교육 내용과 선전 자료를 통해 인민반 또는 품앗이, 소결이반 등 노력반에 직접 들어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100] 모든 품앗이반 별로 배치된 선동원은 민주선전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매일 독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주선전실장은 모든 선동원들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7) "민주선전실장들의 사업 경험 - 선동원의 선발배치와 그 수준제고를 위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17일.
98) 김진계 구술 · 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0-201쪽.
99) "룡강군 서부리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8월 12일.
100)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하여금 선동원수첩에 선전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였으며, 정치 및 실무 수준이 낮은 선동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좌담회에서의 교육 방법 등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101]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선전실 선동원들은 사업 관련해 각 사회단체들의 선동원들과 연계하면서 노인, 여성, 청년 등 각 계층 인민들 속에서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했다.

민주선전실장은 「민주선전실 규정 및 선동원들의 사업에 대하여」, 「자습회전형 방법에 대하여」,「타지방 민주선전실 선동원들의 경험전습」 등과 매일 신문에 게재되는 중요한 정치시사 문제와 재미있는 기사들을 골라 자체적으로 교양 및 강습 자료를 제작해 선동원들을 교육시켰다.[102]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사업성과를 제고시키는 노력은 지역 군당위원회 당회의와 당원협의회, 인민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선동원 세미나를 통해서도 이뤄졌다. 당 회의에서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및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며 수시로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들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설득과 비판을 통해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갔다. 또한 민주선전실에서는 격식없는 당원협의회도 열렸다.[103] 당세포위원장,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민주선전실장은 민청, 녀맹, 농맹, 조쏘문화협회 등 사회단체 책임자들과 3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이들로 하여금 민주선전실장과 선동원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01) “농촌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질을 보장 - 평남 강동군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2월 31일.
102) 위의 신문, 1951년 12월 31일.
103) 「준엄한 나날의 락원사람들 - 잊을 수 없는 당세포 총회」,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 조국해방전쟁 시기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77, 51-52쪽.
104) “마을의 교실 - 평북도 정주군 오천면 지평리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로동신문』, 1952년 1월 16일.

리 민주선전실장, 리 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등 약 30명이 참가하는 선동원 세미나는 월 4회 개최되었으며,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05] 민주선전실장이 직접 교육에 참가하고 이 내용을 근거로 선동원들을 재교육시켰다.

지역 선동원들은 바로 지역 농민들의 가족, 친지, 동료였다. 그들은 생활, 사고와 감정을 공유하며 민주선전실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 전쟁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은 당과 인민위원회의 민주선전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 민주선전실장과 부실장, 분실장 및 선동원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민주선전실 사업의 성과를 높이며 전쟁기 농민들을 김일성과 북한체제를 위한 일심단결된 투사로 만들기 시작했다.

4. 한국전쟁기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가. 문제점

1) 간부 부족 현상 : 간부의 낮은 질적 수준과 농촌 문화 몰이해

민주선전실 사업은 전쟁기 간부양성 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성과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전쟁기 민주선전실장의 수준은 당과 정치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낮은 편이었다. 정치이론적 및 실무 수준이 낮은 민주선전실장이 배치된 경우 간판만 내걸었을 뿐 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106] 예를 들어, 함남도에서는 1953년 2월 말 현재 742명의 민주

105) 김진계 구술·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1-202쪽.
106)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킬 것인가 - 평남도당부 선전선동

선전실장이 배치되었는데 그 중 정치학교 졸업자는 192명(26%) 뿐이었다. 행정구역 개편 전 함남도 전체 민주선전실장 중 정치학교 졸업자가 29%였던 것에 비하여 3% 비율이 적었던 26%를 차지했던 강원도 금강군이 경우 배치된 민주선전실장 중 45% 이상은 겨우 국문이나 해독하는 수준이었다.[107]

설상가상으로 간부 부족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문건만 가지고 사업하였기 때문에 이에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과 또는 타 지역에 배치된 민주선전실장을 중복으로 타 지역에 배치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108]

이러한 현상은 새로 배치된 민주선전실장으로 하여금 선전선동사업에 무관심한 경향을 낳게 만들었다.[109] 정오가까이 되어서 출근하고 김일성의 교시 및 내각 결정은 고사하고 농민들의 생활상에도 무관심한 경우도 있었다.[110] 민주선전실장은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부속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선전실을 설치만 해놓고 농촌 인민들 속에서 강연회, 보고회, 좌담회 등을 수개월 동안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숙박소로 이용되는 현상까지 있었다.[111] 또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일부 무책임한 민주선전실장들은 이전 실장들이 사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장 리창협," 『로동신문』, 1951년 9월 18일.

107)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08) 위의 신문, 1953년 4월 16일.

109) "민주선전실은 농촌 정치 문화 생활의 중심 -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의 실무 수준을 어떻게 제고시켰는가," 『로동신문』, 1953년 7월 23일.

110) "민주선전실 사업에 있어서 실장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로동신문』, 1952년 8월 29일.

111) "강습지도자들에게 주는 참고 자료(4) -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1. 농촌 민주선전실의 기본 임무와 사업 방향, 2. 민주선전실의 설비 및 장식, 3. 민주선전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로동신문』, 1952년 11월 27일.

을 잘 못하였다는 비판만 하였으며, 폭격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이 파괴된 경우 농민들이 제때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어물어물 시일만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장이 새로 부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민주선전실 설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선동원들조차 선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다.[112]

민주선전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임무는 정치, 선전선동과 경제의 결합을 바탕으로 전쟁을 위한 생산과 동원에 적극적으로 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 이론과 실무 수준이 낮은 선전실장은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치'만을 강조하며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춘기 파종 시기는 일년 농사 기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파종에 하루 종일 힘을 쏟아야 농민들을 빈번히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민주선전실에 전부 모아 놓고 선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춘경 파종 사업에 도리어 지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파종 시기에 있어서는 소결이반, 품앗이반 등 농민들이 일하는 곳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선전선동활동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받은 교육을 기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113]

농촌 지역이라는 무대의 특징으로 인해 민주선전실장에게는 농민들의 사고방식, 삶,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평양 등 대도시 출신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농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려는 자세는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면밀히 파악한 기초 위에 선전선동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주선전실장에게는 필수

112) "농촌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하라! - 민주선전실 사업지도에 등한한 일꾼들," 『로동신문』, 1953년 4월 17일.
113) "춘기 파종과 민주선전실," 『로동신문』, 1952년 4월 17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의 필수 덕목이었으며 중요한 자질 요건이었다. 다시 말해, 농민들로 하여금 외지인이 아니라 현지인이라는 평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촌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이러한 개방적 마인드의 부족은 민주선전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농민들이 민주선전실에 오기를 꺼리는 현상을 유발시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없이는 어떠한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농업기술이라도 교육적 가치가 없었다. 민주선전실에 모여든 농민들에게 과도한 정숙을 요구해 농민들로 하여금 "서당에 간 것 같다, 꼭 훈장 앞으로 가는 학생 같다"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때도 있었다.[114] 민주선전실의 사업의 본질적이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주선전실장에게 남아 있는 결함, 즉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선전선동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었다. 농민들의 감정과 생활에 맞지 않는 선전선동은 농민들을 북한체제에서 이탈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전쟁기 정치 이론 및 실무적으로 수준이 높고 연륜이 있는 당원들은 전선으로 파견되었던 이유로 새로 부임한 민주선전실장은 대부분 도시에서 온 젊은 엘리트 총각들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농촌 지역에 남아 있던 인구의 대부분은 노인들과 여성들이었다. 특히 여성들과의 관계 악화는 민주선전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엘리트 출신의 민주선전실장에게 딸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을 사윗감으로 점찍어 딸과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115]도 발생하는 등 실장과 마을 처녀들 사이의 남녀관계 또한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14) "민주선전실 사업경험 - 평남도 안주군 룡서리 민주선전실장 리순태," 『로동신문』, 1952년 9월 27일.
115) 김진계 구술 · 기록, 김응교 보고 문학, 앞의 책, 203쪽.

2) 지역 당 및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과 행정대행 현상

농촌 리 민주선전실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지방 당에 소속된 당 세포, 분 세포, 세포 총회, 세포위원회와 리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 등 해당 농촌 당 및 단체, 그리고 인민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일부 지방 당 단체에서는 민주선전실장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부이며, 민주선전실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지도한다 하여 민주선전실이 부임해 온 후 거의 1년 동안이나 그 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감독 및 협조도 하지 않으며 사업에 무관심했다.[116] 일부 인민위원회 문화선전과 직원들조차 당 단체와 더불어 민주선전실장 사업에 구체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다.[117] 심지어는 황해도 재령군 서림리 당 위원장은 자신이 선전선동 해설 사업과 선동원 세미나를 위해 민주선전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민주선전실 사업에 리당 위원장의 이름을 박을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118]

민주선전실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료주의적 행태로 생긴 현상이었다. 그 결과 민주선전실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민주선전실장은 마치 리 세포 등 당 관련 조직의 협조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며, 인민위원회 관련 사업에만 관심을 가지며 대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119]

당과 정부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민주선전실장 본인들조차도 민주

116) "민주선전실 사업에 등한한 일꾼들 - 순안군 룡궁리 당 조직위원회 사업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 『로동신문』, 1953년 2월 18일.
117)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118)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19) "당적 협조를 강화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개선 - 황주군 미산리 세포에서," 『로동신문』, 1951년 11월 1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전실 사업에 대한 인식의 혼돈으로 당과 정부의 행정사업을 맡아서 하는 행정대행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방 각급 당 단체들에서는 관리·감독의 이름하에 당 관련 리 사업에 민주선전실을 빈번하게 동원시켰다. 예를 들어, 평남도 룡강군과 안주군의 경우 당 등록사업이 바쁘다하여 군내 전체 민주선전실장에게 당 등록에 관한 교육을 시킨 후 리 초급당 위원회 통계원 격으로 보고서, 회의록 작성, 통계 정리 등을 하도록 파견조치 하였다. 이들은 거의 한 달 넘게 민주선전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리 당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작성 및 정리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120]

3)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관료주의 현상 심화

전술하였듯이 북한은 전쟁 말기인 1952년 12월 22일 전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민주선전실 구조와 운영면에서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첫째, 민주선전실장에게 당의 사상을 담당하는 '리당 부위원장'직을 겸임, 둘째, 1개의 리를 담당하던 유급 민주선전실장에게 2개 리의 민주선전실을 맡아서 사업하도록 지시, 셋째, 행정구역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설치된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장에게 리당 부위원장을 겸하게 하는 조치는 농촌 리에서 당의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121] 다시 말해 이 조치는 전쟁 말기에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 정치사상 사업이 리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과 리당 위원회가 민주선전실 사업 문제를 당 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다뤄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20)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21) "고풍군 내 일부 민주선전실장들의 무책임성,"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가 의도했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명의 민주선전실장은 2개 리의 민주선전실장과 2개 리의 부위원장을 겸직하며 과도한 업무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면'의 폐지로 인해 일부 '리'의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민주선전실의 수도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민주선전실장의 부족으로 인해 인근 모범 민주선전실이 통폐합되면서 폐쇄되거나 사업이 중지된 곳도 있었다.[122]

민주선전실장의 과도한 업무 분담과 높아진 정치적 위상은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 업무 중 하나에만 집중해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를 저해하기도 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를 임시방편적으로 사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만들었다.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직 조치는 민주선전실보다 리당 위원회 사업에 몰두하여 민주선전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리당 부위원장은 엄연히 당 관료였기 때문에 민주선전실장보다 리당 부위원장으로 행세하길 더 좋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리당 부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좋아하고 민주선전실장이라고 하면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123] 심지어는 민주선전실장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상하여 낯 색까지 변하며 못 본척하고 지나가기도 하였다.[124]

농촌 민주선전실장들은 리당부위원장직 겸임이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위신만 세우려하면서 농민들과 선동원들에게 '명령'과 '지시'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대중정치사업을 하며 사실상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125] 심지어는 자신이 일할 좋은 사무실만 찾아다니고 사업을 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2)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구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123)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24)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구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한시 하며 민주선전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농민들의 낮은 정치, 사회적 의식 수준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126]

과도한 업무로 인해 민주선전실과 리당 위원회 일 중 하나에만 집중하며 절름발이 사업을 하는 현상도 적지 않았다. 부임한 지 한 달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지역 농민들의 생활 형편과 정치의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호별 방문 및 좌담회, 강연회, 영농사업 등 본격적인 사업을 한반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리당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통지', '리당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몰두하여 민주선전실장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히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127]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 농촌 주민들은 민주선전실장이라고 하면 이미 전출나간 이로 착각하고 신입 민주선전실장은 리당 부위원장으로만 알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128] 다시 말해 민주선전실장과 리당 부위원장을 별개의 직책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주민들이 당과 정부의 시책 및 현 정세에 대해서 점점 무지해 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농민들이 당과 정부로부터 서서히 이탈하는 현상 이것은 전쟁기 김일성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었다. 북한은 전쟁기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정치 선전선동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과 국가 앞에 엄연한 범죄라고 규정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리당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 민주선전실장은 자신이 당 관료라는 이유로 군인민위원회 문화선전부의 지도원들의 지도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들이 소집하는 민주선전실장 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5) "민주선전실장의 사업 경험 - 로인들 속에서의 사업," 『로동신문』, 1953년 1월 14일.
126) "고풍군 내 일부 민주선전실장들의 무책임성," 『로동신문』, 1953년 4월 1일.
127) 위의 신문, 1953년 4월 1일.
128)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구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미나도 불참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선전실장은 이들이 서류와 통계사업을 지도한 것에 대해 “당 부위원장이 당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며 “이제는 인민위원회와 좀 싸움을 해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하였다. 다시 말해 리당 부위원장 직책을 가진 민주선전실장이 자신의 사업을 관리·감독하던 인민위원회 지도원들과 급과 지위를 놓고 파워게임을 진행한 것이었다.[129]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임 사태는 오히려 당과 인민위원회의 협력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행정구역의 말단 단위인 ‘동’에 민주선전실 분실이 신설되었다. 민주선전실장의 리당 부위원장 겸임과 지역 실정에 따라 분실 설치의 및 분실장 임명 등의 민주선전실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고도의 정치 선전선동사업이라는 민주선전실 사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분실장의 선발 및 배치는 민주선전실장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실장 배치를 일률적으로 리 세포부위원장을 배치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130] 또한 리당 부원장을 겸직하게 된 민주선전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분실장에게 민주선전실 사업 전체를 위임케 하고 리당 사무실에서 지시하고 독촉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131]

지역 사정에 따라 분실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분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방치된 분실은 선전선동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었다. 지역 학교가 방치된 분실을 사무실로 쓰기도 하면서 분실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였다.[132] 민주선전실이 없어지자 인민들은 전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9) “농촌 민주선전실 사업 개선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문제(기석복),” 『로동신문』, 1953년 4월 16일.
130) “동기간의 농촌 정치 군중 문화 사업,” 『로동신문』, 1952년 12월 7일.
131) “민주선전실 사업은 누구가 할 것인가,” 『로동신문』, 1953년 2월 26일.
132) “민주선전실 분실장의 사업 경험-평남도 강서군 학송리 민주선전실 소룡동 분실 분실장 박인애,” 『로동신문』, 1953년 4월 9일. 이 기사를 통해 민주선전실장뿐만

소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선동원들 활동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나. 해결 방안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선전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당과 정부의 민주선전실 사업 관련 강습회와 세미나 등 지속적인 교육, 둘째, 중앙당 조직위의 민주선전실 관련 지시와 명령, 셋째, 정치의식과 비판능력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의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그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제도와 의식의 융합으로 인해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며, 김일성이 언급하였듯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인민들 속에 해석, 전달하는 대중정치사업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해 나갔다.[133]

첫째, 당과 정부는 민주선전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 도당 선전선동부에서 주관하는 민주선전실장 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강습회는 민주선전실장의 실무 수준 제고 및 선전실 사업 방법 및 방향, 더 나아가 감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주선전실장 교체 및 임명 등 민주선전실 사업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각 도, 시, 군에서는 개별 단위별로 민주선전실장 세미나, 경험 교환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민주선전실장 사업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였다.[134]

둘째, 민주선전실은 전쟁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부대 이동시 체류하는 곳 혹은 부대시설로 이용되

아니라 분실장도 여성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능력있는 여성들의 민주선전실장 및 분실장 임명은 김일성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133) "민주선전실 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경험," 『로동신문』, 1953년 6월 4일.

134) 민주선전실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 강화를 위한 강습회와 세미나 등 교육 관련 부분은 본 논문19-24쪽 참고.

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선전실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는 민주선전실이 자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해당 기관책임자들에게 해당 지방 당단체 및 인민정권 기관들에서 민주선전실을 타목적에 사용하지 말며 이미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체 장비를 포함해서 민주선전실로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당 조직위원회는 제79차 결정서'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를 채택하여 군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선전실을 일체 비품과 함께 1951년 12월 중에 반환할 것을 인민군 정치총국 부국장 김일에게 지시하였다.[135] 그리고 초급당 단체들에서 이와 같이 타 기관에서 민주선전실을 사용하는 일이 없고 지방 당 및 인민위원회에서 민주선전실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 중앙위 차원에서 직접 경고하기도 하였다.

셋째, 김일성의 연설, 능력 있는 민주선전실장들의 선전선동사업의 영향으로 농촌 주민들은 자기 마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선전실의 정치문화 교육, 계몽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은 정치적 의식이 높아졌다. 높아진 정치의식은 민주선전실과 선전실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당과 정부의 기관의 사업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더 나아가 민주선전실장과 상급 기관인 당과 정부의 기관의 잘못된 사업 행태와 간부의 부패정치 부분까지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민주선전실장뿐만 아니라 지방 당과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사업 행태까지 비판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요구에 대해 깨닫기 시작함으로써 자체의 견제와 비판으로 민주선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촌 리 민주선전실사업 강화에 대하여(당 중앙조직위원회 제79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2월 5일)」, 329쪽.

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농민은 “김장군(김일성)께서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제시하시는데 우리 부락에서는 왜 일들을 그렇게 잘 못합니까? 그리고 실장 동무는 왜 우리들에게만 그러한 말만 하고 리위원장이나 기타 우리 부락의 간부들에게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136]

인민들은 자기 부락 간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언행불일치의 옳지 못한 사업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실장과 간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육류 수매 대금을 불법적으로 초과 징수하여 개인 생활비로 착복한다던가 혹은 기타 국가재산을 사복을 채우는 행위, 그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신경질적이고 농민들을 위협 공갈하려고 하는 태도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137]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이러한 부락 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농민들은 김일성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민주선전실장과 부락 간부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부락간부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덮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농민들과 민주선전실장에게 고압적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선전실장과 농민들은 부락 간부들의 이러한 사업 태도에 대해 상급 기관인 군 당위원회 및 인민위원회 고위 간부들에게 신소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수차례 진행된 군중집회를 통해 이들의 범죄적 행위들이 공개 비판되었으며, 이들은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6)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한다-구체적이며 진공적인 군중정치사업 전개(중화군 각금리 민주선전실에서),” 『로동신문』, 1952년 12월 13일.
137) 위의 신문, 1952년 12월 13일.

농민들은 자신들이 이익이 관철되고 보호해주는 당과 정부 특히 최고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며 김일성이 교시한 전시과업의 수행과 증산을 위한 동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138]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전쟁기 선전선동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정치의식 제고와 충성심 강화는 체제의 역동성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민주선전실 사업에서 나타났던 것이었다.

민주선전실은 당과 정부의 기관으로 인민대중들이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의 전쟁에 대한 승리와 이를 위한 생산과 동원으로의 호소는 인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제공하였던 것이다. 민주선전실을 통한 선전선동은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권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미약한 국민들에게는 선전선동의 전달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139]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강력하되,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정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와 활동은 전후 복구과정에서 생산과 동원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도 활용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맺음말

민주선전실의 운영구조와 지도체계의 변화는 국가 선전선동 시스템

138) 위의 신문, 1952년 12월 13일.
139) 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Ibid,* p.33.

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기 체제 붕괴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김일성은 국가 선전선동망을 개편하여 당원과 인민들의 낮은 정치 및 문화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 승리에 대한 의구심과 체제 몰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당과 인민이 함께 현실적 과제와 해결책을 공동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당과 국가 그리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선전선동 시스템을 통해 선전선동을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선전선동은 정책적 배려와 보호, 지식과 정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 주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그것이 가지는 정치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체제 붕괴 위기까지 몰렸던 북한 지도부와의 연대를 자연스럽게 재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조직과 선전선동을 통해 운영된다. 중앙집권화된 선전선동 시스템은 현재의 북한에도 유효하다. 기존 북한학계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목적으로 주로 조직의 운영과 변화를 통해 체제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주목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선동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통해 북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 문화 분야라는 이유,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선전선동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 선전선동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인데서 기인하는 연구의 피로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자들은 선전선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오지 않고 있다.

조직과 선전선동이 사회주의 체제운영원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북한학계는 '조직'이라는 외눈박이 안경만을 가지고 북한을 봐오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 선전선동의 조직 및 역사에 대한 이해, 특히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법, 북한 지도부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해 없이는 선전선동은 그냥 인민들을 향한 북한체제의 메아리일 뿐이며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로 남아있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도 선전선동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우리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연구할 때 단순히 구호나 액션이 아니라 선전선동이 어떤 운영구조와 사업체계를 통해 인민들 속에 들어가고, 인민들은 선전선동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선전선동을 통한 북한체제 운영 연구의 기초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원고투고일: 2016.9.7, 심사수정일: 2016.11.17, 게재확정일: 2017.1.13.]

주제어 : 민주선전실, 민주선전실장, 선동원, 선전선동, 한국전쟁, 김일성, 조선로동당, 운영 구조, 사업체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s Propaganda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Operations and the System for Business -

Kim, Sang-Bu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how propaganda was used to prevent the D.P.R.K.(North Korea) from collapsing the regime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Structure of Operations and the System for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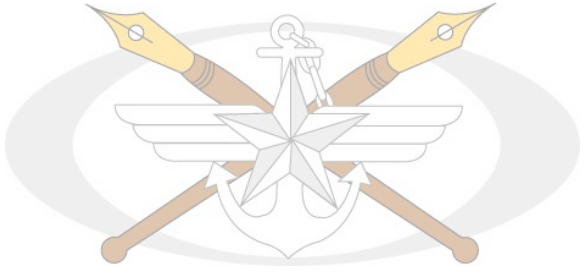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People's liberation army of China played a key role in recovering and reestablishing North Korea. The North announced a new policy to rebuild and reestablish propaganda systems focusing on propaganda offices as top priority.

There are some important differences. When it came to operational structure, North Korea introduced paid-propaganda officers and sent them to the rural areas, which meant that North Korea consolidated and centrally managed all propaganda officers. When it came to working system, party memberships were required to become any member of propaganda offices. In addition to that, each provincial party committee and people's committee were forced to be responsible to educate and select directors of propaganda offices.

Through these efforts, North Korea enabled local citizens to support the Kim Il-sung regime and to unite and fight for North Korea and Kim Il-sun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ey words : Propaganda Office, Director of Propaganda Office, Propagandists, Propaganda, The Korean War, Kim Il-sung, The Worker's Party of Korea, Operational Structure, Guide Syste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 북한의 중국내전 지원과 군대창설을 중심으로 -

김선호**

1. 머리말
2. 중국내전의 발발과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
3.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따른 간부와 병력의 이동
4.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 구성의 성격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조선인민군의 창설과정은 1946년 1월 철도경비대의 창설을 시작으로[1] 그해 8월 보안간부훈련소(保安幹部訓練所)와 보안간부훈련대

* 이 논문은 2016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總結報告』,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11.1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미군노획문서.

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가 창설되면서 제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1단계 창설과정에 투입된 군사간부와 병력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직후 중국 동북(東北)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들이었다. 대표적으로 1946년 여름에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장을 맡은 강건(姜健)은 해방후 연변(延邊)에 파견되어 동북민주연군[2] 길동군분구(東北民主聯軍 吉東軍分區) 사령원(司令員)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이다.[3] 강건 이외에도 김광협(金光俠), 이익성(李益成), 최광(崔光) 등 인민군 창설작업에 투입된 다수의 군사간부가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 이후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은 건국과 중국내전의 과정에서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1945년 12월부터 비밀리에 군사연락망을 구축하고, 군사협력을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은 열세에 놓인 중국공산당군대에게 후방기지와 교통로를 제공하였다. 이 같은 군사협력과정에서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군사간부와 병력이 입북해 인민군 창설사업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건국과정은 내부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북·중 군사협력관계[4] 속에서 진행되었다.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학계에서 처음으로 1947년 초 김일성(金日成)이 수만명의 북한군대를 동북지방에 파병했다는 동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동북민주연군은 해방 직후 중국공산당이 동북지역에 조직한 군대이다. 중국공산당은 1945년 9월에 동북지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東北人民自衛軍을 창설했고, 1946년 1월에 이를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동북민주연군은 중국내전을 거치면서 中國人民解放軍 第4野戰軍에 편입되었다.

3) 길재준 · 리상전, 『중국동북해방전쟁을 도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18쪽.

4)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중국지역과 북한지역에는 국민국가가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1945~1947년에 진행된 양 지역의 군사협력관계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당과 정권기관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시기 양 지역의 관계는 향후 수립된 북한·중국정부의 국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북·중관계와 북중 군사협력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파병설(東北派兵說)을 주장하였다.[5] 백학순과 박명림도 미군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공내전시기에 중국공산당에게 후방기지를 제공하고 군부대를 파병했다는 사실을 분석한 바 있다.[6] 이종석은 1946~1947년 중국내전 시기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후방기지·교통로·전략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한측이 동북지방에 직접 군대를 파병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7]

김상원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치·사회 분야에서 5개 범주에 걸쳐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 사실을 해명하였다. 그 역시 중국내전 시기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제공한 군사지원을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였다.[8] 이상숙은 중국내전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원과, 중국공산당의 대북한 경제지원을 연구하였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 등 물질적 지원이 북한정권 수립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으며, 북·중 경제협력의 원형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9]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해방 이후 북·중간의 군사협력 구축과정과 북한이 중국측에 제공한 군사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해방 이후 북·중관계를 주로 북한이 중국측에 제공한 군사지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물론, 중국공산당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58.
6) 백학순, 「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 『한국과 국제정치』10-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4, 263~281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나남, 1996, 243~247쪽.
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52~77쪽.
8) Kim Sang Won, "The Chinese Civil War and Sino-North Korea Relations, 1945-50",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7, No.1,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4.6, pp. 91~113.
9) 이상숙, 「국공내전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 『北韓研究學會報』20-1, 북한연구학회, 2016, 209~231쪽.

북한에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해명되었지만, 군사적 지원은 해명되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는 중국공산당이 북한에 제공한 군사간부·병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이 인민군 창설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명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 북·중관계는 양측의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군사협력관계는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조선혁명·중국혁명"으로 불리는 북한·중국의 국민국가 건설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10] 이 혁명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조선인들은 조선혁명 뿐만 아니라 중국혁명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혁명과정에서 간부·병력·무기·물자를 양측의 경계 안으로 이동시켰고, 이를 통해 준국경(準國境)[11]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민국가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해명은 '혁명'의 경계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하고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부터 '인민공화국' 건립을 목표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였고, 중국공산당은 해방 이전부터 '연합독재국가'를 목표로 '신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였다. 이 혁명의 공통점은 노·농독재에 기반한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이 아니라 계급연합에 기반한 인민정권의 수립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으로 불렀으므로, 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金日成, 『民族大同團結에 對하야』, 朝鮮共產黨淸津市委員會, 1946.3, 10쪽; 모택동, 「신민주주의론」(1940.1), 『모택동선집』2(朝鮮文), 민족출판사, 1992, 843~844쪽.

11)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동북지역과 북한지역 사이에는 국민국가적 개념의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 지역은 지리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 경계는 일종의 '국경'으로 인식되었으며, 경계를 수비하는 부대도 존재했다. 예컨대, 북한정치세력은 "조만국경경비대"라는 경비부대를 조직해 이 경계선을 수비했다. 이 글에서는 이 혁명시기에 국경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계가 존재했다는 의미로 準國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다. 제2장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군사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12]과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13]의 역할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에 따라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 간에 실제로 진행된 간부와 병력의 이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핵심쟁점인 북한군대의 동북파병설을 집중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중국의 간부·병력 이동이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1946년부터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을 조선의용군부대·훈춘보안단, 동북군정대학(東北軍政大學)의 졸업생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14] 이 장에서는 입북병력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공간된 중국문헌, 북한이 2000년 이후 새로 발간한 '동북해방전쟁'에 관한 문헌, 필자가 찾은 미군노획문서, 주한미군의 정보보고서를 활용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 조선의용군은 1942년 7월 조선의 민족주의·공산주의세력이 중국 화북지역 태항산에서 조직한 무장부대이다. 이 부대의 모체는 1938년 10월 중국 武漢에서 창설된 朝鮮義勇隊이며, 이 부대의 정치지도기관이 朝鮮獨立同盟이다. 조선의용군은 1945년 8월 11일 중국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동북지역으로 진출해 4개 지대로 확편했으며, 그후 중국내전에 투입되면서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었다.

13) 동북항일연군은 1936년 2월부터 중국공산당이 동북지역에 조직한 중국인·조선인들의 연합 무장부대이다. 동북항일연군은 1941년부터 소련으로 이동해 東北抗日聯軍教導旅(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로 개편되었다. 교도려는 1945년 8월에 부대를 2개로 나누어 각각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동북으로 진출한 부대는 동북인민자위군에 편입되었고, 북한으로 진출한 부대는 인민군의 모체가 되었다.

14) 김중생,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137~141쪽; 이종석, 앞의 책, 117~119쪽.

2. 중국내전의 발발과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자, 중국 동북지역은 국민당과 공산당 양측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동북지역을 장악한다면 소련과 조선을 정치·군사적 배경으로 삼을 수 있고 풍부한 자원과 공업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동북(東北)·화북(華北)·서북(西北)의 3개 근거지를 연결함으로써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대로 중국국민당이 동북을 점령한다면 공산당은 풍부한 자원과 공업기지를 상실할 뿐 아니라 관내의 근거지가 남북에서 협공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이같은 정세인식에 따라 해방 직후 관내에 있던 10만명의 병력과 2만명의 간부를 동북으로 급파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중국국민당도 수많은 접수요원을 동북에 파견하였다.[15] 국민당은 1945년 겨울부터 미국의 원조 아래 선박과 항공기로 대규모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이동시켰다.[16]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5년 10월 주요간부를 동북지역에 파견하여 동북근거지를 개척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요간부는 하경적(贺庆积), 옹문도(雍文濤)[17] 등 50여 명이었다. 중앙당 간부 중 일부는 장춘(長春)에 남았고, 다수의 간부는 동북지역 각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과 함께 무장대오를 확대하고, 정권을 인수하며, 근거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18] 이와 동시에 중국공산당

15)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이하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5 : 승리』(朝鮮文), 민족출판사, 1992, 1~2쪽.
1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著, 金冲及 主編, 『走向勝利』, 名流出版社, 1997, 592쪽.
17)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명에 한자를 병기했으나, 일부 인명은 자료에 한자가 없어 병기하지 못했다.
18) 운봉·요작기, 「광복후 연변인민무장력의 건립과 발전경과」, 정협 연변조선족자치주 문사자료위원회(이하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연변문사자료 제9집-해방초기의 연변』, 료녕민족출판사, 2000, 36쪽.

은 10월에 중국공산당 동북국(東北局)과 남만분국(南滿分局)을 조직하였고, 이후 심양(瀋陽)에서 동북민주연군을 창설하였다.[19]

1945년 12월 말 당시, 국민당군대는 89개 보병군(步兵軍), 2개 기병군(騎兵軍), 242개 사단에, 45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동북지역에 동북행원(東北行轅)을 설치하고 8개 군을 배치했다. 1945년 12월 말 당시, 공산당군대는 61만명의 야전군(野戰軍), 66만명의 지방부대·후방기관 등 총 127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 창설된 동북민주연군은 3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45년 12월 말 당시 국민당군대와 공산당군대의 병력수는 3.5 대 1로 국민당군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20]

국민당군대는 1945년 11월부터 동북지역에서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민당군대는 11월에 요녕성(遼寧省) 호로도(葫芦島)에 상륙한 후, 동북지역의 대문인 금주(錦州)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장개석은 1946년 1월부터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내전을 개시하였다. 국민당군대는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진공작전을 펼쳐 산해관(山海關)·금주·심양(瀋陽) 등 동북지역의 요충지를 점령하였다. 중국내전은 관내(關內)에서는 소규모 충돌로 진행되었으나, 동북지역에서는 대규모 충돌로 전개되었다. 동북전쟁(東北戰爭)에 투입된 국민당군대는 5월에 이르러 15개 군(軍), 51만명으로 증원되었다.[21]

동북지역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1946년 5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군이 동북지역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소련군은 3월 11일부터 심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 김운룡, 「리홍광지대」, 길림성정협 · 연변조선족자치주정협 문사자료위원회(이하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길림조선족』, 연변인민출판사, 1995, 350쪽.
20) 林桶法, 『戰後中國的變局 : 以國民黨爲中心的探討』, 臺灣商務印書館, 2003, 103~108쪽.
21) 장옥지, 「길림성민주련맹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343~346쪽.

했고, 최종적으로 5월 3일 전체 동북지역에서 철수를 완료하고 소련 경내로 이동하였다.[22] 국민당군대는 소련군이 철수하자 정전합의를 깨고, 동북 전체지역에서 공산당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국민당 제71군은 6월 7일 길림성(吉林省) 교하현(蛟河県) 일대를 침공하였다. 이에 따라 주보중(周保中) 부사령 등 동북민주연군 지도부는 6월 상순에 돈화(敦化)에서 군사회의를 개최해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다.[23]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군대는 국민당군대에 비해 압도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국민당군대가 동북지역의 교통중심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관내와 동북지역의 교통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만주와 북만주, 관내(關內)와 관외(關外)[24]를 연결할 수 있는 북한지역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의 입장에서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군대를 몰아내고 동북지역을 장악한다면 북쪽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25]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은 해방 직후부터 고위급 연락체계를 구축해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양측은 1945년 11월부터 비밀채널을 통해 동북전쟁과 관련한 군사지원문제를 긴밀히 협의했다. 북·중간의 군사협력은 중국공산당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처음으로 북한에 군사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1945년 11월 중순이다. 당시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遼寧軍區) 사령원이던 소화는 김일성에게 군사지원문제에 관한 긴급회담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11월 29일 직접 중국 안동(安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 孟宪章·楊玉林張宗海, 『蘇聯出兵中國東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260쪽.
23) 중공연변주위당사연구소 편찬, 『중공연변당조직활동년대기』, 연변인민출판사, 1989, 292~294쪽.
24) 관내와 관외는 河北省 秦皇島에 있는 山海關의 안과 밖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산해관은 중국본토의 관문이다.
25) 丁雪松 外, 「回憶東北解放戰爭時期東北局駐朝鮮辦事處」, 中共中央黨資料征集委員會 編, 『遼瀋決戰』(上), 人民出版社, 1988, 624쪽.

으로 건너갔다. 김일성과 소화는 안동회의에서 동북전쟁에 관한 긴급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지역을 공산당군대의 이동경로로 활용하는데 합의하였고, 북한측은 열차·자동차·선박을 동원해 부대의 이동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26]

또한, 1946년 봄에는 중국공산당 동북국 부서기 진운(陳雲)이 모택동(毛澤東)의 밀서를 가지고 직접 평양에 파견되었다.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동북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일성은 무기지원문제를 승인했다. 북조선분국은 중국측에 10만 여 정의 무기와 포를 지원했고,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를 조직해 만주로 파견했다고 한다.[27] 이 무기들은 해방 직후 소련군사령부가 일본군으로부터 압수한 무기였다. 북한은 총과 포 외에도 동북지역에 "황색폭약" 등 각종 폭약을 제공했다. 이 폭약은 동북전쟁에서 교량과 요새화된 화점을 폭파하는데 사용되었다.[28]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1946년 4월 7일 동북민주연군 후근부 군수공업부를 통화(通化)에서 길동(吉東)지역 후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수공업부의 기계·물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함북 온성군 남양면과 경원군 훈융리 구간의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군수공업부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300여 바곤"의 기계와 물자를 북한 철도를 통해 훈춘(琿春)으로 수송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동북민주연군이 소련군에게 양도받은 귀금속·계기·화학원료도 대련(大連)에서 북한을 거쳐 훈춘으로 수송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폭약, 류산, 초산, 염산, 유색금속선철, 콕스 등의 원자재를 지원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 직접 간부를 파견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 길재준·리상전, 앞의 책, 173~175; 182~183쪽.
27) 길재준·리상전, 앞의 책, 312쪽; 김일성,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국제주의적 임무이다」(1948.10.23), 『김일성전집』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85쪽.
28) 길재준·리상전, 앞의 책, 101~102쪽.

원자재를 구입했다. 이후 국민당군대가 길동지역 후방까지 공격하자, 군수공업부는 공장을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왕봉원 부부장을 북한에 파견했다. 양측은 군수품 생산공장을 함북 경흥군 아오지에 있는 석유공장터로 옮기기로 합의하였다.[29]

북한의 동북전쟁에 대한 군사지원은 연변자료와 조선의용군 출신의 증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동북전쟁 당시, 동북민주연군 후근부(后勤部) 군사공업부에서 근무한 중국인 간부는 동북전쟁시기 북한의 지원에 대해 "군수공업부가 통화로부터 훈춘으로 옮겨 올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도와 철도수송과 인력이 부족한 난제를 풀어주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쏘련과 조선에서 지원해준 원자재는 급시우(急時雨)마냥 우리가 군수공업생산에서 부딪친 곤난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는 바, 해방전쟁 원호사업에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30]

훈춘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입대한 리복룡에 따르면, 동북지방의 중국공산당군대는 조악한 무기로 국민당과 싸웠다. 그는 "그땐 우리 병기공장에서 병기생산이 잘 안됐다. 그때 폭탄은 조선 것을 썼다. 이것은 북한에서 해준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남만의 중국공산당군대는 국민당군 제684사단에 의해 퇴로가 막혀 부상병을 후방으로 보낼 수 없었다. 이 부상병들은 북한의 신의주와 도문(圖們)을 거쳐 연길(延吉)로 이동했다. 또한 당시 심양에는 동북민주연군의 무기공장이 있었는데, 국민당군대 때문에 무기공장을 옮길 수 없었다. 북한은 이 무기공장의 이전사업을 지원하였다.[31]

1946년 초부터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데에는 해방 직후 구축된 양측의 통신연락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29) 연군, 「훈춘의 군수품생산기지」,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50~251; 258쪽.
30) 연군, 「훈춘의 군수품생산기지」,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58~259쪽.
31) 정현수 외, 『중국 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2006, 31; 17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했다. 주보중과 김일성은 각각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도 무전으로 연락관계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45년 10월 14일 주보중에게 간부파견문제에 대해 무전을 발송했다.[32] 또한, 주보중은 1946년 3월 28일 함북 온성군 남양으로 입북해 김일성과 회담했는데, 북한측은 회담 이후 동북지역에 창설된 조선인부대와 북한 사이에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박영순(朴英順)을 중국에 파견해 북한과 연변지역 사이에 무전과 전화를 이용한 통신망을 구축하였다.[33] 중국공산당 동북국도 1946년 5월 18일 "동북국 도문판사처(圖們辦事處)"를 설치하고, 도문에 무선통신소를 설치했다. 도문판사처는 이 무선통신소를 통해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와 연락해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구입했다.[34]

이와 동시에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의 조선인 병력을 활용해 북한에 군대를 창설하려고 계획하였다. 1946년 3월 1일경, 소련군사령부와 북한정치세력은 보안기구를 강화하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평양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측 참석자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의 최용건(崔庸健)·김일(金一)·김성국(金成國)과 조선의용군 출신의 무정(武亭)·김웅(金雄)이었다. 소련측에서는 제25군사령부 참모부와 소련민정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보안간부훈련소 설립문제와, 이를 위한 준비문제였다.[35]

양측은 동북지역에 있는 조선의용군의 간부와 병사들을 입북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간부와 병사들을 먼저 철도경비대에 배치하고, 보

32) 周保中, 『東北抗日遊擊日記』, 人民出版社, 1991, 828쪽.
33) 길재준·리상전, 앞의 책, 186~188; 191; 313쪽.
34) 장택민 구술, 「동북총국 도문판사처에서의 지난날」,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52; 356쪽.
35) USAFIK, *ISNK*, No.39(1947.6.15~6.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이하 북한정보요약)』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210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간부훈련소가 설치되면 그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후 철도경비대를 보안간부훈련소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3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주요간부들과 보안국 수뇌부는 1946년 4월 북·소 합동회의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철도경비대의 조직절차와 동북지역 조선의용군의 입북절차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1946년 4월 하순, 북한정치세력과 조선의용군 교섭대표자들의 합동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의용군 대표자들은 6월에 조선의용군 간부들이 북한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37]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정치세력과 중국공산당은 1945년 11월 중순부터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11월 중순에 출현하기 시작해, 1946년 3~4월에 북한·중국·소련 대표자들의 합동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정치세력은 중국내전에 필요한 군수물자·교통로·후방기지를 제공했고,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병사들의 입북을 허가함으로써 인민군 창설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은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이었다. 이처럼 중국내전과 인민군 창설사업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북·중 군사협력관계에 따른 간부와 병력의 이동

1946년 3~4월에 걸쳐 소련군사령부, 중국공산당 동북국, 동북지역

36)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37)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1쪽.

의 조선의용군, 북한정치세력은 비밀회의와 상호접촉을 통해 북·중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보안간부훈련소 창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인민군의 건군사업이 개시되었다. 1946년 여름, 김일성은 김일과 최현(崔賢) 등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불러 보안간부훈련소의 창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일과 최현은 신의주와 강계로 파견되었고, 강건, 최춘국(崔春國), 류경수(柳京守), 김경석(金京石)은 개천, 나남, 정주, 회령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현지에서 "보안간부훈련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병력을 모집했다. 아울러 김일성은 지방의 공산당 조직에 노동자·농민의 자녀들을 선발해 보안간부훈련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1946년 8월에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 제2소 · 제3소가 창설되었고, 각 분소가 조직되었다.[38]

보안간부훈련소의 대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지역 청년들이었다. 보안간부훈련소의 각 분소는 주둔지역 청년들을 입대시켜 교육하였다.[39] 그러나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은 북한 청년들이 아니었다.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와 제2소는 1946년에 강건이 동북지역에서 데리고 입북한 조선인 병력을 주축으로 창설되었다.[40] 강건의 입북시기는 1946년 7월이다.[41] 또한, 1946년에 2,000여 명의 훈춘보안단 병력과 500명의 "조양천교도대(朝陽川教導隊)" 1기생이 입북해 각 보안간부훈련소에 분산·배치되었다.[42] 조양천교도대 졸업생의 정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 김일 외, 『붉은 해발아래 창조와 건설의 40년』1,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69~370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24권,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1, 128쪽.
3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1-解放과 建軍』,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680쪽.
40) 한상구, 「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역사비평사, 1988, 365쪽.
41) 리창역, 「강신태의 군대생애」,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00쪽. 姜信泰는 강건의 본명이다.
42) 김중생, 앞의 책, 141쪽.

한 입북시기는 8월 23일이다.[43] 강건이 지휘해 입북한 병력의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은 최소 2,500명이다.

훈춘보안단의 모체는 김일성부대의 아동단원 출신인 남만우가 1945년 9월 강건의 명령에 따라 조직한 훈춘별동대(琿春別動隊)이다. 훈춘별동대는 1945년 11월에 훈춘보안대로 확편되었고, 1946년 3월에 4개 대대를 보유한 연대급부대로 확대되었다.[44] 훈춘보안대의 정치책임자는 동북항일연군 출신 한창봉이었다.[45] 훈춘보안단에는 조선의용군 병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2개 중대(300명)를 훈춘에 보냈는데, 이 병력이 훈춘보안단에 합병되었다. 그 결과 보안단의 중하위 간부는 제5지대 간부들로 구성되었다.[46] 즉, 훈춘보안단의 모체는 강건의 명령에 따라 김일성의 직계 인물이 창설하였고, 정치책임자는 항일연군 출신이었으며, 보안단에는 조선의용군 5지대 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1946년 여름부터 조선의용군의 병력이 입북하기 시작했다. 조선의용군 제1지대와 제7지대에서 다수의 장병들이 집단적으로 입북해 북한군대에 편입되었다. 또한, 연안 조선혁명군정학교 출신의 교원과 학생들도 입북해 북한의 노동당, 정부기관, 군대의 요직에 임명되었다. 그후에도 조선의용군 제3지대 지대장 이상조(李相朝), 참모장 김연, 정치부 주임 정경호(鄭京浩) 등 동북지역의 조선인 가운데 우수한 간부와 지식인들이 계속 입북하였다.[47] 동북지역의 조선인 병력은 1946년 7월부터 입북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보안간부훈련소에 입소했다.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의 이동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의 합의의 결과였다. 양측은 조선혁명을 추진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 金洪範, 『幹部履歷書』, NARA, RG 242, SA 2009, Box 6, Item 110.
44) 남만우, 「장군님품으로 가는 길」,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이하 회상기)』2,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46~48쪽.
45) 길재준 · 리상전, 앞의 책, 49쪽.
46) 김중생, 앞의 책, 139~141쪽.
47) 강창록 · 김영순이근전 · 일천, 『주덕해』, 실천문학사, 1992, 149~150쪽.

는데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입북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준국경을 넘어 인민군 창설사업에 투입되었다.

1946년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북한지역으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간부와 병력도 동북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쟁점은 북한군대의 동북파병설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1947년 초 김일성이 수만명의 북한군대를 동북지역에 파병했다는 동북파병설을 주장하였다.[48] 다른 연구자들도 그의 연구를 받아들여 동북파병설을 주장하였다.[49] 이 주장의 자료적 근거는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였다. 미군은 1947년 4월 말, 김책(金策)이 약 3만명의 북한병력을 지휘해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50] 김책은 1946년 1월 평양학원(平壤學院) 초대 원장을 맡았지만,[51] 원장을 기석복(奇石福)에게 넘겨준 후,[52] 1946년 8월부터 북조선노동당 상무위원으로 당사업에 전념하고 있었다.[53] 김책은 1946년 8월부터 1948년 2월까지 한번도 군사간부를 맡은 적이 없다. 또한, 미군의 정보망이 가동되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북조선노동당이 중앙당 상무위원을 군사지휘관으로 임명해 동북지역에 파견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주한미군의 정보는 오류와 진실을 동시에 담고 있다. 미군이 오판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용군 출신과 동북항일연군 출신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군은 최용건과 강건을 1947년 10월 시점까지 "조선의용군(Ui Yung Goon)" 출신으로 파악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2*, p. 358.
49) 백학순, 앞의 논문, 274쪽; 박명림, 앞의 책, 243~247쪽.
50)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1) 김일성, 『김일성전집』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82~283쪽.
52) 雲谷, 「平壤學院創立 一週年 紀念記」, 평양학원, 『새三千里』2·3월호, 평양학원편집부, 1947.3.26, 186쪽.
53)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176쪽.

고 있었다.[54] 김책이 3만명을 지휘해 이동했다는 내용의 바로 아래에는 강건이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동북지역의 조선인병력을 지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강건이 함경북도 "보안대대부(BoAnTaeDaeBoo)" 부대장이라는 또다른 정보가 보고되어 있다.[55]

미군은 북한지역의 동북항일연군과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을 구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북한에서 병력을 지휘해 동북지역으로 간 인물을 김책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 지휘관은 조선의용군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군은 강건이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길료군구(吉遼軍區)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활동하다가 1946년 7월에 입북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강건이 나남의 보안간부훈련소 소장이라는 정보와 길동군분구 사령원이라는 정보가 같은 보고서에 동시에 보고된 것이다. 미군이 오판한 근본적 이유는 1946년에 중국내전이 발발하면서 동북지역·북한지역에서 조선인 간부와 병력이 수시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미군은 북한으로 피신한 중공군(조선인 포함)의 만주 복귀나, 북한지역을 경유한 중공군의 부대이동, 유사시를 대비한 북한군의 국경지대 병력이동 등을 북한군의 동북지역 파병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56]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미군은 중국공산당군대가 1946~1947년동안 북한지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미군은 같은 정보보고서에서 1947년 3~5월에 북한에 있던 조선인병력이 동북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병력은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선발된 병력이며, 평북지방에서는 특히 강계에서 집중적으로

54)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05쪽; USAFIK, *ISNK*, No.46(1947.10.1~10.15),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439쪽.
55)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6) 이종석, 앞의 책, 70~7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차출되었다. 이중 많은 병력이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에 배치되었다.[57]

학계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도 동북파병설을 주장하고 있다. 2008년에 공간된 북한문헌은 1945년 10월 말, 남만주의 조선의용군부대가 사단규모로 성장해 리홍광지대(李紅光支隊)로 개편되었으며,[58] "이 시기 평안북도에서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중국에 건너가 리홍광지대에 망라"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 문헌은 북한의 청년들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평안북도에서 통화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통화로 건너간 청년들은 리홍광지대에서 박정덕의 지휘 하에 활동하였다. 그러나 박정덕은 동북항일연군이나 북한에서 파견한 인물이 아니라 해방 직후 남만지역에서 나와 조선인 대대를 창설한 인물이다.[59]

북한문헌에 따르면, 1946년 이후 평북지방에서 무장부대를 이끌고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군사간부가 있다. 안효덕은 1930년부터 길림지역에서 김일성·차광수(車光洙)와 함께 활동했고, 1937년 11월에 평북 의주에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인 "룡만동지회(龍灣同志會)"를 조직해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1945년 3월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해방후 출옥했다. 안효덕은 해방후 평북 의주군에서 용만동지회를 조직적 기반으로 어적도무장대(於赤島武裝隊)와 피현무장대(枇峴武裝隊)를 조직했다. 그는 1946년 10월초 자신의 무장대를 이끌고 평안북도 청년 수천명과 함께 동북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동북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청년들은 모두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 리홍광지대에 편입되었다.[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7)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23쪽.
58)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군 제1지대가 동북민주연군 리홍광지대로 개편된 정확한 시기는 1946년 2월 23일이다. 북한문헌은 리홍광지대가 설립되기 이전 남만주의 무장부대를 모두 리홍광지대로 서술하고 있다. 고응석, 「남만에서 싸운던 나날에」, 『리홍광지대』, 230쪽.
59) 길재준 · 리상전, 앞의 책, 59; 149~150; 311쪽.

북한의 동북파병 주장은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청년들이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와 회고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치세력은 1945년 8월부터 실시해온 조·만(朝滿) 접경지역의 북한청년들에 대한 모병사업을 1946년 3월부터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선의용군이 동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던 확군사업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61] 북한정치세력은 평북·함북 등 조·만 접경지역에서 모병사업을 중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년들이 조선의용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실제로, 해방후 평안북도에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군에 입대한 인물이 있다. 대표적 인물이 리홍광지대 대원 "오군"이다. 그는 해방 당시 평안북도 강계에 살고 있었다. 오군은 1946년 1월초 강계에서 "조선의용군 총사령 무정"의 사진이 실려 있는 삐라를 보게 된다. 삐라내용은 "조선청년들에게 용약 조선의용군에 참가하여 조국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라고 호소하는 격문"이었다. 오군은 이 삐라를 보고 강계에서 통화시로 건너가 "조선의용군사령부 대훈과"에 가서 입대등기를 마쳤다. 오군은 1월 20일 조선의용군사령부로부터 "입대통지"를 받고 "기포대대 박격포 2중대"에 배치되었다.[62]

오군의 회고에서 주목할 점은 1946년 1월 당시 조선의용군이 평북 강계 인근에 참군을 호소하는 삐라를 살포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북·중 경계를 넘어 북한지역에

60) 장보옥, 「령도자의 추억속에 빛나는 삶을 두고」, 『회상기』2, 31~37쪽. 장보옥은 안효덕의 아내다. 안효덕은 리홍광지대 지휘관으로 활동하다가 1947년 11월 遼寧省 寬甸縣에서 전사하였다. 龍灣은 의주의 옛지명이고, 於赤島는 의주군 의주면 어적동 앞의 압록강에 있는 섬이며, 枇峴은 의주군 피현면을 가리킨다. 북한지역 정보넷(http://www.cybernk.net, 2017년 2월 15일 검색)

61)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62) 오군, 「승리의 개선가를 울리던 그날」, 『리홍광지대』, 203~20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직접 들어와 북한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사업(招募事業)을 전개하였다.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보다 유력한 증거는 리홍광지대 제1대대 제2중대장을 역임한 고응석의 증언이다. 그는 1945년 10월 6일에 조직된 "동북인민자위군 통화부대(東北人民自衛軍 通化部隊)"에서 활동했다. 통화부대는 1945년 11월 팔로군(八路軍) 주력부대와 함께 집안현성(集安縣城)전투에 참전했다. 고응석에 따르면, 통화부대는 집안현성전투를 치룬 후 "집안과 조선의 만포, 강계에서 온 허다한 청년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63] 고응석은 1945년 11월 이후에 평북 만포·강계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동북지역으로 건너와 동북인민자위군 통화부대에 입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미군노획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권명준(權明俊)은 1949년 7월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해 인민군 제6사단 통신중대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그의 경력란에 "1946년 신의주 로동신문사 취직, 1947.7.1. 안동경위련대 참군, 48년 4월 3일 리홍광지대 203사 3단 2영 통신반 전사"라고 적혀있다.[64] 그는 1946년에 평북 신의주에서 로동신문사에 다니다가 1947년에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7월 1일에 안동경위연대(安東警衛聯隊)에 입대하였다. 권명준은 그후 동북민주연군 리홍광지대 전사로서 중국내전에 참전하였다. 그의 사례를 보면, 1946년도 뿐만 아니라 1947년도에서 평안북도의 청년들이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리홍광지대에 입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에 입대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둘째,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를 파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동북지역 중국공산당군대의 편제와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63) 고응석, 「남만에서 싸운던 나날에」, 『리홍광지대』, 216~220쪽.
64) 「(제목없음)」, NARA, RG 242, SA 2010, Box 4, Item 9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2권, 나남, 1996, 728쪽에서 재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먼저, 북한지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입대한 리홍광지대에는 포병연대나 공병부대가 없었다. 리홍광지대는 1946년 2월 창설 당시 4개 보병대대, 교도대대, 기포중대, 통신중대, 경위중대로 편성되었고,[65] 12월초 동북민주연군 독립 제4사로 개편된 이후에는 3개 보병연대, 군정학교, 직속중대로 편성되었다.[66] 길림의 조선의용군 제7지대(이후 樺甸保安團)에도 포병부대나 공병부대는 없었다.[67] 다만, 동만주의 조선의용군 제5지대에 207명으로 편성된 포병중대가 있었다.[68] 그리고, 제5지대 대원을 기간으로 조직된 포병부대는 이후 동북민주연군의 포병대대와 포병연대로 확편되었다.[69] 따라서 북한이 파병했다는 포병연대와 공병부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1946년 1월과 7월 당시 동북인민자위군과 동북민주연군에 소속된 연대의 병력은 각 연대별로 300명부터 1,600명까지 큰 편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길동군분구 경비1여단의 경우, 연길보안연대는 1,200명, 화룡(和龍)보안연대는 800명, 안도(安圖)보안연대는 400명으로 편성되었다. 경비2여단의 경우, 돈화(敦化)보안연대는 1,600명, 액목(額穆)보안연대는 300명으로 편성되었다.[70] 평북지역의 청년들은 1946년 1월부터 1947년까지 계속해서 동북지역의 군대에 입대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넘어간 조선인 병력이 당시 동북민주연군의 1개 연대규모를 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동북지역의 조선인부대는 주둔지역 인근의 조선인들을 모병해 창설되었고, 다른 부대로 편입될 때에도 중대단위로 집단으로 배속되었다. 예를 들어, 남만주의 철영조선의용단(鐵嶺朝鮮義勇團)은 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5) 김중생, 앞의 책, 83~84쪽.
66) 최강, 「조선의용군 제1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52쪽.
67) 김중생, 앞의 책, 107~108쪽.
68) 염인호, 『또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2010, 436쪽.
69) 김응삼·김환, 「조선의용군 제5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84쪽.
70) 운봉·요작기, 「광복후 연변인민무장력의 건립과 발전경과」,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40~41쪽.

영현의 조선인청년단을 모체로 건립되었으며, 홍경현경위대대에는 조선인중대가 별도로 조직되었다. 1946년 3월, 철영조선의용단의 3개 중대는 집단적으로 제1지대에 편입되었고, 1개 중대는 팔로군부대 제70여단 포병중대로 전환되었다. 홍경현경위대대의 조선인중대는 1948년 제164사단에 집단적으로 편입되었다.[71] 동북민주연군의 군대창설방식과 부대편제방식을 볼 때, 북한지역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동일한 중대·대대에 편제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철영조선의용단의 1개 중대가 팔로군부대의 포병중대로 전환된 사례처럼, 북한청년들로 구성된 중대·대대가 포병부대로 전환된 후 포병연대로 확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정치세력이 북한청년들을 실제로 '파견'했는지 여부는 미군노획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수는 평양 출신으로 1945년 9월부터 평양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1946년 4월 29일 북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당원이다. 그런데, 최창수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1946년 8월 5일부터 1948년 3월 31일까지 "동북 료녕성 일대"에서 "동북인민해방군 리홍광지대 위생부 의무과장"으로 복무하였다.[72] 최창수는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이유에 대해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5. 동북인민해방군에 참가한 시대.
>
>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나는 1946년 8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중국인민해방군 리홍광지대(이전의 조선의용군)에 파견되어 군의공작을 하였다. 레주의(레닌주의-인용자) 혁명로선의 정확성을 확신하며 전지의학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얻었다.

71) 김중생, 앞의 책, 109~110쪽.
72) 최창수, 「리력서」(1948.11.18),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5(이하 출처 생략).

6. 현재

조직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평양의대 병원에 도라와 외과에 근무중이며 자기맡은 임무를 완수할라고 생각하고 있다.(밑줄-인용자)[73]

최창수가 1946년 8월에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이유는 당원으로서 "조직의 지시", 즉 북조선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가 1948년 3월에 다시 귀국한 것도 "조직의 지시", 즉 북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의 「이력서」 중 "군인복무"란에는 입대부대명과 입대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부대명에는 "리홍광지대", 입대이유에는 "상부지시"라고 적혀있다.[74] 중요한 점은 최창수가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사실을 스스로 "파견"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노동당[75]은 실제로 동북민주연군에 당원들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의사 등 중국내전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병력이었다.

결국, 북한의 동북파병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현대의 시각으로 조합한 것이다. 북한지역의 청년들은 해방 직후부터 조선의용군의 군대모집사업에 호응해 개인이나 무장대 단위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조선의용군과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정치세력은 중국내전에 긴급히 필요한 전문병력을 직접 파견하였다. 이들이 입대한 부대는 대부분 리홍광지대였다. 동북민주연군은 북한에서 파견하거나 자원입대한 청년들을 동일한 중대·대대에 배속하였다. 부대의 지휘관은 해방 직후 동북지역에서 건군사업을 펼친 조선인 간부가 맡았다. 이 가운데 일부 부대는 중국공산당군대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3) 최창수, 「자서전」(1948.11.19),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74) 최창수, 「리력서」(1948.11.18.), 『평양의학대학 교직원이력서』, 평양의학대학, 1949.
75) 北朝鮮共產黨은 1946년 8월 29일 朝鮮新民黨과 합당해 北朝鮮勞動黨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당원에 대한 파견과 귀국 지시는 각각 북조선공산당과 북조선노동당이 내린 것이다.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회의록」,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 118~119쪽.

확편에 따라 포병연대나 공병부대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청년들이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한 것은 해방 이후 형성된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결과였다. 1946년 1월 당시, 동북지역에 있던 중국 "홍군(紅軍)"은 평북인민위원회 보안부와 직접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다. 평북 도보안부는 1945년 12월 제1차 각도 보안부장회의 이후부터 4회에 걸쳐 보안원 가운데 "전직자(前職者)와 불순분자(不純分子)"를 숙청하였다. 그런데, 제2차 숙청과정에서는 "1월 24일 홍군에서 각 지방에 검사공작원(檢查工作員)을 파견하야 많은 전직자를 숙청"하였다.[76] 평북 도보안부는 1946년 1월 시점에 동북지역의 중국공산당군대와 직접 접촉하였고, 중국공산당군대는 도보안부의 보안원 숙청작업에 직접 검사공작원을 파견하였다.

각 도 인민위원회 보안부는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이 직접 지휘했다. 당시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장은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 동북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입북한 최용건이었다.[77] 당시 동북민주연군 부사령원 겸 동북군정대학 교장은 소련시절 최용건과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주보중이었다. 소련극동군 제88독립보병여단에서 주보중은 여단장, 최용건은 부참모장, 김일성은 제1대대장이었다.[78] 따라서, 평북 청년들이 리홍광지대에 입대한 것은 북조선행정국 보안국·평북보안부와 동북민주연군·리홍광지대가 상호 협의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민주연군 길동군분구는 평북 강계의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제3분소장인 최현과 협력관계를 갖고 활동하였다. 길동군분구는 1946년 겨울에 길림성 몽강(濛江)·장백(長白) 일대에서 군정훈련 중이었으나 소금 부족에 시달렸다. 길동군분구 경위중대는

76) 「제2회 각도보안부장회의록」(1946.7.3), 『북한관계사료집』9권, 국사편찬위원회, 1990, 243쪽.
77) 「北朝鮮行政局 局長會議에서 發表한 聲明書」, 『正路』, 1946.1.3.
78) 東北抗日聯軍鬪爭史 編寫組, 『東北抗日聯軍鬪爭史』, 人民出版社, 1991, 44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금을 얻기 위해 평북 중강진에 있는 팔로군 군의소에 경위대원을 파견하였다. 이때 경위중대장은 대원들에게 입북후 문제가 생길 경우 최현을 만나 해결하라면서 신임장을 주었다. 실제로 대원들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국경경비대원에게 체포되어 강계로 압송되었는데, 최현을 만나 신임장을 주고 풀려났다. 당시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강건이었다.[79] 강건이 입북한 이후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1947년 5월까지 항일연군 출신 김광협이 맡았다.[80]

강건·김광협·최현은 모두 동북항일연군과 제88독립여단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다. 특히 최현이 보안간부훈련소 분소장으로 활동한 강계지역은 미군 정보보고서에서 평북지방 중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차출된 것으로 기록된 지역이었다. 북한청년들의 동북지역 진출에는 동북민주연군과 보안간부훈련소에서 군사간부로 활동하던 항일연군 출신들의 인맥도 영향을 끼쳤다.

결국, 북한청년들이 동북지역의 군대에 입대한 것은 중국공산당 동북국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동북민주연군과 북조선행정국 보안국이 긴밀히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보중·강건·김광협 등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김일성·최용건·최현 등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군사경력과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한 결과물이었다.

해방 이후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부대가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이 되었고, 북한의 청년들도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부대에 입대해 부대원이 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북한과 동북지역은 지역과 민족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9) 김덕천, 「잊을 수 없는 나날에」,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1,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71~272쪽. 김덕천은 이때 파견된 경위대원이다.
80) 중공연변주위조직부 외,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조직사』, 연변인민출판사, 1989, 184쪽.

되었다. 보안간부훈련소와 조선의용군은 상대방의 지역에서 병력을 충원했고, 양측은 1945년 말부터 인적 유사성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2개 부대는 활동지역이 달랐지만, 민족국가를 건설해 '조선혁명'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4.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 구성의 성격

1946년에 형성된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조선인민군 창설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창군 초기 인민군의 간부·병력 구성은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먼저,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자.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개천) 소장은 알 수 없고, 문화부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서철(徐哲)이었고,[81] 참모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광이었다.[82]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나남) 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강건이었고, 제2소 5분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용진(崔勇進)이었다.[83] 제2소 참모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이익성이었고,[84] 제2소 문화부소장은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출신 임해(林海)였다.[85]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제3분소(강계) 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현이었고,[86] 1946년 12월 당시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 3분소장은 항일연군 출신 김창봉(金昌奉)이었

81) 『로동신문』, 1997.11.5.
8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93쪽.
83)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93~100쪽;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8권, 286쪽.
84) USAFIK, *G-2 Weekly Summary*, No.149(1948.7.16~7.23), 한림대 편,『북한정보요약』4, 20쪽.
85)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이야기』, 경인문화사, 2006, 691쪽.
86) 「강계군 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하여」(1946.12.4), 『북한관계사료집』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61쪽.

다.[87]

주한미군은 1947년 4월 현재 제1사단장은 김웅(金雄)이며, 그 이름이 정확하다고 확인했다.[88] 제1사단은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의 후신이다. 김웅은 1946년 3월 1일에 개최된 북·소 합동회의의 북한 측 대표자 중 한명이었다.[89] 창군과정에 기여한 역할과 다른 부대·군사학교의 간부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1소장은 김웅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영호(李永鎬)는 1946년 8월부터 "보안간부훈련소 소장"을 맡았다. 항일연군 출신 김일은 보안간부훈련소 2소와 3소 중 한 곳에서 문화부소장을 맡았다.[90] 제2소 소장은 강건이었고, 제1소장을 김웅으로 추정한다면, 이영호는 제3소 소장이다. 또한, 제1소 문화부소장은 서철, 제2소 문화부소장은 임해이므로 김일은 제3소 문화부소장이다.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를 정치세력별로 구분하면,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제1소 문화부소장 서철, 제1소 참모장 최광, 제1소 3분소장 최현, 제2소 소장 강건, 제2소 5분소장 최용진, 제3소 소장 이영호, 제3소 문화부소장 김일, 제3소 3분소장 김창봉 등 8명이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제1소 소장 김웅, 제2소 문화부소장 임해, 제2소 참모장 이익성 등 3명이었다. 김일·이영호·서철·최용진·최현은 모두 1945년 9월 김일성과 함께 소련에서 입북한 인물들이다.[91] 김창봉은 소련에 있다가 해방후 동북항일연군 연변분견대에 소속되어 동북지역으로 파견되었다.[92] 제2소장 강건, 제1소 참모장 최광, 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7)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간부부, 『조선인민군대 이력서(조학범)』, 조선인민군집단군사령부,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10, Item 21.5.
88) USAFIK, *ISNK*, No.35(1947.4.15~30),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9쪽.
89) USAFIK, *ISNK*, No.39,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210쪽.
90)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 선인, 2003, 115; 372쪽.
91) 김일 외, 앞의 책, 7쪽.
92) 리창, 「연변에서의 중공지방조직의 재건」,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143~144쪽.

3소 3분소장 김창봉은 해방후 동북지역에서 건당·건군사업을 펼친 인물이었다. 김웅은 동북지역에서 조선의용군 제1지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했고, 이익성은 제5지대장과 길동군분구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입북했다.[93]

1946년 11월 당시 보안간부훈련소의 주요간부는 대부분 동북항일연군 출신이었다. 중요한 점은 50% 이상의 간부가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중국국민당 보다 먼저 동북지역으로 진출해 중국공산당의 헤게모니를 구축함으로써 중국혁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결집해 중국공산당의 당단체·정권기관·군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중국혁명에 참여시켰다. 동북지역의 간부들은 북한지역에서 건국사업이 시작되자 중국공산당의 지시와 허가에 따라 입북하였다. 이들에게는 중국혁명의 임무 대신 조선혁명의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보안간부훈련소의 주력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이었다. 병력규모는 최소 2,500명이다. 1946년 12월 25일 현재 "국경수비보병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의 총병력은 4,536명, "경보병사단"(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의 총병력은 4,443명이었다.[94]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는 여단규모였으므로, 보안간부훈련소의 총병력은 13,000명 미만이었다. 따라서, 보안간부훈련소 전체병력의 약 19%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이었다. 이들은 보안간부훈련소가 창설단계에 있던 1946년 7~8월에 입북했으므로, 보안간부훈련소의 기간병력이었다.

중요한 점은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의 정치적 성격이다. 선행연구는 1946년 4~7월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병력을 조선

93) 김중생, 앞의 책, 127~128쪽.

94) 「1946년 12월 22~23일 25군 사령관 및 그 참모부가 실시한 경보병사단 검열결과 총결자료」, 러시아연방 국방성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김광운, 앞의 책, 579~580쪽에서 재인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용군부대와 일반적인 '조선족'으로 파악하고 있다.[95] 주한미군은 1947년 4월 말 3개 보안간부훈련소에 소속된 총병력을 125,000명으로 추정하였고,[96] 이중 50,000명이 조선의용군부대(Korean Volunteer Army in China) 출신이라고 분석했다.[97] 그밖의 연구는 해방 직후와 1949년부터 입북한 조선인 병력문제만을 다루며, 1946년에 입북한 조선인 병력문제는 다루지 않았다.[98]

하지만, 1946년부터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조선인 병력의 성격은 조선의용군부대나 일반적인 '조선족'으로 확정할 수 없다.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강건이 지휘해 입북한 병력과 훈춘보안단 · 조양천교도대의 성격은 다양했다. 해방 직후 연변지역의 무장부대는 소련에서 넘어온 동북항일연군이 조직하였다. 해방 직후 연변에 도착한 항일연군은 적극적으로 대오를 확대해 주력부대를 맞이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연변에서 "인민무장대오"의 조직사업에 착수하였다.[99]

연변지역에서 군대창설을 주도한 세력은 동북항일연군이다. 강건은 연변에 도착한 후 연길현경비대대를 편성하고, 5개 연대로 확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확군계획에 따라 동북항일연군 간부들이 연변 각지에 파견되었고, 10월 말까지 3개 연대가 조직되었다. 용정(龍井)의 제1연대장은 박락권(朴樂權), 왕청(汪靑)의 제2연대장은 최광, 화룡의 제3연대장은 박근식이 맡았다.[100] 이중 박락권과 최광은 동북항일연군이다. 중국공산당 동북국은 11월 12일 연변군분구(延邊軍分區)를 설립하고 강건을 사령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확군사업에 착수해 6개 경비연대를 창설하였다. 강건은 1946년 2월 길동군분구 사령원으로 임명되었고, 길동군분구 경비1여단장을 겸임했

95) 김중생, 앞의 책, 137~141쪽; 이종석, 앞의 책, 117~119쪽.
96) USAFIK, *ISNK*, No.35(1947.4.15~30),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32쪽.
97) USAFIK, *ISNK*, No.36(1947.5.1~5.15), 한림대 편, 『북한정보요약』2, 50쪽.
98) 이종석, 앞의 책, 106~113쪽; 張浚翼, 『北韓人民軍隊史』, 瑞文堂, 1991, 447~460쪽.
99)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6쪽.
100)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96~29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 그리고 훈춘보안단은 강건이 지휘하는 길동군분구의 예하부대였다.[101]

강건·박락권·최광 등 동북항일연군은 해방 직후부터 입북 직전까지 연변지역의 건군사업을 주도했다. 따라서 연변지역에서 창설된 조선인부대는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무력이다. 연변군분구 정치위원으로 활동한 옹문도(雍文濤)는 연변에서 펼친 항일연군 출신의 활동에 대해 "항일련군 동지들이 먼저 이곳에 와서 사업국면을 개척했고 아주 좋은 군중토대를 닦아놓았기에 그후 많은 간부들이 륙속 정권건설, 군대건설과 군중을 발동하는 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연변은 이미 근거지의 초보적 형태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102]

또한, 조양천교도대 졸업생도 보안간부훈련소에 배치되었는데, 이 교도대는 1946년 2월 조선의용군 제5지대가 설립한 군사학교였다. 교도대는 태항산 조선혁명군정학교 간부반 학생들을 골간으로 조직되었다. 그런데 조양천교도대는 1946년 3월에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면서 길동군분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103] 당시 길동군분구 사령원은 강건이었다.[104] 길동군분구는 1946년 6월 길동군정대학·조양천교도대·화전군정학교를 합병해 동북군정대학 동만분교(東北軍政大學 東滿分校)를 설립했다. 동만분교는 6월 11일부터 "동북민주련군 독립려(東北民主聯軍 獨立旅)"라고 지칭되었다.[105] 이로써 조양천교도대는 조선의용군의 군사학교에서 완전히 동북민주연군의 군사학교로 개편되었다. 조양천교도대 졸업생의 입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동북군정대학 교장 주보중과 길동군분구 사령원 강건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1)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37; 40~41쪽.
102) 옹문도, 「연변근거지를 창설하던 나날에」,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62쪽.
103) 최수천,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503~504쪽.
104) 연변조선족자치주 편, 앞의 책, 299쪽.
105) 최수천,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시말」, 길림성·연변자치주 편, 앞의 책, 504쪽.

1946년도에 입북한 동북지역 조선인 병력은 주보중·강건·박락권·최광 등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병력이었고, 부대를 이끌고 입북한 지휘관들은 강건과 최광 등 김일성의 직계인물이었다. 결국, 이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 병력의 입북은 동북항일연군이 육성한 병력의 귀국이었고,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자신들의 육성한 병력을 기간으로 인민군을 창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은 해방 전에 한번 번경된 바 있다. 조선의용군은 원래 "조선독립동맹의 행동대오"였으나, 1943년 1월부터 그 지휘권이 팔로군 총사령 주덕(朱德)이 이끄는 동방각민족반파쇼대동맹으로 넘어갔다.[106] 이로써 조선의용군은 팔로군의 일개 부대로 변화하였다. 조선의용군은 동북지역에서 총 4개 지대로 확편되었는데, 각 지대는 1946년 1~6월에 모두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었다. 제1지대는 동북민주연군 요녕군구 리홍광지대, 제3지대는 송강군구(松江軍區) 독립8단(團), 제5지대는 연변군분구 제15연대, 제7지대는 화전현 보안단(保安團)으로 개편되었다.[107]

조선의용군에 대한 지휘권이 1946년 1월부터 팔로군총사령부에서 동북민주연군총사령부로 넘어간 이후 조선의용군의 민족부대적 성격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최기석은 해방후 연변에서 조선의용군에 입대해 동북전쟁을 거쳐 1949년에 해남도(海南島)까지 내려간 인물이다. 그는 조선의용군의 중국공산당군대 편입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는 원래 조선의용군으로 참군했는데 그 목적이 조선의

106) 崔昌益, 『朝盟報告草案 : 華北朝鮮獨立同盟에 對한 一般的 情形』, 1943, 504~505쪽, NARA, RG 242, Doc.201238, Box 5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노획문서.

107) 團은 국군의 연대에 해당하는 부대이다. 최강, 「조선의용군 제1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49~52쪽; 송무섭, 「조선의용군 제7지대」, 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94~9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혁명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던 것이 48년도 정세가 바뀌면서 조선의용군이 집체로 못나가고 간부들만 나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조선의용군이 해방인민군으로 모두 편입되었다. 그때로부터 조선의용군이라는 것이 없지 뭐."[108]

해방 이후 조선의용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입북은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국공산당군대 편입은 조선혁명의 연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중국혁명이 1차적 목표로 부상하였고, 조선혁명은 2차적 목표로 연기되었다. 이같은 인식은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950년 5월 12일 김일성은 중국혁명에 참가했다 입북한 병사들에게 "중국의 해방과 인민중국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제주의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격려하였다.[109] 김일성이 언급한 "국제주의전사"의 임무는 조선혁명이 아니라 중국혁명이었다. 결국, 조선의용군은 동북민주연군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조선혁명의 임무에서 멀어졌고, 이에 따라 인민군의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었다.

반면에, 동북지역에서 입북한 인물들에게는 조선혁명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동북군정대학 졸업생 장한철은 1946년 8월에 입북해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에 배치되었다. 동북군정대학 교장 주보중은 입북할 졸업생들에게 파견 이유에 대해 "너희들은 중국혁명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웠지만은, 조선혁명이 수행되길래 조선에 가서 조선 건설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달라"고 연설했다.[110]

중국공산당은 해방 이후 2개 혁명을 동시에 고려했고, 이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동북지역의 조선인 혁명 역량을 배분했다. 이들은 동북지역 조선인 중에서 잔류자와 입북자를 결정했다. 그리고 잔류자

108) 정현수 외, 앞의 책, 19~20쪽.
109) 길재준 · 리상전, 앞의 책, 304~305쪽.
110) 정현수 외, 앞의 책, 196~20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에게는 중국혁명의 임무를, 입북자에게는 조선혁명의 임무를 부여하였다.[111] 또한, 북한정치세력도 창군사업을 준비하면서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을 입북시켜 창군의 기간으로 삼고자 계획했다. 결국,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준국경을 혁명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혁명을 추진했다.

5. 맺음말

북·중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11월 중순에 출현하기 시작해, 1946년 3~4월에 북한·중국·소련 대표자들의 합동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내전에 필요한 무기·군수물자·교통로·후방기지를 제공했고, 중국공산당은 조선혁명을 원조하기 위해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와 병력의 입북을 지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도 1945년 10월말부터 1947년까지 개인이나 무장대 단위로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동북민주연군에 입대하였다. 북한정부는 이들이 김일성의 지시로 입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동북지역에서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의로 입대했다. 다만, 북한정치세력이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병력을 동북지역에 파견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2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각 단위에 따라 중층적으로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했다.

1946년 8월, 북한지역에 창설된 보안간부훈련소의 간부 중 50%

111) 강건과 김광협 등 중국공산당 당원은 중국공산당의 지시와 허가 없이 입북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지역 조선인 간부의 입북은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이상은 동북지역에서 중국혁명을 수행하고 귀국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간부들이었다. 그리고 보안간부훈련소의 기간병력은 동북항일연군이 동북지역에서 육성한 병력이었다. 이들은 조선혁명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인민군의 창설과정에 투입되었다. 이와 달리, 동북지역의 조선의용군은 동북민주연군에 편입되면서 중국혁명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인민군의 창설과정에서 분리되었다.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은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의 혁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양측은 중국혁명과 조선혁명을 동시에 고려해 자체 지역의 혁명 역량을 배분했다.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 중에서 조선혁명에 적합한 인물들을 선별해 입북시켰고, 잔류한 조선인들을 중국혁명에 투입하였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 중국혁명에 긴급히 투입할 인물들을 선발해 파견했고, 동북지역 조선인들을 기간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자 계획했다.

양측의 혁명 구상은 혁명의 경계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은 일국(一國) 단위로 지역과 민족의 경계 내에서 전개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정치세력은 동북지역과 북한지역의 준국경을 혁명의 경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혁명을 추진했다. 국민국가는 분명하고 틈이 없는 영토적 경계를 통해 탄생한다.[112] 그러나, 북·중 양측의 경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 않고 서로 겹쳐 있다. 이들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혁명을 지리적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구상하였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추진하였다. 6·25전쟁 전후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부대의 입북은 북·중 양측이 가진 혁명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국민국가의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진행된 군사협력관계

112)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12~21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중심으로 간부·병력의 이동내용과 보안간부훈련소 간부·병력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이 혁명의 경계를 넘어 간부와 병력을 상호 지원하였고, 중국혁명에 참여하고 입북한 간부와 병력들이 인민군 창설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의 활동내용과 이들이 북·중관계에 미친 영향, 조선인들의 중국내전 참전문제, 북·중간 정치·군사협력의 기구·체계·인물, 북·중간 당관계·외교관계, 정부수립 전후 북·중관계 등을 다루지 못했다. 이상의 주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2017.1.5, 심사수정일: 2017.2.20,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북·중 군사협력, 중국내전, 조선혁명, 중국혁명,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군, 동북민주연군, 조선인민군, 보안간부훈련소, 김일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the Border of 'Revolution' after the Liberation

- Focusing on North Korea's Assistance to the Chinese Civil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 -

Kim, Seon-Ho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has initiated since November 1945. In an attempt to assist the Chinese revolution,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provided China with weapons, strategic logistic materials and rear bases. Simultaneousl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order to help 'the Korean revolution,' instructed Korean officers and soldiers based on Manchuria to enter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has formed, the cre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s well as the Chinese Civil War have set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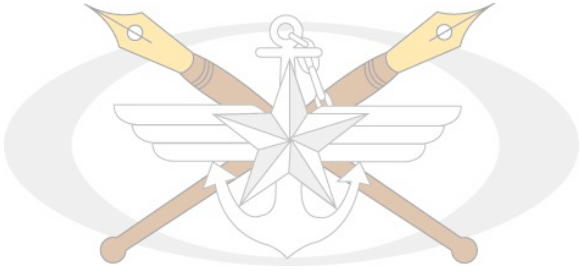
Right after the liberation North Korean, youths have moved to Manchuria and joined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Regardless of Kim Il Sung's commands, these young people joined the army in order to conduct 'the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As well,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dispatched a few special forces to Manchuria for backing the Chinese revolu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wo revolutions, North Korea and China decided to establish the military cooperation at the levels of party, military and government.

More than a half of North Korea's Security Officer Camp(SOC) cadres acted as veterans of the Chinese revolution and returned. Also, the key forces of SOC were the units from Manchuria and they were commissioned to the task of 'the Korean revolution.' Meanwhile the Korean Volunteer Army in Manchuria was incorporated into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with the mission of the Chinese revolution. Thus,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was the origin of th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Korean units entry to North Korea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round the Korean War.

Key words :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on, Chinese civil war, Korean revolution, Chinese revolution,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Korean Volunteer Army,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Korean People's Army, Kim Il Sun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청일전쟁 전황(戰況)과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정책

석화정*

1. 머리말
2. 일본의 현상(Status Quo) 변경 시도와 열강의 상호견제
3.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Corea)' 및 '보호령(seperate Protectorate)'안과 일본의 개전
4. 한반도에서의 패전과 리훙장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
5. 중국 본토로의 전선확대와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independence of Corea guaranteed by Powers)'
6. 맺음말

1. 머리말

청일전쟁기 '조선의 독립(independence of Corea)'문제는, 조선이 주권국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넘어, 전황(戰況)의 추이와 전쟁 당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

사국과 열강의 이해(利害)에 따라 연동한 국제적 이슈였다.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대청전쟁을 수행하던 일본이 한반도 독점에 대한 열강의 견제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조선의 독립'이 국제문제였기 때문이다.[1)]

'조선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한반도 독점 야욕을 키워왔던 일본은 강화도조약(1876) 제1조에서 조선이 '자주국(自主之邦)'임을 선언하여 청의 종주권에 도전했고,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강화조약(1895) 제1조에서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케 만들었다. 그 점에서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한 청일전쟁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대외침략적 성격에 있었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주권선(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이익선(한국)까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같은 일본 군부의 전략에 진정한 의미의 '조선의 독립'은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2)]

'조선의 독립'문제는 '종번(宗藩)관계 철폐'와 함께 전황에 따라 일본과 청국의 편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던 일본에게 청국의 대한(對韓)종주권 철폐와 '조선의 독립' 문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이슈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화이 질서를 고수하려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영국의 현지외교관들은 일본의 전쟁의도와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 드러먼드(W.V. Drummond) 상해주재 영국영사의 1894년 6월 15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개전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를 차지함은 물론 중국 본토를 공격하여 복건이나 타이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No.313, O'Conor to Kimberley, 1894.6.24, Inclosure 2 in No.313, Memorandum by Mr. Drummond, 1894.6.15., *Anglo-American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edited by Park Il-Keun(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83)(이하 *B(ritish) D(iplomatic) A(rchives)*로 약함), pp.144-145; No.405, O'Conor to Kimberley, Inclosure 2 in 405, 1894.6.26, *BDA*, pp.240-242.

2) 고야쓰 노부쿠니, 「민비암살이란 무엇인가」『역사학보』 제190호(2006. 7); 森山茂德, 「청일전쟁 중 일본 군부의 대한 정략」, 『청일전쟁의 재조명』(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195.

청조는 청일전쟁기 내내 '종번' 관계의 철폐와 '조선의 독립'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청국은 한반도에서 패하고 난 뒤에 '조선의 독립'을 제기했지만, 일본이 원하던 의미의 '조선의 독립'은 아니었다.

이 논문은 '조선의 독립'문제가 전황에 따라, 그리고 청일 양국의 입장과 열강의 중재안에서 각각 다르게 접근되었던 사실에 주목해 본 것이다.[3] 즉 '조선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청·일과 열강의 중재안을 재평가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강의 이견이 곧 전쟁을 장기화시킨 요인이자, 열강의 중재가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일본이 조기 개전을 결정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열강의 무관심이 곧 열강의 상호견제와 연결된 것이었음을 제기하였다. 3장은 현상(現狀)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킴벌리외상이 제기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Corea)'안이 일본의 개전과정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재평가하였다. 4장은 한반도에서의 패전 이후 리훙장(李鴻章)북양대신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의 의미를 통해 전쟁이 장기화하고 강화가 지연된 청측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본토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제기된 킴벌리외상의 '열강보장하의 조선의 독립'안이 실패로 돌아간 과정이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이 반영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청일전쟁기 조선측의 국가, 자주개념 및 독립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현광호, 유길준의 '한국독립' 인식, 『인문연구』 제55호(2008.12), 김성배, 갑오개혁기 조선의 국가·자주개념의 변화: 김윤식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4권(2) (2015.2).

2. 일본의 현상(Status Quo) 변경 시도와 열강의 상호 견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일 양국의 시각차는 개전 이전부터 뚜렷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제의한 '공동 조선 내정 개혁'안을 청국은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청국이 제의한 '양군 동시 선철병'안을 끝까지 수락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주화약(6.11) 이후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 뒤에도 철병을 거부하고, 청일 양국에 의한 〈공동 조선 내정개혁〉안을 청국에 제안했다(6.16). 다음 날,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주한일본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국과의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 '종번' 문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무츠 무네미쓰(陸奥宗光) 외상에 건의했다(6.17).[4] 이는 천진협약(리훙장-이토 히로부미, 1885) 이래 열강의 눈을 의식해 청국의 대한종주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온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청일 양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조선과 청국은 각각 영국, 러시아, 미국에게 잇달아 중재를 요청했다. 리훙장은 청국 조정의 이름으로 카씨니(Count Cassini)청국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청일 양군의 동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日本外交文書』 27-2, no.559, pp.217-19; 청일 개전에 대해서는 오오토리공사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구선희, 『한국근대사연구』, 2006)와 오오토리공사와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등 주한공사관원들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Mori Mayuk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Issue of Suzerain-Vassal as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Chose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2012), 이토와 무츠의 입장이 개전과정에서 관철되는 측면으로 바라본 최석완의 연구(일본정부와 청일전쟁 개전과정, 『일본역사연구』 29집(2009), 고종이 청국에 개입을 요청한 다음 날(1894.6.2) 각의에서 신속한 파병결정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증거라고 본 새러 페인의 연구(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14) 참조.

철병을 위한 거중조정(good offices)을 요청하고(6.20), 다음 날 일본의 〈공동 조선 내정개혁〉안을 거부했다(6.21).[5] 청국은 기존의 종번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공동 내정개혁 즉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공동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6] 리훙장은 다음 날 기르스(M.N.Giers) 러시아외상에게도 중재를 요청했다(6.22).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6월 22일에 무츠외상은 오오토리공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개전의 구실을 찾으라"[7]고 훈령했다. 6월 21일과 22일의 일본 각의가 〈공동 조선 재정개혁〉안에 대한 청국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조기 개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서울의 청국공사관 철수와 일본의 보호령(protectorate) 인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조선왕에게 보냈다.[8]

한편, 청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기르스외상은 6월 25일 두 나라의 〈무력 충돌에 반대하며〉 〈양군의 선공동 철병과 교섭을 포함한 분쟁 해결〉을 히트로보(Mikhail Hitrovo)주일 러시아공사를 통해 무츠 외상에게 권고했다.[9] 기르스외상은 양군 철수를 중재해달라는 조선의 요청도 황제에게 상주했다(6.28).[10] 러시아가 청국과 조선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영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No.16, Cassini to Giers, 1894.6.10(22), *KA, CSPSR,* Vol.XVII, No.3, pp.494-495.
6) No.19, Cassini to Giers, 1894.6.12.(24), B.G. Waber & S.R.Dimant(ed.), Russian Documents Relating to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trans., from Krasny Arkhiv, Vol.L-LI, pp.3-63, *Chinese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view*, Vol.XVIII, No.3, Oct., 1932 (이하 *KA, CSPSR*로 약함), p.496.
7) 최문형, 국제관계를 통해 본 청일 개전의 동인과 경위 〈역사학보〉 제99·100합집(1983), p.244.
8) No.31, Cassni to Giers, *KA, CSPSR,* Vol.XVII, No.3, pp.505-506.
9) No.302, Paget(Tokyo) to Kimberley, 1894.7.8, Inclosure in No.302, *BDA,* pp.134-136; Hitrovo to Giers, 1894.6.13(25), No.21, *KA, CSPSR,* Vol.17, No.3, pp.497-498.
10) No.23, The Most Devoted Note of Giers, 1894.6.16.(28), *KA, CSPSR,* Vol.XVII, No.3, pp.498-499.
11) No.15, Cassini to Giers, 1894.6.10.(22), *KA, CSPSR,* Vol.XVII, No.3, pp.493-494.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분규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제의한 〈무력 충돌 반대〉와 〈양국의 선 공동철병〉안에 대해 영국의 킴벌리외상은 패짓공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보호(Protection)〉에 대해 자신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7.25).[12] 독일, 영국, 프랑스의 현지 외교관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다.[13] 당시 현지 외교관들의 한반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자국 정부의 정책노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강의 일치된 반응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6월 30일에 히트로보 주일 러시아 공사는 '청일 양군의 동시철병에 어떤 장애를 개입시킨다면, 일본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구상각서(verbal note)를 전달하며 무츠외상을 한층 압박했다.[14]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수상은 히트로보와의 장시간 회동에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정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보장을 조선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청군과 공동으로 철병하겠으며,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것에 일본의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15] 러시아의 제안에 반발하면서도 러·청이 연합할 지도 모르고, 열강의 현지 외교관들이 무력 충돌에 반대하며 청일 양군의 공동철병에 한 목소리를 내자, 일본은 7월 1일의 임시각의에서 청과의 조기 개전방침을 철회했다.

러시아의 압박 못지않게 영국의 압력도 일본의 조기 개전 방침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13) No.18, Sill to Gresham(Secretary of State), 1894.6.25, *U.S. Foreign Relations of 1894*, Appendix I, pp.22-24, *Anglo-American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이하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로 약함), p.1017.
14) No.28, Hitrovo to Giers, 1894.6.19.(7.1), *KA, CSPSR*, Vol.XVII, No.3, pp.503-504.
15) No.29, Hitorovo to Giers, 1894. 6.19(7.1), *KA, CSPSR*, Vol.XVII, No.3, p.504.

철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킴벌리(Earl of Kimberley, John Wodehouse)외상은 청일 갈등에서 러시아만 이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를 지속적으로 우려했다.[16] 이에 패짓(R.Paget)주일 영국대리공사는 무츠외상을 방문하여, '종주권문제는 제기하지 말고, 조선의 개혁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6.30). 영국에게 '조선의 독립'이란 한반도가 러시아의 수중에 장악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기존의 청국의 대한(對韓)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사실상 일본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러시아와 영국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조선의 독립'에 변화가 오는 것을 서로 경계하며 일본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1일 이후인 7월 12일에 청과의 전쟁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 국면에서도 러시아와 영국의 상호견제 및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일본의 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개전방침을 철회한 다음 날,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거론했다. 리훙장이 청일 〈양군의 선 공동철병〉(기르스외상이 6월 25일에 제안한)을 일본에게 제안한데 대한 답신에서였다(7.2). 이 때 일본은 '조선의 독립과 평화 확립'에 군대 주둔의 목적이 있으므로 동시철병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행동은 침략적 목적이 아니며, 조선의 평화가 회복 되는대로 즉시 철병할 것이라는 것이었다.[17]

리훙장의 〈양군의 선 공동철병〉안을 일본이 거절하자, 같은 날 기르스외상은 즉각 카시니 주청러시아공사에게 철병 권고가 '신중한 중립(Guarded Neutrality)'을 크게 벗어나선 안 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7.2).[18] 러시아가 청국 편을 들어 일본을 심하게 압박할

16) No.21, Kimberley to Mr. Paget, 1894.6.28, *BDA*, p.13.
17) No.39, Hitrovo to Giers, 1894.6.24(7.6), *KA*, *CSPSR*, Vol.XVII, No.3, pp.509-5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우, 영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영·청의 접근도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 일본의 배후에 영국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기르스외상은 카씨니공사에게 일본군의 철병을 '우호적인 조언(friendly advice)의 형태로' 하라고 훈령했다(7.7).[19] 그리고 청국이 영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호적인 형식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청국에 전달하라고 훈령한 뒤에(7.8)[20], 일본에 '청일 양국이 협의를 개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우호적인 조언'을 표명했다(7.10).[21] 일본은 러시아의 7월 10일의 새 제안에 기존의 〈무력충돌 반대〉와 〈양군의 선 공동철병〉 조건은 빠진 채, '청일 양국이 협의를 개시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만 언급된 것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6월 25일의 강경한 중재안과 달리 7월 10일에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표명하게 된 데는 그 사이에 영국의 킴벌리외상이 〈공동 개입〉을 제의했기 때문이었다. 7월 7일에 킴벌리외상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정부에 '공동 개입(common intervention)'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었다. 킴벌리외상은 러시아의 단독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영국을 배제한 채 청국이 러·일과 어떤 비밀 협약에 도달하지 않을까를 경계했다.[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 김지환, 「청일전쟁기 청국 외교노선의 변화」『동학연구』 제19집(2005), p.121.
19) No.40, Giers to Cassini, No.40, 1894.6.25.(7.7), *KA, CSPSR,* Vol.XVII, No.3, p.510.
20) No.43, The Most Devoted Note of Giers, 1894.6.26(7.8), *KA, CSPSR,* Vol.XVII, No.3, p.512.
21) No.48, Giers to Cassini, 1894.6.28.(7.10), *KA, CSPSR,* Vol.XVII, No.3, p.514.
22) No.46, Kimberley to O'Conor, 1894.7.7, *BDA,* p.24; Kimberley to Paget, 1894.7.7, No.47,*BDA,* p.24; No.328. O'Conor to Kimberley, 1894.7.5, *BDA,* p.172; No.303, Paget to Kimberley, 1894.7.10, *BDA,* pp.136-137; No.328, O'Conor to Kimberley, 1894.7.5, *BDA,* p.172; No.335, Kimberley to Paget, 1894.8.20, *BDA,* p.181.

영국이 공동 개입에 가담할 것인지를 문의했을 때, 프랑스의 아노또(Gabriel Hanotaux)외상은 조선에 인접한 열강(a Power limitrophe)인 러시아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함께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고,[23] 독일은 일반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불개입을 표명하면서도 한미조약(1882)이래 표명해왔던 '조선의 독립과 주권(Corea'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존중을 내세워, '우호적인 개입일지라도 타 열강과 함께 개입할 수 없다'[24]고 선을 그었다(7.8). 다음 날 미국정부는 던(Edwin Dun)주일공사를 통해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을 일본에 촉구했다(7.9).

일본은 미국이 표방한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이 자국이 제시한 〈조선의 독립과 평화 확립〉의 명분을 지지해준 것임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동이 영토 점령과 같은 침략적 목적이 아니며 조선에서 평화가 회복되는 대로 곧 철병할 것이지만, 일본군의 철수가 곧 동양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25] 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던 던(Dun)공사는 이 내용을 미국정부에 그대로 보고했다.

무츠외상이, '베이징에서의 영국의 중재가 실패한 이상, 일체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오오토리 공사에게 하달한 것이 이 때이다.[26] 조기 개전 방침을 철회한 지 11일 만에 군사력 충돌 방침을 재설정한 일본의 개전 결정은 이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3) No.50, Mohrenheim to Hanotaux, 1894. 6.29(7.11), *KA, CSPSR,* Vol.XVII, No.4(Jan.,1934), pp.632-633; 청일전쟁기 프랑스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Ge Fuping, France an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Social Sciences in China*, Vol.36, No.4, 2015, pp.138-163 참조.

24) No.28, Mr.Gresham to Bayard(the United States' Minister to Tokio), 1894.7.20, *PAFR* pp.1027-1029.

25) F(oreign). O(ffice). 405-60, Paget to Kimberley, No.28, Jul., 14, 1894.

26) 陸奥宗光, 김태욱 역,『蹇蹇錄』(명륜당, 1988), p.56, 112.

럼 '조선의 독립'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 표명과,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이 감소하고, 영국의 〈공동개입〉제의가 실패했다는 국제관계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조선의 독립'을 목표한 일본의 개전 결정이 얼마나 자국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3.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Corea)' 및 '보호령(seperate Protectorate)'안과 일본의 개전

7월 7일 킴벌리외상에 의한 열강의 〈공동 개입〉 제의가 일본의 개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무츠 외상은 자신의 회고록(『蹇蹇錄』)에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으로 전단을 열기 하루 전인 7월 22일에 킴벌리외상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을 제안했다는 기록을 남겼다.[27] 무츠는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코너 주청 영국공사에게 문의했으며, 자신이 이 제안을 접했을 때는 이미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과 동시에 개전했으므로 이 같은 협의에 응할 수 없었다[28]고 기록했다. 무츠 회고록의 이 언급 때문에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은 정작 일본의 개전과 '조선의 독립'문제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영국외교문서에 따르면, 킴벌리외상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을 제의한 것은 7월 22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열강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이었다. 킴벌리는 7월 7일의 열강의 〈공동

27) 『蹇蹇錄』, p.77.
28) 『蹇蹇錄』, pp.77-78.

개입〉 제의에 대한 열강의 반응이 미미하고, 청일 양군의 철병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자, 청일 양국 및 러시아측에 자신의 안을 재차 촉구했다(7.14).[29] 이 때 킴벌리는 철병협상의 첫 단계로서 청일 양군이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따로 점령하는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Corea)〉을 제시했다.[30] 열강의 답신이 7월 14일부터 즉각적으로 답지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 공동점령〉안은 7월 7일과 14일 사이에 제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청일 양군의 동시 철병을 주장해온 청국 조정은 한성과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북부에서만 청군의 주둔을 의미하는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7.14).[31] 리훙장은 조선내 공동위원회의 설치안은 수용하더라도, 종주권 문제는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32] 그리고 러시아측에는 일본이 서울에서 철수하여 부산에 주둔한다는 조건하에 평양을 잠정적으로 청군의 군사점령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33]

러시아도 청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34] 기르스외상은 킴벌리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황제에 상주하고(7.18),[35] 같은 날 동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 No.80, Kimberley to O'Conor, 1894.7.14, *BDA,* p.40; Kimberley to O'Conor, 1894.7.16, No.96, No.97, *BDA,* p.49.
30)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31) No.96, Kimberley to O'Conor, 1894.7.14, *BDA,* p.49.
32) F.O. 405-60, No.50, O'Conor to Kimberley, Jul., 18, 1894.
33) No.183, Kimberley to O'Conor, 1894.7.28, *BDA,* pp.81-82; No.186, O'Conor to Kimberley, 1894.7.26, *BDA,* p.83.
34) No.290, Kimberley to O'Conor, 1894.8.1.,*BDA,* pp.126-127; 러시아 '노보스티(Novosti)'지 7월 28일(8월 9일)자는, 한반도가 청국, 일본, 영국 수중에 떨어졌을 때, 남우수리스크, 시베리아철도,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개탄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점에서 청일간의 충돌은 동 시베리아(Eastern Siberia)와 러시아외교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No.295, Lascelles to Kimberley, Inclosure in No.295, *BDA,* pp.129-130).
35) No.63, Memorandum to the Emperor by Giers, 1894.7.6(18) *KA, CSPSR,* Vol.XVII, No.4, pp.640-641; Sir F.Lascelles to Kimberley, 1894.7.23, *BDA,*

(Kapnist)는 청일 양군이 철수할 때까지 영흥만(Port Lazareff)을 일시 점령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36] 러시아 역시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기만 한다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수용하겠다는 청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카씨니 베이징주재 러시아 공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37]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청국이 이 안을 수용토록 하겠다며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관해 영국과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7.22). 말하자면, 영국과 러시아가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사전 합의한 뒤에, 프랑스와 독일에게 같은 내용의 제의를 보낸 것이 7월 22일인 것이다.[38] 이와 함께, 7월 22일에 영국과 러시아가 청일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전신을 교환한 것[39]으로 보아,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은 일본의 개전을 막으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시도였다.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주독 및 주영 일본공사도 7월 14일에 즉각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고의 플랜은 킴벌리의 안대로 일본은 한반도 남부를, 청국은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충돌의 모든 위험을 피하고 공동 조선 내정개혁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킴벌리외상에게 피력했다.[40] 아오키공사의 언급은 마치 킴벌리외상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공동 조선 내정개혁〉이라는 기존의 일본측 요구를 합해놓은 듯하다. 7월 22일에 무츠외상은 킴벌리외상의 '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65; No.169, O'Conor to Kimberley, 1894.7.25, *BDA,* pp.76-77.

36) No.66, Note of Kapnist, 1894.7.7(18), *KA, CSPSR,* Vol.XVII, No.4, pp.643-644.

37) No.248, Phipps to Kimberley, 1894.8.2, *BDA,* pp.109-110; No.258, F.Lascelles(St. Petersburg) to Kimberley, 1894.7.30, *BDA,* pp.113-114.

38) No.63, Memorandum to the Emperor by Giers, 1894.7.6(18), *KA, CSPSR,* Vol.XVII, No.4, p.641. 각주25.

39) No.70, Reding(Acting Consul at Shanghai) to Kapnist, 1894.7.10(22), *KA, CSPSR,* Vol.XVII, No.4, p.646.

40) No. 82, Kimberley to Paget, 1894.7.14, *BDA,* p.41.

선분할점령'에 관해 청국이 동의하는 지 여부를 문의하라고 주청 고무라공사에게 훈령했다.[41] 같은 날, 아오키공사는 무츠외상에게, 청일 양국의 〈보호(Protection)〉에 대한 킴벌리외상의 안에 청국 정부가 동의하는 지 여부를 언급하였다.[42] 이를 통해 볼 때, 무츠외상은 7월 22일 전에 이미 영국측으로부터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안을 전달받은 것이 분명하다.

킴벌리외상은 패짓공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보호(Protection)〉에 대해 자신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7.25).[43] 그러나 아오키공사가 킴벌리외상에게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보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킴벌리외상은 일본측에 〈한반도 공동 점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44] 결국 7월 12일의 일본의 최종적인 개전 결정은 7월 7일과 14일 사이에 영국이 제안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개전 결정과정에서 영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킴벌리외상과 아오키 공사는 기존의 두 나라 사이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7.12), 4일 뒤에 통상항해조약을 조인했다(7.16). '아오키-킴벌리 조약 (Aoki-Kimberley Treaty)'의 체결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강남 무기 제작소가 있는 상해를 공격하지 않으며 '상해 중립화'의 보장을 일본에 요구했다(7.22).[45] 일본 내각은 상해가 영국 이익의 중심지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전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7.24).[46] 그러므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1) 『日本外交文書』, 27-2, No.674, 1894.7.22. pp.315-316.
42) 『日本外交文書』, 27-2, No.676, 1894.7.22. p.317.
43)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44) No.162, Paget to Kimberley, 1894.7.24, *BDA,* p.73.
45) No.134, Kimberley to Paget, 1894.7.22, *BDA,* pp.62-63; No.135, Kimberley to Consul-General Hannen, 1894.7.22, *BDA,* p.63.
46) 『蹇蹇錄』, p.76-77.

일본은 영국측이 제시한 〈한반도의 공동 점령〉및 〈보호령〉 제의를 통해 영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영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 뒤에 개전을 도발한 것이다.

킴벌리 외상이 '아오키-킴벌리조약이 일본에게 청국의 대병을 패주시킨 것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서였다. 오코너(Nicholas R. O'Conor) 주청 영국공사도 '영국이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조인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도 될지 모른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47]고 토로했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영국학자들은 개전 이전부터 전후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 영국이 일관되게 불개입정책을 유지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안 니시(Ian Nish)교수는, 러시아의 개입 우려가 청일전쟁 이전 영국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청국과의 최대 교역국인 영국은 청제국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청국의 심각한 패배를 막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보았다.[48] 즉 영국의 입장에서 청일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었고, 영국 외교에서 그리 관심을 끈 사안도 아니었지만, 청국과의 무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청국과의 대외 교역량이 3%에 불과했지만, 청국의 전체 무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서 열강 가운데 청국에 가장 압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49]

그러나 영국이 '불필요한 전쟁'에 '불개입' 입장이었다고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친일적 입장이 일본의 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청일 양

47) Ian Nish(1), 「청일전쟁과 영국」,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p.209.
48) Ian Nish(1), 위의 논문.
49) Kimberley to Rosebery, 1895.4.6, Sneh Mahazan, *British Foreign Policy 1874-1914, The Role of India* (Routeledge, 2002), p.1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안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전쟁의 전개와 목적이 '조선의 독립'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에 이어 청일의 공동 보호령이 영국과 일본 사이에 논의되었던 사실은, '조선의 독립'이 당시 영국의 제의에 의해 크게 위협받았음을 말해준다.

결국 영·러 양국의 상호 견제, 열강의 〈공동 개입〉,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이라는 영국의 중재 제의, 그리고 〈아오키-킴벌리 조약〉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일의 정치적·전략적 공감대가 일본의 개전 결심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조선의 독립'이란 일본에는 개전 명분이었고, 영국에는 러시아의 단독 개입을 막는 방패막이었다. 그 점에서 영국의 중재안들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영국측 의도를 일본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준 셈이었다.

더욱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한 그레샴(Walter Q. Gresham)미 국무장관의 '호의적 중립' 표방은 개전을 결심한 일본에 결정적인 개전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은 '조선과 타열강(청·일 의미-필자)에 대해 엄정중립(impartial neutrality)을 견지해야 하고....오직 우호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어떤 경우에도 다른 열강(유럽 열강-필자)과의 공동개입을 거부한다(7.20)는 것이었다.[50] 미국의 일관된 친일적 입장은, 청국에서의 영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중국 시장의 문호를 열고자 한 측면이 강했다.[51] 미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영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러·미의 상호견제의 희생물로 전락했고, 일본은 열강이 '조선의 독립'을 빌미로 상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0) No.28, Mr.Gresham to Mr. Bayard, July 20, 1894, *PAFR*, pp.1027-1029.
51) Cui Zhihai, The Unites States and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Social Sciences in China*, Vol.36, No.4, 164-192(2015).

견제하는 국제관계를 간파하고 개전을 단행한 것이다.

4. 한반도에서의 패전과 리훙장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 치안,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군은 조선왕, 청국공사관, 모든 전신선을 장악하고, 서울을 점령했다고 천명한 뒤, 청군 진지로 진격했다.[52] 일본정부는 8월 1일에 청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사실상(de facto) 전시 상태이므로 열강의 거중조정(good offices)을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청군이 특정 지역, 특히 평양에 위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53] 캄벌리외상이 제의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의 광서제(光緖帝)도 대일 전쟁을 공식 선언하며,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물리쳐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지키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54] 청국의 전쟁 목적은 기존의 '종번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를 장악하는데 전쟁 목적을 두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시각차는 이처럼 뚜렷했다.

7월 중순, 선철병, 공동 조선내정개혁,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 등의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청일 양군은 한반도에 계속 병력을 늘려 파견하였다.[55] 청병을 실은 영국 상선 코우싱 호가 타쿠

52) No.214, Inclosure in No.214, Vice-Admiral Sir E.Fremantle to Admiralty, 1894.8.1, Inclosure in No.214, *BDA,* pp.96-97.
53) No.225, Phipps to Kimberley, 1894.8.1, *BDA,* p.100.
54) 김현철, 「청일전쟁」,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연세대 출판부, 2006), pp.133-134; F.O. No.432, O'Conor to Kimberley, 1894.8.2, Inclosure in No.432, *BDA,* pp.281-282.
55) No.105, O'Conor to Kimberley, 1894.7.17, *BDA,* pp.52-53; No.110,Kimberley

(大沽)항을 출발한 7월 23일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했다.[56] 이어 일본군은 아산만 풍도 근방에서 코우싱 호를 침몰시킨(7.25)뒤, 아산만 성환전투에서 승리했다(7.29). 청일전쟁은 사실상 선전포고 전에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7월 24일에 오오토리공사는 고종에게 청국과의 기존의 조약을 폐기하고, 아산에서 청군 축출을 요구하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청의 속국인지 여부를 조선에 직접 물은 것이다.[57] 오오토리 공사는 청국의 대한종주권 문제를 빙자하여 청일개전을 일으킬 술책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무츠외상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58] 오오토리공사가 조선에 내정개혁안을 전달하였을 때, 조선측은 '선철병 후개혁'으로 맞섰다.[59]

고종으로부터 청군 축출의 권한을 부여받은(7.25) 오오토리공사는 '일련의 전쟁 행위가 있었지만(굵은 글씨-필자),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의도도 없다'는 서한을 열강의 외교관들에게 발송했다.[60] 이는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일본군이 선전포고 전에 전쟁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문건이다. 일본군은 내정개혁안과 한일조약을 강요하며 한 달여 뒤인 8월 25일 정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o Paget, 1894.7.18, *BDA,* p.54.

56) 노스차이나 헤럴드(North China Herald)지 1894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경복궁 점령은 5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57) 『蹇蹇錄』, p.110.

58) 『蹇蹇錄』, p.110.

59) No.496, Inclosure in No.496, 1894.8.23., *BDA,* pp.353-355. 경복궁 안에는 칼과 리볼버권총으로 무장한 일본 경찰병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일본군은 언제든지 궁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궁 주변 가까이에 주둔했다(F.O.405, Confidential 6605, No.135 Mr.O'Conor to Kimberley, 1894.9.3, Inclosure 1 in No.135 Gardner to Mr. O'Conor, 1894.8.27).

60) F.O. 405 Confidential 6605, Mr.O'Conor to the Earl of Kimberly, 1894.8.9, Inclosure 2 in No.3 Mr.Otori to his Colleagues, Jul., 1894; *N(ational) A(rchives)*, De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Japan, roll.64, no.133, Sill to Dun, Jul., 26, 1894, No.133, Dun to Gresham, Aug., 4, 1894.

에 궁궐에서 철수했다.[61]

일본이 연이어 한반도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영국은 불개입(7.30), 중립(8.2), 엄정중립(8.3)을 표명했다. 영국이 불개입을 표명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쟁에 개입할지 모르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는데 있다. 이것이 영국사가들이 주장하는 청일전쟁기 영국의 불개입정책의 '신화'이다.[62] 킴벌리 외상의 로즈버리(Earl of Rosebery) 수상에 대한 보고문에는 영국의 불개입에 대한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현 상황에서 **개입은 곧 무장중재의 형식이어야 한다**(굵은 글씨- 필자).... 이는 침략자인 일본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열강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럴 경우, 러시아와 우리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모른다…이 전망은 매우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가 적극적인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청국과 일본 두 나라만 악의 세력이 되도록 내버려두고 싶다.'[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1) F.O.405, Confidential 6605, No.135 Mr.O'Conor to Kimberley, Sept., 3, 1894. Inclosure 4 in No.135. Precis of Treaty between Japan and Corea, Aug., 26, 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130 Mr.O'Conor to Kimberley, Aug., 25, 1894, Inclosure 1 in No.130 Gardiner to Mr.O'Conor, Seoul, Aug., 17, 1894.

62) 영국의 '불개입'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 참조. 러불동맹의 해군력이 전쟁을 틈타 아시아로 진출하여 영국의 제해권을 침해할까 두려워 단독 개입을 꺼렸으며,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본 베리만의 연구(P.J.Berryman, *British Naval Policy and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Julian Corbett Prize Essay, 1968), 당시 로즈베리수상과 킴벌리외상은 개입하려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전 세계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우려하여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는 영국 내각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니시(Ian Nish)의 연구, 그리고 영국이 실제로 전쟁에 말려들 각오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일본과의 결합을 정당화할 만큼, 아시아에서의 영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닐슨(Keith Neilson)의 연구 등이다.

한반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킴벌리외상의 이 같은 의견에 로즈버리 수상 역시 동조했다. 그러므로 영국이 표방한 중립이란 당시 로이터지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일본에 '호의적인(benevolent)' 중립이었다.[64] 미국(8.28),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도 중립을 표방했다.[65]

러시아 역시 중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러시아 특별각료회의(8.21)는 '청일전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립에 관해 특별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며.....'조선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및 타 열강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력한다'고 결정했다.[66] 이 때 러시아가 의미하는 '조선의 현상'이란 1888년의 조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 즉 러시아는 결코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표방한 정책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현상 유지, 즉 청국 편에 선 것이며, 더욱이 영국이 중립을 선포한 상황에서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평양전투에서 일본의 오시마(大島義昌) 장군 분대는 식량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9월 14일 새벽 3시경 공격을 개시하였고, 청군은 오후 3시에 정전기를 게양했다. 청군은 다음 날인 9월 15일 일요일 아침에 항복했지만, 평양전투는 사실상 12시간 만에 끝났다.[67] 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3) Kimberley to Rosebery, 1894.7.30, Rosebery Papers 68, Keith Neilson, 'Britain, Russia and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5 in Its International Dimension*,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s and Related Disciplin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4). Discussion Paper.

64) F.O.405, No.407, O'Conor to Kimberley, Oct., 15, 1894. Inclosure in No.407, Reuter's Telegram, Sep., 25, 1894.

65) No.520, Trench(Tokyo) to Kimberley, 1894.9.1, *BDA,* p.371.

66) *Krasny Arkchiv*, T.3(52), Pervui Shagi Russokogo Imperializma na Dalnem Vostoke, 1932, C.62-67.

본은 이틀 뒤 황해(서해)해전(9.17)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네 차례의 전쟁(풍도해전,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서해)해전)에서 모두 압승, 육해상 모두를 제패했다.

리훙장은, 황해해전에서 패한 지 이틀 뒤에 전쟁 목표를 '자국 영토 수호'로 하향 조정했다(9.19).[68]청군의 전력이 일본에 비해 뒤쳐지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지만,[69]최신식 소총과 서구의 근대적 지휘체계를 갖춘 일본군에 비해 청군의 육해군 전력은 근대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북양함대가 창설되었으나 1890년대 이후 거의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70]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국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리훙장은 황해해전에서 패한 이후 '조선의 독립'을 기초로 〈청국의 대일 배상금 액수를 열강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주선〉해줄 것을 열강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리훙장이 황해해전에서 패한 이후 조선과의 '종번'관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71] 그러나 이 때 리훙장이 제의한 '조선의 독립'이란 일본의 수중에 한반도가 장악되는 것을 열강의 개입으로 막고자 한 의미에서의 '조선의 독립'이었다. '종번'관계의 포기를 의미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1월에도 리훙장과 총리아문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영, 미, 러 등 각국에 〈조선의 독립〉을 기초로 〈청국의 대일 배상금 액수를 열강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7) F.O. No.420, O'Conor to Kimberley, Oct., 26, 1894, Inclosure 3 in No.420.
68) 강문호, 「李鴻章, 伊藤博文과 19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동학연구』 제26집, 2009, p.100.
69) Allen Fung, Testing the Self-Strengthening: The Chinese Army in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Modern Asian Studies*, 30, 4(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0) 김현철, pp.127-28.
71) 강문호, p.100.

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72] 청국은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여전히 열강을 통해 막으려 한 것이다.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국의 이이제이 입장에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허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확고한 정책이 가세되어 있었다. 〈노스차이나 해럴드 North China Herald〉지 9월 28일자 기사는, 청국이 한반도에서 청국이 패한 이후 러시아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막기 위해 유럽이 개입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떼라,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Hands off, Russia is firm)'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청국과 러시아의 공감대를 재확인해준다. 〈루스키에 베다마스찌 Russkie Vedomosti〉지는 9월 24일자 기사에서, '조선 및 청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승리가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려했다.[73]

그런가 하면, 〈아시아 쿼털리 리뷰Asiatic Quarterly Review〉지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보장(An International Guarantee of Corean Independence)'이라는 기사에서 '조선 문제는 영 제국의 상업과 교역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 제국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이해관계(paramount interest)의 문제'라고 강조했다.[74] 영국과 러시아 모두 '조선의 독립'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오오토리공사는 조선 해관 재조정, 경인선 부설권, 제물포의 일본 거류지 확대 등 이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무츠외상은 오오토리의 조선 내정개혁안을 기초로 대한(對韓)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2) F.O.405, Confidential 6605, No.330,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Nov., 14, 1894.
73) Ales Skrivan, Sr.-Ales Skrivan, Jr., Great Powers and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Prague Papers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2(2015), p.22.
74) *North China Herald,* 1894.11.16.

강경책을 제시했다. 오오토리공사를 소환하고, 당시 내무대신이자 파격적인 거물급 정치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주한공사로 임명된 것이다(10월 26일 서울 도착).

이노우에는 '겐로(元老)'의 일원으로서 격이 낮은 주한공사를 자청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전결권(專決權)'을 가지고 부임했다.[75] 10월 15일자 〈재팬 메일 Japan Mail〉은 이노우에의 파격적인 임명과 포부를 대서특필했다. '조선의 내정 개혁과 붕당, 왕실 음모 등을 개선하여 조선의 진보와 쇄신에 기여할 것'[76]이 이노우에의 포부라는 것이다. 영국의 힐리어(Walter C. Hilliar) 서울 총영사의 본국 보고에 따르면, 이노우에는 전임 오오토리공사보다 훨씬 가혹하고 단호한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77] 한반도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조선의 내정개혁에 초점을 맞춘 거물급 이노우에가 주한공사로 부임한 것은, 일본의 청일전쟁 목적을 '조선의 내정개혁', '조선의 독립' '종번' 철폐 등의 논점으로 확대 재생산시킨 요인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했다. 따라서 열강은 청국이 제의한 〈조선의 독립〉 보장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국이 의미하는 〈조선의 독립〉이 종주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든,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의미한 것이든, 열강이 '조선의 독립'문제에 무관심했음을 의미한다.

영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이 열강의 상호 견제하에 있는 한, 오로지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영국은 이를 위해 열강의 〈공동개입〉과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을 제의했으나 열강의 미미한 반응과 일본의 개전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5) 최문형, 『명성황후시해의 진실을 밝힌다』(지식산업사, 2002).
76) F.O.405, Confidential 6605, Inclosure in No.351.
77) No. 455, Inclosure I in No.455, Consul-General Hillier(Seoul) to Kimberley, 1894.11.8. Inclosure 1 in No.455, *BDA*, pp.454-456.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할 일본의 힘이 필요했던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와 공동 행동을 취하는 한, 무장 개입할 필요도, 일본을 저지할 필요도 전혀 없었던 점에서 '불개입 정책'이었다.

5. 중국 본토로의 전선확대와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independence of Corea guaranteed by Powers)'

한반도의 육·해상을 장악한 일본은 9월 21일 곧바로 대륙 침략을 결정했다. 일본군은 궁극적으로 베이징(北京) 장악을 대륙 침략의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뤼순(旅順)과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공략하는데 집중하였다.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출발한 일본군 제2군은 뤼순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2만 명의 청국인을 살육한 '뤼순대학살'을 자행했다(11.20-21). 뤼순공략을 축하하는 파티가 12월 9일에 도쿄에서 열린 것으로 보아, 1894년 말 일본은 승전국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78]

리훙장은 전선이 중국대륙으로 확대된 10월 초에 일본과의 강화를 고려했다. 평화 교섭 조건으로 〈청국의 대한(對韓) 종주권 철회〉, 〈배상금 지불〉을 제시했다.[79] 이 때 청국이 제기한 〈청국의 종주권 철회〉란 '조선의 독립'이 아닌 종번관계의 철폐였다. 즉 종주권은 철회하되, 조선이 일본에 독점되는 것은 여전히 열강의 보장하에 막으려는 것이었다. 당시 리훙장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지

78) F.O. 405, Confidential 6605, No.156, Mr.Trench to Kimberley, Tokio, Sept., 1894.
79) F.O. 405. No.405, O'Conor to Kimberley, Oct., 10, 1894.

않는 것'이 강화의 제일 첫째 조건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당시 덴비(Charles Denby)주청 미 영사관 서기관(Legation Secretary)에 의해 정확하게 간파되었다. 덴비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바로 이 점이 전쟁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자국 정부에 보고했다.[80]

열강 역시 일본군이 청국 대륙에 상륙한 9월 말 이후 전황에 촉각을 기울이며 개입하거나 강화를 주선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대륙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영국과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둘러싼 청국과 일본 그리고 열강 사이의 의견차가 드러났다.

전쟁이 중국 본토로 확대된 상황에서 킴벌리외상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군이 베이징까지 진군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럴 경우 영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일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개입할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러시아의 기르스 외상이 '영국과 러시아가 '협의하여(consult)' 타열강과 함께 가능한 행동을 취하자'고 했지만, 당시 러일협약의 루머는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을 자극한 듯하다.[81]

킴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킴벌리외상은 영·러·독·불·이·미 등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청국의 대일 배상금 지불〉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청일에 개입할 것을 열강에 제의했다.[82] 전쟁이 청국 대륙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전하여 일본의 독식을 막는 대신, 청으로 하여금 대일 배상금을 지불케 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0) No.102, O'Conor to Kimberley, 1894.10.4. *BDA,* p.387.
81) F.O.405, Confidential 6605, No.158, Mr. Trench to Kimberley, Tokio, Sept.,13,1894.
82) F.O.405, Confidential 6605, No.56.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hipps(E.C.H), Oct., 6, 1894, No.58. Kimberley to Mr. O'Conor, Oct., 6, 1894.

다시 말해 킴벌리외상이 제의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이란 청·일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 열강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트렌치(P.Le Pore Trench)동경주재 영국공사가 1894년 10월 초 무츠외상을 만나고 난 뒤 킴벌리 외상에게 보낸 극비서한에 따르면, 일본이 원하는 것은 조선에서의 프리핸드(자유재량권)이며, 조선을 보호령(Protectorate), 또는 일본의 속국(suzerain)으로 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83] 킴벌리외상이 생각한 '조선의 독립'이 궁극적으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러시아의 예속화로부터 막는 것이었다[84]는 것이지만,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안은 청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영국이 의미하는 '조선의 독립'은 일본이 목표한 '조선의 독립'과 그 의미가 달랐다. 그리고 리훙장이 제의했던 '조선의 독립'과 분명히 달랐으며, 러시아가 생각하는 '조선의 독립'과도 달랐다.[85]

킴벌리외상의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청국의 대일 배상금 지불〉안에 대해 아오키 공사가 열강의 공동 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86] 청일전쟁 이전부터 영·독 양국에 공사로 주재했고, 킴벌리외상과 통상조약 개정을 이뤄낸 베테랑 외교관인 아오키에 따르면, '일본은 아직 청국이 패했다고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국이 그렇게 인지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은 '만족할만한 교섭 결과를 가져 올만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3) F.O.405, Confidential 6605, No.266, Mr. Trench to Kimberley, Tokio, Oct., 11, 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266,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Nov.,9, 1894.
84) Kimberley to Rosebery, 1894.11.8. Rosebery Papers 69, Ian Nish(1), 위의 논문, p.229.
85) No.122, F.Lascelles to Kimberley, 1894.10.14, *BDA,* p.388.
86) F.O.405 Confidential 6605 No.169,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Oct.,16, 1894.

아직 청과의 전쟁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87] 청국으로부터 압도적 승리를 확보하기 전까지 강화는 없다는 뜻이었다.

일본의 이토수상과 무츠외상은 킴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첫째,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케 하고,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담보로 뤼순(旅順) 다이렌(大連)을 할양케 한다. 둘째, 청국이 배상금을 지불토록 한다는 것이다.[88] 즉 일본은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확인케 하여 한반도를 독점하고(보호령 또는 종속국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승리로 타이완 등 영토 할양과 배상금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89] 청일전쟁의 결말이 킴벌리의 10월 6일의 중재안을 계기로 결국 이토와 무츠의 안으로 귀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중재안은 개전 이전부터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일본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과 청국,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조선의 독립'의 의미는 다 달랐다. 이는 킴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에 대한 열강의 반응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청국은 일본의 한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면서도,[90]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강화 협상의 기초로서 〈대일 배상금 지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91] 청국이 내세운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을 열강의 보장으로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킴벌리외상이 구상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즉 모든 열강의 한반도 독점 배제하려는 의미와 달랐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청국은 1894년 11월까지도 대한(對韓) 종주권을 철회하

87) F.O.405, No.389. 1894.1026. Inclosure in No.389.
88) 『蹇蹇錄』, pp.170-171.
89) No.266, Trench(P.Le Poer) to Kimberley, 1894.10.11, *BDA,* pp.415-416.
90) No.102, O'Conor to Kimberley, 1894.10.10, *BDA,* p.387.
91) F.O.405 Confidential 6605 No.146, Mr. O'Conor to Kimberley, Peking, Oct., 14, 18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되,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즉 일본의 독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이 '종번'문제와 '조선의 독립'문제를 한반도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시했다면, 청국은 '종번'문제와 '조선의 독립'문제를 별개로 생각한 것이다. 결국, '조선의 독립' 문제를 놓고 청일이 전쟁 종반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킴벌리외상은 열강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노또 프랑스외상은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목표만으로는 개입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면에서 반대했다.[92] 독일정부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전쟁의 결과가 개입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하며, 전비배상금은 현재 승승장구하는 일본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93]

미국의 그레샴 국무장관은 공동개입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 원하며, '조선에 모욕이 되지 않게(not humiliating to Korea)' 종결되기를 원한다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공동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94] '어떤 형태의 공동 개입'도 거절하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엄정중립(Impartial Neutrality)을 표방한 것이다. 이는 '외국과의 동맹이나, 먼 곳에 있는 국가들의 독립 보장에 참가하는 당혹스러운 일을 피하는 현명한 정책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은 미국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95]이었다.

러시아 기르스 외상은 영국의 제의를 원칙상 수용하여 황제에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2) F.O.405 Confidential 6605, Mr.Phipps to Kimberley, Paris, No.91, Oct., 1894.
93) F.O.405 Confidential 6605 No.144, Sir E. Malet to Kimberley, Berlin, Oct., 12,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148, Kimberley to O'Conor, Oct.,15, 1894; No.176, Kimberley to Sir F. Lascelles, Oct.,19, 1894.
94) No.58, Gresham to Goshen(British Minister of the US), 1894.10.12, *PAFR,* p.1057.
95) No.383, Goschen to Kimberley, 1894.11.12, *PAFR,* p.432.

상주한 뒤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알렉산드르3세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결국엔 보류를 통보해왔다.[96] 기르스외상은 스따알(Egor Egorovich Staal)주영 러시아대사에게 훈령하기를, 청일 양국이 전쟁을 즉각 중지하고, 일본군이 묵덴(奉天省)에서 철수하길 희망하며, 조선은 '독립국'으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청국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97] 러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조선의 독립'과 '배상금 지불'을 주장하는 청국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개입 반대에 직면한 킴벌리외상은 단독으로 일본에 접근하여 중재를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를 낼 만큼 사태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강화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영국의 중재 제의를 거부했다(10.23). '조선의 독립'문제에 관한 한, 더 큰 틀에서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던 영국의 속내가 근본적으로 일본과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더 이상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은, 일본을 제지할 힘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시아 견제 역할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킴벌리외상은 한 달 뒤인 11월 6일에도 열강에 공동 행동을 제의했지만, 역시 미온적인 반응밖에 얻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공동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영국이 생각하는 개입이 곧 무장개입이고, 일본을 적극 저지하는 개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역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동의한다면 개입에 가담하겠다[98]고 함으로써 킴벌리의 10월과 11월의 열강에 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96) F.O.405 Confidential 6605 No.164, Sir F. Lascelles to Kimberley, St. Petersburgh, Oct., 17,1894; no.176. Kimberley to Sir F. Lascelles, Foreign Office, Oct., 19, 1894.
97) F.O.405, No.449, O'Conor to Kimberley, Nov., 4, 1894. Inclosure in No.449.
98) F.O. 65/1474, Kimberley to Lascelles, telegram 91, Nov., 9, 1894.

한 〈공동 개입〉 제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킴벌리외상의 중재 제의에 며칠 앞선 11월 3일에 청국 총리아문은 5개 열강(미, 영, 러, 독, 프)의 외교대표부를 초치한 후 중재를 요청했다. 청국은 특히 미국에 직접 중재를 호소했지만, 미국은 '열강에 대한 청국의 제의가 자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그레샴국무장관은 '배상금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만 열강과 공동으로 행동하겠다'고 표명했다(11.6).

킴벌리 외상의 중재안이 모두 실패한 이후, 강화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던(Dun)주일 미국공사는 무츠 외상에게 강화시 미국의 우의적인 중재를 제안했다(11.6).[99] 구리노(栗野慎一郎) 주미일본공사 역시 무츠외상에게, '미국은 영국이 개입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단독 개입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11.8). 일본이 이후 유럽 열강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닌, 청국으로부터 직접 강화제의를 받겠다며, 앞으로 주청주일 미국공사관을 통해 일본에 접근하라고 일갈한 것도 이 때문이다(11.17).[100] 이것이 강화교섭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모든 의견교환이 베이징과 동경주재 미국공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이유이다. 그레샴은 클리브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의 청일 양국의 중재 의사[101]를 덴비공사와, 워싱턴의 청국공사(楊儒)에게 전달했다(11.19).

일본이 '뤼순 대학살'을 자행한 11월 21일에 청국은 베이징(덴비)과 동경(던)의 미 공사들을 통해 무츠외상에게 두 가지 강화조건을 전달했다. '조선의 독립' 승인, 둘째 '배상금 변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국의 '조선의 독립' 승인 제안에 대해 '가장 값싼 강화조건'이라고 폄하했다.[102] 일본의 야욕이 한반도 독점을 넘어 중국

99) 『蹇蹇錄』, pp.178-79.
100) No.69, Denby to Gresham, 1894.11.10, *PAFR, pp.1063-1064* ; No. 73, Dun to Gresham,, 1894.11.17, *PAFR,* pp.1064-1066.
101) No.77, Gresham to Denby, 1894.11.19, *PAFR,* p.10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토로까지 이미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에 들어 산둥(山東)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가 일본군에 함락되고(2.2), 북양함대 제독(丁汝昌)이 투항, 자살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판가름이 났다. 히로시마에서 전권대표들이 두 차례 만났으나(2.1), 일본이 청국의 전권대표와 협상대표단에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휴전 예비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덴비는 '청국은 여전히 열강이 개입해서 청국을 폐허에서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6). 심지어 광서제는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덴비에게 지령하라고 부탁했다. 이는 청측이 여전히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중재에 의존하여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막으려 하였으며, 중미조약(1858)의 조항에 따라 미국이 중재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전통적인 '이이제이'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청측의 모호한 태도가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과 맞물림으로써 강화가 더욱 지연된 것이다.

러시아가 영국을 견제하면서도 1894년 내내 영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명확한 대외정책을 표방할 수 없었던 내부 사정이 있었다.[103] 알렉산드르 3세 황제의 서거(1894.11.1)와 기르스 외상이 사망(1895.1.26)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1895년 1월에 열강에 중재를 제의하게 된 것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가 가져올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변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노보에 브레먀 Novoe Vremya〉지는 '일본의 승리로 조선이 제2의 터키가 되어 일본이나 유럽의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일년에 4-5개월이 어는 블라디보스토크 외에는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영흥만이나 다른 부동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102) 『蹇蹇錄』, pp.180-182.
103) F.O.405, No.414, Sir Lascelles to Kimberley, Dec., 5, 1894.
104) No.85, F. Lascelles(St.Petersburg) to Kimberley, 1895.1.31, Inclosure in

러시아는 1895년 1월 중순 청국 협상단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조기 강화에 대한 영국측의 견해를 문의했다.[105] 킴벌리외상과 로즈버리수상은 러시아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데 동의했다. 로바노프(A.B.Lobanov) 러시아 신임 외상이 영국과 협의하며 개입할 태도를 보이자, 무츠외상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 겐로의 일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무츠외상에게 후일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자국의 이해(利害)에 반하는 어떤 계획에도 영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106]

2월말에, 스따알 주영 러시아대사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 영국정부가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를 자국 정부가 "특별히 알고 싶어한다'고 킴벌리외상에게 문의했다. 로바노프외상은 라쎌(F.C. Lascelles) 주러 영국대사와의 대화에서, 러시아는 영·러 두 나라의 공동 행동을 원하는 킴벌리외상의 견해에 동의하며, 동아시아에서 영토적 야욕이 없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피력하였다.[107] 로바노프외상의 제의에 대해 킴벌리외상 역시 '조선의 독립'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108] 일본의 승리로 '조선의 독립'을 침해받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에서) 영·러 양국의 이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2월 말까지 이어졌던 영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완전히 깨진 것은 4월 4일 일본의 강화안이 청국에 전달되면서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No.85, 1895.1.17(29), *BDA,* p.479.

105) F.O.65/1494, Lascelles to Kimberley, telegram 5, Jan., 23, 1895,

106) Ian Nish(2), 'Japanese Diplomats and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5 in Its International Dimension*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re for Economics and Related Disciplines, 1994), p.63.

107) F.O.65/1490, Kimberley to Lascelles, despatches 54A, Feb., 27, 1895; Neilson, pp.6-7.

108) F.O.65/1490, Kimberley to Lascelles, despatches 56, Mar. 13, 1895; No.143, Kimberley to Lascelles, 1895.2.27, *BDA,* pp.491-492.

일본측 강화안에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겠다는 안이 들어가자 '조선의 독립'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즉각적으로 돌변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이 '베이징과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109]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이 청국과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러시아의 대일(對日)삼국간섭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 제3차 러시아 특별각료회의(4. 11)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입장에 대한 영국의 어떤 지지도 이제 러시아에 대립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청일전쟁의 전황에 따라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한 청일 양국과 열강의 정책이 연동하였고, 결국 '조선의 독립'을 담보로 전쟁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승전을 거듭한 일본은 청의 대한 종주권 포기,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목표했으므로 열강의 어떤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청국은 전쟁기 내내 '대한 종주권'과 '조선의 독립'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열강의 중재에 기대어 한반도가 전적으로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영국, 러시아,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담보로 각각의 자국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공동 개입〉 및 중재에 실패하였다. 미국은 장차 만주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에 의존한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을 표방했고, 영·러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공동 개입'에 가담하지 않았다. 영국이 일본 편에서 불개

109) No.30, Lascelles to Kimberley, 1895.4.5, *BDA*, pp.511-512.

무단복제 금지 군사편찬연구소

입을, 러시아가 청국 편에서 불개입을 유지한 것은, 영·러 두 나라가 서로 상대측이 개입하거나 전쟁을 계기로 세력 확장을 꾀할지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이전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분규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영국의 개입을 의식하면서도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청국 편에서 중재했다.

결과적으로 '불개입'정책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중재안들은 '조선의 독립'을 한층 위협했다. 킴벌리외상의 열강에 의한 〈공동개입〉안은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방지하고, '무장 개입'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중립과 '불개입'이었다. 청일 양군에 의한 〈한반도 공동점령〉 및 〈보호령〉안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큰 틀에서 나왔지만, 영·일 '불평등 조약' 개정과 함께 결과적으로 일본에 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셈이 되었다. 전쟁이 중국 본토로 전선이 확산된 10월 초 이래 제기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안은 청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일전쟁기 영국과 러시아는 로즈베리수상의 장기적인 와병, 러시아 알렉산드르황제의 서거(1894.11.1)와 기르스외상의 와병과 사망(1895.1.21)이라는 두 나라의 내부 사정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적 승리가 자국의 동아시아 이해를 거스른다고 판단한 순간,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적극 개입 즉 삼국간섭에 나서게 된다. '조선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청일전쟁의 국제관계가 향후 영러의 대립 나아가 러일전쟁으로의 길을 예시한 셈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고투고일: 2017.1.15,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청일전쟁, 조선의 독립, 불개입, 열강의 공동 개입, 한반도 공동 점령, 보호령,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거중조정, 무장 개입, 호의적 중립

<ABSTRACT>

Surrounding Great Power's Policies on the 'Independent issue of Corea' with Relation to the Sino-Japanese War

Seok, Hua-Jeong

The study focuses on the 'independent issue of Corea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 the situa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During the War, 'the independence of Corea', regardles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s an independent nation, was under the restrictions of the structure of strategic interest for the Great Powers including Japan and China. Japan's exclusive ambi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etended to be 'independence of Corea', consistently revealed during the war period. China, on the other hand, wanted to prevent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 Japanese as a whole, leaning on the intervention of the Powers. The ambiguous attitudes of China between 'independence of Corea' and suzerainty were one of the major factors in prolonging the war and delaying the peace negot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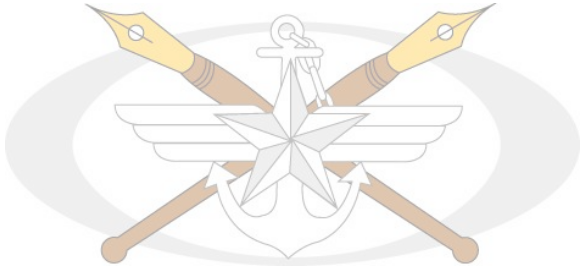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Of the Powers with concerns in East Asia, the United States hoped to use Japan to terminate China's suzerainty over Corea, open the door to Chinese trade and investment and weaken the influence of Britain and Russia in East Asia. Britain and Russia also checked each other because the partner country might try to expand its power alone in the Korean Peninsula. British Lord Kimberley's 'common intervention' by the powers was a way to prevent Russian monopo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void 'armed intervention'. His proposals of 'joint occupation of Corea' and 'separate Protection' by China and Japan came from a large frame to control Russia, but as a result, it became a guideline to Japan to open the war. Since the beginning of October in 1894, when the war spread to mainland China, Kimberley's proposal, 'independence of Corea guaranteed by the Powers', was intended to exclude any power's monopolies on th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Korean peninsula including victorious Japan. Russia also hoped to prevent the subjugation of Corea by any power and adopt a wait-and-see policy at leas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Trans-Siberian Railway. But as soon as Japan's crucial victory threatened the 'independence of Corea and of China', Russia will be involved actively the issue through the Triple Intervention in April 1895.

Key words : The Sino-Japanese War, independence of Corea , non-intervention, common intervention by the powers, joint occupation of Corea, separate Protectorate, good offices, armed intervention, independence of Corea guaranteed by the Powers, benevolent Neutrality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홍무연간(洪武年間) 명(明)의 요동경략(遼東經略)과 조·명(朝明)관계

김경록*

1. 머리말
2.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
3. 홍무제의 요동인식과 요동경략
4. 명의 요동경략과 고려·조선의 대응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홍무제는 원말 격동기에 漢人群雄으로 시작하여 명 건국 및 북원 정벌을 추진하고 전통 한족의 제도를 부활시켜 몽골의 습속을 청산하고자 했다. 그는 재위 31년간 치열하게 정국을 주도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즉, 현실적인 무력기반의 통치뿐만 아니라 禮制와 法制를 정비하여 이념과 법적으로 황제의 권위를 확립하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명조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에 정비된 각종 제도는 명 일대에 걸쳐 준용되고, 청대에도 모방, 적용되었을 정도로 기본이 탄탄하였다.

홍무제는 원말 시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天命을 언급하며 북원정벌의 정당성을 천명했다. 홍무제가 지속적으로 북원정벌을 추진한 것은 명 건국의 명분이 천명에 따른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건국초기 제도정비, 공신세력의 발호 억제, 경제정책 추진과 민심안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여 북원정벌의 군사작전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홍무제의 최대 관심사는 북원정벌에 있었으며, 大都 점령이후 북원과의 전쟁에서 핵심지역은 요동이었다.

기존의 여말선초 요동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의 높은 관심으로 방대하게 축적되었다.[1] 그러나 이 시기 요동에 대한 연구는

---

1) 요동과 요동의 위소에 관련한 해외학계의 연구는 津田左右吉, 『津田左右吉全集』권11, 岩波書店, 1964; 箭内亘, 「元末明初に所謂東寧府に就きて」『満洲历史地理』2권, 丸善株式会社, 1940; 池内宏, 「高麗恭愍王朝の東寧府征伐に就いての考」『東洋學報』6, 東洋協會調査部, 1918; 和田清, 『東亞史研究』(満洲篇), 東洋文庫, 1955; 清水泰次, 「明代の遼東經營」『東亞』8卷1號, 東亞經濟調査局, 1935; 陳文石, 『明清政治社會史論』, 台湾學生書局, 1991; 張勝彦, 「明太祖时代遼東之主權的确立與政略」『食貨月刊』5-11, 食貨月刊社, 1976; 李新峰, 「恭愍王后期明高麗關係與明蒙戰局」『韓國學論文集』7, 新華出版社, 1998; 刁書仁, 「洪武时期高麗, 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4-1; 王劍, 「納哈出盘踞遼東时明朝與高麗的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16-4, 2006; 張維華, 「明遼東"衛""都衛""都司"建置年代考略」『禹貢』1-4, 禹貢學會, 1934; 「明代遼東衛所建置考略」『禹貢』1-7, 禹貢學會, 1934; 李晋華, 「明代遼東歸附及衛所都司建置沿革」『禹貢』2-2, 禹貢學會, 1935; 朱誠如, 「明遼東都司二十五衛建置考辨」『遼寧師範學院學報』1980-6; 楊暘 · 李治亭 · 傅朗云, 「明代遼東都司及其衛的研究」『社會科學輯刊』1980-6; 劉謙, 『明遼東鎭長城及防御考』, 文物出版社, 1989; 徐桂榮, 「明代遼東都司諸衛轄所考」『遼寧大學學報』113, 1992; 張士尊,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續)」『鞍山師範學院學報』1994-1 · 2; 智喜軍, 「全遼志與遼東志之比較」『古籍整理研究學刊』1991-3 등이 있고, 여말선초 한중관계에 관련한 연구는 末松保和, 1941 「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青丘史草』1; 김성준, 「고려와 원 · 명관계」『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4; 황원구, 「여말선초의 대명관계」『한국사의 재조명』, 1975; 고석원, 「여말선초의 대명외교」『백산학보』23, 1977; 김순자, 「고려말 대중국관계의 변화와 신흥유신의 사대론」『역사와 현실』15, 1995;

단순히 명의 요동진출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거나 고려와 명, 조선과 명의 관계사를 군사적 충돌양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많다. 여말선초 한중관계에서 핵심사항은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정책의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요동과 여진족 문제를 童猛哥帖木兒의 懷柔 및 來朝에서 시작하여 10處 여진인 관할권 확보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교사건은 모두 태종대에 발생한 것으로 명 건국이후 홍무제의 요동경략과 태조대 요동 및 여진문제가 간과되었다.[2] 또한,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과정은 많은 연구에서 구체적인 접근이 없이 원명교체라는 큰 틀로 설명하는 경향도 있다.[3]

홍무연간 명의 遼東經略은 무엇보다 홍무제의 군사인식, 요동인식, 통치구상 등과 연관된다. 당시 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시행되었던 경략방향과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薛箕, 「明洪武年間明朝與高麗王朝關係略論」『歷史學研究』1997-4; 박순, 「고려말 동녕부정벌에 대하여」『중앙사론』4, 1985; 이익주, 『고려·원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張士尊, 「高麗與北元關係對明與高麗關係的影響」『綏化師專學報』1997-1; 김혜원, 「고려 공민왕대 대외정책과 한인군웅」『백산학보』51, 1998; 姜龍范, 劉子敏, 「明太祖在位時期大明與高麗的關系」『延邊大學學報』1998-2;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刁書仁, 「洪武時期高麗李朝與明朝關係探析」『揚州大學學報』8-1, 2004; 윤은숙, 「나하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政勢」『명청사연구』28, 2007;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현실』64, 2007 등이 있으며, 홍무제에 관련한 연구는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개신, 2000; 오함 저, 박원호 역,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인식과 외교관계」『명청사연구』35, 2011; 「홍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명청사연구』37, 2012; 「명초 홍무제의 통치구상과 대명률」『법사학연구』53, 2016; 임상훈, 「홍무제, 명대 환관 외교의 창시자 : 홍무제의 환관 억제와 그 실체」『동양사학연구』129, 2014 등이 있고, 요동에 관한 연구는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3; 서인범, 「명대의 요동도사와 동녕위」『명청사연구』23, 2005; 남의현, 「명대 요동도사 지배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6;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2010. 및 윤은숙과 남의현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2) 유재춘, 「여말선초 조명간 여진귀속 경쟁과 그 의의」『한일관계사연구』42, 2012.

3) 현재까지 원명교체기 요동의 정세변화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윤은숙, 「북원과 명의 대립 : 요동문제를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105, 2008이 유일하다.

수 있다. 이 시기의 한중관계사는 명의 요동경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홍무제의 요동경략을 분석한 뒤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글은 먼저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를 정리하여 원대 요동지역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살피고, 홍무제의 요동에 대한 관심 및 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홍무연간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따른 고려와 조선의 대응을 정치·외교적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한중관계사에서 자칫 간과되었던 요동과 여진족문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여말선초 요동의 정세변화

여진족의 金을 멸망시키고 남송을 점령한 뒤 몽골은 원 제국의 정립을 천하에 반포했다. 원대 요동지역은 諸王에게 分封되었다. 요동은 칭기스칸의 아들들에게 분봉된 '西方王家'들과 달리 형제들에게 분봉된 '東方王家'의 分封地로 목축과 농업지대가 혼재된 지역이었다. 이는 동방왕가들이 지정학적 위치와 중원과의 경제·군사적 밀착을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4] 동방왕가 가운데 옷치긴(Otchigin, 斡赤斤) 왕가는 요동지역에 분봉되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5] 이 결과로 몽골, 거란, 여진 등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여 수시로 반란과 진압의 과정이 거듭되기도 했다. 요동지역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세력화를 기도하였던 나얀(乃顔) 같은 제왕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6] 이러한 제왕세력의 존재는 요동의 일반

4)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지배사』 소나무, 2010. 참조.
5) 윤은숙, 「몽원제국기 옷치긴가의 활동과 세력 확장」『역사문화연구』28, 2007; 고명수, 「몽골제국시기 옷치긴 왕가의 세력기반과 그 변화」『사총』58, 2004. 참조.

행정조직과 제왕세력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원대 초기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원 중앙정부는 行省체제의 일환으로 요동을 통치하고자 했다.[7] 처음 쿠빌라이는 즉위 이전에 이미 전국에 30여 개의 路가 설치되어 각지의 할거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10道로 정리하고 宣撫司를 설치했다. 이때 蕃夷가 雜處하는 요동은 北京宣撫司에서 제어했다. 그러나 요동은 많은 민족이 혼재되어 있고, 제왕의 분봉지였기 때문에 선무사의 관원들이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점진적으로 지방 최고관부로 行省을 설치하면서 요동은 처음 北京行省에 소속되었다가 별도로 遼陽行省이 설치되었다.

이와같이 원대 요동은 遼陽行省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구성원이 다양하여 몽골인, 거란인, 여진인, 한인, 고려인이 각각 혼재 및 집단세력으로 존재했다.[8] 1287년(지원 24) 처음 설치된 요양행성은 정식 명칭이 遼陽等處行中書省으로 몽골의 입장에서 요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7개의 路, 1개의 府, 12개의 屬州, 10개의 屬縣으로 구성된 요양행성은 원말까지 요동지역의 최고 官府로 유지되었다.[9] 원은 요동의 제 민족 가운데 여진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압제를 가했는데, 이는 금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원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원대 요동의 여진족은 宣慰司 체제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피정복민으로서 대우받았다.[10] 피정복민으로 여진족은 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姚大力, 「乃顔之亂雜考」『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7, 1983; 叢佩遠, 「元初乃顔哈丹之亂」『社會科學戰線』1993-3; 堀江雅明, 「ナヤンの反亂について(上)」『東洋史苑』34·35, 1990.

7) 최윤정, 「원대 동북지배와 요양행성」『동양사학연구』110, 2010.

8)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3. 497~528쪽. 저자는 원대 요동은 금대 거란인이 여전히 강력한 잔여세력으로 존재하였듯이, 원대 여진인이 존재하여 충돌과 화합을 거듭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몽골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인과 고려인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거란인과 여진인이 적지 않게 거주했다고 분석했다.

9) 『원사』59, 地理志.

원의 물리력으로 활용되어 집단적으로 군대를 이루었다. 쿠빌라이 시대에 侍衛軍으로 역할하기도 했으며, 군대로 편성되지 않으면 民籍에 예속되어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의 동도왕가는 일반 행정조직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독자적인 세력확대를 추구했다. 빈번한 반란에도 불구하고 원대에 이들 동도왕가를 유지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은 가족단위의 家産制에서 연유한 독특한 분봉제를 가지고 있었다.[11] 다양한 세력과의 경제교역이 발달하면서 일족이 일정한 권력을 획득하면 분할하여 경영하도록 했는데, 쿠빌라이는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皇子와 宗王을 주요 군사거점에 분봉(分鎭, 出鎭)했다.[12] 출진한 황자와 종왕은 해당 관할지역을 가지고 실질적인 군사권을 행사하며, 해당지역의 행정기구였던 行省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즉, 驛站과 같은 행정, 征稅와 같은 재정, 그리고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였다.[13]

쿠빌라이 시대에 정립된 군사적 목적의 분봉은 漠北에서 西北, 西南, 江淮지역으로 이어져 반원형의 군사방어선을 구성했다. 그러나 요동에 분봉된 제왕들은 이에 속하지 않았다. 이는 원의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외군사적 출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行省을 설치하여 통제했다. 한편으로 원의 군사방어선 바깥에 존재한 요동에 대한 군사적 견제책이 필요했다. 쿠빌라이는 燕京에 웅거한 五投下 諸部(잘라이르 · 콩기라트 · 이키레스 · 우르우트 · 망구트 등 유력 5부족)를 요동으로 옮겨가도록 함으로써 제왕의 반란 등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 김한규, 위 책, 2003. 508~509쪽. 요동의 여진족은 弓矢之禁과 金銀의 생산 금지, 또한 진휼의 대상이기도 했다.
11) 姚大力, 「蒙古高原游牧國家分封制札記(上)」『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11期, 1987.
12) 張帆, 「元朝的特性—蒙元史若干問題的思考」『學術思想評論』1輯, 遼寧大學出版社, 1997.
13)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 中華書局, 2007.

대비하도록 했다.[14] 오투하의 요동 이동, 기존 제왕세력, 여진족 및 고려인을 비롯한 제 세력 등 요동은 원말에 다양한 세력이 혼합되어 일원적인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은 대도가 명에 의해 점령된 이후 요동에 다양한 북원세력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지향과 성향은 상호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유였다.

한편, 요동의 구성원 가운데 고려인의 존재는 매우 특이한 통치체계를 초래했다. 요양행성의 핵심 지역이었던 遼陽路와 瀋陽路의 주된 인적 구성은 來附한 고려인들이었다. 원은 이미 쿠빌라이 시대에 瀋州를 세워 내항해온 고려인들을 거처하도록 하고 安撫高麗軍民總管府를 세워 심주에 治所를 설치했다.[15] 원래 중국인으로 고려에 보내졌던 洪福源 등이 이때 심주의 고려인들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세력을 확대했다.[16] 이후 요동의 고려인이 일원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우려한 원에 의해 高麗軍民總管과 總管高麗女直漢軍萬戶府로 이원화된 통할기관이 되었다. 이들 두 통할기관은 정동행성에 편입되면서 다시 일원화되었지만, 요동지역이 고려와 연견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요동와 고려의 연관성은 瀋王府를 통해 확인된다. 처음 1307년(大德 11) 원이 忠宣王을 심양왕으로 進封하고, 다음 해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원은 충선왕에게 功臣號를 내리고 심왕으로 改封하면서 일명 瀋陽王이라 하는 심왕은 시작되었다. 충선왕은 고려국왕과 심왕에 이중으로 책봉되었는데, 고려국왕은 藩國王인 반면, 심왕은 諸王의 位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원은 고려국왕이 심왕을 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충선왕이 아들을 고려국왕으로, 조카를 심왕으로 건의하면서 고려국왕과 심왕은 별도의 책봉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후 상호 권력갈등을 초래하여 고려

14) 최윤정, 「원대 동북지배와 요양행성」『동양사학연구』110, 2010. 220~225쪽.
15) 『新元史』권8, 世祖紀.
16) 『고려사』권130, 열전43, 叛逆, 洪福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말 권력암투의 발단이 되었다.[17] 즉, 요동에 이주한 많은 고려인으로 인하여 요동은 고려의 입장에서 매우 밀접한 지역이었다. 원명교체기 고려에서 요동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게 된 점은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었다.

여말선초 요동과 관련되어 여원관계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존재는 東寧府와 雙城摠管府이다. 원은 고려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하였는데, 고려의 영토를 원의 실질적인 지배에 두는 것으로 여원관계에서 민감한 문제였다.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요양행성에서 총괄했다. 고려가 몽골에 저항하였던 시기에 고려 최씨정권에 반기를 들고 원에 투항한 변방세력이 자신들의 지배지역을 원에 위탁하면서 설치된 지역이 동녕부, 쌍성총관부였다. 이들 지역은 원의 직할령일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변경이었다.[18] 고려의 입장에서 별도의 군사충돌 없이 지역 세력이 원에 투항하면서 자국의 영토가 원의 직할령으로 넘어간 것으로, 요동의 요양행성이 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국경분쟁으로 비화될 심각한 문제였다. 동녕부는 1290년, 쌍성총관부는 1356년에 각각 고려에 다시 소속되지만 일정기간 고려의 영토와 인민이 원에 넘어간 점은 여원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그 가운데 요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명교체기 요동을 두고 고려와 명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추가로 요동의 지정학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경을 수도로 한 명의 입장에서 요동은 여전히 북원과 연결된 먼 지역으로 비록

17)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3. 511~518쪽.

18) 방동인, 「雙城摠管府考(上)」『관동사학』1, 1982; 「東寧府置廢小考」『관동사학』2, 1984; 김구진,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 雙城總管府, 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7, 1989;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국사관논총』8, 1989; 방동인, 「麗·元關係의 再檢討-雙城摠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17, 1990;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한국사학보』18, 2004; 신안식, 「고려후기의 영토분쟁-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군사』99,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고려가 배후에 있지만, 공민왕 사후 북원과 연계되는 등 외교적으로 비우호적인 지역이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요동은 산맥과 하천으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명의 입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세력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요동의 자연산물이 자급자족에 많은 한계가 있어 중원의 산물이 공급되어야 했다. 원대 요양행성이 설치되고, 명대 요동도사가 설치된 지역이 가장 비옥하지만, 군사적으로 요동의 전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군사축선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매우 험난한 지형이었다.

원명교체의 혼란기에 요동은 원말 홍군의 일파였던 관선생과 파두반이 太行山, 完州, 大同, 上都 등을 유린하고 요양을 점령한 뒤 고려까지 침입한 과정에서 1359년(지정 19) 요양이 함락되고 원 義州路總管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요동지역 자체적으로 제 세력간의 다툼이 잦아 원활한 생산활동이 제약되었는데, 요동지역이 큰 전쟁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요양을 비롯한 요양행성의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 홍무제의 요동인식과 요동경략

북벌군이 원의 大都를 점령하자 홍무제는 요동의 최대 북원세력이었던 나하추에게 회유하는 문서를 보냈다.[19] 천명을 어겨 민심을 잃은 원을 대신하여 명이 건국되었음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원을

19) 『명태조실록』권52, 홍무 3년 5월 정사. “雲南六詔使者相望 交趾占城萬里修貢 高麗稱藩航海來庭”.

추격하여 격퇴시킬 것이고, 천명을 받든 명이 건국되자 雲南과 安南에서 사신을 보내오고, 더 남쪽의 交趾와 占城이 조공하며, 高麗가 藩邦을 칭하며 來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천하를 놓고 볼 때, 북원이 이미 북쪽으로 밀려나 사막으로 옮겨갔으며, 서쪽으로 일부 몽골세력이 있지만 현재 축소되었고, 남쪽과 동쪽의 여러 세력이 귀부하였으니 고립무원의 신세를 벗어나 투항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었다. 원이 북쪽으로 쫓겨난 뒤 홍무제가 제일 먼저 나하추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낸 점은 요동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무제가 판단할 때, 북쪽과 서쪽의 몽골세력은 이미 큰 타격을 입어 명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요동의 북원세력은 전혀 군사적 손실을 입지 않은 온전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었을 것이다.

홍무제는 건국이후 명의 정통성을 천명하기 위해 북원정벌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홍무제의 대외 전쟁은 당시 국제정세, 명의 각종 제도정비 및 체제안정, 명군의 군사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개되었다. 홍무제는 대외 전쟁에 있어 최우선 목적은 북원의 정벌이었다. 이는 홍무제가 1368년 南郊에서 天地에 제사하며 올린 축문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우리 중국 인민의 군주는 宋의 운세가 다하매, 上帝께서는 사막의 眞人에게 명해 중국에 들어와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 君臣, 부자, 자손들이 백여 년을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운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 천하의 토지와 백성을 호걸들이 쪼개어 다투었습니다. 상제께서 英賢을 보내어 신을 보좌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群雄을 평정하고 백성들을 田里에서 쉬게 하였으며, 지금의 땅의 둘레가 2만리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백성의 주인이 없으므로 반드시 帝號로 높이고자 하니, 신은 감히 사양할 수 없어 上帝와 皇祇에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명년 정월 4일, 鍾山 남쪽에 제단을 쌓고 儀器를 갖추어 帝祇에게 밝혀 고하고자 하오니, 오직 上帝의 마음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20]

라고 하였듯이 상제의 명이 원으로부터 홍무제 자신에게 왔음을 천명했다. 이러한 천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명을 어긴 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었다. 홍무제의 명 건국 정당성은 북원정벌을 통해 천하에 밝혀질 것이기에 홍무제의 북원정벌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 건국직후 홍무제는 각종 제도정비와 점령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민생정책 실시 등이 급선무였다. 이에 홍무제는 內治와 外征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우선 홍무제는 명 건국 이전이었던 1364년(지정 24)에 군사력을 체계화하고자 部伍法을 제정했다.[21] 부오법은 원대 편제였지만, 명은 이를 모방하여 指揮·千戶·百戶·總旗·小旗의 편제를 만들어 지휘는 병사 5,000명을, 천호는 1,000명을, 백호는 100명을, 총기는 50명을, 소기는 10명을 지휘하도록 했다. 위는 천호(5개)로, 천호는 백호(10개)로, 백호는 총기(2개)로, 총기는 소기(5개)로 구성하여 전략적인 군사거점에 최종적인 군구단위의 都指揮使司를 설치했다. 부오법의 제정은 안정적으로 군사동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民籍과 구분되는 軍籍에 오른 인물을 대상으로 한 軍戶를 편제했다.

또한, 홍무제는 군사력 운용을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하여 군사적 이탈이나 반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즉,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의 五軍都督府가 군령권을 행사하고 병부가 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군령권의 경우, 지방의 都指揮使司·指揮使司·千戶所·百戶所로 이어지는 군령체계를 만들었다. 군사지휘는 평시에 오군도독부가 휘하의 위소 병력을 관장하되 훈련상황이라도 황제의 명령이 없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 『명태조실록』권29, 홍무 원년 정월 을해. "上祀天地于南郊 即皇帝位 定有天下之號 曰大明建元洪武 祝曰 惟我中國人民之君 自宋運告終 帝命眞人於沙漠 入中國爲天下主 其君父子及孫百有餘年 今運亦終 其天下土地人民豪傑分爭 惟臣帝賜英賢爲臣之輔 遂戡定 (중략) 息民於田里 今地幅員二萬餘里 諸臣下皆曰 生民無主必欲推尊帝號 臣不敢辭是用 以今年正月四日於鍾山之陽 設壇備儀昭告上帝."

21) 『명태조실록』권14, 4월 임술.

으면 함부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군사 조발권은 철저하게 황제에게 귀속시켰으며, 전쟁이 발생하면 황제가 차임한 오군도독부의 지휘관에게 위임된 병력한도 내에서 위소의 병력을 조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장 지휘관이 관장하던 병력도 전쟁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병력을 원래 위소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때 군장 및 병력을 철저히 점검하여 병력과 병기의 손실을 엄금했다. 이러한 군사지휘체계는 軍權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편제화한 것이 명대 위소체제였다.[22] 이 뿐만 아니라 홍무제는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군사지휘체계를 위해 調發규정과 절차, 授節儀式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23]

홍무제는 명 건국 이전 陳友諒, 張士誠, 方國珍 등 수 많은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다.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홍무제는 많은 병력과 실전 경험을 확보했으며, 강남의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여 원과의 전쟁을 대비했다. 원과의 전쟁은 1367년(오 원년) 9월에 본격화되었다. 徐達이 지휘하는 정벌군은 거침없이 남북을 종횡하며 영역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주요 전역은 山東전투, 河南전투, 河北 · 大都전투, 山西전투, 陝甘전투, 北元정벌, 遼東전투 등이 있다.[24] 홍무제의 북원정벌은 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였다.[25]

먼저 홍무제는 대단위 북벌군을 출정시켜 신속하게 大都를 점령하고 연이어 북원을 추격하였다. 대도점령이후 홍무제는 몽골세력이 서북쪽에 집중되었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雲南의 梁王세력과 요동의 나하추세력이 잔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선 북원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용이하게 정벌이 가능한 남쪽의 양왕세력 축출을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2) 『명사』권89, 志65, 兵1.
23) 『명태조실록』권33, 홍무 원년 7월 경술; 권47, 홍무 2년 12월 을축; 권65, 홍무 4년 5월 을묘..
24) 臺灣三軍大學 編, 『中國歷代戰爭史(明)』14, 中信出版社, 2013. 93~133쪽.
25) 『皇明詔令』卷1, 太祖高皇帝上, 諭中原檄.

南征軍을 파견하여 수월하게 제압했다. 또한, 서북쪽의 쾨쾨 테무르가 사망한 뒤 홍무제의 주요 군사목적은 북원과 연결된 요동지역에 집중되었다. 홍무제는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고려가 다시 북원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점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고려에 대해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여원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다.[26] 즉, 고려에 군마조달을 강요하고, 고려사신의 입경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었다.

1370년(홍무 3)에 홍무제는 徐達, 李文忠 등이 지휘하는 대규모 北征軍을 편성하여 북원을 압박했다. 북정군은 신속하게 上都를 점령하고, 그 여파로 원 순제가 사망하고 태자 아유신다라가 뒤를 계승하였다. 북정군이 승전보를 보고하자 홍무제는 요동에 집중하여 최대 북원세력이었던 나하추를 회유하고자 했다.[27] 원말 사회혼란과 명의 건국이 가지는 정당성을 언급한 뒤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변방을 정복하였음을 통지하며, 雲南, 安南의 사신이 연이어 달려오고, 交趾와 占城이 만리에서 조공하고 高麗가 藩邦을 칭하며 바다를 건너 조공하였음을 과시하며 회유했다. 군사활동으로 하북의 군사력을 登州, 萊州, 浙東의 군선으로 요동과 심양으로 출병시킬 것을 위협했다.

이 해 9월까지 명군은 지속적으로 북원을 압박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정군 출정으로 요동에 파견할 군사적 여유는 없었다. 홍무제는 요동은 현상유지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자 했다. 당시 요양행성 평장 高家奴가 老鴉山에서, 평장 유익이 蓋州의 得利嬴城에서 병력을 모아 상호 지원하며 金州, 復州 등지를 확보하고 있었다.[2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의 북원세력은 그 세력이 다원화하여 開原의 也先不花, 遼陽의 洪保保, 復州의 王哈喇不花, 得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현실』64, 2007. 217~226쪽.
27) 『명태조실록』권52, 홍무 3년 5월 정사.
28) 『명태조실록』권56, 홍무 3년 9월.

嬴城의 유익, 平頂山의 高家奴, 금산의 나하추 등이 갈등하여 충돌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也先不花, 高家奴, 나하추, 유익 등이 홍보보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갈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원대 만연하였던 권력층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이며, 결국 연합세력이 홍보보를 포로로 잡고 승리했다. 홍보보는 정치적으로 세력을 잃었지만, 석방되어 득리영성에 소속 부족을 거느리고 주둔했다. 유익이 명군에 투항할 때, 홍보보도 함께 투항했지만, 爵賞에 불만을 품고 유익을 살해한 뒤 개원으로 도망했다.[29]

유익의 투항을 기회로 홍무제는 1371년(홍무 4) 遼東衛를 설치하여 명군의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뒤이어 定遼都衛指揮使司를 설치하여 점령한 요동의 여러 지역을 총괄하도록 했다.[30] 당시 요동의 북원세력은 군벌성격으로 북원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없었다. 이러한 요동의 북원세력판세를 파악한 홍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벌보다는 광범위한 회유정책을 시행했다.

1371년(홍무 4) 원의 요양행성 평장이었던 劉益이 투항했다가 반발세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익이 거느렸던 세력은 반발세력을 축출하고 명군에 전적으로 편입되었다. 물론 이 때 아주 극소수의 명군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요동에 진입했다. 유익의 투항은 명의 요동경략 시작점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유익세력은 실질적으로 요동남부에 한정된 점에서 요동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1371년 유익의 투항은 단순한 병력의 투항뿐만 아니라 요동주군의 지도와 각종 호적, 군적 등을 지참하였기 때문에 홍무제가 요동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정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유익이 제공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 『遼東志』권1, 地理, 山川, 遼陽.
30) 『명사』권134, 열전22, 葉旺;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요동경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31] 유익이 파견한 右丞 董遵, 僉院 楊賢 등이 가져온 표문을 접한 홍무제는 크게 치하했다. 군사여력이 없어 일단 요동 북원병력의 중원진출 방지라는 당면과제를 인식한 홍무제는 대단위 군사작전 보다 회유를 통해 요동의 북원세력을 이간 및 귀속시키는 방책을 보다 확고하게 정했다. 유익의 투항하자 투항세력을 위무하고자 斷事官 吳立을 파견하고, 유익이 주둔하였던 지역에 遼東衛를 설치하고, 유익을 同知指揮事로 임명하는 등 홍무제의 후속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속한 명군의 요동투입이 아니라 투항세력에게 관직을 부여하고 기존의 통치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 5월에 홍보보가 유익을 살해하고 요양으로 도망한 사건은 요동남부에 한정된 교두보확보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32] 이는 홍보보세력이 유익세력으로부터 이탈하여 나하추에게 들어감으로서 그나마 미약하게 확보된 요동남부의 명 세력이 더욱 약화된 것을 의미하였다. 요동반도를 남쪽에서부터 살펴보면, 金州, 復州, 蓋州, 海州, 遼陽으로 이어지는 축선인데, 처음 유익이 홍보보와 함께 투항했을 때는 금주에서 해주까지 포함되었지만, 홍보보세력의 개주, 해주가 이탈함으로써 요동반도의 최남단인 금주와 복주만이 명의 세력권에 남게 된 것이었다.[33] 右丞 張良佐, 左丞 房暠 등이 參政 張革, 行樞密院副使 焦偶, 廉訪司僉事 李茂, 斷事 崔忽都 등을 파견하여 유익살해사건을 보고하자, 홍무제는 당시 요동의 북원세력이 강대하게 존재함을 인식했지만, 잔여 투항세력을 안무하고 이들로 하여금 북원세력에 대항하도록 했다. 홍무제는 요동이 지리적으로 동쪽에 치우쳐 있고 명군 파견을 통해

31) 『명태조실록』권61, 홍무 4년 2월 임오.
32) 『명태조실록』권65, 홍무 4년 5월 병인.
33)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임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지원선이 길고 가늘게 연결되어 군사적인 불리함으로 遼陽山寨의 高家奴, 瀋陽古城의 知院 哈剌, 開原의 丞相 也先不花, 金山의 나하추 등 강력한 북원세력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주와 금주의 명 세력권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해주와 개주의 연결통로가 확보되어야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면 해로로 산동에서 넘어가야 했다. 또한, 요동반도로 연결되는 산동 역시 명이 확보하여 점령정책을 시행한지 겨우 4년밖에 안된 지역으로 기존의 원 세력이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군정통치를 하던 지역이었다. 결국 홍무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吳立, 張良佐, 房暠 등을 遼東衛指揮僉事로 임명하고 군민을 위무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북원세력이 서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당시까지 요동에 대한 홍무제의 인식이었다.[34] 홍무제의 회유책은 북원세력에 대해 투항을 권유하여 세력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목적보다는 북원정권을 압박함으로써 요동 북원세력이 정세불리를 인식하고 수세적으로 전환되길 바랬다.

당시 홍무제의 주된 군사적 관심은 북원정권에 대한 대대적 정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력 전장이 서북쪽과 동쪽에 형성되었다. 또한, 요동 북원세력의 서쪽 진출을 회유정책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홍무제는 당시 가용한 최소의 병력을 투입하여 요동진출이 아닌 요동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7월에 定遼都衛를 설치하고, 馬雲, 葉旺을 都指揮使로, 吳泉, 馮祥을 同知로, 王德을 僉事로 임명했다.[35] 그러나 정요도위가 실질적으로 요양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금주와 복주를 비롯한 요동반도 남쪽에 설치되었다. 마운의 지휘하에 명군은 우선적으로 개주와 해주에 대한 점령전투를 수행했다. 산동의 登州와 萊州에서 해로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4) 『명태조실록』권66, 홍무 4년 6월 경술.
35) 『명태조실록』권67, 홍무 4년 7월 신해.

金州에 주둔한 명군은 점진적으로 북진하여 먼저 平章 高家奴를 공격했다. 고가노와 전투에서 요양의 동쪽에 있는 평정산을 점령한 뒤 老鴉山寨를 공격했지만, 점령하지는 못했다. 명군의 북진에 필수적인 것은 군마였는데, 육로로 원활하게 조달되지 못해 명군의 전투력은 그리 강력하지 못했다. 이에 산동에서 말을 해로로 수송하여 조달했다.[36] 해가 바뀌어 靖海侯 吳禎이 수군을 동원하여 군량을 조달했다. 이때 호남성의 古州, 田州, 澧州 등지에서 만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홍무제는 급하게 衛國公 鄧愈를 征南將軍으로, 江夏侯 周德興과 江陰侯 吳良을 副將으로 임명하여 토벌하도록 했다.[37] 실질적으로 1372년 1월까지 남쪽의 정벌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북원정벌군을 편성하느라 명의 대규모 병력이 요동에 투입될 수는 없었다.

요동에 대규모 병력의 투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군량의 지급도 어려웠다. 같은 해 2월에 호부에서 요동의 명군에게 조달되는 군량에 대해 아뢰는 내용을 통해 이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指揮使는 月米 5石, 同知는 4석, 僉事는 3석, 千戶는 2석, 百戶는 1石5斗를 월봉으로 지급했다.[38] 실질적으로 당시 요동에 편제된 병력은 5,665명이었다.[39] 이는 요동위의 군사들에게 지급된 전투용 갖옷의 수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홍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요동에 파견된 장수와 군사들에 대한 위무를 통해 士氣를 유지하고자 했다. 遼東諸衛의 지휘에게 羅衣 1襲을, 千戶이하에게는 羅를 각 1疋씩 하사했다.[40] 또한 요동이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으로 군사활동에 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6) 『명태조실록』권67, 홍무 4년 8월 계사.
37) 『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갑술. 이때의 남정군은 삼로로 구성되어 등유가 營陽侯 楊燠과 宜春侯 黃彬을 이끌고 澧州로 나아가고, 주덕흥이 南雄侯 趙庸과 指揮僉事 左君弼을 이끌고 南寧으로 진격했으며, 오량이 平章 李伯昇을 이끌고 靖州로 진격했다.
38) 『명태조실록』권72, 홍무 5년 2월 신사.
39) 『명태조실록』권72, 홍무 5년 2월 계사.
40) 『명태조실록』권73, 홍무 5년 3월 무오.

이 많다는 이유로 군사들에게 衣鞋 3만개를 지급하고, 장교들에게는 綿裘를 하사하기도 했다.[41]

기존의 투항세력 및 파견된 명군은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며 북진했으며, 이 과정에 병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1372년 5월에 가면 전체 병력이 3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병력을 확대하면서 전투는 명군의 승리로 이어져 결국 이 해 6월에 금주, 복주, 개주까지 세력권을 확대했다.[42] 요양까지 세력을 확대한 명군은 여전히 군량의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나하추가 병력을 정비하여 명군을 위협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홍무제는 都督僉事 仇成에게 직접 칙서를 내려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43] 또한 8월에는 산동의 군마를 요동으로 운송하여 전투에 활용하도록 했다.[44]

나하추를 비롯한 주요 북원세력이 명군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였지만, 북원세력의 분열과 투항도 있었다. 같은 해 9월에 平章 高家奴, 知樞密院 高大方, 同僉 高希古, 張海馬, 遼陽路總管 高斌 등이 투항했다.[45] 일부 북원세력의 투항은 명군의 대규모 북원정벌군 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당시 명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던 오정을 소환한 점에서 확인되듯이 고가노 등의 투항을 기점으로 홍무제는 더 이상 세력권을 확대하지 않았다.[46]

방어적인 군사작전으로 전환한 명군은 각 거점을 중심으로 북원세력의 서쪽 진출을 방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나하추가 군량창고였던 牛家莊을 급습하여 약 10만 석의 군량을 불태우고, 5,000여명의 병력손실을 초래하자 홍무제는 방어책임자 都督僉事

41) 『명태조실록』권73, 홍무 5년 5월 정미.
42) 『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병술.
43) 『명태조실록』권74, 홍무 5년 6월 신묘.
44) 『명태조실록』권75, 홍무 5년 8월 계사.
45)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9월 정사.
46)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11월 신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仇成을 永平衛 指揮使로 강등시켰다.[47] 홍무제가 명군의 전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시행했던 북원에 대한 북정군이 북원군에 의해 대패하고 병력손실을 입게 되자 요동에 대한 정책도 수세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었다. 북원에 대해서는 변방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방비에 주력하였던 당시의 전체 전황과 연관된 조치였으며, 소환하였던 靖海侯 오정을 정요위 지휘사로 삼아 기존의 방비체계를 전담하도록 했다.[48] 명군은 더욱 방어에 주력했는데, 요동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것에 대비하여 위무정책을 병행했다. 홍무제는 이해 금주와 복주의 세금을 면제시켜 주기도 했다.[49]

응천부에 수도를 둔 상황에서 요동의 변경까지 명의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군수지원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북쪽으로 북원 원정군을 파견하고 동쪽으로 대단위 원정군을 파견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이에 홍무제는 정요위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군사압박은 시행하되 대단위 군사활동보다 회유정책을 통해 원 잔존세력을 약화시키고, 고려와 이들 세력간 연대를 단절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회유정책의 바탕에는 홍무제의 군사인식 및 군사정책이 결코 확장위주의 강병책이 아니었음이 존재한다. 홍무제는 因地主義 원칙에 따라 원주민의 자치적인 정치권을 인정하되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0]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대한 열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홍무연간 실질적인 명의 군사역량을 정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정확한 군사력은 분석하기 어렵더라도 대략적인 수치를 통해 전체 명군에 비하여 요동경략에 동원된 병력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7) 『명태조실록』권76, 홍무 5년 11월 임신.
48) 『명태조실록』권77, 홍무 5년 12월 임인.
49) 『명태조실록』권78, 홍무 6년 정월 계축.
50) 『명태조실록』권187, 홍무 20년 12월 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71년(홍무 4) 홍무제는 중앙군을 정비하여 京軍 207,800여명을 확보했다.[51] 한편, 1372년(홍무 5) 북원에 대한 대규모 정벌군의 실패는 홍무제의 대외군사전략에 큰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이후 홍무제는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며 내부적인 군사력 강화 및 병제개편을 단행했다. 그 일례로 같은 해 설치된 親王護衛司는 처음 매 王府마다 3護衛로 구성되고, 衛는 左·右·前·後·中 5所로 구성됐다. 개별 所는 千戶 2명, 百戶 10명이 두어졌다.[52]

그러나 요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지역이었다. 홍무제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로 명 건국을 전후하여 공세적인 정벌전쟁이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무엇보다 원에 대한 북벌군이 원 세력을 북막지역으로 밀어냈으며, 서북쪽에서 웅거하던 쾨쾨 테무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남쪽으로 변방을 확대하여 평정하였기 때문에 1387년을 기점으로 남은 군사충돌지역은 요동이었다. 요동지역은 나하추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세력이 북원과 연결고리를 맺고 정세가 불안정한 고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되었던 지역이었다.[53]

홍무제가 본격적으로 요동경략을 위한 군사작전을 시행한 시점은 1387년(홍무 20) 馮勝, 傅友德, 藍玉 등의 북벌군 20만명을 출진시켜 나하추를 압박하였을 때이다.[54] 풍승의 군대는 요동의 거점인 大寧을 점령하고, 최대 원 잔존세력이었던 나하추를 추격하여 金山까지 점령하고, 奉集縣에 철령위를 설치했다.[55] 홍무제의 적극적인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에서 원 잔존세력의 소멸과 명의 대여진 회유정책으로 이어졌으며, 고려 및 뒤를 이은 조선과 정치·군사적 갈등을

51) 『명사』권89, 志65, 兵1.
52) 『명태조실록』권71, 홍무 5년 정월 임자.
53) 나하추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은숙, 「나하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정세」『명청사연구』28, 2007. 을 참조할 것.
54) 『명태조실록』권180, 홍무 20년 정월 계축.
55) 『명태조실록』권182, 홍무 20년 6월 정유; 계묘; 정미; 권189, 홍무 21년 3월 신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초래하기도 했다.[56]

〈홍무 23년의 주요 지역 병력현황〉

구 분	군 사 수
요동군	79,600여명(4월에 94,188명으로 확대)
四川都指揮使司 및 成都三護衛	53,000여명 – 윤4월에 四川都指揮使司 38,300여명 – 9월 사천도지휘사사 병력 78,360명으로 확대
陝西都司 소속 및 西安 3護衛	76,400여명
貴州都司	28,600여명
北平二都司, 燕山諸護衛	124,600여명
西安等衛征進軍	24,600여명
北平屬衛, 三護衛	50,900여명
湖廣·雲南	南雄侯 趙庸이 모집한 신병이 179,500여명
南昌等衛	45,484명(9월에 32,100여명으로 축소)
湖廣의 長沙府	훈련된 將士는 18,023명
成都等衛 征進軍	55,200여명
陝西都司 소속 24위	124,911명(10월에 92,100여명 감소)
征北軍	49,305명
東昌府	훈련된 군사 19,900여명
京衛官軍	1,219,500여명
陝西의 延安等衛	42,400여명

한편, 구체적인 홍무연간 명군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1390년(홍무 23) 기준으로 전국의 위소군사 이외에 주요 전투지역의 병력은 수시로 변화되었다. 나하추의 투항을 전후한 시기인 홍무 23년에 전체적으로 100만여명의 병력을 보유하였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주요 변경 및 중앙의 황실호위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 각종 정벌에 동원 가능한 병력수는 대략적으로 1/5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근대 군대는 기본적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되는데, 핵심전력이었던 중앙군은 황실의 호위 및 내란의 진압이라는 목적에서 일정 병력수의 잔존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북원세력

56) 김경록, 「여말선초 홍무제의 고려·조선 인식과 외교관계」『명청사연구』35, 2011. 13~22쪽.

이 여전히 서북쪽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동에 파견하는 병력은 더욱 적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무제는 20여 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나하추를 압박했다.

이상과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군수지원이 가능해야 했는데, 명의 세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 군수지원도 결정되었다. 1390년(홍무 23) 12월 기준으로 명의 전체 세량은 米麥豆穀 기준으로 31,607,600石이며, 紬絹布 기준으로 735,830匹이며, 絲綿 · 綿花 · 絨茶 · 礬鈆鐵 · 硃砂 · 水銀 등 기준으로 1,363,890斤이며, 錢鈔 기준으로 4,076,598錠이며, 黃金은 200兩, 白金은 29,830兩이었다.[57]

홍무제의 요동경략에 있어 요동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고려되었다. 요동은 광활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말 생산지로 주목되었다. 홍무연간에 비록 구체적인 마정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명은 몽골에 대한 방비차원에서 마정을 중시하여 국가에서 중점 관리하였다. 명대 馬市는 초기에 遼東馬市, 중기에 宣大馬市, 후기에 西北馬市가 중시되었다. 요동에 마시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05년(영락 3)이며, 開原(해서여진), 廣寧(올량합)에 각각 설치되었다. 세부적인 馬市易例를 마련하였다.[58] 마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부는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나하추를 마지막으로 요동에서 북원세력이 실질적으로 사라지자 명은 마정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行太僕寺, 苑馬寺 등과 같은 마정전문관리기구를 요동에 설치하였다.[59]

요동마정의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는 조선도 그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典農正 崔子雲이 말 1,500필을 요동에 전달하자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定遼都衛의 여러 衛에서 養牧하도록 하였다.[60] 遼東鎭守

57) 『명태조실록』권206, 홍무 23년 12월 무자.
58) 姚繼榮, 「明代遼東馬市述論」『遼寧師範大學學報(社科版)』1998-4期. 85~86쪽.
59) 張士尊, 「明代遼東馬政探論」『社會科學輯刊』110기, 1997. 9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孟善은 太僕寺 少卿 祝孟獻이 조선에서 1,000필의 市馬를 보내오자 이를 영락제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요구하였다. 영락제는 말을 요동의 군마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61] 거란, 여진, 조선으로 이어지는 마정을 통해 명은 군마를 조달하고,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경제적인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1〉 永樂初期 遼東互市 交易馬의 品等과 價格

품등	上上等	上等	中等	下等	駒
가격	絹 8匹, 布 12匹	絹 4匹, 布 6匹	絹 3匹, 布 5匹	絹 2匹, 布 4匹	絹 1匹, 布 3匹

* 전거 : 『명태종실록』권40, 영락 3년 3월 갑인.

요동도사는 遼東互市를 통하여 여진족 및 몽고족을 비롯한 제 민족과의 교역을 담당하였다. 이때 요동도사에서 적극적으로 교역한 품목은 말이었으며, 품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다. 요동의 마시와 마정이 본격화되면서 여진족은 비약적인 사회, 경제발전을 하였다.

홍무제의 요동경략에서 식량과 군량의 보급문제가 가장 난제 중에 하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무제는 屯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명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변방의 요해지에 방어병력을 주둔시켰으며, 이곳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군량을 지속적으로 운송하였다. 그러나 군량운송의 어려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둔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홍무제는 둔전을 '興國之本, 在于强兵足食'으로 인식하고, 초기부터 '屯田之令'을 발표하였다.[62] 둔전은 이적을 대비한 장구한 계책으로 인식되어 歲租가 징수되지 않았다.[63] 특히, 요동은 산해관을 통하여 요양과 심양을 장악한 상황

60) 『명태조실록』권240, 홍무 28년 8월 정묘.
61) 『명태종실록』권20, 영락 원년 5월 병신.
62) 『명태조실록』권12, 계묘 2월 임신.
63) 『명태조실록』권56, 홍무 3년 9월 신묘.

에서 육로의 많은 부분이 몽골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보다 안전한 군량보급을 위해 산동에서 해로로 수송하였지만, 수송도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산동에서의 군량 海運에 익사자가 다수 발생하자 요동에 둔전을 실시하여 해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였다.[64] 1394년(홍무 27)에 屯田之法이 실시되면서 요동의 제위병의 1/3은 둔전을 경작하여 자급자족의 생산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65]

명은 요동을 대몽골 방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와 요동경략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둔전정책을 시행하고, 마정을 확대하였으며, 요동의 경제적 가치와 안정을 높이고자 하였다. 명 중심의 조공체제를 형성함에 북쪽, 동북쪽의 제 세력을 편입시키고 이들의 조공에 있어 요동은 요충지로서 역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동은 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명의 이러한 요동인식과 정책추진에 따라 요동의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그 파급결과는 조선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요동을 군사안보의 완충지로 인식하고, 거주민이었던 여진족을 번병으로 인식하였다. 요동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한반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고려시대에 이미 최대 8~9만명의 인구가 요동으로 이주하였으며, 여원관계에서 교역이 지속되다가 원간섭기에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고려와 요동의 꾸준한 경제적 교류는 요동지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66] 역사적인 관련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동은 대명관계의 중간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요동도사가 조명관계에서 외교절차상 중요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4) 『명태조실록』권145, 홍무 15년 5월. 홍무제는 군량의 자체 해결을 강조하여 당시 요동뿐만 아니라 唐胜宗과 耿炳文에게 명하여 陕西都司에 둔전을 실시하였다.
65) 『명태종실록』권93, 영락 12년
66) 위은숙, 「13~14세기 고려와 요동의 경제적 교류」『민족문화논총』34, 2006. 485~492쪽.

또한, 요동은 북방민족의 침입경로이자 역학서의 전래, 음운의 학습 경로 등 문화유입의 경로였다. 조선의 요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영토확장의 실질적인 의미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요동의 정세변화에 관련된 주체들을 살펴보면, 조선, 명, 동몽골, 서몽골, 여진 등이며, 이들의 상호 충돌과 연합은 요동의 정세를 변화시켰다. 결국 명 중심의 조공체제에 명확하게 편입되지 않았던 제 세력의 성장으로 인하여 명의 요동정책과 요동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요동방어가 위협을 받으면 명의 대북방민족에 대한 방어정책이었던 九邊防禦戰略이 동요하고, 명은 北虜南倭로 표현되듯 조공체제를 형성하고도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요동은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높았다. 명대에는 동몽골이 존재하여 북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이를 방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하여 위소제도를 정착시켰다. 이후 몽골에 대한 대비로 우량카이3위를 두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초무하여 기미위소를 설치하였다. 명은 올량합과 여진족의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하여 둔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마정을 통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요동경략은 영락제이후 소극적인 방어위주로 전환되어 여진족에 대한 초무정책에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다양한 마찰을 초래하였다.

4. 명의 요동경략과 고려·조선의 대응

본장에서는 명의 요동경략 전개과정과 연계된 고려·조선의 대명

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명의 요동경략과 홍무제의 황제 중심 일원적인 통치구상에서 발생하는 친왕의 분봉, 요동의 북원세력과 고려의 연계 단절을 위한 명의 외교압박과 고려의 대응 등이다.

원대 요동행성에 遼王, 寧王 등이 설치되어 다스렸던 전례를 모방하여 명 건국이후 홍무제는 親王이 변방의 주요 거점에 王府를 개설하여 군사방위의 핵심지역으로 삼았다. 1387년(홍무 20) 요동지역의 최대 북원세력이었던 나하추가 투항하자 주변 북원세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1388년(홍무 21)에 원의 요왕과 영왕이 臣屬을 거느리고 투항했다. 1392년(홍무 25)에 홍무제는 衛王 植을 요왕으로 임명하여 요동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요동지역에 封王된 遼王府는 廣寧에 두었으며, 寧王府는 大寧에 두었다. 1393년(홍무 26)에 조선에서 요동지역에 봉왕된 요왕부와 영왕부에 사신을 보내어 빙문하자 홍무제는 조선이 여진족을 초무하여 장차 요동을 침략하기 위해 사전에 요왕부와 영왕부에 사사로이 교류하였다고 질책하며 조선초기 조명관계에서 주요 외교문제였던 釁端사건을 유발시켰다. 요왕부와 영왕부는 이후 연왕에 의해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건문제의 편에서 연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

명의 요동인식과 정책은 명의 국제관계 인식과 대응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명 건국이후 최대 관심사는 몽골세력에 대한 방비였다. 이를 위해 명은 서북, 북변, 동북으로 이어지는 국경지역에 九邊이라는 都司·衛所體制를 갖추었다.[67] 九邊은 명대 아홉개 변경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遼東, 薊州, 宣府, 大同, 偏關(山西), 榆林(延綏), 寧夏, 固原, 甘肅지역이다.

명의 요동정책은 요동도사를 통하여 시행되었다. 명의 요동정책은 군사정책, 대외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67) 劉仲華, 「試析分權制衡和以文制武思想的對明代九邊防務體制的影响」『寧夏社會科學』 97, 1999. 92쪽.

다. 군사정책은 內地와 차별되는 衛所制의 시행, 국경선과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한 城堡의 수축, 통신선을 구축하기 위한 驛站·遞運所·急遞鋪·烽火臺의 설치, 정벌 등 전쟁 등이다. 대외정책은 조공제도의 시행, 민족정책, 招撫정책, 이주정책 등이며, 경제정책은 교역을 위한 馬市와 互市, 屯田의 경영, 물량의 유통을 위한 海運과 河運의 정비, 驛路制의 정착 등이며, 문화정책은 교육의 확대 등이다. 이는 요동을 안정적으로 장악함으로서 주변 세력에 대한 통제 및 명 중심 조공체제의 확립을 도모한 것이다. 홍무, 영락제를 거치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 성격에서 축성중심의 방어적이고 소극적 성격으로 전환된 것에 비교하면 홍무연간의 요동경략이 가지는 적극성을 알 수 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요동문제는 민족정책과 연결되는데, 특히 최대 세력이었던 여진족에 대한 정책에 있어 명과 조선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다. 조공체제에서 명은 책봉국이며, 조선은 조공국으로 형식상의 위차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책봉국과 조공국이 특정 사안을 두고 영향력 문제로 외교분쟁이 발생하면 형식논리에 있어 조공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시 여진은 조공체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수준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여진과 달리 조선은 조공국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여진뿐만 아니라 여진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올량합, 몽골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조선초기 요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외교정책이 가지는 명분과 실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은 홍무제이후 조공체제에 있어 각급 지방정부의 조공, 소수민족과 土官의 조공, 屬國의 조공, 기타 국가와 지역의 조공 등 4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68] 지방정부, 소수민족 및 토관의 조공을 국내의 조공(內政)으로, 후자 2가지를 국외의 조공(外交)으로 인식하

68) 李雲泉,『朝貢制度史論』新華出版社, 2004. p.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였다. 요동의 여진족은 실제 소수민족으로 인식된 초무의 대상이었다. 여진족은 조공체제에서 내정에 해당되지만, 토관을 설치하여 다스리는 중국 내지의 소수민족과는 구별되어 동북오랑캐로 분류되었다. 이 때문에 명은 요동지역에 군정기관인 요동도사를 설치하고, 하부기구로 각 衛所를 여진거주지에 설치하였다. 이때, 衛는 요동도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명 황제로부터 형식상이지만 印章를 하사받은 명의 관직체계에 포함되었다.

〈표 2〉 명의 조공체계 분류

구 분	내 용
東南夷上	朝鮮國, 日本國, 琉球國, 安南國, 眞臘國, 暹羅國, 占城國, 瓜哇國, 彭亨國, 百花國, 浡泥國, 須文達那國, 蘇門答剌國, 西洋瑣里國, 瑣里國, 覽邦國, 淡巴國
東南夷下	蘇祿國, 古麻剌國, 古里國, 滿剌加國, 娑羅國, 阿魯國, 榜葛剌國, 錫蘭山國, 拂菻國, 柯枝國, 麻林國, 呂宋國, 碟里國, 日羅夏治國, 合貓里國, 古里班卒國, 忽魯謨斯國, 甘巴里國, 加異勒國, 祖法兒國, 溜山國, 阿哇國, 南巫里國, 急蘭丹國, 奇剌泥國, 夏剌比國, 窟察泥國, 烏沙剌踢國, 阿丹國, 魯密國, 彭加那國, 捨剌齊國, 八可意國, 坎巴夷瞥國, 黑葛達國, 剌撒國, 不剌哇國, 木骨都東國, 南渤利國, 千里達國, 沙里灣泥國
北狄	迤北小王子(韃靼), 瓦剌三王(瓦剌), 順義王(韃靼), 朵顔衛, 福餘衛, 泰寧衛
東北夷	海西, 建州
西戎上	哈密, 安定衛, 罕東衛, 赤斤蒙古, 曲先衛, 土魯番, 火州, 柳陳城, 撒馬兒罕, 魯迷, 天方國, 默德那國
西戎下	烏斯藏, 長河西魚通寧遠等處, 朶甘思, 董卜韓胡, 金川寺番僧, 雜谷安撫司, 打喇兒寨, 達思蠻長官司, 長寧安撫司, 韓胡碉怯列寺, 洮岷等處番僧, 洮岷等處番族
土官	湖廣土官, 廣西土官, 四川土官, 雲南土官, 貴州土官, 腹裏土官

전거 : 『大明會典』 禮部, 朝貢.

조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건주여진의 경우, 조공체제에서 형식상으로 土官을 통한 통제를 받는 內政의 대상이 아니지만, 초무를 통해 요동도사 휘하의 관직체계에 포함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위는 없었지만, 명으로부터 동북의 외교대상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외교상 이중적인 성격은 가지게 된 이유는 첫째, 요동지역을 실질적인 명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고, 둘째,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족의 제 세력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셋째, 여진족보다 몽골에 대한 방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명의 입장에서 명 중심 조공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요동의 제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제 세력은 민족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소수민족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의 조공체제로 제 세력을 불러들이는 초무정책의 시행, 초무에 응한 세력에 대한 이주정책, 조공체제에 편입된 세력과 편입되지 않는 세력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엄격한 조공제도의 정비 및 시행, 편입되지 않는 세력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강행하는 정벌전쟁 등이 있으며, 그리고 차별적인 군사, 경제, 문화정책이 연관성을 가진다.

요동의 전략적 가치는 오랜 역사성을 가진다. 당장 원대에는 요양행성이 존재하여 요동의 제 세력을 견제하였다. 원명교체기에 요동은 북원세력이 잔존하여 명의 국가안보에 위협요소였다. 지리적인 조건은 명의 對몽골정책에 중심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광활한 요동의 전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명의 요동인식은 기본적으로 변방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내지로서 인식하기보다는 관내지역을 방어하고 제 세력들을 羈縻하는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홍무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요동정책을 통해 확인된다.

명의 요동인식 및 정책의 시작은 遼陽行省平章 劉益이 兵馬와 錢糧, 輿地 등을 가지고 항복하면서였다.[69] 홍무 4년(1371) 2월 20일에 유익이 右丞 董遵과 僉院 楊允賢을 명에 보내어 표문을 전달하고 귀순을 표명하자 명은 得利嬴城, 金州, 復州, 海州, 盖州 등지의 각종 城池, 軍民을 확보하고 기타 북원 세력이 따라서 귀순할 것을

69) 『吏文』卷2, 前原平章劉益投順開設遼東衛指揮使司事.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대하고 유익을 遼東衛指揮使司에 임명하였다. 上都까지 확보하고도 요동진출이 어려웠던 명의 입장에서 유익의 귀순은 요동의 전략적 인식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유익을 遼東衛指揮同知로 고쳐 임명하는 誥命을 大都督府 斷事官 吳立同, 黃儔, 王哈剌不花를 보내어 段匹 등과 함께 전달하였다. 홍무제는 유익에게 요동의 城池와 軍馬를 點視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유익을 앞세워 북원세력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고려에 유익의 귀순사실을 통보함으로서 명의 요동진출을 과시함과 동시에 고려의 요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1371년(홍무 4)에 산동의 해로를 통해 요양과 심양을 점령 후 定遼都指揮使司를 설치하고, 1375년(홍무 8)에 定遼都衛를 遼東都指揮使司로 개편하였다. 1377년(홍무 10)에 소속 州縣을 모두 군사체계의 衛로 개편하는 등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 무렵 명은 요동도사 휘하에 12위를 설치하여 동북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1386년(홍무 19)의 金山戰役을 전후하여 요동은 25위 체제로 개편되었다.[70]

1387년(홍무 20)에 나하추가 항복하자 요동 북서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大寧城에 大寧都指揮使司 설치하였다. 나하추의 항복은 명의 요동정책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요동에서 명에 대항할 거대세력이 사라진 점과 요동과 요서를 연결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요동경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1389년(홍무 22)에 몽고인의 귀화를 통제하기 위해 太寧, 朶顔, 福餘 三衛指揮使司를 兀良哈에 설치하였다. 홍무제는 요동도사의 방비를 강화하고, 요동관련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조선의 사행을 들이지 말도록 하고, 左軍都督府로 하여금 요동의 金州, 復州, 海州, 盖州 등 4주에 關隘를 增置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0) 張士尊,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鞍山師範學院學報』1994-1期; 「明初遼東二十五衛建置考釋(續)」『鞍山師範學院學報』1994-2期.

하고, 城隍을 수리하고, 기병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등 요동방비를 강화하였다.[71] 요동정책에 있어 조선을 견제하는 흐름은 고려말부터 시작되었다. 요동도사에게 일체 사행왕래를 금지하고 고려와의 접촉을 엄금한다는 칙유를 내리는 등 고려에 대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72] 군사적으로도 요동도사 휘하의 鐵嶺衛, 復州衛의 城池를 수리하는 등 군사시설을 확충하였다.[73]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명의 요동개발은 기존의 황무지를 새롭게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원말까지 구축된 사회·경제적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요동도사가 요동의 일부지역만을 실질적인 세력권으로 확보하였던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반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는 제한되었다. 이는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초무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명의 요동 제 세력에 대한 초무는 몽골관련 초무와 여진관련 초무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몽골관련 초무는 요동 서북쪽에 위협세력으로 존재한 달단에 대한 초무와 달단의 동쪽에 있던 兀良哈지역에 대한 초무였다. 1389년(홍무 22) 홍무제는 大寧주변의 올량합지역에 朶顔衛·福餘衛·泰寧衛를 설치하고 북원의 遼王 阿札失里를 泰寧衛指揮使로 임명하여 초무했다.[74] 여진관련 초무는 요동의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거주한 여진 제 세력에 대한 초무였으며, 특히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건주여진에 대한 초무가 중점이었다.

또한, 명은 초무정책과 동시에 기존 명의 위소체계에 편제되었다가 전란 및 기타 사유로 도망한 인구에 대한 송환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원을 대신하여 요동을 장악하면서 원의 행정편제에 소속된 인구는 모두 명의 위소체제에 편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영락제

71) 『명태조실록』권229, 홍무 26년 7월 신해.
72) 『명태조실록』권145, 홍무 15년 5월 정사.
73) 『명태종실록』권21, 영락 원년 6년 무인.
74) 『명태조실록』권196, 홍무 22년 5월 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등극과정에서 도망한 인구의 송환, 요동의 제 세력에 포로가 된 한인의 송환 등을 추진하였다.[75]

국제정세의 변화는 국내 정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원명교체기에 국제정세의 변화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후 요동문제를 중심으로 공민왕대 여명관계, 여원관계가 전개되었다. 고려는 점차 원 중심 조공체제에서 이탈하여 명 중심의 조공체제에 편입되었으며, 한족중심의 중화주의에 입각한 조공체제를 지향한 명의 적극적인 입장과 달리 요동에서 북원세력이라는 현실적인 외교카드를 활용한 유연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에 있어 핵심은 요동이었으며, 명은 나하추를 비롯한 북원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고려는 지속적으로 북원세력과 교류하면서 요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76]

고려의 친원정책을 경험한 명 홍무제는 요동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요동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77] 이러한 요동봉쇄정책은 조선 건국이후 태조대까지 지속되어 조명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홍무제의 요동봉쇄정책은 요동을 경유한 입조의 금지, 요동인구의 송환요구, 공마요구, 조선의 요동정세 염탐방지 등이었다. 명은 요동봉쇄에 이어 요동도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명의 요동경략은 요동지역의 제 세력을 초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 북쪽의 올량합에 대한 초무와 요동 동쪽의 여진에 대한 초무가 추진되었다. 물론 황제로서의 권위와 위엄으로 가식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었지만 홍무제가 권근에게 내려준 御製詩에서 요동에서 전쟁이후 생업에 종사하

75) 김경록, 「조선초기 군인송환문제와 조명간 군사외교」『군사』83, 2012.
76)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 현실』64, 2007.
77) 남의현, 「명 태조의 요동폐쇄정책」『강원사학』17·18합집, 2002. 285~29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는 모습을 노래한 점은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요동경략을 추진하되 직접적인 정벌보다는 초무를 통해 명 중심 조공체제를 지향하였던 홍무제의 국제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78] 조선의 북쪽에서 거주하던 건주여진에 대한 초무는 조명관계에서 외교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홍무제의 대조선인식은 欽差內史 黃永奇, 崔淵에 의해 조선에 전달된 手詔에 나타나 있다. 우호적인 대조선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예상되던 명이 조·명관계에서 강압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한 최초 사건인 흔단사건이 발생한 것이다.[79]

① 浙東·浙西의 백성 중에서 불량한 무리들이 조선을 위하여 소식을 보고하는 것으로 명나라의 국경 내에서 분란을 일으킴.
② 사람을 보내어 遼東에 이르러 布帛과 金銀의 종류를 가지고 거짓으로 行禮함으로써 事由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명나라의 邊將을 꾀는 것.
③ 몰래 사람을 보내어 女眞을 꾀여 家眷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몰래 건너 조선으로 편입시키고자 함.
④ 입으로는 신하라 일컫고 들어와 朝貢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른 사람으로 하여금 뽑아 보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모두 타서 피로한 것들이니, 업신여김의 하나.
⑤ 國號를 고치는 一節은 사람을 보내어 詔旨를 청하므로, 조선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했는데, 朝鮮을 계승하여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화답이 없는 것이 업신여김의 하나.

흔단사건의 발단은 반이성계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에 대한 홍무제의 반응은 고려말부터 시해사건, 모반사건, 요동에 영향력 확대 등으로 부정적이었다. 手詔의 내용을 통해 여진족과 조선의 연결가능성에 대한 경계 뿐만 아니라 중국통일이 완성된 상황에서 번국과 연결된 내부의 세력을 경계하고, 이들과 연

78) 『양촌집』 賜朝鮮國秀才權近, 使經遼左.
79) 『명태조실록』권228, 홍무 26년 6월 임진; 『태조실록』권3, 태조 2년 5월 정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결될 가능성이 있는 조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 사신을 遼王府와 寧王府에 보내어 聘問한 사실을 '臣子無外交'의 관념에서 질책한 것이다.[80] 또한, 아직 통치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요동지역에 조선인이 왕래하며, 여진족과 통교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려말 요동정벌의 사례가 있음으로 인하여 언제든 조선이 요동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요동인구 구성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진족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요동개발의 기초로 삼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의 요동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이었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종의 발생지로서 동북면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거주민이었던 여진족에 대한 회유와 징벌을 주도하였다.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의 동향에 큰 영향을 주었던 명의 요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과정, 여진족과 올량합의 대립, 여진족에 대한 초무와 몽골에 대한 영락제의 친정이 요동정세에 가져올 결과를 분석하고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대응을 마련하였다. 요동을 실질적인 조선의 수복대상지로 인식하기보다는 명의 영향력을 인정하되 직접통치지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제 세력의 공유지 개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고토수복이란 측면에서 요동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요동에 대한 관심은 제고하되 요동정세에 따른 실질적인 조선의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대비하였다. 태종대 대외정책의 입안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하륜은 요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복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대를 신중히 할 것을 태종에게 제안하고, 건국초기에 명 중심 조공체제에 안정적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0)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4월 경진. 전 密直使 朴原을 보내어 遼王府를, 전 密直副使 柳雲을 보내어 寧王府를 빙문하였다.

로 편입되어 왕조의 권위와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 "(전략)…임금과 신하간의 분수는 마치 높은 하늘과 낮은 땅처럼 문란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대국을 섬기는 예를 정말 신중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大小의 형세가 마치 뒤섞일 수 없는 黑白과 같은 것이고 보면 대국을 섬기는 예 또한 신중히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중략)… 무인년에 이르러 요동을 정벌하자는 의논이 다시 제기되어 변고가 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태조께서 정승 趙浚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의논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요동 정벌이 취소됨으로써 우리 동방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였습니다.(후략)…"[81]

라는 인식을 가졌다.

명의 요동정책은 조선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명의 조선침략에 대한 우려보다는 여진족을 비롯한 세력의 이동 및 入寇에 대한 방비가 우선적인 경계였다. 물론 태종의 영락제에 대한 인식과 요동총병관 王狗兒에 대한 경계도 있었지만,[82] 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영락제의 친정으로 인한 요동의 정세변화, 여진족과 올량합을 비롯한 요동의 제 세력이 조선국경선 근처로 남하하는 것, 전란으로 인한 만산군의 유입 등에 대한 경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83]

태종은 영락제의 친정과 명의 직접적인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1409년(태종 9) 명의 대장군 丘福이 10만 대군으로 韃靼정벌을 시도하자 국경지역에 '不虞之變'에 대비

81) 『春亭集』卷6, 封事, 謹事大. "(前略)…謂君臣之分 如天尊地卑之不可紊也 則事大之禮 固不可以不謹矣 大小之勢 如白黑之不可以相混也 則事大之禮 亦不容於不謹矣…(中略)…歲至戊寅 攻遼之議復萌 而變又生焉 猶幸太祖聽用政丞趙浚之獻言 其議雖萌 而其事乃寢 使吾東民之類 不至於糜爛…(後略)"

82) 『태종실록』권13, 태종 7년 4월 임진; 권14, 태종 7년 7월 임술; 8월 정유; 경자.

83)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8월 임술; 11월 갑술; 무인; 임오; 『명태종실록』권96, 영락 7년 9월 갑술.

하도록 하였으며, 구복의 정벌이 실패하고 명의 군마요청이 있자 명의 군사력이 요동지역을 넘어 조선까지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84] '靖難之役'을 거치면서 조선의 효과적인 대명관계 전개는 고명과 인장을 받아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지만, 요동과 관련하여 고려출신 동녕위 소속 만산군을 관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명의 적극적인 초무정책에 따라 조선은 국경의 주변에서 번병으로 인식하였던 여진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여진의 종족을 오랑캐(兀良哈), 오도리(吾都里), 우디캐(兀狄哈)로 구분하였다. 또한 명나라의 여진구분에 따라 명칭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野人이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조선 건국 원년(1392)에 여진출신 李之蘭을 보내어 甲州와 孔州에 성을 쌓게 하고, 1398년(태조 7)에는 정도전을 동북면으로 보내어 州府郡縣의 地界를 정하고 穆祖의 鴻業之地인 공주의 토성을 石城으로 개축한 다음, 그 곳에 慶源府를 설치하였다. 태종은 처음에는 회유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강경책을 취하여 정벌을 단행하였지만, 의외로 강력한 여진의 저항을 받고 慶源府를 鏡城까지 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을 당하기도 하였다. 초기에 최대의 여진 초무관련 사건은 태종대 발생하였다.

실제 여진족의 민족적 통일이 늦어진 것은 내적 요인도 있지만, 명의 여진분열책략도 크게 작용하였다. 여진족에 대한 분열책략은 조선에서도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명나라의 적극적인 분열책략과 차이가 있다. 조선은 동북면-서북면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농경생활 문화권으로 흡수하여 朝鮮化하려는 것으로 여진인을 조선의 藩胡로 삼는 것이었다. 분열책략이라기 보다는 낮은 문화수준의 여진인에게 고급문화를 전파한 것이다. 태조~태종

84)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10월 경술; 기미; 경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까지 조선의 대여진정책의 대상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으로 同化政策의 시행으로 조선의 編戶가 된 여진족과 來朝하여 수직한 여진족이었다.

5. 맺음말

원명교체의 격동기에 요동은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동의 여러 세력은 북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결집보다는 개별 세력들의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원말 시대문제를 해결하고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하였던 홍무제는 명 건국초기 다양한 현안문제로 인하여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요동에 집중하지 못했다.

요동은 원대 요양행성체제로 통치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몽골, 여진, 거란, 고려, 한족 등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였던 지역이었다. 특히, 고려와의 인접성과 다수의 고려인이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요동은 고려와의 관계가 밀접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성은 원명교체기 고려가 북원과 관계를 지속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북원정벌의 일정한 성과와 내부적으로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한 홍무제는 홍무 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요동경략을 추진했다. 북원세력의 제압 및 요동의 동쪽에 밀집해 거주하던 여진족을 회유하는 초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요동경략의 근본적인 한계는 군정체제의 요동도사 중심 통치는 여진족의 회유 및 관직수여가 기미성격이었던 점에 있었다. 이는 직접통치가 아닌 간접통치의 방식을 띄었기 때문에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요동경략에서 요동도사 중심의 한정된 통치를 지향하였던 점은 홍무제의 국제인식에서 기인했다. 그러면서도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신생 조선과 갈등을 초래하여 외교적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고려말 공민왕대 친명정책을 천명하면서 원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 중심 국제질서로 전환되었지만, 이후 국내 정세변화로 여명관계는 긴장관계로 이어졌다. 홍무제는 요동경략을 위한 초기 고려와 북원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인 압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나하추의 투항이후 요동의 북원세력이 사라지자 홍무제는 고려를 보다 압박하여 요동과 여진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고려의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고려의 요동정벌로 이어졌다. 요동정벌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친명정책을 표방했지만, 홍무제의 요동정책과 충돌하는 외교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긴장과 충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선 건국이후 왕조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의 봉전외교는 친명정책으로 표출되었지만, 요동지역과 여진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홍무제의 대외정책과 충돌하면서 표전문사건, 흔단사건 등이 발생했다. 홍무연간의 요동경략은 실질적인 점령 및 직접통치보다는 명 중심 국제질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주도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요동경략을 완벽하게 달성하기에 명의 역량이 부족하여 요동과 여진족은 반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했다. 이는 조선 건국기 조명관계의 긴장을 초래한 배경이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고투고일: 2017.1.12.,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요동경략(遼東經略), 홍무제(洪武帝), 요양행성(遼陽行省), 요동도사(遼東都司), 원 중심 국제질서(元 中心 國際秩序), 명 중심 국제질서(明 中心 國際秩序), 여진(女眞), 조선(朝鮮)

<ABSTRACT>

The Governing Liaodong(遼東經略) of M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Ming in the Hong-wu, the Founder of Ming, period

Kim, Kyeong-Lok

The Ming Dynasty is the history of Chinese lasted by Han established unified dynasty, in its founding to destruction in more than 200 years, the edge of the Liaodong army has always being a special group to defend the borders of the existence. During the political rapid changes period when Yuan(元) was replace by Ming(明), the Liadong(遼東) was transformed from the Yuan world order(元 中心 國際秩序) to the Ming world order(明 中心 國際秩序). In this process, various political forces on the Liadong showed strong differentiation of the centrifugal forces of the individual forces rather than the gathering of the forces centered on North-Yuan(北元). In the end of Yuan era, Emperor Hong-wu(洪武帝), who had solved the problems of the times and pursued a central centralized system of emperors, failed to concentrate on the Liadong despite its strategic importance due to various issues at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The Liadong was dominated by Liao-yang Branch Secretariats(遼陽行省) during the Yuan Dynasty, but in reality it was a region where various forces such as Mongolia(蒙古), Jurchen(女眞), Khitan(契丹), Goryo(高麗) and Han(漢族) were present. In particular, the proximity to Goryo and the large number of Goryo dynasties emigrated from the Liadong were closely related to Goryo. This close relationship was also the cause of Koryo's relationship with Yuan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replacing Yuan with Ming.

Emperor Hong-wu, who established certain achievements of the Yuan Dynasty and the ruling system of the emperor internally, promoted the full-scale governing Liadong from the 20th year of Hong-wu. He suppressed the Yuan Dynasty and continued to pursue a policy of conciliation against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Jurchen living in the east of the Liadong. However,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governing Liadong was that rule of military government center of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遼東都司) was deceitful, such as conciliating the Jurchen and awarding office. This was not direct control, but indirect control, which made it impossible to secure the stability of government. The reason for the limited governance centered on the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 of emperor Hong-wu originated from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emperor Hong-wu. In the meantime, he took a jurisdiction over the Liadong and the Jurchen and pushed for a coercive policy of diplomatic pressure on Joseon by causing a conflict with newly established Joseon.

Key words : The Governing Liaodong(遼東經略), Emperor Hong-wu(洪武帝), Liao-yang Branch Secretariats(遼陽行省), Lia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遼東都司), Yuan world order(元 中心 國際秩序), Ming world order(明 中心 國際秩序), the Jurchen(女眞), Joseon(朝鮮)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 태조대 명장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신성재*

1. 머리말
2. 출신과 정계 진출, 주요 군사활동
3. '勁騎' 중심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
4. 장수로서의 자질과 군사적 역량
5. 맺음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머리말

전란의 시대에는 걸출한 역량을 지닌 장수들이 등장하곤 한다. 이른바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인물들은 弓裔·王建과 甄萱이 자웅을 겨루던 후삼국전란기에도 등장하였다. 公山戰鬪에서 왕건의 목숨을 구한 申崇謙, 고려의 개국 일등공신인 洪儒·卜智謙·裵玄慶 등은[1] 그 대표적인 인물들일 것이다. 역사가 승자 중심의 기록임을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부교수

감안하면 이 같은 장수들은 고려 왕조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후백제와 신라에도 존재하였다. 이들이 지닌 전략적 식견과 지휘통솔력, 전술운용 능력에 따라 전투의 승패는 결정지어졌고, 전투의 승패는 전쟁 국면에 영향을 끼치면서 후삼국이 처한 정세 변화를 추동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하나의 통일 왕조를 탄생케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태조 왕건의 휘하에서 활약한 忠節公 庾黔弼(~941.4)[2]의 군사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유금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기여한 그의 군사적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금필의 列傳 기록을 보면, 그는 참전한 전투마다 승리를 이끈 상승장군이요, 비범한 식견을 갖춘 전략가였음이 드러난다. 유금필이 개선할 때면 태조가 반드시 마중 나가 위로를 해주었고, 시종일관 다른 장수들이 누리지 못하는 총애와 대우를 해주었다고 하는 기록은[3] 그가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무장이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최대의 수훈을 세운 공신이었음을 말해준다.

유금필의 행적이 제법 전해지는 상황이지만, 근래까지 그에 대한 관심은 『高麗史』 열전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위인전을 통해 소개되거나,[4] 신라 말 고려 초의 역사를 정리한 한국사 개설서와[5] 일부 학술서적들을[6] 통해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高麗史』 卷92, 列傳5 洪儒.
2) '庾黔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책에서 '유금필'로 읽고 표기한다. 근래 이도학이 '유검필'로 읽고 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금필'로 서술한다. 이도학이 제시한 견해의 주요 논거는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176쪽 ; 『후백제 진훤대왕』, 주류성, 2015a, 498쪽 참조.
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及凱還太祖必迎勞 終始寵遇諸將莫及".
4) 洪良浩 著·李鍾學 譯, 『韓國名將傳』, 博英社, 1974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海東名將傳』, 1987.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5, 1976·1981·1975.

이후 전쟁사 분야의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보다 풍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7]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유금필을 專論으로 다룬 학술논문들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유금필의 군사활동을 유기적으로 검토한 논고를 비롯하여[8]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대 결전인 一利川戰鬪에서의 활약상과 사후 聖興山城 내 庾太師廟에 配享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논문,[9] 유금필이 성흥산성에 소재한 城隍祠의 主神으로 모셔지게 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핀 논문들은[10] 그 주요한 성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금필이 후삼국 통일전쟁에서 수행한 군사활동의 내용과 의미, 지방사회 내에서의 위상 등을 밝혀냄으로써 학술적 차원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가 벌인 군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는 충분하지 않고,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 역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가 지휘한 부대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운용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는 유금필 부대의 편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지닌 전략적 식견과 전술 구사능력, 지휘통솔 문제, 장수로서의 자질 등에 관한 내용까지 두루 검토되는 가운데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학들이 일궈낸 성과를 적극 반영하면서 충절공 유금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文暻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 研究』, 一潮閣, 1993 ; 鄭清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7)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4 ; 문안식, 『후백제 전쟁사 연구』, 혜안, 2008 ;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혜안, 2014 ; 이도학, 『후삼국시대 전쟁 연구』, 주류성, 2015b.
8) 金甲童,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軍史』, 69, 2008.
9) 김갑동,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 장군」 『人文科學論文集』 46, 대전대학교, 2009.
10) 김효경, 「부여 林川郡 城隍祠와 庾黔弼」 『역사민속학』 26, 2008.

이 수행한 군사활동과 용병술, 장수로서의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출신과 정계 진출, 주요 군사활동

고려시대 인물들의 일대기를 기록한『고려사』열전에 따르면 유금필은 平州人으로 나온다.[11] 평주는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에 고구려가 관할하던 大谷郡이었다. 이 지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景德王代에 이르러 永豊郡으로 개명되었다. 이후 고려가 건국되면서부터 평주로 불리게 된 곳으로 지금의 황해도 평산군에 해당한다.[12]

유금필의 선대에 대한 기록은 부재하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그의 선대는 평주에서 상당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딸이 태조 왕건과 혼인하여 東陽院夫人이 되고,[13] 그 자신이 鵠島(백령도)에 유배된[14]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민들을 규합하여 후백제의 해상 침탈에 대응하였다고 하는 기록은[15] 그의 선대가 평주와 인근 지역에서 누렸을 정치사회적 위상을 짐작케한다. 그가 浿江鎭의 軍鎭勢力에서 豪族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견해는[16]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선대와 관련한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가 평주의 토착 가문 후손이었는지 혹은 타 지역으로부터 移居해온 가문의 후예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신라가 782년(선덕왕 3)에 패강진을 설치하면

11)『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庾黔弼平州人".
12)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4쪽.
13)『高麗史』卷88, 列傳1 后妃1 東陽院夫人庾氏.
14)『高麗史節要』卷1, 太祖神聖大王 太祖 14년 3월.
15)『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16) 鄭淸柱, 앞의 책, 1996, 116쪽.

서 사민정책을 추진하고,[17] 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朴守卿의 선대가 신라 말에 패강 지역으로 이주해왔다고 하는 기록에 주목해본다면,[18] 유금필의 선대 역시 패강진 설치를 계기로 평산 지역으로 이거해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19] 후대에 편찬된 족보를 보면 平山庾氏와 茂松庾氏는 같은 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이 같은 현상은 유금필의 증손으로 중앙에서 현달한 庾長信 계열과 달리 아첨죄를 지어 檢校蔣作少監에 머무른 庾恭義[20]의 아들 庾祿崇이 벼슬을 하지 못하고 고향인 무송으로 낙향하여 그곳을 移封 받게되면서 본관으로 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21] 그렇다고 한다면 유금필의 선대가 살던 지역은 본래 高敞郡 茂長面 茂松縣이었지만, 패강진이 설치되고 사민정책이 추진되면서 평산 지역으로 이주해간 셈이 된다.[22]

유금필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는 궁예정권이 浿江地域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던 분위기 속에서 마련되었던 것 같다. 궁예정권이 904년에 패강지역으로 세력 확대를 꾀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浿江道 소속의 10여 州縣은 궁예에게 항복하였다.[23] 궁예는 접수한 지역들을 13개의 鎭으로 분정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24] 유금필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궁예정권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7) 『三國史記』 卷40, 職官志 下 外官 浿江鎭典 ; 『三國史記』 卷9, 宣德王 3년 2월.
18) 『朝鮮金石總覽』 朴景仁墓誌 ; 『韓國金石文追補』 朴景山墓誌. 박수경 가문의 성장은 鄭淸柱, 「신라말·고려초 호족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一考察」 『역사학보』 118, 1988(앞의 책, 1996, 45~46쪽) 참조.
19)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5~37쪽.
2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9년 8월 ; 『高麗史節要』 卷4, 文宗仁孝大王1 文宗 9년 8월.
21) 평산유씨와 무송유씨를 별개의 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160쪽 ; 鄭淸柱, 앞의 책, 1996, 117쪽 참조.
22) 평산이 유금필의 본거지라기보다는 후대의 식읍으로 보기도 한다(文秀鎭, 「高麗建國期의 羅州勢力」 『成大史林』 4, 1987, 22쪽).
23)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8년.
24) 『三國史記』 卷12, 孝恭王 8년 ; 『三國史記』 卷50, 列傳 弓裔 天祐 2년.

같다.[25] 유금필이 궁예정권하에서 활동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왕건에 의해 궁예정권이 몰락하고 고려가 건국되던 918년부터 역사의 무대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유금필이 고려 왕조에서 수행한 군사활동은 가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역동적이다. 그는 후백제와 벌인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여 무훈을 세웠다. 참가한 전투마다 승리를 이끌어냈고, 불리한 처지에서도 전세를 역전시키는 투혼을 발휘하였다. 유금필이 일생 동안 수행한 군사활동을 특별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26] 시기별로 유금필이 수행한 군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금필이 활동한 제1기(918.~924.)는 고려가 건국되면서 그의 활동이 점차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그의 존재는 왕건이 집권하던 918년(태조 원년) 6월에 처음 등장한다. 유금필은 이 시기에 개국 1등공신인 홍유와 함께 馬軍將軍의 직함으로 병사 1,500명을 거느리고 鎭州(충북 진천)에 주둔하면서 변란에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27] 당시 유금필은 왕건을 추대하는 논의에는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입장과 보조는 같이 하였던 것 같다.[28] 이는 유금필이 궁예 말년에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29]

유금필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던 시기는 920년 3월부터였다. 당시 고려의 북계 지역에 설치된 鶻岩鎭[30]은 말갈족으로 지칭되던 北狄[31]들의 침입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다. 태조는 이들을 평정하는

25) 金甲童, 앞의 논문, 2008, 37~38쪽.
26) 1기(918.~924.), 2기(925.~930.), 3기(931.), 4기(932.~934.) 5기(935.~936.) 등이다.
27)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
28) 朴龍雲, 「高麗時代의 茂松兪氏家門 분석」 『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私學論叢』, 1987, 286~287쪽.
29) 鄭淸柱, 앞의 책, 1996, 115쪽.
30)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鎭」 『歷史學報』 10, 1958(『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235쪽)에서는 함경도 안변 신대리로 비정하였으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31) 金光洙, 「高麗建國期의 浿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 · 22, 1977, 14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적임자로 유금필을 지목하였다. 왕명을 받은 유금필은 정부 직속군으로 편성된 開定軍 3,000명을 이끌고 출정하였다.[32] 골암진에 도착한 그는 동쪽 산에 커다란 성을 쌓고 추장들을 불러 모아 주연을 베푼 다음 이들이 취한 틈을 타 위협하여 복종토록 하였다. 유금필은 추장과 부락민 등 1,500명의 항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고려인 3,000명을 방환해오는 큰 전과를 거두었다. 고려는 유금필의 활약으로 북방 지역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남방의 후백제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금필이 활동하던 제2기(925.~930.)는 충남 지역과 경북 지역의 요충지를 둘러싸고 후백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다. 그는 이 기간 중에 燕山鎭과 任存郡을 공격하고, 조물성전투와 고창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925년(태조 8) 10월, 征西大將軍에 임명된 유금필은 연산진을 공격하여 장군 吉奐을 죽였다. 그리고 임존군에서는 3천여 명을 살획하는 전공을 세웠다.[33] 연산진은 청주시 문의면으로 비정되는 곳이다.[34] 청주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후백제의 최일선 요충지에 해당한다.[35] 임존군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을 말한다.[36] 유금필은 이 지역들을 공략함으로써 충청 지역에까지 고려의 영향력을 확대시킴은 물론 예산과 청주 일대를 연결하는 대후백제 방어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충청 지역에서의 전투가 일단락된 뒤, 고려군은 후백제군과 조물군에서 격돌하였다.[37] 전황은 견훤의 군사가 정예로워 승부를 결정

32) 朴天植, 「高麗士族의 形成·發展과 階層構造」『國史館論叢』 26, 1991, 45쪽.
33) 『高麗史』 卷1, 太祖 8년 冬 10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5, 文義縣 建置沿革. 申虎澈, 앞의 책, 1993, 73쪽.
35) 문안식, 앞의 책, 2008, 129쪽.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0, 大興縣 建置沿革. 류영철, 앞의 책, 2004, 79쪽.
37) 조물성전투를 말한다. 전투의 내용에 대해서는 『高麗史』 卷1, 太祖 8년 冬 10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조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선산 금오산성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짓지 못할 정도였다. 왕건은 후백제군의 병세가 약화되기를 기다려 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유금필이 임존군으로부터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합침에 따라[38] 전세는 고려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전되었다. 고려군의 군세가 강화되자 부담을 느낀 견훤은 왕건에게 화친을 요청하였다.[39] 유금필 부대의 신속한 지원에 따라 왕건은 견훤과 화친 관계를 수립하고 잠시나마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유금필은 930년(태조 13) 정월 안동 지방에서 발발한 고창 전투에서 최대의 수훈을 세웠다.[40] 전투에 앞서 고려의 장수들은 전황이 불리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탈출구를 마련해두자는 등 후백제군과의 대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유금필은 장수들이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당시의 전황상 신속히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적의 방어 태세가 허술한 猪首峯[41] 방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의 공세적인 전투에 의해 고려군은 대승하였고, 경북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왕건이 "오늘의 승첩은 경의 힘 덕분이다"며 그의 공적을 극찬한 것은 실로 유금필의 활약이 고창전투의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유금필이 활동한 제3기(931.)는 그의 일생 중 최대의 정치적 시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안동 부근설, 김천 조마면설, 안동과 상주 사이설, 의성 금성설 등 견해가 다양하다. 제 견해는 류영철, 앞의 책, 2004, 76쪽 ; 문안식, 앞의 책, 2008, 126쪽 ; 김갑동, 앞의 책, 2010, 35쪽 참조.

38) 류영철, 앞의 책, 2004, 83쪽.

39)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왕건측이 화친을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 화친을 요청한 주체에 대한 여러 견해는 류영철, 앞의 책, 2004, 84~85쪽 ; 이도학, 앞의 책, 2015, 209~210쪽 참조.

40) 이하 전투 내용은 『高麗史』 卷1, 太祖 13년 春 正月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41) 현재의 안동군 와룡면 서지동 서남쪽에 위치한 봉우리(이형우, 「古昌戰鬪考」 『上智實業專門大學論文集』 12, 1982, 11쪽) 혹은 안동여자중학교 뒤편쪽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비정된다(柳永哲, 「古昌戰鬪와 후삼국의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7, 1999, 39쪽).

기였다. 고창전투 이듬해인 931년(태조 14) 3월, 유금필은 죄인의 몸으로 백령도에 유배되었다.[42] 그가 유배된 이유에 대해서는 참소에 따른 것으로 기록되었을 뿐 구체적이지 않다. 아마도 이는 정치세력간의 견제와 마찰이 빚어낸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즉 패서지역 출신인 그가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태조로부터 신임을 한 몸에 받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점차 비중 있는 위치를 점유해 가던 현실 속에서 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견제와 모함을 받지 않았나 추측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유배에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도 보인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정이다. 그는 비록 유배중인 처지였지만 후백제의 수군이 서해 중북부 해역으로 북상하면서 고려의 수군활동을 압박하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후백제의 해상 침탈로 고려의 수군이 위기에 봉착하자 지역민과 물자를 동원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전함을 정비하는 등 서해 중북부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해상방어망을 구축하였다.[43] 유금필이 유배 중이던 시기에 추진한 해상방어력 강화 노력으로 말미암아 고려는 후백제의 북상을 억제하고 해상 도전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44]

유금필의 제4기(932.~934.) 행적은 유배지로부터 풀려나면서 시작되었다. 932년(태조 15), 왕건은 유금필을 征南大將軍에 임명하여 신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義城府(경북 의성)를 지키게 하였다.[45] 유금필은 이 시기에 비상한 군사활동 능력을 보였다. 그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2) 유금필이 곡도 유배기에 벌인 군사활동은『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43) 후백제의 수군이 932년 9~10월에 예성강 수역과 대우도 해역을 공략해온 사건을 말한다(『高麗史』卷2, 太祖 15년 9월 · 冬 10월). 이 시기 고려와 후백제의 서해 중북부 해역을 둘러싼 해상권쟁탈전의 추이는 신성재,「후백제의 수군활동과 전략전술」『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후삼국시대 수군활동사』, 혜안, 2016, 143~147쪽 참조.
44) 이도학, 앞의 책, 2015, 379쪽.
45) 이하 유금필이 정남대장군으로 활동한 내용은『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견훤의 장남 神劒이 槎灘[46]을 경계 삼아 고려군의 경주 진출을 저지하자, 80명에 불과한 壯士들을 이끌고 출정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경주에 입성하였다. 그는 회군하던 중 子道에서 신검의 군대와 다시금 조우하였다. 그는 이 전투에서도 적장 今達·奐弓 등 7명의 장수들을 사로잡고 무수히 많은 적병들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왕건은 그의 공적이 옛날에도 드문 일이라고 하며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유금필의 눈부신 활약은 단연 運州(홍성)전투에서 발현되었다. 934년(태조 17) 9월, 왕건은 운주를 정벌하기 위해 유금필을 右將軍에 임명하였다.[47] 고려군이 남진하자 견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甲士 5천명을 이끌고 북상하였다. 양군이 조우하게 되자 견훤은 무지한 병사들만 살상될 우려가 있으니 화친하여 각자의 영토를 보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왕건은 견훤이 제시한 화친안을 놓고 장수들과 의논하였다. 유금필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상황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는 후백제군이 미처 진을 치지 못한 틈을 노려 勁騎 수천으로 하여금 돌격케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고 용맹스런 장수 尙達·崔弼 등을 사로잡는 쾌거를 거두었다. 운주가 고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오자 熊津(공주)를 포함한 그 북쪽에 위치한 30여 성 역시 항복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유금필의 정확한 전황 파악 능력과 결단력, 용맹스런 활약에 의해 고려는 홍성과 공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배권의 범위를 충청 남부지역에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46) 정확한 위치는 미상이나, 경주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추정된다(이도학, 앞의 책, 2015, 384쪽).

47) 운주전투에 관한 기록은 『高麗史』 卷2, 太祖 17년 9월 ;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이와 관련한 기왕의 연구 동향은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硏究』 74, 2004 ; 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긍준의 역할」 『軍史』 96, 2015 참조.

유금필이 활동한 제5기(935.~936.)는 그가 마지막으로 군사활동을 수행한 시기이다. 이 시기 그의 행적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특별히 수군을 지휘한 점이다. 후삼국 통일을 1년여 앞둔 935년(태조 18) 4월, 왕건은 여러 대신과 장수들을 모은 자리에서 후백제에게 빼앗긴 나주지역을 탈환하는 적임자 천거를 명하였다.[48] 公萱과 悌弓 등은 유금필을 천거하였다.[49] 왕건 역시 유금필을 의중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신라로 통하는 길을 뚫는데 수고한 것을 생각하여 차마 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유금필은 태조의 의중을 간파하고 국가의 대사에 신명을 바칠 것을 자처하였다. 그는 나주를 경략(經略)하는 도통대장군(都統大將軍)에 임명되어 이 지역을 탈환하는 수군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다음 복귀하였다.

고려는 유금필의 성공적인 나주 탈환으로 서남해역 해상권을 다시금 확보하고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50] 나아가 그것은 후삼국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낳게 하였다. 나주에서의 수군활동이 종료된 935년 6월, 신검이 일으킨 정변으로 말미암아 金山寺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은 나주로 탈출한 다음 고려 정부로 入朝해올 뜻을 전하였다. 왕건은 견훤을 호송해오는 임무를 유금필에게 일임하였다. 유금필은 대광 萬歲를 비롯한 수군과 전함을 거느리고 바닷길을 경유하여 견훤을 안전하게 호송해왔다.[51]

견훤이 입조하자 후삼국 정세는 고려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936년(태조 19) 9월, 왕건은 후백제를 결전 및 속전속결

48) 이하 내용은『高麗史節要』卷1, 太祖神聖大王 18년 ;『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참조.
49) 유금필이 추천된 이유에 대해서는 공훤과 제궁이 패서지역 출신 호족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李泰鎭,「金致陽 亂의 性格」『韓國史硏究』17, 1977, 79~80쪽 참조.
50) 신성재,「고려의 수군전략과 후삼국통일」『東方學志』158, 2012, 73쪽.
51)『高麗史』卷2, 世家2 太祖 18년 6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략으로 제압하기 위해 87,5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후백제정벌군을 편성하였다.[52] 유금필은 태조를 따라 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는 후삼국전란기의 최대 결전인 일리천전투에 中軍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53]

3. '勁騎' 중심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

유금필이 거느린 부대가 매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지휘한 부대의 편성과 전술적인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유금필 부대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지만, 전투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부대가 전술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지닌 부대였는가를 밝혀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대 편성에 기초한 군사 운용이라는 용병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우선, 유금필이 거느린 부대의 편성은 그 자신이 왕건을 섬기기 시작하던 건국 초기부터 마군장군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54] 대체로 기병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구체적인 실상은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편성한 정벌군의 조직과 편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리천전투시 고려군의 실상을 전하는 936년(태조 19) 9월의 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2)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9년 秋 9월. 결전과 속전속결 전략에 입각한 일리천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 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참조.
53) 위와 같음.
54)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事太祖 爲馬軍將軍 累轉大匡".

갑오일에 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왕이 견훤과 더불어 군사를 사열하였다. 왕이 견훤을 비롯하여 大相 堅權 · 述希 · 皇甫金山과 元尹 康柔英 등으로 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支天軍大將軍 元尹 能達 · 奇言 · 韓順明 · 昕岳과 正朝 英直 · 廣世 등은 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左綱으로 삼았다. 大相 金鐵 · 洪儒 · 朴守卿과 元甫 連珠 · 元尹 萱良 등은 馬軍 1만을 거느리게 하고, 補天軍大將軍 元尹 三順 · 俊良 · 正朝 英儒 · 吉康忠 · 昕繼 등은 步軍 1만을 거느리게 하여 右綱을 삼았다. 溟州大匡 王順式과 大相 兢俊 · 王廉 · 王乂 · 元甫 · 仁一 등은 馬軍 2만을 거느리게 하고, 大相 庾黔弼과 元尹 官茂 · 官憲 등은 黑水 · 達姑 · 鐵勒의 諸蕃勁騎 9,500을 거느리게 하고, 祐天軍大將軍 元尹 貞順과 正朝 哀珍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고, 天武軍大將軍 元尹 宗熙와 正朝 見萱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고, 杆天軍大將軍 金克宗과 元甫 助杆 등은 步軍 1천을 거느리게 하여 中軍으로 삼았다. 大將軍 大相 公萱과 元尹 能弼 및 장군 王含允 등은 騎兵 300과 여러 성의 군사 14,700을 거느리게 하여 3군의 援兵으로 삼았다.[55]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편성한 정벌군은 무려 87,500명의 대병력이었다. 태조 왕건을 총지휘관으로 38명의 장수들이 동원되어 3군과 援軍을 지휘하는 통수체계를 조직하였다. 3군은 左綱과 右綱, 中軍으로 구분하여 마군과 보군을 주력으로 구성하되 중군 소속의 마군 비율을 현저히 높이는 방식으로 편성하였다.[56] 주력인 3군을 지원하는 부대로는 여러 城으로부터 군사 14,700명을 징발하

55) 『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19년 秋 9월. "甲午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以萱及大相堅權述希皇甫金山元尹康柔英等領馬軍一萬 支天軍大將軍元尹能達奇言韓順明昕岳正朝英直廣世等領步軍一萬爲左綱 大相金鐵洪儒朴守卿元甫連珠元尹萱良等領馬軍一萬 補天軍大將軍元尹三順俊良正朝英儒吉康忠昕繼等領步軍一萬爲右綱 溟州大匡王順式大相兢俊王廉王乂元甫仁一等領馬軍二萬 大相庾黔弼元尹官茂官憲等領黑水達姑鐵勒諸蕃勁騎九千五百 祐天軍大將軍元尹貞順正朝哀珍等領步軍一千 天武軍大將軍元尹宗熙正朝見萱等領步軍一千 杆天軍大將軍金克宗元甫助杆等領步軍一千爲中軍 大將軍大相公萱元尹能弼將軍王含允等領騎兵三百諸城軍一萬四千七百爲三軍援兵".

56) 신성재, 앞의 논문, 2011, 344쪽.

여 援兵으로 편성하였다. 후백제정벌전에 참가한 고려군의 부대 편성과 조직, 규모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 고려군의 편성 조직과 지휘체계〉

군 편성		병종	병력	지휘관	비고
3군	좌강	마군	10,000	甄萱, 견권, 박술희, 황보금산, 강유영	
		보군	10,000	능달, 기언, 한순명, 흔악, 영직, 광세	지천군대장군
	우강	마군	10,000	김철, 홍유, 박수경, 연주, 훤량	
		보군	10,000	삼순, 준량, 영유, 길강충, 흔계	보천군대장군
	중군	마군	20,000	왕순식, 긍준, 왕렴, 왕예, 인일	
		勁騎	9,500	유금필, 관무, 관헌	諸蕃 (흑수, 달고, 철륵)
		보군	1,000	정순, 애진	우천군대장군
			1,000	종희, 見萱	천무군대장군
			1,000	김극종, 조간	간천군대장군
원병		기병	300	공훤, 능필, 왕함윤	
		–	14,700		諸城軍
계			87,500	38	

위 표에서 흥미롭게 인식되는 부분은 중군 소속의 지휘관으로 참전한 유금필이 거느린 흑수·달고·철륵으로 구성된 제번경기 9,500명의 존재이다. 이들은 고려의 군사들과는 달리 당시 북방 지역에 거주하던 蕃人들로 구성된 이민족 출신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고려군이 馬軍, 騎兵으로 호칭된 것과 같이 말을 타고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를 의미하는 '騎'로 표현된 점에서 기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굳세고 날랜 기병'임을 나타내는 '勁騎'로 표현되고 있다.[57] 이는 정벌군을 구성한 고려군이 마군, 기병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자신들만의 전술적 특징을 반영하는 듯한 경기로 특화하여 표현된 점에서 이 기병이 지닌 군사적 성격을 가늠케 한다. 종래의 기병들과 달리 특별히 빠른 속도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춘 기병들로 편성한 군사들이었기에 그와 같이 호

57) 김갑동, 앞의 논문, 2009, 40쪽 ; 김갑동, 앞의 책, 2010, 23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칭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들은 민첩한 기동력과 우수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 다양한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는 전술운용 능력을 갖춘 기병들로 전투원 개인은 물론 조직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전투 역량을 발휘하던 존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58]

주지하듯이 경기의 뛰어난 전투력은 일찍이 9세기 중반에 발휘된 전례가 있다. 839년 정월, 興德王 사후 벌어진 왕위쟁탈전에 가담한 張保皐는 굳세게 조련시킨 '勁卒 5천'을 보내어 金昕이 지휘하던 신라의 정부군 10만 대군과 大丘에서 대적하게 하였다.[59]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정부군은 장보고가 보낸 청해진의 군사 5천에게 대패하였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보고군의 주력은 '馬兵'으로 불리우던 기병 3천이었다. 이들은 상대방의 軍中을 빠른 속도와 과감한 돌파력으로 타격하면서 거침 없는 전투를 벌였다.[60] 대구전투에 등장하는 마병은 유금필 부대의 경기와는 그 표현이 다르다. 하지만 이들 마병은 굳센 전투 능력을 지닌 군사들을 지칭하는 경졸 5천을 구성하던 병력이었다. 경졸 5천에 포함된 마병의 존재는 유금필이 거느렸던 경기와 흡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유금필은 자신의 휘하 병력을 경기 중심의 군사들로 편성한 다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8) 유금필 부대를 구성한 '경기'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병사 개개인이 소지하였던 군마와 무장, 전투 장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전술 구사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의 부대 편성과 전술적 특징을 자세히 입증할만한 자료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북방 유목민들이 운용하던 경기병의 경우처럼 무장은 가볍지만 신속한 기동타격능력을 갖춘 기병들과 속도는 낮지만 강한 돌파력을 발휘하던 기병들이 적절한 규모로 혼합 편성된 형태가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59)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 장보고군과 싸운 신라 정부군 10만의 수치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불신하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서영교, 「張保皐의 騎兵과 西南海岸 牧場」 『震檀學報』 94, 2002 ; 신성재, 「청해진의 해상방위와 군사운용」 『軍史』 78, 2011 참조.

60) 마병의 활약상은 서영교, 위의 논문, 2002, 55~64쪽 ; 신성재, 위의 논문, 2011, 8~11쪽 참조.

전투 상황에 적합한 전술을 구사하여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를 활용한 그의 뛰어난 용병술은 934년 충남 홍성지방에 발발한 운주전투에서 확인된다. 왕건은 운주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견훤이 중무장한 정예군으로 甲士 5천[61]을 이끌고 오자 부담을 느끼고 화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화친을 반대하고 과감한 선제 공격을 건의하였다. 그는 후백제군이 형성하고 있던 진형의 취약한 측면을 간파하고, 그곳에 경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견훤이 진을 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경기 수천으로 돌격하여 3천여 급을 참획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후백제군의 취약한 진형을 파악한 유금필이 기동타격 능력이 뛰어난 경기를 활용한 용병술을 적극 구사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경기가 활약한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930년 고창전투에서도 이들이 활약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왕건은 이 전투에서도 운주전투의 경우처럼 싸움이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사잇길을 마련하자는 등 제장들과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이러한 대응책을 비판하면서 시급히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거느리던 군사들을 저수봉 방면으로부터 돌격케 하여 후백제군을 대파하였다. 저수봉 방면이 취약한 것을 간파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경기를 투입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것이다.

한편 유금필 부대를 구성한 경기에 대해서는 제번경기가 참전한 936년 일리천전투의 기록에 주목하여 여진 기병으로서 傭兵으로 보는가 하면,[62] 북방 유목 종족의 제번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용병부대,[63] 고려가 회유한 함경도 등지의 여진족,[64] 북방의 유이민으로

61) 이도학, 앞의 책, 2015b, 392~394쪽.
62) 金光洙, 앞의 논문, 1977, 146~147쪽.
63) 鄭景鉉, 「高麗太祖의 一利川 戰役」『韓國史硏究』 68, 1990, 23쪽.
64) 文暻鉉, 앞의 책, 1987, 28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려가 군대에 편입시킨 용병[65]으로 파악하는 등 대체로 북방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군사들로 이해하고 있다. 일리천전투에 참가한 흑수·달고·철륵이 북방의 제번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해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일리천전투보다 이전 시기에 발발한 운주전투에서 활약한 경기와 고창전투 및 조물성전투에 참가한 군사들 역시 북방의 이민족 중심으로 구성된 경기였을지는 의문이 든다. 관련 기록과 정황적 증거 등에 근거해볼 때, 유금필이 거느렸던 경기는 고려가 국초부터 운용하던 기병에 북방으로부터 항복해온 여러 이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포함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유금필이 920년 초에 고려의 개정군 3천명을 이끌고 가서 골암진에 산거하던 北狄들을 평정하자, 그 뒤 많은 무리들이 항복해왔다고 하는 기록을[66] 보면 본래 유금필이 거느리고 있던 고려군에 북방 이민족들의 기병이 더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병력 동원의 규모가 커지고, 지상전이 격화되어 가던 흐름 속에서 이들 이민족 출신의 기병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 건국 이후로 북방에 散居하던 이민족들의 투항 사례가 늘어나고,[67] 발해 멸망을 계기로 수만 명의 유이민들이 고려로 유입된 사례를[68]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 출신의 군사들이 점증하여 다수를 형성해가던 상황 속에서 응당 이들 출신의 장수들에게 지휘권이 부여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범위는 소규모의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상 최고 지휘권은 유금필이 행사하였다. 단위 부대를 領率하는 중견급 지휘관의 임무 역시 대체로 고려의 장수들이 행사하였던 것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5) 金昌謙,「高麗 太祖代 對流移民政策의 性格」『國史館論叢』35, 1991, 210쪽.
66)『高麗史』卷92, 列傳5 庾黔弼 ;『高麗史』卷82, 志36 兵2 鎭戍 참조.
67)『高麗史』卷1, 世家1 太祖 4년 春 2월·夏 4월.
68)『高麗史』卷2, 世家2 太祖 17년 秋 7월.

같다. 유금필과 함께 일리천전투에 참가하여 제번경기를 지휘한 인물로 고려의 장수 官茂와 官憲 등이 언급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상과 같이 유금필의 부대는 경기로 불리우는, 보통의 마군과 달리 전투 능력이 뛰어난 기병들이 주력을 형성하였다. 유금필은 이들 경기들이 지닌 민첩한 기동력과 뛰어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용병술을 발휘하여 매 전투마다 승리하였다. 유금필이 마군장군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기병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920년 초 골암진을 평정한 뒤부터는 북방 번인들의 귀순이 늘어나면서 이민족 출신의 경기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후삼국 통일전쟁이 절정에 달하던 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그 수효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기를 주력으로 하는 유금필의 부대 편성과 용병술에 근간하여 고려는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장수로서의 자질과 군사적 역량

유금필의 생애를 전하는 열전에는 그가 태조 24년(941)에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무장으로서 특출난 자질을 지녔음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즉 "금필은 將略이 있어 사졸들의 마음을 얻었고, 매 출정을 명 받으면 집에 들러 자지 않고 즉시 출발했다"[69]고 한다. 장수로서 지략이 풍부하고, 부하들에 대한 지휘통솔력이 뛰어났으며, 직분에 충실했던 유금필의 무장다운 면모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다. 태조

69)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有將略得士心 每出征受命卽行不宿於家".

왕건으로부터 총애와 대우를 받았던 장수 유금필, 그는 과연 장수로서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지녔던 인물이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그가 지녔다고 하는 '장략'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유금필이라고 하는 장수 개인이 지닌 군사적 역량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의 자질과 역량이 군사들의 전투 의지와 전투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추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유금필 부대가 참가하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략이라고 하면 장수의 '智略' 혹은 '智謀'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금필의 열전에서 언급된 장략은 장수가 지닌 '자질' 혹은 '역량'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지략이나 지모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유금필이 장략이 있어 사졸들의 마음을 얻었고, 장수로서 출정 임무를 사심없이 완수하였다고 하는 기사는 그가 장수로서 지녔던 다양한 자질을 짐작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동양 최고의 병법서로 애독되어온 『孫子兵法』에서는 장수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智·信·仁·勇·嚴을 핵심 덕목으로 꼽고 있다.[70] 『吳子兵法』에서도 장수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다. 오자병법 論將에서는 威·德·仁·勇을 강조한다.[71] 太公望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六韜』에서는 勇·智·仁·信·忠을 장수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제시한다.[72] 비록 중국의 병서에서 강조된 덕목이지만 후삼국전란기에도 이러한 자질들은 장수들 사이에서 중시되어졌음직하다. 왕건이 17세 되던 해에 道詵으로부터 진을 치고 지리의 이로움과 天時를 보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기록은[73] 당대의 장수들이

70) 『孫子兵法』 始計. "將者智信仁勇嚴也".
71) 『吳子兵法』 論將. "然其威德仁勇".
72) 『六韜』 龍韜 論將. "太公曰 所謂五材者 勇智仁信忠也".
73) 『高麗史』 高麗世系. "太祖年十七 道詵復至請見曰 足下應百六之運 生於天府名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누대에 걸쳐 전해져오던 병서들을 입수하여 전략과 전술을 연마하고 자질을 배양하는데 활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의 장수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음직한 병서로는 육도를 들 수 있다. 塩州 출신의 尹瑄이라는 인물은 이를 적절히 설명해준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침착하고 용감하였으며, 특히 육도에 정통하였다고 한다.[74] 윤선은 원래 궁예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궁예의 폭정이 심화되자 북방으로 달아나 鶻巖城을 근거지로 삼고 활동하였다. 그는 주변의 흑수인들을 불러모아 세를 불리고 고려의 국경 지대를 괴롭히곤 하였다. 고려 정부는 북방에서 자주 소요 사태가 발생하던 사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왕건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유금필을 파견하였다. 유금필의 기지에 의해 윤선은 고려에 귀순하였다. 이후 그는 유금필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의 휘하 장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윤선이 유금필의 휘하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육도에 정통하던 그의 병법 지식은 자연스럽게 유금필의 군사지식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뛰어난 무장이었던 유금필은 이 과정에서 육도에서 중시하던 장수의 자질에 주목하였음직하다. 특히 그는 육도에 나오는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실천하고 군사를 지휘통솔하는 원리로 활용하였을 것이다.[75] 결국 이러한 덕목들에 기초하여 발휘된 그의 리더십은 장졸들의 단결심과 전투력을 고양시키고 승전을 도모케 하는데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유금필이 육도에 제시된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실천하였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三季蒼生待君弘濟 因告以出自置陣地利天時之法 望秩山川感通保佑之理".

74) 『高麗史』 卷92, 列傳5 王順式. "尹瑄塩州人 爲人沈勇善騎鈐". 이하 윤선과 유금필의 인적관계 형성 과정은 열전 왕순식 참조.

75) 유금필이 지녔음직한 장수로서의 자질은 육도에 나오는 5개의 덕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당대까지 전승되어 오던 여러 병서에서 제시하는 덕목들 역시 주된 섭렵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윤선의 열전 기록에 근거하여 육도의 덕목에 주목한다.

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의 자질을 실천한 사례를 보자. 이는 930년 정월 고창전투에 임하는 유금필의 전투의지와 실제 전투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난다.

> 12년에 견훤이 古昌郡을 포위하였다. 금필이 이를 구하기 위해 태조를 따라 가 禮安鎭에 이르렀다. 태조가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싸움이 만약에 불리하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대상 公萱과 洪儒가 말하기를, '만약 불리하면 竹嶺을 따라 돌아올 수 없으니 마땅히 미리 사잇길을 닦아둠이 좋을 것입니다.' 금필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무기는 凶器요 싸움은 위급한 일이니 죽자는 마음이 있고 살고자 하는 계책이 없는 후에야 가히 決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에 임하여 싸우지도 않고 먼저 패배할 것을 걱정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구원이 미치지 않는다면 고창 3천여 무리를 고스란히 적에게 주는 것이니 어찌 절통하기 않겠습니까? 신은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태조가 이에 따랐다. 금필이 이에 猪首峯으로부터 분격하여 이를 대파하였다. 태조가 군에 들어가 금필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늘의 승첩은 경의 힘 덕분이다'라고 하였다.[76]

기록을 통해 보듯이, 유금필은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77] 그는 무기는 흉기이고, 싸움은 위급한 일이기 때문에 죽자는 마음이 있고 살고자 하는 계책이 없는 후에야 결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적과 대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6)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十二年甄萱圍古昌郡 黔弼從太祖往救之 行至禮安鎭 太祖與諸將議曰 戰若不利將如何 大相公萱洪儒曰 若不利不可從竹嶺還 宜預修間道 黔弼曰 臣聞兵凶器戰危事 有死之心無生之計 然後可以決勝 今臨敵不戰 先慮折北何也 若不及救 以古昌三千餘衆 拱手與敵豈不痛哉 臣願進軍急擊 太祖從之 黔弼乃自猪首峯 奮擊大破之 太祖入其郡 謂黔弼曰 今日之捷卿之力也".

77) 이도학, 앞의 책, 2015, 320쪽.

하여 싸우지도 않고 패배할 것을 걱정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속히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임해야만 전투에서 승리를 도모할 수 있고, 어렵사리 획득한 고창 지역의 안위마저 보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는 예하 장졸들을 이끌고 저수봉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진하는 용맹스런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후백제군을 대파하는데 앞장섰다. 장수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용기 있게 임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유금필은 '지'를 풍부하게 섭렵한 장수였다. 장수된 자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세와 적·아군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투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전술운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유금필은 전쟁을 기획하고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전략적 식견이 풍부하고 군사들을 운용하는 용병술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던 장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당시 북방에 위치하던 골암진을 평정하던 기록 속에서 잘 나타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태조는 北界 鶻岩鎭이 누차 北狄의 침입을 받자 제장들을 모아 의논하기를, '지금 南兇이 멸하지 않았는데 북적이 가히 우려되니 나는 오매불망 근심하고 있다. 금필을 파견하여 진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모두 '좋다'고 대답했다. 이에 명하니, 금필이 그 날로 開定軍 3천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골암에 도착한 뒤 동쪽 산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였다. 그는 北蕃 추장 300여인을 불러 성대하게 주연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들이 취한 때를 타 추장들을 위협하니 모두 복종하였다. 마침내 사자를 여러 부락에 파견하여 말하기를, '이미 너의 추장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와서 복종하라'하였다. 이에 여러 부락에서 서로 이끌고 來附하는 자가 1,500인이었다. 또 포로 3,000여인을 돌려보냈다. 이로 말미암아 북방이 편안하므로 태조가 특별히 褒奬을 더하였다.[78]

왕건은 후백제를 아직 평정하지 못한 시점에서 수시로 북적들로

부터 침입을 받고 있던 북계의 골암진을 우려하였다. 이에 유금필을 파견하여 진수토록 하였다. 골암진에 도착한 유금필은 동쪽에 위치한 산에 커다란 성을 쌓고 기거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북적들의 분포와 동향 등을 파악한 그는 부락의 대표자인 추장들을 초청하여 酒食으로 대접한 다음 이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복종케 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의 휘하에 있던 무리들 또한 자진하여 항복하도록 회유하였다. 유금필의 기지와 지략으로 고려는 번인들의 도전을 제압하고 북방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금필이 상황 파악 및 권모술수에 능하고 출중한 지략을 지녔던 장수였음을 일깨워준다.

유금필의 뛰어난 지략은 925년 후백제와의 조물성전투에서도 발현되었다. 당시 전투는 후백제의 군사들이 심히 정예로워서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마침 왕건은 견훤이 화친을 요청해오자 그를 병영으로 불러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금필은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가벼이 적과 더불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개진하며 태조를 만류하였다. 결국 견훤과의 화친 논의는 무산되었다.[79] 당시의 전황과 전쟁의 추이, 적장의 의도를 헤아려 대응하는 지략가다운 유금필의 풍모를 살펴볼 수 있다.[80]

유금필은 '인'의 자질을 갖춘 장수였다. 장졸들은 물론 정벌한 지역민들을 인애로 대함으로써 인심을 얻은 인물이었다. 후백제로부터

78)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太祖以北界鶻岩鎭 數爲北狄所侵 會諸將議曰 今南兇未滅 北狄可憂 朕寤寐憂懼 欲遣黔弼鎭之如何 僉曰可乃命之 黔弼卽日率開定軍三千 以行至鶻岩 於東山築大城以居 招集北蕃酋長三百餘人 盛設酒食饗之 乘其醉脅以威酋長皆服 遂遣使諸部曰 旣得爾酋長 爾等亦宜來服 於是諸部相率 來附者千五百人 又歸被虜三千餘人 由是北方晏然 太祖特加褒奬".

79)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太祖與甄萱戰於曹物郡 萱兵銳甚未決勝負 太祖欲與相持以老其師 黔弼引兵來會兵勢大振 萱懼乞和太祖許之 欲召萱至營論事 黔弼諫曰 人心難知 豈可輕與敵相狎 太祖乃止仍謂曰 '卿破燕山任存功旣不細 待國家安定當策卿功'"

80)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諫曰 人心難知 豈可輕與敵相狎 太祖乃止".

나주지방을 탈환하기 위해 수군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태조와 여러 신하들이 나눈 대화에는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 18년에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羅州 경계 40여군은 우리의 藩籬가 되어 오래도록 풍화에 복종해왔다. 일찍이 大相 堅書 · 權直 · 仁壹 등을 보내어 위무하게 하였는데, 근자에 이르러 백제의 劫掠을 당하여 6년 동안이나 海路가 통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위해 이를 안무하겠는가?' 洪儒와 朴述熙 등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용맹하지는 못하나 원컨대 한 장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무릇 장수로 삼는 자는 인심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公萱과 大匡 悌弓 등이 아뢰기를, '금필이 마땅합니다.' 태조가 말하기를, '나 역시 이미 그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근자에 신라의 길이 막혔을 때 금필이 가서 그것을 통하게 하였는데, 나는 그 수고를 생각하니 감히 다시 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금필이 말하기를, '신의 나이가 이미 늙었으나 이는 국가의 대사인데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태조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경이 만일 명을 받는다면 어찌 이보다 기쁜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都統大將軍으로 삼아 예성강까지 가서 송별하였다.[81]

935년(태조 18), 왕건은 후백제에게 빼앗겼던 나주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적 방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장수를 천거토록 하였다. 왕건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 주목한 덕목은 '인'이었다. 부하들과 현지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장수가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왕건이 "무릇 장수로 삼는 자는 인심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왕건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훤과 제궁은 유금필을

81)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十八年 太祖謂諸將曰 羅州界四十餘郡 爲我藩籬 久服風化 嘗遣大相堅書權直仁壹等 往撫之 近爲百濟劫掠 六年之間 海路不通 誰爲我撫之 洪儒朴述熙等曰 臣雖無勇 願補一將 太祖曰 凡爲將貴得人心 公萱大匡悌弓等奏曰 黔弼可 太祖曰 予亦已思之 但近者新羅路梗 黔弼往通之 朕念其勞 未敢再命 黔弼曰 臣年齒已衰 然此國家大事 敢不竭力 太祖喜垂涕曰 卿若承命 何喜如之 遂以爲都統大將軍 送至禮成江".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유금필이 적임자라는 사실은 왕건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금필이 왕건을 비롯한 신료들 사이에서 군사들과 인민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 장수로 널리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유금필이 지닌 후덕한 인심과 타인들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은 후백제로부터 오랫동안 劫掠을 받아왔던 나주 지역민들의 민심을 고려 정부로 향하게 하는 한편, 위무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유금필은 '신'의 자질을 갖춘 장수였다. 예하 장졸들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과 신뢰, 의리가 깊었던 인물이었다. 정남대장군에 임명된 932년에 후백제의 신라 경주 침략을 막기 위해 장사 80명으로 선발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한 기사 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금필이 壯士 80명을 선발하여 그곳에 이르렀다. 槎灘에 도착하여 사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여기에서 적과 만나면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이 함께 희생당할 것이 염려되니 각자 살 계획을 마련함이 좋겠다' 하였다. 사졸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죽으면 죽었지 어찌 장군만을 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한마음으로 적을 공격할 것을 맹세하였다. 사탄을 건너 백제의 統軍 神劍 등과 조우하였다. 금필이 싸우고자 하였으나, 백제군이 금필의 부대가 대오가 정예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흩어져 도망하였다.[82]

이 기사에 주목되는 부분은 사탄에 도착한 뒤 유금필과 선발된 장사 80명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유금필은 적과 조우시 자신이

82)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選壯士八十人赴之 至槎灘謂士卒曰 若遇賊於此 吾必不得生還 但慮汝等同罹鋒刃其 各善自爲計 士卒曰 吾輩盡死則已 豈可使將軍獨不生還乎 因相與誓同心擊賊 旣涉灘遇百濟統軍神劍等 黔弼欲與戰 百濟軍見黔弼部伍精銳 不戰自潰而走 黔弼至新羅".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사졸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에게 각자 살 길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를 따랐던 사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자신들이 같이 죽으면 죽었지 장군만을 홀로 희생당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사졸들의 충정어린 결사 의지에 감동을 받은 유금필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적과 싸울 것을 맹세하고 진군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후백제 신검군의 도전을 물리치고 경주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유금필 열전에 열거된 기록 중에서 영웅적이며 미화된 색채가 강한 기록이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 유금필과 장졸들간에 형성되었던 믿음과 신뢰의 깊이를 헤아려볼 수 있다.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여 부대를 운영하고, 사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전장을 누비던 유금필의 장수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유금필은 고려 왕조와 왕건을 위해 '충'을 실천한 장수였다. 그가 죽은 뒤에 내려진 忠節이라는 시호는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후삼국 통일전쟁 기간 동안 수행된 여러 군사활동을 통해 보더라도 그가 충절을 다바친 장수였음은 뚜렷이 입증된다. 특히 931년 곡도 유배기에 벌인 군사활동은 충절의 표상으로 삼기에 적절한 사례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4년에 참소를 당하여 鵠島에 유배되었다. 이듬해에 견훤이 海軍將 尙哀 등으로 大牛島를 공략하게 하였다. 태조가 대광 萬歲 등을 보내어 구하게 하였으나 불리하였다. 태조가 이에 근심하니 금필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비록 죄를 입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바다 고을들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本島와 包乙島의 丁壯들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고 또한 전함을 수리하여 방어케 하였으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태조가 글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참소를 믿고 어진 사람을 내쫓은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사자를 보내어 소환하고

위로하며 말하기를, '경은 실로 무고함에도 귀양을 살게 되었건만 일찍이 원망하거나 분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보위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자손에 이르기까지 상을 연장하여 경의 충절에 보답하고자 한다' 하였다.[83]

유금필은 태조 14년(931)에 중앙의 정치세력들로부터 참소를 당하여 곡도에 유배되었다. 유금필이 유배에 처해 있던 시기는 후백제의 수군들이 大牛島[84]를 포함한 서해 중북부 해역을 공략하면서 고려를 압박하던 시기였다. 유금필은 비록 유배중인 상황이었지만 고려에 대한 충절을 저버리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여 자신이 유배중이던 곡도와 인접한 包乙島(대청도)의 丁壯들을 선발하여 군대에 충원하였고, 파손된 전함을 수리하여 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유금필이 이와 같은 조치를 담은 상소문을 올리자, 왕건은 무고한 귀양살이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보위할 생각에 전념하였다고 위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다시금 기용하였다.

유금필의 충절은 이듬해 신라의 경주 구원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하던 중 子道에서 만난 神劒軍을 격파한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왕건은 유금필이 이룩한 공적을 두고 "경의 공은 옛날에도 또한 드문 일이니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83)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十四年 被讒竄于鵠島 明年甄萱海軍將尙哀等 攻掠大牛島 太祖遣大匡萬歲等往救不利 太祖憂之 黔弼上書曰 臣雖負罪在貶聞 百濟侵我海鄕 臣已選本島及包乙島丁壯 以充軍隊 又修戰艦以禦之 願上勿憂 太祖見書泣曰 信讒逐賢是予不明也 遣使召還慰之曰 卿實無辜見謫 曾不怨憤 惟思輔國 予甚愧悔庶 將賞延于世 報卿忠節".

84) 대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龍川郡 山川의 기록에 근거하여 평안북도 용천군에 위치한 섬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015, 481~482쪽에 소개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에 위치한 대우도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기왕의 견해와 비판적 검토는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해양쟁패전」 『한국중세사연구』 47, 2016, 277~279쪽에 자세하다.

러나 유금필은 이를 사례하며, “어려움에 처하여 사사로움을 잊고,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일 따름입니다”라며 장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본분임을 강조하였다.[85] 신하된 자로서 국왕에게 절개를 바치고, 사사로움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충’을 실천한 장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금필은 후삼국전란기에 전해지고 있던 병법서를 통해 장수로서 갖추어야 자질을 습득하였다. 그가 학습하였음직한 대표적인 병서는 육도였다. 그는 육도에서 장수의 자질로 강조하던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중시하고 실천하였다. 그가 수행한 수많은 군사활동 속에는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한 사례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난다. 유금필이 장수로서 지녔던 자질은 그 자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부대를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갖춘 장수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은 휘하의 중견급 장수들은 물론 말단의 병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유금필이 육도의 덕목을 통해 습득한 장수로서의 자질을 실천하였던 것처럼 그의 휘하에 있던 장졸들 역시 용·지·인·신·충의 덕목을 연마하고 실천하였을 것이다. 유금필의 이러한 노력은 구성원들의 사생관과 국가관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결집력과 사기, 전투력을 드높여주는 가운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5) 『高麗史』 卷92, 列傳5 庾黔弼. “黔弼留七日 而還遇神劍等於子道 與戰大克 擒其將今達奐弓等七人 殺獲甚多 捷至太祖驚喜曰 非我將軍孰能如是 及還太祖下殿迎之 執其手曰 如卿之功古亦罕 有銘在朕心 勿謂忘之 黔弼謝曰 臨難忘私 見危授命 臣職耳 聖上何至如斯 太祖益重之”.

5. 맺음말

유금필은 평주 출신으로 패강진의 군진세력에서 호족으로 성장한 가문의 후예였다. 그의 선대는 본래 고창군 무장면 무송현에 토착하던 가문이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에 패강진이 설치되면서 평산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번성하였다. 유금필은 궁예가 패서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오자 자연스럽게 그 정권에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유금필이 궁예정권하에서 활동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그의 본격적인 활동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던 918년 이후부터 나타난다.

유금필은 고려가 건국된 이후 수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벌인 군사활동은 고려가 건국되는 918년부터 후삼국이 통일되는 936년까지 크게 5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조물성전투, 고창전투, 운주전투, 일리천전투 등 후삼국 전쟁의 정세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상전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군이 주도한 나주지역 탈환 작전과 후백제왕 견훤의 호송 작전에도 참가하여 수훈을 세웠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금필이 참가한 전투에서 승리할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의 부대를 굳센 기병력을 자랑하는 '경기' 중심의 군사들로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들 경기는 민첩한 기동력과 우수한 무장력, 강력한 돌파력, 다양한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는 전술 구사능력을 두루 갖춘 기병들이었다. 이들은 개별 전투원의 역량은 물론 조직적인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유금필 부대의 경기들은 고려가 건국되던 초창기에는 고려의 기병들이 다수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전투 양상이 격화되고, 북방 이민족들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이들이 다수를 구성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유금필은 이들로 구성된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중견급 지휘관의 임무 역시 대체로 고려의 장수들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말단의 단위부대를 영솔하는 지휘관의 임무는 이민족 출신의 인물들이 담당하기도 하였다.

경기의 우수한 전투력과 함께, 유금필이 지닌 장수로서의 뛰어난 자질도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고려사』 열전에는 그가 장략을 지닌 인물로 사졸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가 장수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학습한 병서는 육도였다. 그는 육도에서 제시한 용 · 지 · 인 · 신 · 충의 덕목을 중시하고 실천하였다. 그가 지휘한 주요 군사활동에는 이러한 덕목을 실천한 사실들이 생생하게 전한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영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수로서 그가 습득한 자질은 예하 장졸들에게 전수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장졸들 역시 그가 중시한 용 · 지 · 인 · 신 · 충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결국 유금필과 그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원고투고일: 2017.1.10, 심사수정일: 2017.2.15,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명장(名將),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경기(勁騎), 장략(將略), 용병술(用兵術), 육도(六韜)

<ABSTRACT>

Yoo Kum-Pil whose posthumous name was Chungjeolgong, Great Commander of the Koryo Dynasty

Shin, Seong-Jae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life and military activities of Yoo Kum-pil, Koryo dynasty's great general who fulfilled the highest achievement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In this paper, major focus was laid on his tactics and the qualities as a commander based on Yoo's military operations in warfare.

Yoo Kum-pil was from Pyeongju region, being a descendant of Paekangjin power clan. His ancestors originally were native to Kochang area, but moved to Pyeongsan locality when Paekangjin military post was established in late 8th century. Yoo family then prospered with the new clan base. When 'Gungye', who was the leader of older Koguryo region, expanded its power onto Paeseo zone, Yoo Kum-pil swore allegiance to Gungye regime and started his career there. However, it was only after Wang Kun founded Koryo that Yoo's real reputation began to be known.

Yoo Kum-pil took part in numerous battles and triumphed over everytime. His military operations between 918, when Koryo was founded, and 936, the year of the unification, could be divided into 5 phases. Yoo's martial prowess reached its greatest height during the battles of Jomul fortress, Kochang, Oonju, and Ilicheon. Moreover, Yoo also was given credit for the naval retaking of Naju and participating in Gyeonhweon's escape to Koryo.

Yoo Kum-pil's invincibility lied in his ability to organize his troops into strong cavalry(勁騎), which excelled in mobility, superior armament, mighty breakthrough power, and flexible use of tactics. Such talents were well displayed in individual as well as group combats.

During the times when Koryo was just established, Koryo men were the majority in the cavalry. However, the influx of northern people outside of the borde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creased as the unification war intensified. They soon formed the biggest group of Koryo horsemen. Yoo Kum-pil assumed the highest command of this troop, as well as commanders of the main body going to Koryo generals. However, foreign officers were in charge of minor unit forces.

Along with outstanding cavalry performance, Yoo Kum-pil's personal military genius could also be attributed to his victorious career. In the biographies section of History of Koryo, documents show Yoo being a 'general strategy(將略)', earning respect from his men. The book of military strategy that Yoo studied to enhance his capabilities was Six Secret Teachings(六韜). He treasured and practiced the virtues of bravery(勇), intelligence(智), benevolence(仁), trust(信), and loyalty (忠) from this treatise. Yoo clearly applied the teachings of this book to his major military activities. Since he was the highest commander of the army, Yoo's men also learned of his taught qualities, which in turn had significant effects in many aspects. Yoo's generals and soldiers eagerly followed their general in terms of realizing six virtues as well. Thus, much endeavors of Yoo Kum-pil and his army personnel ultimately worked as a driving force for Koryo to unify the Three Kingdoms.

Key words : great general, Chungjeolgong, Yoo Kum-pil, invincible cavalry, general strategy, tactics, Six Secret Teaching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정동민*

1. 서론
2. 고구려－漢·공손씨·부여·魏·왜 전쟁사
3. 고구려－수·당 전쟁사
   가.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 연구
   나. 고구려－수·당 전쟁의 군사 관련 연구
4. 고구려의 군사와 방어 관련 연구
5. 결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서론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수의 국가와 부족들이 출현하고 사라져 갔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는 700여년간 군림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확립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출현했던 국가 및 부족과 외교를 통해 평화롭게 교섭을 하기도 하였으나,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고 합의를 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출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에는 전쟁을 중재자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고구려는 주변 국가 및 부족과 끊임 없이 전쟁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고구려 전쟁사는 학계의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학계는 고구려에 대해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으로 간주하면서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인식은 고구려 전쟁사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중국 왕조와 고구려의 충돌에 대해서 중원 왕조와 지방 정권과의 충돌로 간주하고, 양국 간의 전쟁을 대외 전쟁이 아닌 대내적 통일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인식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는 조공－책봉을 통한 신속 관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전쟁 수행 과정이 부각될 경우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이 드러남으로써,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그들의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렇다면 반대로 전쟁사 연구를 통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고구려의 강성함을 부각시킨다면, 고구려가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구려 전쟁사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쟁사는 크게 전쟁의 원인, 배경, 성격, 전쟁 당사자 간의 관계 혹은 주변 집단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연구와 전략, 전술, 무기체계, 방어 체계 등 군사 관련 등을 파악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이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이인철, 「중국학계의 고구려 사회경제 및 대외관계 분야 연구동향 분석」,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2004, 190쪽.
2)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동북공정이 종료된 2007년 이후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새로운 견해나 주목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분석해 보면서, 고구려 전쟁사와 관련한 중국 학계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고구려 – 漢·공손씨·부여·魏·왜 전쟁사

고구려는 건국 후~수·당 전쟁 이전, 즉 7세기까지 다양한 국가 및 부족과 전쟁을 치루었다. 3세기대까지 고구려는 漢·魏·공손씨 등 중국 세력과 부여를 제외하면 말갈,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 선비, 양맥, 개마국, 동옥저, 조나, 주나, 부산적, 숙신 등 주로 부족이나 작은 소국들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다가 4세기~5세기 초반에는 주로 전연 및 후연과 전쟁을 치루었고,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에는 주로 백제 및 신라와 전쟁을 치루었다.

이렇게 7세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다양한 집단들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이 당시 고구려의 전쟁을 다룬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데, 漢[3]·공손씨[4]·부여[5]·魏[6]·왜[7] 사이와의 전쟁을 다룬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8, 신구문화사, 2014, 10쪽.

3) 趙紅梅, 「玄菟郡經略高句麗」, 『東北史地』2007-5, 2007 ; 呂文秀, 「兩漢時期的高句麗-高漢爭遼的研究」, 『新課程學習(中)』2014-4, 2014.

4) 孫煒冉, 「遼東公孫氏征伐高句麗的原因分析」, 『通化師範學院學報』2015-6, 2015a.

5) 趙欣, 「夫餘與高句麗的關系探略」, 『東北史地』2009-6, 2009 ; 劉洪峰, 「高句麗與夫餘軍事關系探析」, 『白城師範學院學報』2013-4, 2013 ; 劉子敏, 「也談大武神王伐扶餘」, 『東北史地』2008-3, 2008.

6) 周向永, 「何處梁口」, 『東北史地』2007-3, 2007.

7) 孫煒冉, 「五世紀的麗倭戰爭述論」, 『東北史地』2014-3, 2014.

먼저 고구려와 漢 사이의 전쟁을 다룬 연구를 보면, 전쟁 자체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趙紅梅는 고구려와 현도군과의 충돌 과정을 나열하면서, 현도군의 위치 및 고구려와 현도군과의 관계 등을 서술하였다. 그는 제2 현도군내 高句麗縣의 관할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는데, 현도군의 통제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현도군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제3 현도군시기에도 고구려가 현도군에 대해서 배반과 귀속을 거듭하였지만 결국은 현도군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兩漢시기부터 위진남북조시기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계속해서 현도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8]

呂文秀 또한 고구려와 漢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투 상황을 기술하면서, 漢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형에 의지하여 승리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는 漢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여전히 漢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9] 趙紅梅와 呂文秀 모두 고구려와 漢과의 충돌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여전히 漢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구려에 대해 각각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 정권", "'兩漢 변경 지역의 封國이면서 소수 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자신의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197년 고구려와 공손씨와의 충돌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공손씨가 충돌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孫煒冉은 『삼국지』에서 제기한 원인 가운데 "도망 온 胡 5백여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기록에 주목하고, "도망 온 胡"에 대해서 중국사서에서 '胡'가 초원

8) 趙紅梅, 2007, 앞의 논문, 35~39쪽.
9) 呂文秀, 2014, 앞의 논문, 1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목 민족을 가리키고, 공손씨로 대표되는 후한 왕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184~189년 張純·張擧의 반란에 참전했던 烏桓의 세 부락과 蹋頓"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10] 그동안 공손씨의 고구려 공격 원인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거하여 고구려 내부의 발기와 연우 간 왕위 다툼 개입과 연관시켰는데, 幽州의 정치 동향과 연관시켜 고구려의 공격 원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烏桓의 세 부락과 蹋頓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왕위 계승 초기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공손씨와의 충돌 가능성을 무릅쓰고 굳이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 그리고 고구려가 그들을 받아 들인지 거의 10여년이 지나서야 공격한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와 부여의 전쟁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부여의 전투 과정, 고구려와 부여의 군사 관계 및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고구려의 부여 진군로 등이 소개되었다. 趙欣은 고구려와 부여 간의 전쟁에 대해서 사료 그대로 서술하였고,[11] 劉洪峰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양국 간의 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양국간 군사 관계의 특징과 고구려가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는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 – 부여가 고구려를 주도적으로 공격한 단계 – 고구려가 부여를 주도적으로 공격한 단계 – 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한 단계 등 4단계로 파악하였다. 고구려가 부여를 압도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부여의 노예제 사회가 빠르게 몰락하였다는 점, 부여에 의해 억압과 탈취를 당했던 여러 민족이 고구려를 지지하였다는 점, 부여가 평원이 많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 孫煒冉, 2015a, 앞의 논문, 12~14쪽.
11) 趙欣, 2009, 앞의 논문, 75쪽. 그는 부여의 멸망을 두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하면서 부여사가 중국에 귀속된 역사임을 표명하였다.

반면 고구려는 산이 많아서 전쟁에 유리하였다는 점, 부여인은 노략질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고구려인은 흉폭하고 노략질을 좋아했다는 점, 그리고 모용선비 침입에 따른 타격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 등을 들었다.[12] 趙欣과 劉洪峰의 연구는 고구려와 부여의 충돌에 대해서 사료 내용을 단순하게 시간 순으로 기술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劉洪峰이 제기한 고구려가 부여를 압도한 요인으로 기질의 차이 등으로 보는 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다.

劉子敏은 張福有 · 孫仁傑 · 遲勇 등이 「集安古道新發現兩通石碑」에서 언급하였던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과 관련한 견해를 비판하면서,[13] 21~22년 대무신왕의 부여 진군 노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먼저 고구려군이 출발한 尉那巖城에 대해 중국 길림성 集安에 위치한 覇王朝山城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沸流水를 따라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라는 기사에서 沸流水를 부이강, 부여국 남쪽을 지금의 遼源 · 磐石 · 樺甸 일대로 보았다. 그러면서 대무신왕이 진군한 노선에 대해서는 富爾江 – 一統河 – 輝發河로 보았다.[14]

正始 연간(240년~248년)에 일어난 고구려와 魏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전장이었던 '梁口'의 위치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周向永은 '梁口'에 대해서 太子河의 옛 명칭인 '梁水'와 관련시키면서 '梁口'의 '口'가 '河口' 혹은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일 것이라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 '梁口' 대신 '梁貊之谷'이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口'의 의미를 '육상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파악하면서 '梁口' 즉 '梁貊之谷'을 '양맥이 사는 골짜기'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梁口'의 위치에 대해서는 小水貊의 거주 지점과 같고 고구려 중심구역에서 漢魏西安平 · 遼東郡城

12) 劉洪峰, 2013, 앞의 논문, 49~50쪽.
13) 張福有·孫仁傑·遲勇, 「集安古道新發現兩通石碑」, 『東北史地』2008-1, 2008.
14) 劉子敏, 2008, 앞의 논문, 29~3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금의 요령성 寬甸 부근 蒲石河 상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15]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고구려와 왜의 충돌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왜의 충돌 과정과 전쟁에 따른 왜의 대외 정책 변화, 그리고 전쟁의 영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孫煒冉은 왜의 대화조정이 일본 본토를 통일하기 전인 신공황후때부터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였고, 백제와의 연합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도중에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고 서술하였다. 이 때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왜"의 실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전투를 벌였고 신라를 위기에 몰았던 점 등을 들어 단순한 해적이 아닌 왜국 혹은 왜국을 수장으로 받아들인 정치세력에서 파견한 군대로 보았다. 그리고 연이어 고구려에 패배하면서 중국 왕조의 권위를 빌어 조선을 통제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대조선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 왕조에게 '都督 6개국' 혹은 '7개국의 모든 軍事' 칭호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16]

그는 기본적으로『삼국사기』신라본기 초기 기사,『일본서기』,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의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신빙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특히『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왜가 백제 및 신라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고 보면서 삼국과 왜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학계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개토대왕릉비〉 丁未年(407년) 기사의 고구려가 보기 5만명을 보내 격파하였던 대상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는 백제[17]나 후연[18]으로 보고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그는 아무런 부연 설명

15) 周向永, 2007, 앞의 논문, 36~38쪽.
16)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30~33쪽.
17) 서영수,「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역사학보』119, 1988, 117쪽 ; 이도학,「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전쟁 기사의 분석」,『고구려연구』2, 1996, 761쪽 ; 여호규,「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대중인식과 대외정책」,『역사와 현실』55, 2005, 2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없이 그 대상을 '왜'라고 단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다. 그리고 왜가 삼국에 대해 '전통적인 대조선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19] '전통적인 대조선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고구려 – 수·당 전쟁사

7세기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백제 및 신라와 전쟁을 치루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에서 수·당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다. 이 가운데 고구려 – 수·당 전쟁은 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던 대규모 전쟁이었던 만큼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 성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고구려 – 수·당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서술한 연구와 전쟁에 보이는 전략·전술·무기·방어체계 등 군사와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육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8) 천관우, 「廣開土王陵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546~555쪽 ; 임기환,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 『고구려연구』2, 1996, 773~774쪽 ;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연구원, 2000, 196~198쪽 ; 문상종, 「광개토왕릉비 영락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5, 2001, 233쪽.

19)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33쪽.

가.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 연구

고-수·당 전쟁의 원인 혹은 성격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수·당 전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였다.[20] 고구려-수·당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서 크게 전쟁 당사자국 사이의 관계나 전쟁 당사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찾는 견해, 그리고 전쟁 당사자국의 정치 동향이나 변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21]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주로 전자에서 찾고 있다.

먼저 고구려-수 전쟁의 촉발점이 되었던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에 대해서 차후 수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교전지역을 좀 더 서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목적에서 일으켰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22] 즉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전쟁에 대한 고구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 속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고구려가 많지 않은 군사를 동원하였고 사료에 구체적인 전투 과정과 사상자에 대한 기록 없이 단순히 승전하였다는 기록만 있다는 점을 들어 작은 충돌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3] 하지만 의도적으로 말갈족을 대거 전투에 참전시킨 점, 동원된 1만여 기가 그리 적지 않은 병력수

20) 薑明勝, 「隋唐餘高句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 석사논문, 2008 ; 金金花, 「試析隋朝與高句麗關系由"和"到"戰"變化的原因」, 『黑龍江史志』2009-3, 2009 ; 劉軍, 「地緣政治視野下的隋唐征高句麗之戰」, 『黑龍江史志』2009-2, 2009 ; 劉琴麗, 「碑志所見唐初士人對唐與高句麗之間戰爭起因的認識」, 『東北史地』2012-1, 2012 ;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2014-5, 2014 ; 董健, 「試析隋朝首次東征高句麗之原因」, 『通化師範學院學報』2015-11, 2015a ; 祝立業, 「唐麗戰爭期間麗倭交往述析」, 『北方文物』2015-1, 2015a ; 祝立業, 「唐麗戰爭期間的麗倭關系」, 『陝西學前師範學院學報』2015-2, 2015b ; 張豔, 「朝貢關系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報』2015-6, 2015b.

21)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8쪽.

22)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8쪽.

23) 董健, 2015a, 앞의 논문, 15쪽.

라는 점, 전투 이후에 수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고구려의 왕인 영양왕이 직접 전투에 지휘하였다는 점 등에서 단순한 공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 – 수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董健은 고구려 – 수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역사적 원인으로는 '故疆의 회복', 현실적 원인으로는 풍부한 부를 바탕으로 한 영역 확장 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수 문제의 경고 무시 등을 들었다.[24] 金金花는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조공 – 책봉 관계를 맺고 신속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냄으로써 수문제가 불만을 품었고, 수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 재건을 위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25]

張豔은 조공 관계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漢시기부터 북위가 중국 북방을 통일하기 전까지 중원 왕조와 고구려의 관계를 번속 관계로 설정하고 정치 예속이 강한 중앙과 지방 간의 조공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러다가 후한 이후 중국 대륙이 장기간 분열된 정세 속에서 요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고구려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치 예속성이 약한 조공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바로 이때 중원 왕조가 고구려에 대해서 '독립된 변강 민족 국가'로 인정하였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써 태무제가 '고구려왕'으로 봉할 사례를 들었다. 그런데 수·당 통치자들이 예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던 大一統 사상과 고구려의 땅이 漢군현이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고구려가 '독립된 변강 민족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는 고구려왕에 대해 수문제가 '遼東郡公', 당고조가 '遼東郡王'이라고 부른 사례를 들었다. 즉 수와 당은 고구려를 중국의 郡과 같은 지위로 보면서 북위때와 다른 조공관계

24) 董健, 2015a, 앞의 논문, 15쪽.
25) 金金花, 2009, 앞의 논문, 31~3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를 원했고, 반면 고구려는 수·당 시기에도 여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 예속성이 약한 중외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26]

祝立業은 고구려－당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옛 강역에 대한 회복, 전왕조의 복수, 후대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과 더불어 종주국의 권위를 유지하고 '天可汗'의 지위를 견고히 하여 실질적인 동아시아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보았다.[27] 劉軍은 수·당 통치자들이 고구려를 중원 왕조의 군현으로 보면서 고구려 정벌을 중원 왕조 통일의 일환으로 보았고, 고구려가 강력한 地緣 실체로 등장하면서 사전에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수·당 제국이 중심이 되는 조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구려－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보았다.[28]

한편 劉琴麗는 당 초기 士人들의 묘지명과 『唐大詔令集』에 수록된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 등에 드러난 전쟁 원인을 비교하고, 당 초기 士人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 초기 士人들은 전쟁의 원인으로 주로 당의 휴전 제안에 대한 고구려의 거부, 고구려의 신라 공격, 고구려의 미복속 등을 인식하였고, 일부는 고구려의 변경지역 군사시설 축조, 고구려의 내란 및 고구려인에 대한 동정심 등을 인식하였다고 한다. 반면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 등에서는 고구려의 내란과 신하가 군주를 죽인 점, 당의 말을 듣지 않고 신라를 공격한 점, 신라의 구원, 고구려가 변경에 군사 시설을 완성한 점, 연개소문의 잔혹한 통치로 고구려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士人들이 전쟁 원인에 대해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와 일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6) 張豔, 2015, 앞의 논문, 113쪽.
27)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117쪽.
28) 劉軍, 2009, 앞의 논문, 31~32쪽.

유는 士人들이 조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士人들의 묘지명에 드러난 전쟁의 원인인 '고구려의 미복속'은 士人들의 독립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짙은 중화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고구려가 당이 건립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따르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29] 그의 연구는 기존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唐대 士人들의 묘지명과 『唐大詔令集』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대체로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으로서 고토의 회복,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유일한 미복속국의 정벌을 통한 중원 왕조 통일의 완성, 고구려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도모에 대한 반발, 정치 예속성이 강한 조공관계 회복, 중화책봉 체제의 동요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신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에서 찾거나,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견해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중국 학계에서도 수양제의 자만과 영토 팽창에 대한 욕심,[30] 정통성 확보에 따른 절대 황제권의 실현[31] 등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武川鎭 출신 군벌의 전쟁 욕심 및 권력 유지,[32] 남조계 군대의 축출,[33] 수양제에 아첨하는 집단들의 부추김[34] 등을 제기하는 등 중국 내부의 정치적 동향에서 찾거나, 동북아시아와 남조까지 포괄하는 고구려 중심의 교역망 장악[35]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9) 劉琴麗, 2012, 앞의 논문, 15~19쪽.
30) 『수서』권4 本紀 제4 煬帝 논찬.
31) 楊秀祖, 「隋場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通化師院學報』1996-1, 1996, 50쪽.
32) 宮崎市定, 『隋の煬帝』, 中央公論社, 1987.
33) 山崎宏, 「隋朝官僚性格」, 『東京教育大學教文學部紀要』6, 東京大學出版部, 1965.
34)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1993.

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중국 학계를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에 대해 주로 신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과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모습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동향을 보았을 때, 다음의 연구 성과들이 주목된다. 董健은 598년 수의 고구려 공격에 대해서 고구려의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도발의 중심에 당시 고구려의 집정자로 추정되는 淵子遊가 있었다고 보았다. 즉 淵子遊는 수와의 충돌을 통해 강력한 수에 대항하는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명망을 높이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진 고구려 귀족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36] 비록 그의 견해가 명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 아니고, 추론에 추론을 더하면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고구려－수 전쟁 원인에 대해 고구려 내부 동향에서 찾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董明勝은 고구려－수·당 전쟁이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강구하고 수·당과 동등한 대국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두 독립된 정치 실체 사이에서 국가 이익이 충돌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장기간 존재하였고 자신만의 정치·경제·토지·군사 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외교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통치 구역에 대한 임명·형벌 등에 대해 중원 왕조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수 민족이 세운 정권과는 다른 독립된 정치적 실체였

35) 김창석, 「고구려·수전쟁의 배경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15, 2007, 133쪽.
36) 董健, 2015a, 앞의 논문, 14~1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학계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전쟁의 성격도 '통일과 분열의 대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37] 그의 이러한 견해는 연변대학 석사 논문에서 제기한 것인데, 연변대학의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 – 당 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祝立業은 당이 종주국의 권위를 유지하고 '天可汗'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서 고구려 – 당 전쟁을 "동아시아 질서 구축의 실질적인 서막"으로 파악하였다.[38] 그는 고구려 – 당 전쟁 기간 동안의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連橫之勢'를 실현하여 전략적으로 당과 맞서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반면 왜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천하 질서 구현을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릉비〉의 신묘년 기사를 참고하면서, 왜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는 왜가 당과 전투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한반도를 200여년 간 경영하면서 얻은 성과를 지키고 당이 구축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천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고, 백강 전투에 대해서는 당과 왜 간의 '천하 질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39]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신묘년조에 대한 기존의 중국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1920년대 劉節이 일본 관학의 영향을 받아 백제와 신라가 왜에 同附하였다고 본 바 있다.[40] 하지만 1980~1990년대 연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7)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7~8쪽.
38)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116쪽~120쪽.
39) 祝立業, 2015a, 앞의 논문, 60~63쪽 ; 2015b, 앞의 논문, 95~98쪽.
40) 劉節, 『好太王碑考釋』, 1928(서영수, 「신묘년기사의 변상과 원상」, 『고구려연구』2,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왜'에 대해서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자들'이라고 보고, 신묘년조의 주어에 대해서는 '왜'로 보고 있지만, 왜가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는 설은 인정하지 않았다.[41] 王健群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왜의 백제·신라 침략은 北九州 일대의 일부 약탈자들이 무리를 지어 해적처럼 한반도 남부를 침입한 것이고, "以爲臣民"하였다는 기록은 일시적으로 굴복시킨 것일 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배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42] 劉永智 또한 왜가 한반도 남쪽을 경영하였다는 설은 신화적인 색채가 짙고, 문헌 기사와 비문 기사 사이에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기사는 비문의 작자가 과장한 언사로, 불평등 무역 관계나 특정한 시기의 임시적 타협·굴복·종속으로 보았다.[43] 즉 祝立業은 중국 학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이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은 한국 학계는 물론 일본 학계에서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그의 연구 성과를 보면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이러한 동향을 알고도 자신의 견해로써 표출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고구려－수 전쟁이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후대의 중원 통치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고구려－수 전쟁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중원 왕조의 통치자들이 고구려－수 전쟁을 거울삼아 주변 국가에 대해 경솔하게 출병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천년간 변경 지역이 교착됨으로써 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6, 396쪽에서 재인용).

41) 徐建新, 「中國學界에서의 高句麗好太王碑 碑文과 拓本 硏究」, 『고구려연구』2, 1996, 97쪽.

42) 王健群, 「廣開土王碑文中 "倭"의 實體」, 『고구려연구』2, 1996, 447쪽.

43) 劉永智, 「好太王碑의 發見과 釋文硏究」, 『고구려연구』2, 1996, 279쪽.

경 밖으로는 수많은 신흥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았다.[44]

나. 고구려-수·당 전쟁의 군사 관련 연구

전쟁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주제는 전략·전술·무기 체계·방어 체계 등 군사와 관련한 주제일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수·당 전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 성과는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로써 연구 방향을 넓혀 가고 있는데, 고구려-수·당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략·전술을 통한 고구려의 승리 요인 및 수·당의 패배 요인,[45] 수군과 당군의 병참 지원 모습,[46] 당의 水軍 운용,[47] 군대의 진군로,[48] 전쟁과 관련된 지명 및 성에 대한 위치 비정,[49] 전쟁을 이끌어간 인물 분석,[50]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당군이 끌고 간 고구려인의 수,[51] 고구려-당 전쟁 후 營州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 무인 집단[52] 등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

44) 呂蕾, 「隋煬帝征伐高句麗失敗原因及其影響探析」, 『蘭台世界』, 2014, 138쪽.
45) 王春強, 「隋唐五代時期幽州地區戰爭與軍事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 董明勝, 2008, 앞의 논문 ;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 『文史春秋』 2008-9, 2008 ; 天行健, 「隋唐爲何一定要征服高句麗」, 『工會博覽(下旬刊)』 2012-6, 2012 ;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爲何屢屢失敗」, 『時代青年』2013-9, 2013 ; 呂蕾, 2014, 앞의 논문 ; 董健, 「楊諒東征高句麗失敗原因探析」, 『東北史地』2015-4, 2015b.
46)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47)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戰略」, 『史林』2011-4, 2011.
48) 崔豔茹, 「貞觀十九年唐軍攻打高句麗建安城的進軍路線考」, 『東北史地』2012-1, 2012.
49) 馮永謙, 「武厲邏新考(上)」, 『東北史地』2012-1, 2012a ; 馮永謙, 「武厲邏新考(下)」, 『東北史地』2012-2, 2012b ; 張士尊·蘇衛國, 「高句麗"安市城"地點再探」, 『鞍山師範學院學報』2013-03, 2013.
50) 孫煒冉, 「乙支文德考」, 『通化師範學院學報』2015-7, 2015b ; 劉炬, 「試論"安市城主"」, 『東北史地』2011-5, 2011 ; 華陽, 「論李勣東征事跡考」, 『黑河學刊』2012-11, 2012.
51) 趙智濱, 「唐太宗親征之役高句麗人移民內地人數考」, 『通化師範學院學報』2015-5, 2015.
52) 張春海, 「試論唐代營州的高句麗武人集團」, 『江蘇社會科學』2007-2, 2007.

고구려－수·당 전쟁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 연구 성과를 보면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나열하는 등의 평면적이고 개설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한정적인 사료에서 소략한 기록만을 인용·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수 전쟁에서 고구려의 승리 요인 혹은 수군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수군의 자만심,[53] 수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저항,[54] 지형 및 기후 등의 불리로 인한 원활한 치중 운송의 실패[55] 및 수군의 부적응,[56] 수양제의 지나친 개입 등 지휘 체계의 문제,[57] 대규모 병력 운용에 대한 미숙,[58] 그리고 고구려의 뛰어난 전술[59] 등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본다면, 고구려가 승리한 요인에 대해서 고구려의 역량을 내세우기보다는 수군 내부의 모순이나 지형 및 기후라는 어쩔 수 없는 요소 때문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董健은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 실패에 대해서 기후와 지리 등의 요소가 직접적인 실패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수군의 자만심으로 인한 정보 및 준비 부족, 수군 통수권자인 漢王 楊諒의 무능함, 將帥 사이의 불화와 명확하지 않은 직책의 상하 관계 등을 거론하였다.[60] 중국 학계는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에 대한 실패 요인으로 장마로 인한 군량 운반의 어려움과 전염병의 유행 등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변수인 '기후'를 들었다. 그러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판단하고 수행하는 행위이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기후'라고 하는 변수 또한 인간이 판단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3)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54)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5)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34쪽 ;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6)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7)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 拯救夢想, 2013, 앞의 논문, 61쪽.
58) 呂蕾, 2014, 앞의 논문, 138쪽.
59)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60) 董健, 2015b, 앞의 논문, 53쪽.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하여 패배하였다는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董健은 수군의 패배 요인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는 중국 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학계와 일부 한국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 당시 고구려군과 수군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는 遼水가 고구려의 중요 방어선임을 감안하면 고구려와 수 양국 간에 교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 역사가들이 수군에 대해 기후와 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군하였다고 일부러 감싸 줄 이유가 없다는 점, 『수서』 등 사료가 편찬된 시기에 598년 고구려 공격에 참전한 인물들이 일부 살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아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고 설사 실제 전투가 있었음을 감추기 위해 왜곡을 하였을지라도 당 역사가들이 즉시 바로잡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격에 참전했던 지휘관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투 없이 철군하였다는 기록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61]

고구려 – 당 전쟁에서 당의 패전 요인으로 정면으로 강공을 펼치면서 전투 시기를 잃어버린 점과 전략의 중심을 고구려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부 변경에서 龜玆 · 翠微 · 玉華 · 營繕과 전투를 벌인 점[62]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당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있다.

張國亮은 당군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당군의 탄력적인 전략 운용과 이에 대한 고구려군의 고지식적인 대응을 들었다. 당은 처음에는 당태종이 친정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유격전, 그 다음에는 총공격을 가하는 식의 유연한 전략을 보여준 반면에, 고구려는 당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리한 지형과 성에 의존하는 방어

61) 董健, 2015b, 앞의 논문, 53쪽.
62) 馬正兵, 2008, 앞의 논문, 61~6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체계만을 고집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 멸망을 막지 못하면서 북쪽으로는 당, 남쪽으로는 신라에게 협공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도 멸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63]

張曉東은 당태종대의 水軍 운용 양상을 소개하면서, 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강력한 水軍의 육성을 들었다. 즉 水軍의 육성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항로가 중간에 위치하면서 허브 역할을 하였던 백제를 정벌하였고, 이를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하였다는 것이다.[64]

曹柳麗는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서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병참 지원 관리 부서, 병참 지원 준비 과정, 군비나 糧秣 조달방법, 糧秣의 저장, 무기의 공급·관리·종류, 의료 위생, 운송로 및 운송 방법 등으로 나누어 서술한 뒤, 두 원정에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병참 지원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수양제는 병참 지원을 중시하지 않아 충분한 병참 지원을 하지 않았고, 특히 병참 지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을 홀대하면서 각종 농민 반란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당태종은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 실패를 교훈 삼아 양식 공급, 운수 공구의 개선, 민심 획득 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활한 병참 지원을 이끌어냈고, 결국 이러한 경험이 당고종대에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구려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보았다.[65]

이 연구에서는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서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을 서술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수와

63)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5~29쪽.
64) 張曉東, 2011, 앞의 논문, 38~46쪽.
65)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4~41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당의 병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수와 당의 병참 지원 제도와 수양제·당태종대의 고구려 원정 당시 병참 지원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양제가 병참 지원에 대해서 그리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수양제는 이미 598년 수문제의 고구려 원정때 병참 지원의 실패로 인하여 철군한 상황을 목도한 바 있는데, 그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였다. 즉 수양제는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운하를 개발하였고, 군사들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병참 지원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고구려－수·당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략·전술을 통한 고구려의 승리 요인 및 수·당의 패배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군사 관련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崔豔茹는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建安城을 공격하였던 營州都督 張儉의 진군 노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張儉이 이끄는 당군이 營州(朝陽)에서 출발하여 義縣과 北鎮을 지났고, 遼澤의 수렁을 피하기 위해 遼澤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하하면서 胡家를 지나 繞陽河를 건넜으며, 동남쪽으로 꺾어 大荒을 거쳐 高升鎮을 지났고, 다시 남하하여 沙嶺鎮을 거쳐 盤錦市 西牛古城村에서 요수를 넘었다고 보았다. 遼水를 넘은 후에는 동쪽으로 진군하여 牛莊鎮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천리장성을 돌파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성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大石橋市 旗口鎮 二道邊村·後老牆頭村·前老牆頭村·旗口·長屯村·高坎鎮·前高坎村·下土台村·周家崗子·孫家崗村·老邊村·老爺廟村·小平山村·小邊村·西大平山村을 거쳐, 前崗子村과 後崗子村 사이의 淤泥河 入海口에 이르렀고, 이후 淤泥河를 넘어 남진하여 蓋州 高麗城山城 서북 黃糧堆村 남쪽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66]

66) 崔豔茹, 2012, 앞의 논문, 25~2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구려－수·당 전쟁에서 전장으로 등장하였던 지명과 성에 대한 위치 비정 시도가 있었다. 고구려－수 전쟁에 등장하였던 '武羅'에 대해서 지금의 요령성 新民市 巨流河村에 위치하고 있는 巨流河山城으로 비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고,[67] 고구려－당 전쟁 때 등장하는 安市城에 대해서는 海城 英城子山城과 大石橋市 海龍川山城 등으로 비정하였던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海城 英城子山城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68]

한편 고구려－수·당 전쟁에 참전하면서 크게 활약하였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는데, 중국측 인물로는 李勣, 그리고 고구려측 인물로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

華陽은 李勣의 고구려－당 전쟁 당시 활약상을 서술하였다. 그는 李勣이 치밀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사병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쟁 승리를 이끌었다고 서술하였다.[69] 이 연구는 李勣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였다기보다는 전기적인 내용을 통해 장군으로서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아래의 연구 성과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孫煒冉은 612년 고－수 전쟁 당시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乙支文德에 대한 기록들을 토대로 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乙支文德을 제외하고 '乙支'가 붙는 고구려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遺於仲文書〉에서 보이는 그의 漢和 정도와 '乙支'라는 고구려화된 성씨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성씨로 보았던 '乙支'와 고구려 관직 가운데 하나인 정6품 '乙奢'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612년 수양제가 于仲文에게 보낸 밀지에서 '高元과 文德'이

67) 馮永謙, 2012a, 앞의 논문, 8~14쪽 ; 2012b, 앞의 논문, 3~8쪽.
68) 張士尊·蘇衛國, 2013, 앞의 논문, 31~39쪽.
69) 華陽, 2012, 앞의 논문 61~6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함께 언급되었는데 高元이 성과 이름이 합쳐진 전칭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乙支'는 '乙奢'의 이체자로 관명, '文'은 성, '德'은 이름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직이 정6품 '乙奢'에 불과한 만큼, 고구려에서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고, 살수대첩도 그의 지휘 하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乙支文德이 영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 『삼국사기』 찬자인 김부식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려가 요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의 형상을 만들어 고려인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끌어 내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乙支文德이 수 대군을 격파한 영웅으로 변모되어 과대 선전되었는데, 이러한 乙支文德의 형상이 김부식의 저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삼국사기』에 비중 있게 서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70]

劉炬는 645년 고구려 – 당 전쟁 때 安市城 전투를 이끌었던 安市城主의 신상,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서술하였다. 먼저 安市城主의 이름이 '楊萬春'이라고 전해지는 점에 대해서, '楊萬春'이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된 明代의 『唐書衍義』가 소설류에 가깝고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속 및 관직과 관련하여 연개소문과의 갈등을 고려하면 연개소문이 소속되었던 '東部'로 보기는 힘들고, 安市城으로 추정되는 海城 英城子山城의 규모를 볼 때 處閭近支급으로 추정하면서 大使者 혹은 大兄에 속하는 중급 귀족이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安市城主의 승리에 대해서 안시성 자체가 당군이 빼앗기 힘든 성이고 나쁜 날씨까지 고려하면 원래부터 安市城主에게 유리한 전투였고, 당태종의 착오 및 토산이 무너지는 우연적 요소가 겹치면서 승리를 거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공로로 따지면 612년 고구려 – 수 전쟁 때 요동성 전투를 이끌었던

70) 孫煒冉, 2015b, 앞의 논문, 9~1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遼東城主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安市城主는 그 상대가 당태종이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安市城主에 대해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71]

한국 학계가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하여 각각 그들이 활약한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와 연관시키면서 주로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원 왕조를 격파한 구국의 영웅으로 파악하는데 그쳤던 반면에, 乙支文德과 安市城主 개인에 초점을 맞춰 그들 본연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분에서 결국 그들이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당군에 의해 당 내지로 끌려간 고구려인의 수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 趙智濱은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인과 관련하여 民戶, 그리고 전투 중에 스스로 투항한 병사·포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책부원구』에 삽입된 기록을 신빙하면서[72]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먼저 民戶에 대해서는 기록 그대로 18만명이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 호당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중국을 통일하기 전 진이 '小家庭 제도'를 강행하고 分戶令을 추진했던 정황과 연관시켜, 고구려 '小家庭 제도'를 실행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병사·포로의 경우 농업 사회에서의 인구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당태종이 10만명을 다 돌려보냈다는 〈班師詔〉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당의 포로 정책을 참고해봤을 때 자발적으로 투항한 高延壽와 高惠眞 군대 3만명만 고구려로 송환되었을 가능성이 크

71) 劉炬, 2011, 앞의 논문, 17~21쪽.

72) "克其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穀·銀山·後黃等合一十餘城, 凡獲戶六萬, 口十有八萬. 覆其新城·駐蹕·建安合三大陣·前後斬首四萬餘級, 降其大將二人, 裨將及官人酋帥子弟三千五百, 兵士十萬人."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 말갈 3,300명이 당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67,000명의 고구려 군사들이 당의 내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도중에 도망가고 병으로 죽은 사람을 고려하면 모두 24만 명 정도가 당 내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을 토대로 『책부원구』 〈班師詔〉에 기록된 당군에 의해 끌려간 고구려 민호와 군사의 수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성에서 당군이 고구려 군사를 사로잡은 기록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군사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민호수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고구려 군사 10만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필산 전투의 殺俘 비율을 1 : 2로 파악하면서 당시 포로의 수를 4~5만명으로 파악하였는데,[73]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비율과 숫자를 돌출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멸망 이후 營州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무인 집단들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張春海는 당 현종 시기에 부병이 붕괴되었을 때 현지와 현지 부근에서 병력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이 대거 平盧軍에 흡수되었고, 蕃兵蕃將 임명에서 소외되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군대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安祿山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平盧軍 내에서 安祿山을 따르고자 한 집단과 조정에 충성했던 집단이 쇠퇴한 틈을 타 세력 확장에 성공하였지만, 安祿山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淄青지역으로 진입한 후에 侯希逸과 李正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무인 집단이 분열되고 결국은 와해되었다고 보았다.[7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3) 趙智濱, 2015, 앞의 논문, 8~12쪽.
74) 張春海, 2007, 앞의 논문, 227~232쪽.

4. 고구려의 군사와 방어 관련 연구

고구려의 군사 제도, 무기, 방어 체계 등 고구려 내부의 군사나 방어 문제 등을 다룬 연구 성과들도 소개되었다. 먼저 군사 제도와 관련하여 고구려 후기 군사 제도의 모습,[75] 금위군,[76] 상벌 제도[77]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李爽은 고구려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사 제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앙 정권이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5部 소속의 군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였다고 보았는데, 五部褥薩이 5部의 군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왕이 직접 파견한 軍主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관 관제 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大模達을 금위군의 수장으로 보았고, 금위군에 대해서는 국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인 명을 받들었던 군대로 보면서, 금위군의 출현 또한 고구려 중앙 군사권의 강화로 보았다. 반면 지방 성주는 자신의 구역에서 병력 이동, 장수 파견, 징병권 등의 군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군사 자치권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 초기부터 이어진 軍政 일체화가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78]

華陽은 고구려 금위군에 대해 주목하면서 금위군의 편성 시기와 그 의미 등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금위군과 연씨 일가를 관련시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다. 그는 6세기 전후에 淵子遊가 고구려의 내란을 끝내는 과정에서 금위군이 조직되었고, 이 금위군을 연씨 일가가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79]

---

75) 李爽, 「高句麗後期軍事制度研究」, 『東北史地』 2013-5, 2013.
76) 華陽, 「高句麗禁衛軍研究」, 『社會科學戰線』 2014-1, 2014.
77) 李一, 「高句麗軍事賞罰制度探析」, 『東北史地』 2013-6, 2013.
78) 李爽, 2013, 앞의 논문, 37~39쪽.
79) 華陽, 2014, 앞의 논문, 120~124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에서 李爽은 금위군에 대해서 금위군 편성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 명을 받드는 군대'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華陽은 '연씨 일가가 편성하고 장악한 군대'라고 파악하고 있다. 만약에 華陽의 견해처럼 연씨 일가가 편성하고 장악한 군대라고 한다면, 왕과 연관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금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금위군의 조직은 "중앙 정권의 5부 군대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연씨 일가를 '중앙 정권'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李一은 고구려의 상벌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소수림왕의 율령 반포 때 상벌 제도가 제정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군사적 징벌 제도와 관련하여 모반 및 반역에 대해서 화형을 집행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가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투에서 패배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참형에 처하였으며, 적에게 항복하여 아군을 공격한 자는 그의 家屬들을 처벌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새롭게 점령한 지역의 민이나 포로는 노예 혹은 수묘인으로 삼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군사 포상제도와 관련해서 공이 있는 자에게 식읍이나 관직 혹은 王姓을 하사하였고, 죽어서는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그 공을 치하하였다고 서술하였다.[80]

무기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 · 무장을 토대로 연구를 전개해 가고 있다.[81] 陳爽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 · 무장을 분류 · 분석하고, 벽화와 문헌을 참고하면서, 고구려 병기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였다. 그는 고구려의 병기 대부분 중원과 유사하고 일부 병기는 고구려적 특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고구려 병기는 대부분 철제이고 일부

80) 李一, 2013, 앞의 논문, 36~39쪽.
81) 陳爽, 『高句麗兵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張曉晶·張葛, 「高句麗軍用裝備設計研究」, 『內蒙古民族大學學報』2008-6,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청동제 병기가 출토되는데, 청동제 병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초기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무기 가운데 중원에서 보이지 않은 鏟形 화살촉을 주목하였는데, 고구려의 고분과 주거지 등에서 주로 보이고 군사 요새 유적에서는 드물게 보인다는 점과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수렵하는 장면이나 가옥에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전투용이 아닌 사냥용으로 파악하였다.[82]

張曉晶·張葛은 고구려의 병기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과 고분 벽화 등을 바탕으로 공격형 병기, 마구, 방호 용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험준한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볍고 정교한 병기와 민첩한 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적의 침공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병기에 투영되면서 병기 설계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환경에 맞는 군사 장비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83] 또한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중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에 맞는 군사 장비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중원과 비교될 수 있는 고구려 병기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성곽과 연관시키고 있다.[84] 張樹範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과 瀋陽을 차지한 시기, 그리고 瀋陽 지역을 운영했던 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4세기 말까지는 新城과 遼陽·湯河 이동 일대만 차지하는 등 요동 지역 일부만 차지하였지만, 5세기 초에 瀋陽과 遼陽 등을 차지함으로써 요동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漢魏晉 이래

82) 陳爽, 2010, 앞의 논문, 25쪽.
83) 張曉晶·張葛, 2008, 앞의 논문, 111~113쪽.
84) 張樹範, 「試述高句麗對沈陽地區的爭奪與控制」, 『東北史地』2015-1, 2015 ; 王禹浪·王文軼, 「高句麗在遼東半島地區的防禦戰略」, 『大連大學學報』2012-4, 2012 ; 趙曉剛·王海, 「石台子山城防禦體系探究」, 『東北史地』 2014-03, 20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의 현도군 옛 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산성을 축조하면서 瀋陽 지역을 관할하였다고 추정하였는데, 현도군의 옛 성으로는 瀋陽 上伯官屯古城, 새로 축조한 산성으로는 瀋陽 塔山山城과 石臺子山城을 지목하였다. 한편 그는 고구려가 북위에게 칭신하고 책봉호를 받으면서 遼河 이동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장관이 되었고 동시에 동북지역의 일부 소수 민족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고구려의 요동 관할은 중원 왕조가 해야 하는 지방 관리를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가 관할하던 瀋陽은 저조한 발전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데,[85] 어떠한 근거로써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王禹浪 · 王文軼은 요동 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점을 소개하고 요동 반도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들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인 위치 프리미엄이 뛰어나고 천연의 수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는 요동 반도를 고구려가 차지함으로써, 고구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5~7세기 사이에 요동 반도에 성곽을 구축함으로써, 요동 반도가 중원 왕조와 고구려 도성 사이의 전략적인 방어 완충지대와 물자 비축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6~7세기 고구려가 수 · 당 등 중원 왕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보았다.[86]

趙曉剛과 王海는 1997년~2006년 동안 꾸준히 발굴이 이루어진 瀋陽 石臺子山城의 성문과 방어시설 그리고 예보 체계 등을 설명하면서, 石臺子山城 및 고구려성 방어 체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먼저

85) 張樹範, 2015, 앞의 논문, 30~33쪽.
86) 王禹浪·王文軼, 2012, 앞의 논문, 17~22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해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 중형 산성·소형 산성·평원성 등이 보조하며 일부 구간에 토벽을 구축하였던 방어 시설로 파악하고, 石臺子山城을 천리장성을 구성하는 중형 산성으로 파악하였는데, 石臺子山城을 서부 변경의 제1 방어선인 遼河에 이어 제2 방어선(천리장성)을 구축하고 있는 성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서부 국경의 중진인 新城(무순 고이산성)을 지날 때 반드시 지나야 했던 門戶로 보면서, 橫山城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성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대성이 중심이 되고 중·소형 산성이 서로 호위하는 다중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중의 예보시설을 구축하여 성의 전략적 방어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각각의 성곽에도 방어 시설을 갖추면서 수비는 쉽고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보았다.[87]

한편 고구려의 성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 구성원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는데, 薛海波는 645년 고구려－당 전쟁 중에 등장하는 '城中人'과 '城人'에 대해 당군과 싸운 주체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성주를 압박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일반 민이 아닌 '군사(軍戶)'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城人'으로 볼 수 있는 '大兄' 검모잠의 예를 들며 "兄"系 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성 구성원을 '부족 무장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 성곽을 보면 주로 군사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군사를 제외한 다른 계층과 관련된 공간이 드물다는 점을 들면서 '城人'이 군사들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88] 그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초기의 부족적인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고구려 후기에 성의 자치권이 강화되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城人'을 군사 집단

87) 趙曉剛·王海, 2014, 앞의 논문, 26~29쪽.
88) 薛海波, 「高句麗後期"城人"與"城體制"略探」, 『通化師範學院學報』2008-9, 2008, 4~5쪽.

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사료 문맥 속에서 특정 계층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즉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적인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중국 학계는 고구려에 대해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07년 이후의 최근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데, 고구려 형성 단계부터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즉 고구려와 漢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서 고구려가 승리한 부분은 평가절하하고 漢에 비해 군사적으로 항상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서, 고구려가 비록 신속과 반복을 거듭하였지만 현도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속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5세기 초반 고구려의 요동 지역 점령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북위에게 칭신하고 책봉호를 받으면서 요동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장관이 되었다고 하면서 중원 왕조가 해야 하는 지방 관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서술하였다. 漢代~남북조시기에 이르기까지 신속 체제론과 조공 책봉론에 입각해서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구려－수·당 전쟁 연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학계가 제기하고 있는 고－수·당 전쟁의 원인을 살펴

보면 고토의 회복,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유일한 미복속국의 정벌을 통한 중원 왕조 통일의 완성,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패권 도모에 대한 반발, 정치 예속성이 강한 조공 관계 회복, 중화 책봉 체제의 동요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번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원 왕조 내부 동향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등 다른 관점 속에서 찾는 견해가 있었으나, 2007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보면 번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번속 관계 및 조공－책봉 관계 측면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임을 주장하려는 동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고구려 전쟁사 가운데 군사 관련 연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가 중원 왕조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주로 지형이나 기후 등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요소나 중원 왕조 내부의 모순 혹은 전투 당시의 우연적인 요소 등을 제시하면서,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乙支文德과 安市城主 등 고구려 인물들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들의 뛰어난 활약과 역량을 평가절하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도 함께 끌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고구려가 건국하였을 때부터 멸망에 이르렀을 때까지 계속해서 중원 왕조보다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계속해서 중원 왕조의 통제를 받았던 지방 정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였듯이 동북공정이 마무리된 2007년 이후 중국 학계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주로 번속 관계 및 조공－책봉 관계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등 기존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훨씬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바라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전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전쟁사 가운데 군사 관련 연구 주제로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 전쟁에서의 승패 요인과 전쟁을 이끌어간 인물 분석 이외에 고구려의 전쟁 수행 과정, 병참 지원 모습, 水軍 운용 양상, 군대의 진군로, 전쟁과 관련된 지명 및 성에 대한 위치 비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후기 군사 제도, 금위군, 상벌 제도 등 고구려의 군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무장을 분석하여 고구려 무기의 특징을 소개한 연구, 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 등도 소개되었다. 고구려의 군사 관련 연구 성과가 그리 많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금위군 문제나 상벌 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서 연구 방향을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쟁에 참전하였던 인물 본연의 모습을 보려는 시각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전쟁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수서』,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구』, 『삼국사기』 등의 사료 내용을 시기순으로 인용하고 나열하는 식의 평면적이고 개설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전쟁 수행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들 사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당의 묘지명이나 『唐大詔令集』 등 기존에 잘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한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문헌 자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중국 내 유적에 대한 발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로 인하여 많은 성들이 고구려 성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유물 가운데 무기와 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이 축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전쟁사 연구에 있어 고고학적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였듯이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로 인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많은 성들이 고구려 성으로 판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꾸준하게 소개되고 있다. 반면 고구려의 무기·무장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적다. 그마저도 무기·무장을 형식 분류한 연구 성과가 대부분이고, 무기나 무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나 배경이 무엇인지 혹은 전투 및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면, 보다 생생한 전쟁 상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부대 편성이나 무기 체계 그리고 방어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비단 중국 학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학계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고구려 후기 성 구성원에 대하여 '부족 무장의 집합체'로 보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적인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내려오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고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연구가 있었고,[89] 그리고 왜의 군사적 역량이 백제나 신라보다 우세했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데,[90] 이러한 인식 또한 한국 학계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를 설명한 중국

89)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 2015a, 앞의 논문 ; 2015b, 앞의 논문.
90)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학계의 연구 모두 삼국과 왜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학계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발한 학술 교류는 양 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전쟁사의 연구 범위는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어느 특정 시기를 범주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소 내용이 방만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는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를 범주로 삼아 보다 치밀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7.1.13, 심사수정일: 2017.2.21, 게재확정일: 2017.2.22.]

주제어 : 고구려, 전쟁사, 동북공정, 중국학계, 고-수 전쟁, 고-당 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BSTRACT>

A Recent Chinese Academic Research on the War History of Goguryo

Jung, Dong-Min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rend of research of Chinese academics related to the war history of Goguryo by introducing achievements of Chinese academics in the war history of Goguryo after 2007 when Northeast Project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was completed, reviewing its perception on Goguryo, and reviewing and analyzing new or noticeable opinions in Chinese academics.

The perception of Chinese academics on Goguryo, which is was a local government of China, that an ethnic minority established was shown intact in Goguryo war history related researches after 2007 when the project of Dongbuk-Gongjung was finished. Chinese academics addressed that Goguryo was controlled by Hyundo-gun because of military inferiority since it was first founded and thus relation of 'Shinsok (臣屬)' was maintained. While explaining Goguryo's occupation of Liaodong area in the early 5century as replac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Chinese dynasty by Goguryo as a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 who rendered liege service and homage to Bei-Wei and received an appointment title, it addresses that Goguryo was a local government of China from Han to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according to 臣屬體制論 and 朝貢册封論.

Such perception continues in researches on war history between Goguryo and Sui and Tang Dynasties. They tried to find the cause of war from implementat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such as Fan-shu(蕃屬) system theory and installation system theory and strongly addressed that Goguryo was a local government of central Chinese Dynasty. The same trend is shown in military related researches. They did not show military competencies of Goguryo but highlighted its military inferiority to Chinese Dynasty. Through this, they emphasized that Goguryo was a local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government controlled by Central Chinese Dynasty.

When reviewing military related researches in Goguryo war history, it is found that they tried to expand research directions with various themes. However, they could not escape from flat summary simply enumerating historical facts when they explained war performance process. To break this, it is needed to actively use archaeological excavation achievements in addition to new historical records. If we can combine existing liter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organically, it will help us to understand unit organization, weapon system and defense system as well as battle performance processes more concrete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Korean academics and Chinese academics such as Imnailbonbu theory. To overcome such perception gap, active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n academics and Chinese academics are required.

Key words : Goguryo, War history, Northeast project, Go-Sui War, Go-Tang W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평]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 Stephen R. Taaffe,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년 -

Harold E. Raugh, J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딘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우리 마음 속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쟁지역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전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해리 투르먼(Harry Truman) 대통령이 1950년대에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던 전쟁 지역 중 가장 열악하고 저개발지역이면서도 원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한국전쟁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인내를 요구하고 극복해야 할 역경이 많은 분쟁이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분쟁의 도가니에 던져진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미 육군장군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덜 훈련되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준비 안 된 전쟁이었다.

Stephen R. Taaffe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의 역사학 교수이자 2011년에 발간된 '마샬과 그의 장군들 : 제2차세계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역사담당

대전 당시의 미 육군 지휘관들'의 저자)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첫 해에는 미 육군의 전쟁 수행은 다소 혼잡스러웠지만, "엄격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분쟁을 이기기에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3쪽) 이 저서의 연구 목적은 야전군, 군단, 그리고 사단급 제대의 미 육군 고위지휘관의 전쟁수행 능력과 부대통합, 임무완수에 대한 공헌을 조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론, 본론으로 5개의 연대순/주제별 장 및 요약된 결론으로 나누어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다.

유엔군 사령부의 첫 지휘관은 미 육군의 전설적인 장군인 더글러스 맥아더 대장이었다. Taaffe는 그를 통찰력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묘사한다. 맥아더는 그의 젊은 시절에는 야망이 있고 용감하고 지적이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말년에는 아첨꾼들에 의해 둘러싸여 그의 조직에 대한 기여는 독선적이고 자기기만, 그리고 병적인 자기중심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1쪽) 이러한 맥아더의 성향은 한국 전쟁의 첫해의 작전단계, 즉 공격과 방어단계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분위기와 효율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첫 해에 다른 미국 지휘관보다 더 많이 전장을 지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놀랄만한 무기력한 역할"을 했다. (207쪽) 결국 맥아더의 오만함과 불복종은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Truman)에 의해 해임으로 이어졌고 저자는 맥아더가 "한국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5페이지).

처음 두 명의 미 8군사령관들도 서로 다른 경험, 태도 및 성격을 가졌으며, 이것 또한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 장군은 워튼 워커 중장을 "성미가 고약하고 비 타협적인 아웃사이더"라고 여겼으나(28 쪽) 저자는 "워커의 용기와 충성심과 헌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평가하였다.(28쪽) 그러나 맥아더는 워커를 해임하지 않았다. 아마도 미 8군사령관의 해임은 특히 1950년 10월의 중국 개입 이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불필요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염려했을 것이다. 상호 신뢰의 결여는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방해하였고 1950년 12월 23일 워커 중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맥아더 대장은 매튜 릿지웨이 중장(인사이더 역할을 확실히 해냄)을 후계자로 보직하고 존경심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릿지웨이 미 8군사령관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사기가 저하된 부대를 장악하여,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다"(199쪽). 워커 사령관은 한국전쟁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군단과 사단 지휘관들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평범함을 용인했었던 반면, 더 무자비하고 민첩한 리지웨이 사령관은 (210쪽) 9명의 군단장과 사단장 중 6명을 보직 해임시켰지만 그들의 경력을 "보존"시켜주었다. 릿지웨이는 맥아더를 트루먼이 해임했을 때 그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행위가 이 책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의 깊이는 책에 포함된 다양한 의견과 특히 추가적인 참조에 의해 보증될 여러 장군들의 관계성과 서로의 견해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짤막한 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고 많은 미주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된 '크로마이트 작전'이라는 명명된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글에서 저자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하고 계획하는 맥아더의 불멸의 "천재성"에 대해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긴다. 도널드 보이스 (Donald W. Boose)에 따르면 실제로 이 계획은 1950년 6월 19일에 승인 된 육군 G4 계획의 별지인 SL-17을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우군이 방어할 수 있는 낙동강 전선으로 철수하면서 동시에 인천 부근의 상륙작전을 구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서 사용된 지도는 더 많은 지형학적 세부 묘사와 축적으로 표현된 장점이 있다.

이 면밀한 연구분석은 한국전쟁 첫 해에 수행되었던 전투와 전역에서 부대 임무수행과 효율성의 분석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유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 미 8 군 및 군단 및 사단 지휘관 21명의 지휘관간의 역동적이고 진전된 관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수행했던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저자의 조사와 평가는 지각이 있고 공정하다. “한국전쟁에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훌륭한 지휘능력을 보였지만 일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등한 지휘능력은 결코 다 그렇지는 않을 지라도 전쟁 초기에 미 육군에게 당면했던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220쪽)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은 한국 전쟁의 부대 지휘능력과 작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평]

냉전과 건군의 거대한 뿌리

-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한양대 출판부, 2016) -

김선호*

냉전의 최전선, 한반도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상징되는 19세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인류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비약시켰다. 그러나 산업과 정치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재앙을 가져왔다. 그것은 제국주의(Imperialism)였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John Ernst Hobsbawm)이 정확히 통찰했듯, 세계는 '혁명의 시대'를 지나 '제국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유럽의 열강들은 자본과 과학을 무기로 전 세계로 진출했고, 식민지를 둘러싸고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세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1차대전의 혼돈 속에서 제정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1917년에 10월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로써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이 출현하였다.

1939년, 세계는 전쟁의 피해를 미처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제2차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세계대전의 격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유럽의 열강들은 제2차 대전의 과정에서 막대한 전쟁의 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미국과 소련은 세계대전의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초강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하였다. 양국이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냉전(Cold War)의 시대'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식민지·반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른바 '극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새로 출현한 냉전체제는 한반도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중화질서(中華秩序)의 영향 아래 역사를 형성해온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의 이남과 이북에 각각 진주하면서 점차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과 직접 맞닿은 지역이었고, 소련의 팽창정책(Expansion policy)을 저지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은 38선 이남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사회주의 모국(母國)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를 방어하려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전후에 출현하기 시작한 냉전체제의 최전선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은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기구 중 하나는 군대였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고, 한국인들은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이를 향후 정규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군은 이와 같은 창군과정을 거쳐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창설되었다.[1] 그리고, 미국은 1949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39~140; 162쪽.

6월 29일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후 국군의 훈련을 돕기 위해 군사고문단을 잔류시켰다. 이것이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이다.

미국의 군사고문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4월 1일까지 23년간 국군의 건군과 발전을 원조하였다. 그러므로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 기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사고문단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에서 2016년에 박동찬이 집필한 『주한미군사고문단 KMAG』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연구사적 공백을 뛰어넘는 저서이다.

이 책의 첫번째 특징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를 1948년 8월 임시군사고문단(PMAG)부터 1971년 4월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USMAG-K)까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는 군사고문단의 역사를 주로 6·25전쟁 이전에 한정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 기능,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전후 군사고문단이 합동군사원조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1차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연구하였다. 현대사 연구에서 20여 년의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더구나 6·25전쟁과 전후의 군사고문단 역사는 연구된 적이 없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크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관련된 원자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저자가 활용한 자료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생산한 자료이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군사고문단 분기 역사보고서」, 「반년간 역사보고서」, 「일일정보보고」, 「정기작전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군사고문단이 당대에 생산한 것으로, 군사고문단의 조직·편제·장비·인물·활동과 국군의 편제·인물·무기·교육·훈련·작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다.

둘째, 미국정부가 생산한 군사원조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미국이 추진한 대소련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유럽·중동·아시아에 제공한 군사원조의 내용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과 상호방위원조계획, 대한군사원조계획, 대한군사원조의 정책결정과정, 그리스·터키·이란의 미합동군사원조자문단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셋째, 미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생산한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초고이다. 이 자료들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되었지만, 미발간상태로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스카그스(David C. Skaggs)와 와이너트(Richard P. Weinert)의 미간행 연구서인『1951~65년 국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1951~1965)』, 소이어(Robert K. Sawyer)의『주한미군사고문단 : 평화와 전쟁 시기의 주한미군사고문단』, 마이어(Kenneth W. Myers)의『주한미군사고문단 : 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경험(1951.7.11~1953.7.27)』등이다.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해 상세한 해제를 수록해 놓았다. 이 해제에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각 문서군(RG)에 소장되어 있는 군사고문단 관련 문서의 생산주체·제목·구성·주요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와 국군의 건군사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자료의 출처와 특징을 이해하고 자료를 추적하는데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의 가능성과 성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연구한 내용은 역사학의 다양한 연구분야 중에서 군사사(Military history)에 해당한다. 군사사란 '전쟁과 교전, 그리고 제반 군사분야와 그에 관계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이념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2] 한국의 군사사 연구는 주로 유럽·미국·소련을 주제로 전투·전쟁, 군사사상, 전쟁과 사회·문화·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국군의 역사를 군사사의 방법론에 입각해 분석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다. 특히, 군사고문단은 해당 군대의 창설과정과 육성과정에서 군대의 정치·군사·문화적 특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군사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박동찬은 이 책을 통해 군사사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뛰어넘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저자는 비교사의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주한미군사고문단을 그리스·터키·이란의 군사원조자문단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이 가지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밝혀냈다. 미국이 그리스·터키·이란·한국에 설립한 군사고문단의 활동목표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인 집단적 방위체제, 즉 군사적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저자의 평가처럼, 그리스·터키·이란의 군사원조자문단은 지중해·중동 지역의 실험사례였고, 한국의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아시아의 실험사례였다. 서유럽에서부터 군사고문단이 설치된 4개 국가를 연결하면, 이 선이 바로 미국의 대소(對蘇) 봉쇄선이었다.

저자의 탁월한 관점은 미국이 1949년 4월부터 경제·이념적 측면을 중시하는 대소 봉쇄론을 대신해 군사적 봉쇄와 적극적 탈환

2) 정토웅, 「軍事史 硏究 方法論(Ⅰ) : 軍事史란 무엇인가」, 『軍史』24호, 국방군사연구소, 1992.6, 20쪽.

(roll-back)을 주장하는 전면적 봉쇄론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점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방위원조계획에 한국을 포함시켰고, 이 동아시아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을 설치하였다. 이같은 관점은 미국이 1950년 1월 애치슨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을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했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미국이 1950년에도 한반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동아시아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박동찬은 군사와 정치, 군사와 교육의 관계에 주목해 6·25 전쟁 이전 38선 충돌을 둘러싼 한·미간의 대립과 국군 장교단의 도미 군사유학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국은 1948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여순사건과 게릴라활동 등 비정규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38선 충돌에 대해서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저자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북진론(北進論)에 대한 반대입장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군사고문단을 통해 국군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킨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동찬은 군사고문단이 전쟁 전후 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도미 군사유학을 추진한 과정과 내용을 해명하였다. 저자는 미국이 주로 국군의 초급장교들을 중심으로 군사유학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우호적인 장교단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제도를 국군에 전파시켰다고 분석하였다. 이 책은 군사와 정치·교육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군사문제를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군사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적 실체와 국군의 건군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원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향후 군사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는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된 군사고문단·국군에 관한 각종 도표·통계·명단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도표는 미국의 군사원조 조직체계도(1950.1), 미국의 1951년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조직도(1951.5), 국군 전투사단에 배속된 고문단 조직도, 미 극동군-한국군 지휘체계(1955.8) 등이다. 대표적인 통계는 1949년 4월 미국 행정부의 군사원조계획안, 주한미군 철수시 미국이 이관한 주요장비 현황(1949.6.30), 주한미군사고문단 인원배당표(1951.3, 1952.1), 1952~54 회계연도 미군 군사학교의 국군 장교 등이다. 또한, 이 책의 말미에도 주요자료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국군 훈련현황(사단·연대·대대별, 1949.12, 1950.6), 전쟁기간동안 국군 병력현황(1950.7~1953.7), 1953~1969년 주한미군사고문단 인가 병력 현황, 1951~1960년 군인과 민간인 해외 유학 인원수 등이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처음 공개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건군과 전쟁, 그리고 한미동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군사원조정책과 군사원조자문단(MAAG)의 운용사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과 주요기능·활동,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변화와 편성, 전후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변화과정이다. 주제별로 크게 분류하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배경, 창설과정, 변화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고문단의 창설배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군사고문단과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의 상호 관련성을 추적한 점이다. 박동찬

은 군사고문단이 단순한 군사원조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군사정책을 관철시킨 주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군사고문단은 미국이 1949년에 제정한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추진한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의 실무기관이었다. 미국은 군사고문단을 매개로 집단적 방위체제를 강화하고자 계획했고,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군사적 지역통합을 추구했다. 저자의 이같은 관점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를 군사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것이 전후 냉전체제의 구축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편제, 국군의 훈련과 작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내용이다. 이 책에는 원자료를 토대로 군사고문단의 편제인원, 주요 보직자, 지역별·국군부대별 군사고문단의 배치인원, 군사고문단 내부부서의 구성과 임무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또한, 군사고문단이 국군을 대상으로 1949년에 추진한 2단계 훈련계획과 1950년에 추진한 4단계 훈련계획, 1949~1950년 국군의 부대별 전투효율성,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에 대한 지도와 38선 충돌 관련 작전계획 수립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국군의 건군과정에서 교육과 훈련, 후방작전과 방어계획을 해명하는데 연구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군 중 후방지역 게릴라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토벌작전이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전투효율성이 증가했으며, 전방지역의 전투부대는 38선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 전투효율성이 약화되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개전 직후 국군의 전투력 현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창설과정에서 주목되는 두 번째 내용은 1949년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되면서 군사고문단에 두가지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다. 군사고문단은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국군의 조직과 훈련이라는 군사고문단 고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상호방위원조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운영과 관련해 주한미대사를 보좌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미국이 1949년 4월 적극적 탈환(roll-back)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대한군사원조를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NSC 8/2의 개정 없이도 상호방위원조법 제408조 (C)항의 규정에 따라 그리스·터키지역의 비계획 자금을 한국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대한군사전략 목표는 1950년 6월을 전후해 국내의 치안유지라는 목표에서 북한군에 대항한다는 목표로 전환되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편성에 대해 저자가 제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고문단이 전쟁 이전 주한미사절단(AMIK)의 일부로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개전 이후에는 주한미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사고문단은 1950년 8월 29일 극동군사령부에 예속되었다가, 1951년 1월 10일 공식적으로 미8군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의 전황과 군사전략이 군사고문단의 규모와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군사고문단의 규모는 국군의 확장에 따라 수시로 변했는데, 1951년 3월에는 총 1,013명, 1952년 1월에는 총 1,815명이었다. 군사고문은 전투부대의 경우 연대급까지 배치되었고, 포병·공병·통신·특수부대의 경우 대대급까지 배치되었다. 이들은 미8군사령관의 명령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군 지휘관을 보좌했으며, 국군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으로, 전시 군사고문단에는 기존의 공식 임무가 종료되면서 국군의 재편, 지휘관의 보좌와 통제, 작전지도라는 새로운 임무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군사고문단의 주요임무는 1951년 미국의 전쟁 전략이 휴전으로 기울어지면서 국군에 대한 작전지도에서 교육훈련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군사고문단은 국군 장교들의 도미군사유학을 적극 추진하였다. 군사고문단은 국군의 정규작전에 대한 지도 이외에 제2전선의 비정규전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과 백야사(白野司) 선임고문관 다즈(William Dodds) 중령은 그리스군사자문기획단의 단장과 기획단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리스내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을 한국의 비정규전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분석은 국군의 장교교육과 비정규전 전술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기 국군의 증강은 미국의 인천상륙작전 구상과 휴전·철군·확전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고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군을 증강시켰다. 또한, 1951년부터 미국 국방부·합참·맥아더 간에 휴전·철군·확전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의 군사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과 지휘능력을 강화시킨 후 장기적으로 병력을 증강한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 국군에 대한 증강계획은 결국 20개 사단 증강으로 확정되었고, 이것은 미국이 장기간 대한군사원조를 제공하고 독자적으로 한국의 전후복구를 책임지겠다는 결정이었다. 이 분석은 전후 국군 증강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마지막 내용은 휴전협정 체결이후 군사고문단의 변화과정이다. 휴전협정 이후 군사고문단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대한군사원조기구의 상부기관과 미 극동군-국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미 극동군사령관은 군사고문단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사원조자문단(MAAG-K)를 설립하고, 자문단을 통해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국군의 작전통제권과 상호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보장법에 대한 미 육군부·극동군사령부와 국방부의 견해차이로 인해 1955년 1월부터 1971년 3월까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임시주한미합동군사원조자문단(PROVMAAG-K)이 공존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통제 아래 있던 고문단 기구는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USMAG-K)으로 통합되었고, 군사고문단은 합동군사원조단 육군과로 전환되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해소는 1950~60년대 국군의 성장에 따라 군사고문단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 연합군'체제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냉전체제의 재해석

박동찬은 이 책을 통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전체적인 역사를 연구했으며,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을 연구했다. 즉, 저자는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이 대외군사원조를 통해 각 지역별로 집단적 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소련 봉쇄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해 해명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창설과정과 변화과정을 통해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실현되었고, 국군의 증강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해명하였다. 이같은 연구의 특징은 이 책의 장점인 동시에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이 저서의 아쉬운 점은 주한미군사고문단과 국군을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북한주재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현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저자의 연구주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이므로 반드시 소련군사고문단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소련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현황을 활용했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저서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 이전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소련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을 상호 비교한다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대한 소련측의 동아시아적 대응을 해명할 수 있다. 또한, 국군의 증강은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에 따른 조치일 뿐만 아니라 1949년 이후 북한군의 급격한 증강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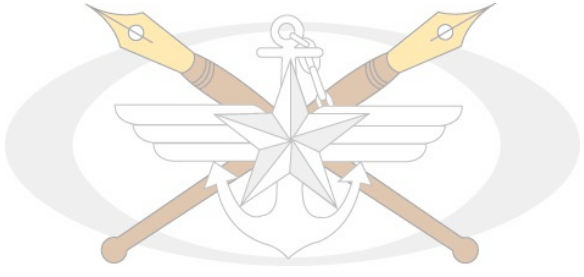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연구의 시야를 동아시아로 넓혀보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설립과 활동은 1946년 이후 중국에서 전개된 국공내전(國共內戰)의 전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미군의 지원을 받은 중국국민당은 1947년까지 국공내전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1948년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결국, 중국국민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통해 중국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혁명'의 결과, 1949년 말에 북한·중국·소련의 북방3각동맹이 출현하였다. 이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미국이 구상한 집단적 방위체제와 대한군사원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후 북한·중국·소련의 현황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과 변화가 추가로 해명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활동한 시기는 동아시아가 냉전체제로 편입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군사고문단은 앞으로도 냉전체제와 관련해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제2차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을 통해 싸우는 열전(Hot War)의 시대는 종결되었고, 전쟁없이 싸우는 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1949년에 미국의 주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출현하면서 소련의 팽창정책과 미국의 봉쇄정책이 불안한 균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세계사적 흐름과 달리 6·25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냉전시대 최초로 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의 전장(戰場)이 되었다. 즉,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서구의 냉전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각 나라에 설치한 군사고문단은 2~7년 정도 존속하다가 군사원조자문단으로 전환되었지만, 주한미군사고문단은 23년간 존속했다. 선행연구에서 냉전체제의 중심은 늘 서구였으며, 동아시아는 냉전체제의 변경(邊境)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의 사례에서 보이듯, 변경은 종종 중심을 넘어서 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킨다. 이 책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명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냉전체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 평]

6·25戰爭에서 마오쩌둥의 역할 재조명

– 데이빗 쑤이(David Tsui) 한국국제전략연구소 譯, 『中國의 6·25戰爭 參戰』(서울: 다와, 2011) –

최윤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참전배경에 관한 다양한 가설과 논문들, 공간사들이 발간된 바 있다. 본 저서는 데이빗 쑤이가 1999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완역한 것이다. 데이빗 쑤이의 본명은 쉬쩌룽(徐澤榮)이다. 저자는 1954년 중국 공산당 고급간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문화대혁명 시기 박해로 사망했고 이후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 1999년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활동 과정에서 2000년 7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6·25전쟁과 관련된 연구과정에서 '출판물업무의 불법 경영'과 '해외에 비밀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 감형되어 석방된 전력을 갖고 있는 등, 중국과 서구 학계에서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학자이다. 쑤이는 본 저서에서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공간자료를 정리하여 '중국의 6·25전쟁 개입과정과 배경'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을 기존의 연구와 통설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결정의 초기단계
제1장 모스크바와 북경, 평양의 요청 접수(1949년 1월~4월)
제2부 결정의 확정단계
제2장 모스크바와 북경, 평양의 남침제안 승인(1950년 1월~6월)
제3장 개입을 위한 준비(1950년 1월~9월)
제4장 협상을 위한 외교(1950년 6월~10월)
제3부 결정의 실행단계
제5장 개입결정의 실행(1950년 10월 1일~19일)
제6장 중국의 6·25전쟁 개입 목적(1950년 10월~1951년 7월)
제7장 중국의 외교(1950년 10월~1951년 7월)
결론

저자는 **제1장에서 김일성의 무력남침 제안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반응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949년에 스탈린에게 두 번이나 건의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스탈린은 내심으로 동조하면서도 그 승인에는 신중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에서 미·소의 직접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응은 스탈린보다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1949년 5월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 개시 후 외국군이 개입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중국은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북측에 약속한 점을 들었다. 1949년 5월 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특사 김일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의 장차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공군 3개 사단을 북한군으로 이양한다는 마오쩌둥의 동의가 내려졌는데, 저자는 마오쩌둥의 이러한 언급이 명백하게도 중국의 6·25전쟁 개입을 시작한다는 전환점으로 보았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제안에 적극 호응한 배경에 대해서, 저자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쟁관'이라는 이념적 요인, 중국혁명기간 중 '조선의 전우들로부터 많은 빚'을 진데 대한 '도덕적 책무', 또 북한이 남침할 경우 남한 측에 미국군 보다는 일본지상군이 파견될 것이라는 '오산(誤算)'에 바탕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모든 분석을 거친 후, '6·25전쟁의 개입 준비에 중국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깊숙이 시작되었다'고 매듭지었다.

제2장에서는 몇 번에 걸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해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거절해오던 스탈린이 1950년 1월에 동의하게 되는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의 제안에 대해, 스탈린은 당시 그가 보였던 표현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김일성의 제의가 반복되는 동안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시, 외국 군사력이 개입하여 한국을 도우려 한다면 외국 군사력에 대응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파견토록 하고, 북한을 돕는 모든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씌운다는 책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1948년 7~8월 류샤오치(劉少奇)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은 위 책략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밟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으로서는 '한반도에 중국 군대를 보내라'는 스탈린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스탈린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마오쩌둥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명령을 따른다면 이제 막 탄생된 신(新) 중국과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생존과 발전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고, 따르지 않는다면 냉대 받고, 처벌 받거나 혹은 스탈린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을 마오쩌둥은 명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소련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종속'이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남침 후 한국을 돕는 외부세력이 개입 시 중국은 지상군을 파병하고 소련은 무기·장비와 공군지원을 제공한다는 스탈린의 구상에 마오쩌둥이 동의하게 된 것이며, 김일성의 남침 구상에 스탈린이 중국의 개입을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저자는 스탈린의 승인(承認) 배경을 분석하면서 스탈린의 사고 과정을 다음처럼 기술하는데, '첫째, 미 지상군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군사력 투입 전에 북한군은 한반도 남부를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구상을 승인하게 되는 결정적 동인에 대해, 저자는 중국군의 6·25전쟁 개입이라는 역할에 대한 마오쩌둥의 동의가 성사되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제3장은 마오쩌둥이 6·25전쟁을 결심한 이후부터 중국군이 실제 압록강을 도하하여 6·25전쟁에 투입되는 1950년 10월 19일 이전까지의 시기에 실시된 중국의 군사적 준비사항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6·25전쟁 개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사항에 대해, 저자는 그 자신의 인터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중국군의 6·25전쟁 투입 준비를 위한 중국지도부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과, 그 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소개한다. 이러한 회의가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인천상륙작전 전에 9 차례,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후부터 실제 중국군이 투입된 1950년 10월 19일까지 5 차례가 있었다는 점과, 이 회의와 연계된 중국군 부대의 이동과 전개상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특히, 6·25 전쟁 발발 7개월 전에 동북지역으로 7개 야전사단이 이미 이동 배치되었고, 7월 13일에는 동북변방군의 편성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동북변방군은 동북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8월 초에는 동북변방군이 중국 본토로부터 추가 이동된 4개 군단을 포함한 26만 병력을 휘하에 거느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군 투입 전에 실시된 중국의 한반도의 지형과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활동 내용이며, 또 한국에 투입된 중국군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역원 겸 연락원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는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6·25전쟁을 위한 전쟁예산의 편성, 병참 준비 그리고 투입될 총 병력규모와 제대 편성의 결정 등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지도부는 1950년 8월 30일의 제8차 회의에서 36개 사단과 11개 독립연대를 포함한 총병력 70여만 명을 3개 제대로 투입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마오쩌둥은 중국군이 6·25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소련제 무기로 무장할 것을 원했으나 스탈린은 중국군의 투입이 실현된 다음에야 무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결국 관철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는 스탈린이 중국군의 6·25전쟁의 실제 개입을 소련제 무기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고 분석하였다.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중국 지도부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즉, 인천상륙전에 중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38도선 일대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지 남진시키는 것은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투입을 지연시켰고,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여 한반도 북부의 험악한 산악지대에 도착했을 때 광범위한 전선에서 분산된 유엔군 부대를 기습적으로 각개격파 한다는 구상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제4장은 중국의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전반부는 6·25 전쟁 투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중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중국은 소련의 협조 하에 6·25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군이 실제 투입되기까지의 4개월 동안에 중국은 유엔 가입 목적을 위해 일곱 차례에 걸친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엔회원국으로의 가입은 끝내 이룰 수 없었고, 중국의 관심사에 대한 유엔의 토의에 중국대표를 참석시키는 정도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개입 전에 중국지도부가 주된 노력을 기울였던 분야를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첫째는, 6·25전쟁의 개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이다. 여기에는 부대의 편성·이동·전개·작전방침의 구상과 세부 작전계획의 발전, 전쟁예산의 편성 및 정보활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장에서 다루었다. 둘째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이 유엔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낙동강에서 방어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하여 북진하는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보았다. 중국은 전쟁을 도발한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군을 투입하겠다고 소련과 북한에 이미 약속을 하였고, 또 그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왔으나, 6·25전쟁에 개입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또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북한의 생존은 걱정이 없게 되고 중국이 한반도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북진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유엔군이 38도선까지만 진출하고 정지할 때 성사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개입의도를 신중하게 감추었다고 보았다. 중국은 유엔 가입과 또 유엔군을 38도선에 묶어두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한반도로의 상징적인 파병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군사적 책략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손상시켜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군의 한반도파병 직전까지의 경과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1950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간에 실시된 중국 최고위층의 회의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6·25전쟁 참전 날짜가 결정되고 파병부대의 명칭을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으로 하고, 그 지휘관을 펑더화이(彭德懷)로 한다는 것 등의 결정 과정을 기술하였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김일성에게는 즉각 알려진 반면 스탈린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음'을 부각하여, 중국의 참전배경이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침략가능성을 중국 지도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일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6장은 중국의 6·25전쟁 개입목적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중국은 6·25전쟁 개입 후 1951년 휴전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14개의 개입목적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입목적의 달성은 주로 작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 중, '북한의 구원'이 개입목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면서, 한편 '전체 한반도의 해방'이라는 개입목적은 결과적으로는 힘의 결여로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 다른 개입목적으로는 6·25전

쟁의 개입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를 관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서울을 포함한 남한 영토 일부를 장악한 후, 이의 상환을 조건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 및 미국의 대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군이 1951년 1월 3차 전역(戰役) 결과 서울을 점령한 후 안성-평택 선까지 진출하였고, 1951년 1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선 휴전 후 협상' 결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목도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결의에 응하지 않아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은 저자의 결론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휴전과 관련한 마오쩌둥의 전략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마오쩌둥은 북진하던 유엔군을 북한지역에서 철수시킨 성과에 고취되어, 제6장에서 기술된 '6·25전쟁의 휴전과 함께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 등을 주장한 것과 같이, 중국 측에 유리한 휴전 조건을 강경하게 고집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중국은 힘의 결여로 모든 주장을 접게 되었고, 종국적으로는 1951년 7월의 휴전협상 개시 시 중국의 마지막 개입목적이었던 '전쟁 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정리하였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6·25전쟁 참전의 결과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주장한다. 얻은 결과는, 첫째 중국은 전쟁을 통해 서방군대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황금의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보았고, 둘째 한반도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성공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해주었다고 보았으며, 셋째 중국은 6·25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소련의 전반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이상에서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 개입과정 및 배경과 관련하여 1949년 1월부터 1951년 7월까지를 결정의 초기단계(1949. 1월~4월), 결정의 확정단계(1950. 1월~10월), 결정의 실행단계(1950. 10. 1~1951. 7월)로 구분하여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과 주고받은 각종 전보 등과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6·25전쟁의 개전(開戰) 준비에 중국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깊숙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스탈린이 1950년 1월에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동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1950년 5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구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주장하는 바를 다양한 자료와 새로 발굴된 구 소련과 중국 당안(檔案) 문서들을 통해 각각의 사실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신뢰성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제1장에서, 저자는 김일성의 무력남침에 대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반응과 배경을 분석하면서, 1949년 두 번에 걸쳐 건의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해 스탈린은 내심 동조하면서도 그 승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부정적이었으며 그 직접적인 이유를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에서의 미·소의 직접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일성의 남침제안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스탈린보다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다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마오쩌둥의 긍정적 태도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도의적 책무, 그리고 남침시 미국보다 일본 지원군이 파견될 것으로 바라는 오산(誤算) 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하는 사실로 1949년 5월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장차지원을 약속했으며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3개 사단을 북한으로 이양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들면서, 중국의 6·25전쟁의 개입 준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깊숙이 시작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지원에 대한 조건을 내 건 자체는 지원에 대한 부정적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조건으로 명시된 '국제적 상황', '미국과 소련의 상황조건', '중국 국내 문제의 완벽한 통제'라는 사항은 사실상 완벽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조건에 기초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장차지원을 약속했다기 보다는 이념적 연대를 같이 하는 지도자로서 대단히 일반론적이며 수사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탈린보다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개전에 긍정적이며 장차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마오쩌둥의 조기 개입 결정의 배경에는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조선족 부대의 입북 문제이다. 조선족 병사의 귀국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1949년 12월 29일로서 션즈화(沈志華)[1]는 관련문서들을 토대로 시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남침지원을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족 병사의 귀국 문제는 린뱌오(林彪)가 먼저 제기하였고 그 배경에는 조선족 부대의 간부와 사병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 2017년 현재, 중국 화동사범대의 종신교수이자 화동사범대학교의 국제냉전사연구센터 소장이다. 션즈화의 논문과 저서는 다음을 참조. 션즈화(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檔案) 속의 역사 진상,"『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 션즈화(沈志華), 최만원 역,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한성인쇄, 2010); 션즈화(沈志華),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서울: 선인, 2014). 등이 있다.

귀국조치를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당시 린뱌오가 관할했던 지역이 조선족들이 최초 지원하였던 지역 보다 상당히 떨어진 거리임을 고려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1949년 12월은 스탈린이 아직 김일성의 남침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며, 1950년 1월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갖기로 한 사실조차도 마오쩌둥에게 비밀로 부치라고 김일성에게 지시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족 부대의 입국은 중국의 개입에 대한 전제조건 특히 김일성의 남침 제안과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소련의 승인이라는 요소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장차지원 약속과 조선족 부대의 입북 시기와 관련되어 마오쩌둥이 스탈린보다 훨씬 더 적극적 이었으며 훨씬 일찍 깊숙이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두 번째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는 과정 중에서 스져(師哲)[2]와의 인터뷰와 볼코그노프[3]를 통해서 마오쩌둥이 스탈린을 방문하던 1949년 2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사이에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김일성의 개전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를 토론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스져의 진술을 통해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개전과 관련하여 소련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함과,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지상군에 대해 소련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6·25전쟁 전후(前後) 중국측 러시아어 통역관이었다. 마오쩌둥이 1949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할 당시 통역관이었으며, 정전협상 시기에도 통역을 담당했다. 저서는 다음과 같다. 師哲李海文,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3) 드미트리 볼코고노프(Dmitry Volkogonov), 러시아 옐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군사담당보좌관 이었으며 전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고회의문서보관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한 위치에서 크레믈린문서보관소에 있는 극비자료들을 자유스럽게 활용하였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드미트리 볼코고노프(Dmitry Volkogonov)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서울: 세경사, 1993).

무기 및 공군 지원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족 부대의 북한으로의 이양에 논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중·소회의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특히 전쟁 준비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김일성의 개전 준비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담을 연관 짓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마오쩌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깊숙이 6·25전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시의 문건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2월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1차 회담에서부터 1950년 2월 22일 스탈린이 주북한(駐北韓) 소련대사인 쉬티코프에게 하달한 문건까지를 시계열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 간에 이루어진 6·25전쟁 개전과 관련된 논의와 인과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담록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현재의 정세에 만족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하여 전쟁 방지와 중국의 경제발전을 염원하고 있었다. 스탈린도 당시의 세계정세에 만족하고 있다.[4]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쟁 준비와 연관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1950년 1월 17일 신임 주중(駐中) 북한대사 이주연(李周淵)의 환송을 북조선 외무상 박헌영이 주최한 오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오찬에는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중국·소련의 외교관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조국 해방에 대해 언급하고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해서 스탈린을 접견하고 싶고 그것이 어려우면 베이징(北京)에 가서 마오쩌둥을 접견하겠다'고 했다. 쉬티코프는 이 자리에서 남침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련 내각회의 의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의 회담 기록(1949년 12월 16일)," 『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서울: 천세, 2006), pp.50-55; APRF, f. 45, op. 1, d. 329, ll. 9-17.

1950년 1월 19일 쉬티코프는 상기 경위를 스탈린에게 보고했고, 여기서 쉬티코프는 김일성의 본심이 다른 곳에 있으며 취한 것을 핑계로 소련 사람을 떠보려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후 스탈린은 쉬티코프의 전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개전 의지에 호의적인 제안을 갑자기 보내게 된다. 1950년 1월 31일 쉬티코프가 보낸 회신에는 김일성은 스탈린의 의견에 매우 만족하며 심지어 스탈린과 회견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개전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1950년 2월 2일 스탈린은 쉬티코프에게 김일성의 개전과 관련하여 보충지시를 통해 이 논의에서 마오쩌둥을 제외시키는 대목도 나온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문건을 통해 보았을 때 1949년 12월 중·소회담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현 상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개전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회담에서 김일성의 개전에 대해 논의했다면 1950년 2월 스탈린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마오쩌둥에게 기밀로 유지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장에서 저자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구상을 승인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마오쩌둥의 동의여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저자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개전 승인 요구에 대해서 초기에는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미·소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고, 중국군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한다. 김동길 교수[6]의 연구에 의하면 스탈린이 1950년 김일성의 개

5) 외교부, 편역, "쉬티코프가 김일성이 제출한 남쪽으로의 공격개시 문제에 관해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1950년 1월 19일,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Ⅲ』(미발간), pp. 60-62; ABPRF, f. 059a, op. 5a, p. 11, d. 3, ll. 87-91.

전 요구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세계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동길 교수는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가트발트(Klement Gottwald)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전문'을 통해 스탈린의 세계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스탈린이 미국과 중국을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하여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소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7] 즉, 유럽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6·25전쟁 쪽으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겠다는 세력균형전략이라는 것이다. 스탈린은 전문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까지 6·25전쟁에 끌려오게 되면 국제 세력균형 면에서 사회주의권에 이득을 안겨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의 개입은 분명 필요했으나,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마오쩌둥은 선택의 여지없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고려할 때 마오쩌둥의 동의는 사실상 형식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얄타체제 이후 계속되는 신(新)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 상황을 볼 때, 스탈린의 세계전략 구상이 6·25전쟁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 중국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3장에서 저자는 마오쩌둥이 6·25전쟁 개입을 결심한 이후부터 중국군이 실제 압록강을 도하하여 6·25전쟁에 투입되는 1950년 10월 19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군사적 준비시항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중국지도부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고, 인천상륙 전에 중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38도선 일대까지 남진시키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투입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가장 유리한 시기를 유

6) 2017년 현재,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이며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을 맡고 있다.

7) "스탈린이 고트발트에게 보낸 서신," 1950년 8월 27일, РГАСПИ, f. 558, op. 11, d. 62, ll. 71-72.

엔군이 상륙한 다음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깊이 진격했을 때라고 판단했고, 이 점이 마오쩌둥이 중국군을 좀 더 빨리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초 마오쩌둥의 전쟁 개입 전제조건인 '외국군의 개입 시 중국은 군대를 파병한다'는 방침에 기초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5전쟁 개입 전에 중국지도부의 주된 노력이라고 보았던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 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상치되는 내용이다. 중국군의 무장상태나 스탈린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시점에 중국군을 투입시킬 수 있었으나,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유엔군이 조·중 접경지역으로 진출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저자는 또한 3장에서, 마오쩌둥은 6·25전쟁 개전 결정 사실과 개시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전과 전쟁 개시일의 결정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물들도 있다. 6·25전쟁의 개전 결정과 관련되어 마오쩌둥이 소외되었다는 기록이 상당히 존재한다. 김일성은 개전 문제를 마오쩌둥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날 쉬티코프와 면담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원조 요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스크바에서 그의 모든 요구가 이미 만족스럽게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필요한 원조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 1950년 5월 13일의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회담 내용은 해제되지 않아서 당사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오쩌둥은 주은래를 통하여 김일성이 개전계획을 스탈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스

8) 외교부, 편역, "쉬티코프가 김일성의 방중(訪中)계획에 관하여 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1950년 5월 12일),"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Ⅲ』, pp. 69-70; ABPRF, f. 0102, op. 6, p. 22, d. 49, ll. 49-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탈린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낸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션즈화는 마오쩌둥은 1950년 4월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개전 결정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고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쉬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개전에 관해 중국 측에 이러한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등 여러 대목에서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소외시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각본에 의해 철저히 움직여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마어쩌둥이 개전 결정 사실과 개시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일찍이 그리고 깊숙이 전쟁 개입을 준비해 왔다는 저자의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쟁개시일과 관련하여서도, 저자는 월맹군 고문관으로 파견될 예정이었던 중국 동북군구의 장교들이 1950년 6월 20일 북경으로 오라는 명령과 관련 행사의 지연 등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증언들을 통해, 마오쩌둥은 전쟁 개시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 9월 23일 마오쩌둥과 미코얀 대화록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개전 요구에 수차례 거절 했으나 김일성이 어떤 원조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미코얀은 '귀하가 반대해서는 않되는 것이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마오쩌둥이 이른 시기에 개전의지를 보였고 개전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마오쩌둥은 외신을 통해서 6·25개전 상황을 알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저자는, 1994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전쟁 관련 자료 216건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들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관련 사료들이 1994년 러시아 정부는

1949년에서 1953년간의 한반도에 관한 비밀문서들에 대해 비밀해제를 하였으며, 이들은 러시아 수상관저 내의 문서보관소와 대외정책 문서보관소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관련 사료와 연구물들이 공개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학자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는 개인자격으로 러시아문서 보관소에서 전문적으로 6·25전쟁 관련자료 수집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여 미국국가안전문서보관소에 비치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주관 윌슨국제학자연구회지(紙)에 발표한 내용이 있다. 1997년에는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와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의 한국컬렉션 폰드가 러시아에서 해제되자 국사편찬연구소는 2006년도에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의 제목으로 이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6·25전쟁에 관한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션즈화가 자신이 수집한 600여건에 달하는 러시아 문서를 2003년에 중국어판으로 발간한 자료들이 학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되어질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반영되거나 또는 논리적 전개에 부정적일 때는 제거될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다. 예를 들어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와 관련된 두 개의 상이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중국 당안(檔案)의 『마오쩌둥 군사문선』 제6권, 군사과학출판사 · 중앙문헌출판사, 1993년, 106~108쪽 에는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 한다는 내용과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1995년 미국국가안전보관소에서 공개된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고에서의 자료는 몇가지 상황을 열거하면서 파병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의 글에서도 1950년 2월 22일 스탈린이 쉬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에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중국 동지들에게도 발설해서는 않 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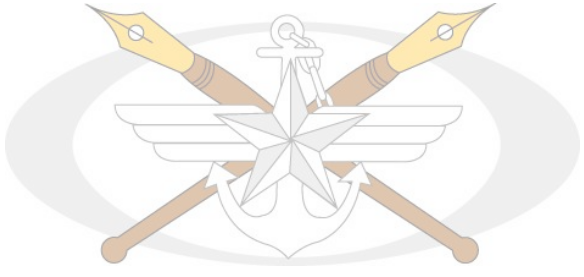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아쉬운 대목이다. 저자 본인이 서문에서 밝혔듯 6·25전쟁의 중공군 개입을 재조사하고 재서술하려는 노력에서 공산권으로부터 새롭게 공개된 문서들을 분석하려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모델 같은 행태주의적 접근과 이론을 의도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과, 마오쩌둥의 6·25전쟁 개입목적을 조사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객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마오쩌둥의 위치로 놓는 감정이입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면에 있어서 저자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범위와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면은 독자로 하여금 관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다운 접근이지만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볼 때 한계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데이빗 쑤이의 『중국의 6·25전쟁 참전』은 학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의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노력은 우선 각각의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자료와 관련 인물들의 일기와 서신, 회고록,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이후 대중에게 재공개된 당시의 신문과 잡지, 중국 내의 공식적인 출판물, 중국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된 '2차자료'에 수록된 인터뷰의 발췌 등 실로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에 각주를 붙이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창설된 1921년부터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194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에 대한 모스크바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방대한 자료를 인용해 재구성함으로써 마오쩌둥이 얼마나 스탈린에게 의존해야했는지를 밝히는 한편, 중국 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경제력 건설에 있어서 자주적 노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도 있다. 저자는 또한 많은 부분을 당시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했거나 지켜 본 다수의 인사들을 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터뷰하여 부족한 부분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심혈을 기울인 면이 역력하다. 특히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에 걸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동에 중국 통역으로 참석한 스져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성을 제고시키려 했던 점은 논리 전개가 어려웠던 부분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의 배경과 역할을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고 보이며, 향후 역사의 진실성 추구에 정반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

- 일시/장소 : '17. 1. 24(화) /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 참석인원 : 150명(국방부, 연구소, 군 및 일반 군사사연구자 등)
- 진행

14:00~14:10	개 회 사
14:10~14:20	○ 공적확인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 온창일 위원장(육사 명예교수)
14:20~15:00	○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보고 - 김광수 위원(한국군사사학회 회장) - 이현수 위원(前 육사 교수부장)
15:00~17:00	○ 질의 및 응답 - 사회 : 신복룡(건국대 석좌교수)
17:00	폐 회 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연구소 자문위원 자문회의

- 일시/장소 : '16. 12. 15(목)/연구소
- 참석인원 : 5명(홍성표 교수, 김용달 교수, 정용욱 교수, 이근욱 교수, 이완범 교수)
- 내용 : 환담, 국민의례, 연구소 업무보고, 연구소 발전 자문 등

○ 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 간 MOU 체결 : '16. 12. 16(금)/연구소

○ 주요 회의 및 행사

'16년 성과분석 및 '17년 사업계획 회의	'16년 종무식	'17년 시무식
'16. 12. 20(화)	'16. 12. 30(금)	'17. 1. 2(월)

○ '17년 중앙보안감사 수검 : 2. 13(월)~2. 15(수) / 국방부 검열관 5명

○ 군사지에 서평 게재 : 군사지 102호부터 시행

- 게재편수 / 분량 : 2편 내외 / 원고지 50매 내외
- 원고료 : 원고지 1매당 6,000원(최대 30만원)

○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정 / 장소 : 매 분기말(3·6·9·12월) / 연구소 회의실
- 진행 : 논문발표(2~3편), 지정/자유토론, 오찬

  ※ 논문발표 희망자는 사전에 군사지 편집간사에게 연락
- 발표료/토론료 : 예산 범위내(15~20만원)

2. 인사이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임용 및 전입

- 윤영휘(신규임용) : '17. 1. 1,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 이홍주(전입) : '16. 12. 30, 국제분쟁사부 부장

○ 퇴직

- 서상문(전쟁사부 책임연구원) : '16. 12. 12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우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 박동찬 (전쟁사부) • 신국판 • 2016. 11. 15. 	본 책은 그동안 우리 연구소가 축적해 온 '6·25전쟁사'연구의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사실을 일부 보완한여 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방대한 분량의 6·25전쟁사를 한권으로 정리함으로써 6·25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군 장병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국내·외 전쟁사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 입문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군사사상 연구 • 백기인 (전쟁사부) • 신국판 • 2016. 12. 2. 	본 책은 고대에서부터 1876년 개항 이전 조선시대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사상의 표현 형태라 할 수 있는 전쟁·군사 담론, 군제와 작전술, 동원과 훈련법, 무기체계는 물론 관방(關防)이라고 일컫는 각종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군사문제에 내재한 선현들의 정신과 지혜를 집중 조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책이 군사사상 개념을 비롯하여 역사적 실상과, 현대군사상의 정립방향 등 여러 쟁점을 해결하는데 그 해답을 찾는데 일조하고 관련 연구를 심화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내 용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활동 • 이기훈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6. 12. 18. 	본 책은 현재까지 국방대 평화활동센터와 합참 및 각 군 본부에서 발간했던 국군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대별 파병활동의 성과 및 교훈집과 단행본, 화보집을 총괄적으로 집약한 공간사입니다. 그동안 '파병사(派兵史)'라는 제목으로 단순한 국군의 파병활동 위주의 사실만을 수록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게 된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정책결정에 대해 올바르게 규명하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파병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 이상호 (전쟁사부) • 신국판 • 2016. 12. 20. 	본 책은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적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공식 전사에서 밝히고 있듯 사전에 인천상륙작전을 예견하고 대비했었는지를 군사 사료를 토대로 정리함으로써 이 작전의 의의를 폄훼하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작전의 성과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은 연구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전쟁사와 국방정책』 3호로 발간하여 군사사 연구와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구 분	내 용
국방정책변천사 (1988~2003) • 이미숙 (국방사부) • 신국판 • 2016. 12. 26. 	본 책은『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이하 제1집)에 이어 21년 만에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역사서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기간 동안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해온 국방정책 변천의 역사를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말처럼 옛것을 토대로 새로운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발전에 기여를 하고, 현대 국방의 역사와 국방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1917~1948) • 심헌용 (군사사부) • 신국판 • 2016. 12. 28. 	본 책은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을 시기별로 조망한 것입니다. 강대국 간 국제질서 구상에 한민족이 받아들이기만 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신탁통치론은 한민족의 강력한 저항 속에 무산되었고 '한국문제'란 의제로 유엔에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결코 강대국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역량을 보여주었음은 우리에게 귀감입니다. 모쪼록 이 책이 혁명과 식민 그리고 전쟁과 광복이란 '역사의 험로'를 묵묵히 걸어오면서, 마침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충정을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논문」,『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00에 관한 연구」,『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군사편찬연구소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정정모)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

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9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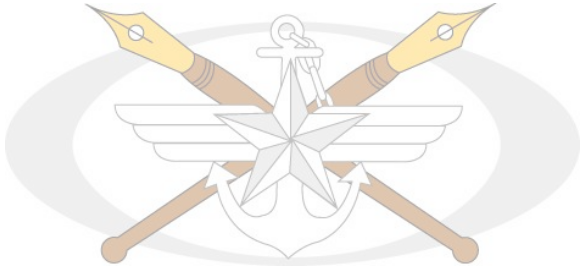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군사지 제87호에 게재된 '난중일기를 통해본 이순신의 척자점에 관한 연구' 논문이 '교감완역 난중일기(민음사, 2010)'를 인용함에 있어 본문 첫페이지에 위 번역본을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으나 12개 분야에서 개별적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표절)으로 형사처벌(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진정을 받아 연구소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와 심의를 한 결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한국연구재단, 국회도서관, 연구소 등에 통보하여 등록된 해당논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간 군사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하였으며, 이 사항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른 연구결과를 인용할 시 개별적 인용사항에도 출처를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문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자정노력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용달(독립기념관)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재범(경기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편집간사
정정모(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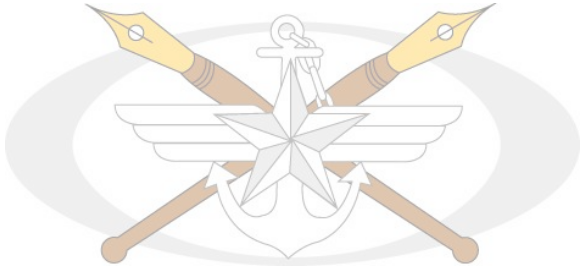
軍 史 2017/3(第102號)

2017년 3월 9일 印刷
2017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_M17020164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硏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OPEN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ilitary History Vol. 102. 2017. 3

Choe, Ji-Eun — Russian Women Partaking in the Military field during World War I: Individual Women Soldiers and the First Women's Battalion of Death

Shin, Kyeong-Eun
Um, Jung-Sik — The Study for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Dyna-Soar Project approved by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hat pursued the peaceful use policy of Space

Kim Sang-Bum — A Study on North Korea's Propaganda Office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Operations and the System for Business -

Kim, Seon-Ho — The Formation of the North Korea-China's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the Border of 'Revolution' after the Liberation
- Focusing on North Korea's Assistance to the Chinese Civil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 -

Seok, Hua-Jeong — Surrounding Great Power's Policies on the 'Independent issue of Corea' with Relation to the Sino-Japanese War

Kim, Kyeong-Lok — The Governing Liaodong(遼東經略) of M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Ming in the Hong-wu, the Founder of Ming, period

Shin, Seong-Jae — Yoo Kum-Pil whose posthumous name was Chungjeolgong, Great Commander of the Koryo Dynasty

Jung, Dong-Min — A Recent Chinese Academic Research on the War History of Goguryo

Harold E. Raugh, Jr. — MacArthur's Korean War Generals
- Taaffe, Stephen R.『*MacArthur's Korean War Generals*』(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

Kim, Seon-Ho — The Original Roots of the Cold war and the formation of Rok Army
- Park, Dongchan,『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the Hanyang University Press(seoul), 2016) -

Choi, Yoon-Cheol — Review of Mao Zedong's Role in the Korean War
- David Tsui,『*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the Dawa Press(seoul), 2016)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mnd